



# 2014년 통합과 소통의 국어정책 개발





# 제 출 문

##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2014년 통합과 소통의 국어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연구 책임자: 이삼형(한양대학교)

연구 기관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연구 책임자    이삼형

공동 연구원    남기탁, 박창원, 강남욱

연구 보조원    김지혜

연구 협력 기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문 초록〉

# 2014년 통합과 소통을 위한 국어정책 개발

본 연구는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국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 소통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어의 재정립을 위한 국어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에 학계를 비롯한 민간부문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 및 국내 어문학술단체의 제언과 협력을 통해 통합과 소통의 국어정책 개발을 위한 포럼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포럼 개최

‘국어 문화의 지역적 다양성을 위한 정책적 검토’,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중언어 정책’,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학의 세계화 전략’ 등 국어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현안을 다루는 주제로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각 권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는 학회가 주최하는 총 3회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 (2) 학술대회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소속 학회 간 회의를 거쳐 분야별(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전국학술대회를 1회 개최하였다.

### (3) 결론 및 제언

통합과 소통을 위한 국어정책은 언어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범국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실천되어야 하며, 언어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유일한 국가기관인 국립국어원은 이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어: 문화융성, 국어정책, 지역 활성화, 다중언어 정책, 한국어의 세계화

〈abstract〉

##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Policy for the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The object of this study shall be to open the linguistic forum and con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Policy for the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 (1) forum

The linguistic forum was held three times at Honam, Young-nam, Jungbu areas for the direction of writing model, for Policy Review for 'the regional diversity of Korean culture, and for the Multi lingual policy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for the Globalization Strategy of Korean literature and Korean Education.

### (2) conference

The con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Policy aimed at the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of Korean people was held at the national hangeul museum. This conference was very successful and the participant expected the same conference would be held regularly every year.

### (3) conclusion and proposition

Korean Language Policy for the Understanding and Unification should be established concretely and put in practice continuously. The only national language institute, National Korean Language Institute, must established the master plan and execute the plan wholistically.

key word : the culture prosperity. Korean Language Policy. the regional diversity. the Multi lingual policy. Globalization strateg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 목 차

## 제1부 서론

1. 현 상황 .....	3
2. 연구 목표 및 과제 .....	4

## 제2부 포럼

### 1. 제1차 포럼

가. 일정 .....	7
나. 발표 내용 .....	8
1)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에 대한 국어 정책적 접근 / 김정태(충남대) .....	8
2) 제주의 자연지명, 무엇이 문제인가? — 기존 지명 제정 법·정책과 관련하여 / 오창명(제주대) .....	19
3) 도로명 주소, 무엇이 문제인가 / 손희하(전남대) .....	34

### 2. 제2차 포럼

가. 일정 .....	43
나. 발표 내용 .....	44
1)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 / 원진숙 (서울교대) .....	44
2) 다중 언어 정책의 필요성과 문화 다양성 / 강휘원(평택대) .....	57
3)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위상 / 권순희(이화여대) .....	78

### 3. 제3차 포럼

가. 일정 .....	88
나. 발표 내용 .....	89
1) 새로운 세계화 시대의 공생공영의 (한)국어 교육 / 김건희(서원대학교 국어교육과) .....	89
2) 한국어 습득 연구의 세계화 방안 / 권성미(부경대) .....	106
3) 한국어교육학의 경계와 지평 탐색 / 최영환(경인교육대학교) .....	121
4) 소통과 통합을 통한 한국어학의 세계화 / 김상태(청주대) .....	139

## 제3부 학술 대회

1. 행사 개요 .....	153
가. 일정 및 장소 .....	153
나. 목차 .....	153
2. 발표 내용 .....	154
가. 기조강연 .....	154
1) 주시경 정신과 근대 어문 개선 운동 / 송철의(서울대) .....	154
2) 언어생태학적 위기와 언어문화개선 / 우한용(서울대 명예교수) .....	166
나. 제1분과 .....	180
1)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이론적 배경 / 황화상(서강대) .....	180
2)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현황과 실천 방안 / 최혜원(국립국어원) .....	184
3)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사 / 이정복(대구대) .....	191
4) 우리말 다듬기와 21세기 언어문화개선 운동 / 박덕유(인하대) .....	196

<b>다. 제2분과</b> .....	203
1) 고전 읽기와 문명 읽기 / 김석희(인하대) .....	203
2) 고전소설의 국어문화적 위상 / 서인석(영남대) .....	204
3) 풍수와 역(易)의 관점에서 본 현대의 환경시(詩) / 송희복(진주교대) .....	210
4) 한국 현대소설과 생태학 / 임명진(전북대) .....	218
<b>라. 제3분과</b> .....	227
1) 한국어의 언어 습득 환경 개선 전략 / 허용(한국외대) .....	227
2)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어언어문화 교육의 정책적 과제 / 최정순(배재대) ....	239
3) 국어 문화의 실태와 국어교육의 대응 모색 / 이관규(고려대) .....	250
4)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의 언어문화 교육의 가치와 발전적 계승 / 조희정(조선대) ...	257
<b>마. 특별기고</b> .....	269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과 그 사랑 이어가기 / 권재일(서울대) .....	269

## 제4부      결    론

1. 지명(도로명) 제정과 고시 등의 정책 수립 .....	281
2.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언어 정책 수립 .....	281
3.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학의 세계화 정책 수립 .....	284
4.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 한국어학 개최 제안 ....	285
5. 어문개선운동에 대한 정책 검토 .....	286
6. 어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 .....	286



## **제5부      정책 제안**

<b>1. 국어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국어원의 위상 정립</b> .....	291
1.1. 국립국어원의 현 위상과 중점과제 .....	291
1.2. 국어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국립국어원의 현황 분석 .....	292
<b>2. 통합과 소통을 위한 국어 정책 개발의 기초</b> .....	295
2.1. 한국어 생태에 대한 자각을 기초로 한 현실 분석 .....	295
2.2. 목표 재설정과 핵심 중점과제 설정 .....	301



# 제1부

## 서론



국립국어원



## 1. 현 상황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국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합과 소통의 측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어어문화와 관련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어 환경의 변화로 인한 한국어어문화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다루기에 앞서 한국어어문화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에 언어적·문화적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역어와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둘째,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 힘입어 한국어교육의 위상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전략적으로 세계화에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다.

셋째, 국가 간 인구 이동이 늘어나면서 한국도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자 등이 급증하며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지만 다중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넷째, 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면서 비속어와 외국어, 선정적인 언어를 남용하여 언어 환경의 생태학적 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다음과 같은 목표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목표 및 과제

- 1)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지역 간 언어문화융성의 일환으로 지역어와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지명은 지역민들의 생각과 생활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전래하는 자연지명은 토박이 집단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고유문화를 잘 담고 있는 지명학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반영한 지명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과제로 삼는다.
- 2)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급증하는 이들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목표로 하여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다른 여러 나라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 현황과 현재까지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는 것을 과제로 한다.
- 3) 이제 소위 ‘세계 주요 언어’가 된 한국어와 한국어교육학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문화 언어 교육과 글로벌 한국어 교사 양성 교육, 학술지의 세계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4) 현재 한국언어문화의 실태를 살펴보고 남용되고 있는 비속어와 외국어, 선정적인 언어 등의 사용을 순화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뿐만이 아닌 일반인 차원에서의 국어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과 올바른 언어문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대학 사회의 관심을 창출하면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도에 3회의 포럼과 1회의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제2부

## 포럼

### 1. 제1차 포럼

- 가. 일정
- 나. 발표 내용

### 2. 제2차 포럼

- 가. 일정
- 나. 발표 내용

### 3. 제3차 포럼

- 가. 일정
- 나. 발표 내용





## 1. 제1차 포럼

### 가. 일정

- ▶ 주제 : 국어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적 검토-지명에 드러난 지역어와 지역 문화
- ▶ 주최 : 국립국어원 ·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 ▶ 주관 : 한국지명학회 ·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 ▶ 후원 : 전남대학교
- ▶ 일시 : 2014년 6월 13일(금) 14:00~17:10
- ▶ 장소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 시청각실
- ▶ 포럼 일정

시 간		내 용
14:00~14:30	등록 및 접수	
개회식		○ 사회 : 조재형(전남대)
14:30~15:00	개회사	· 손희하(한국지명학회장)
	축 사	· 민현식(국립국어원장)
	축 사	· 이삼형(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대표)
발 표		○ 사회 : 조재형(전남대)
15:00~15:30		■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에 대한 국어 정책적 접근 · 발표 : 김정태(충남대)
15:30~16:00		■ 제주의 자연지명, 무엇이 문제인가: 기존 정책 제정법 정책과 관련하여 · 발표 : 오창명(제주대)
16:00~16:30		■ 도로명 주소, 무엇이 문제인가 · 발표 : 손희하(전남대)
16:30~16:40		휴식
종합토론		○ 사회 : 조재형(전남대)
16:40~17:10	토론회	김무림(강릉원주대), 손용택(한국학중앙연구원), 이상규(경북대), 정재영(한국기술교육대)
17:10~	폐회, 간담회	

## 나. 발표 내용

### 1)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에 대한 국어 정책적 접근 / 김정태(충남대)

#### 목 차

1. 서론
2. 지명과 지역어
3. 지명과 지역 문화
4. 결론

#### 1. 서론

일찍이 최현배(1966)에서는 지명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우리의 역사·지리·풍속·제도 등 문화 생활의 연구에 도움될 것이요
- 우리의 옛말·말소리의 변천·말의 꼴과 뜻의 변천·배달말의 계통들 언어 과학적 연구에 도움될 것이요
- 배달 거래의 성립 및 이동에 관한 연구에 무슨 기틀을 줄 수 있을 것이요
- 우리와 이웃 거래와의 거래스런, 문화스런 관계의 천명에 필요한 자료를 대어줄 것이요
- 뒷날에 우리나라의 땅이름을 순 우리말로 되살리는 경우에는, 크게 소용될 것이다.

(한글학회(1966) 「한국지명총람 I」 (서울편) 머리말)

지명이 언어로서의 연구 대상에 머물지 않고 해당 지역민들의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대상도 되어 준다. 즉 학문의 여러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무형의 고고학적 자료’(도수희 1994:8)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명은 종합 학문이다.<sup>1)</sup>

지금까지 우리는 전래하는 지명을 우리 문화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지역중심주의(Localism)의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본고도 그 연장선상에서 대전 지역의 고유 문화로서 지명에 담긴 지역어와 지역문화의 특징적이고 이질적인 면을 찾고자 한다.<sup>2)</sup> 즉 전래지명에 담겨 있는 언어로서의 지역어와 생활로서의 지역 문화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일차적으로 지명은 언어의 형태(구

1) 본고에서 ‘종합’이란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지명 연구의 목적이 지명의 특징을 구명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목적을 위해 지명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별적 접근 가능성으로서의 ‘종합’적인 경우도 있고, 또한 지명에 대한 입체적인, 융·복합적 연구 가능성으로서의 ‘종합’ 학문이다. 근래 지명 연구는 전자에서의 방법이 대세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 이러한 논의는 잠정적으로 지명 문화의 글로컬리즘(Glocalism)을 추구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대전과 우리나라의 지명 문화를 동질화하고, 나아가 다른 나라의 지명 문화와도 동질화하면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지명 문화와 전통을 세계화하여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 문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언어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였을 것으로 본다. 또한 지역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적 문화(특화된)도 전래하는 지명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의 대상이 되는 지명은 ‘대전 지역’의 전래지명이다. 주로 이 지명어와 지역어<sup>3)</sup>와의 대비에서 같은 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나아가 그 차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지명에 지역어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전의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징(기준)을 설정하여 지명에 반영된 구체적인 지역 문화도 발견하여 목적 달성을 도모코자 한다.

## 2. 지명과 지역어

2.1. 일반적으로 지명어는 지역어(방언)를 반영하고 있을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지명어와 지역어는 동일 공간에서 토박이들과 공존해 왔고, 현재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명과 지역어는 ‘보수성’ 등 공통의 특징들에 주목하여 왔다.

지명이 지역어보다 사용빈도가 높다거나 이들의 언어 단위에 있어서 다르다는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지명과 지역어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적기도 하였거니와 지명어를 지역어의 일부로 보는 시각에 묻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지명의 지명소와 지역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지명에 지역어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명어는 ‘전부+후부’ 지명소의 구성이다. 전부지명소는 지명의 생성 정보 등을 주로 담고 있고, 후부지명소는 지명의 유형을 알려 준다.

### 2.2. 먼저 전부지명소와 지역어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 (1) 질마바우(鞍岩) [바위] (유성-화암)      지폰댕이들[들] (유성-성북)
- 상나무골[마을] (유성-상대)
- 생교말~생저말~향교말~행교말~행저골~교촌(校村) [마을] (유성-교촌)
- 산제당골~산지당골[골] (유성-세동)      땀띠기샘~삼[샘] (유성-계산)
- 서낭당이~서낭댕이[골] (유성-세동)

3) 본고의 언어 자료는 행정 구역 상 대전광역시의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대전시 유성구의 언어이다. ‘방언’이란 용어와 구별하기 위해 ‘지역어’란 용어를 쓴 것이 아니다. 편의상 대전지역의 언어를 ‘지역어’로 부른 것뿐이다.

본고의 자료는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면대면 조사에 의해 채록한 것이다.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 박은배(남, 78),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새터마을)

아울러 2014년 5월 21일 몇몇 어휘에 대해 재답사를 실시하였다.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 김창선(남, 70) 유성구 계산동
- 유만선(남, 76) 유성구 구암동

베락수[폭포] (유성-신성) 삼계(三溪) > 생계[마을] (유성-어은)

(1)의 전부지명소에는 많은 음운현상을 반영한 지명소들이 있다. ‘길마→질마, 향나무→상나무, 산제당→산지당, 서낭당이→서낭대이, 벼락→벼락, 삼계→생계’ 등이 보인다. 소위 ㄱ, ㅎ-구개음화, 모음상승, 움라우트,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조음위치동화 현상들이다. 이들은 중부방언의 대표적인 음운현상이요, 이 지역어의 음운현상으로도 나타난다.

(2) ㄱ. 바깥뽕골, 안뽕골[들] (유성-돈곡)

까치모랭이[모롱이] (유성-덕명)

ㄴ. 뽕산날(밤) [산] (유성-방동) 뽕남쌈거리(삼) [거리] (유성-대정)

치마바우~치매바우[바위] (유성-대정)

모가나무골~모개나무골[마을] (유성-대정)

여수바우(狐岩) [바위] (유성-신성) 여수박골[골] (유성-북용)

구수고개[고개] (유성-어은) 구수마루[들] (유성-교촌)

도치부랭이~도치부렁이[거리] (유성-대정)

아울러 (2ㄱ)의 ‘바깥, 안, 까치’ 등은 중부방언과 같이 하는 이 지역어의 실현이며, (2ㄴ)은 특징적인 지역어를 반영한 어휘들이다. 즉, ‘뽕, 쌈’에 대한 ‘뽕, 삼’, ‘치마, 모과’에 대한 ‘치매, 모개’ 등은 이 지역어의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우, 구유, 도끼’에 대한 이 지역어가 ‘여수~여우, 구수, 도끼~도치’로 사용되는데, ‘여수, 구수’는 ‘여우, 구유’의 이전형태이며, ‘도치(<도치)’는 중세국어에서 ‘도끼(<돛귀)’와 쌍형어를 이루고 일부 지역어에만 남아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지명어에서 의미 있는 지역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명어는 지역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명에 사용된 언어로서 별도의 변이과정을 보이기도 하고, 지역어와 달리 지명어는 단어라는 언어 단위에 국한되어 사용된다는 제약, 지역어보다 보수적이라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3)에서 ‘부영이, 거북이, 뽕북이’의 지역어는 ‘뽕이, 거부기, 뽕뽕기’인데, 전부지명소에서 ‘뽕, 거북, 뽕북’처럼 축약 또는 탈락형을 보여준 경우이다. 그리고 ‘참나무, 감나무, 뽕나무’도 지명어에서 말모임 탈락형 ‘남(<나무)’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어에서 발견되지 않는 형태이다. 그런데 ‘나무’에 대한 ‘남’의 실현이 후부지명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전부지명소에서만 나타나기에, 지명어의 구조적인 제약에 기인하는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구석’도 이 지역에서는 ‘구석~구텅이’로 실현되는데, 지명어에서는 ‘ㅅ’ 음운사와 관련된 ‘구역~꺽’의 형태가 지명에 나타나고 있다.<sup>4)</sup> 즉 전부지명소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축약 및 탈락의 결과로 지역어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sup>5)</sup>

4) 역사적으로 ‘구석’은 ‘ㅅ’의 음운사와 관련없는 어휘이다. 유추에 의한 변이형인지 후대인의 어원풀이인지 더 고구되어야 할 지명소이다.

5) 지명어의 축약 및 탈락 현상에 대해서는 김정태(2008) 참조

- (3) 뽕바위~부엌바위~봉암(鳳岩) [바위] (유성-봉산) 뽕데미[산] (유성-안산)  
 거북바위~바우[바위] (유성-송정)  
 뜸부기삼(샘)~뜸복삼(샘) [샘] (유성-지족)  
 참남배기~참몸배기[마을] (유성-원신흥) 감남골[골/마을] (유성-전민)  
 팽남샘(삼) [샘] (유성-대정) 팽남샘거리(삼) [거리] (유성-대정)  
 cf. 팽나무거리[거리] (유성-방동) 상나무골[마을] (유성-상대)  
 동구나무/정자나무 [나무] (유성-계산)  
 꺾말[마을] (유성-대정) 구억들~꺾들[마을] (유성-세동)

(4)도 이 지역어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전부지명소들이다. (4ㄱ)의 ‘불무(治), 괴(猫)’는 이 지역에서 ‘풀무, 팡이~고양이’로 실현된다. 역사적으로 ‘불무>풀무, 괴(<고니)+양이>고양이’와 같은 발달과정을 고려한다면, 전부지명소의 ‘불무, 괴’는 고어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大, 多, 廣), 밀(<미르, 龍), 잣(城), 징계(<증계, 樹)’ 등은 소멸된 어휘들이고, ‘달(山, 高), 다락(달+악)’ 등은 고대어 형태소이다.

이와 같이 (4)의 전부지명소는 이 지역어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어휘들이다. 다만, ‘한-’만 화석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지명어가 고대의 언어 사실을 더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요, 국어의 사적인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농기구 ‘호미’에 대한 이 지역어는 ‘호맹이~호미’이다. (5)의 ‘호무’는 대체로 전라지역의 방언형인데, 이 지역의 지명에서 발견되는 한 예가 특이하다.

- (4) ㄱ. 불무산[산] (유성-금고) 불뭇골[골] (유성-금탄, 유성-북용)  
 괴바위(우)~계바위(우)~묘암(貓岩) [바위] (유성-송정)  
 ㄴ. 한우물~대정리(大井里) [마을] (유성-대정)  
 밀머리~용계(龍溪) [마을] (유성-용계)  
 잣뒤~성북(城北) [마을] (유성-성북)  
 징계골~쟁계골~쟁기골[골] (유성-방동)  
 달봉~월봉(月峰) [산] (유성-학하) 다락골[골] (유성-방동)  
 (5) 호미다리~호무다리[들] (유성-장대)

이와 같이 전부지명소는 후부지명소와 수식의 관계에서 지명의 유래 등 제 정보를 알려 주는 많은 어휘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이 지역어를 담고 있으면서, 지역어보다 더 보수적인 언어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3. 다음으로 후부지명소와 지명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지명에서 후부지명소는 지명의 갈래로서 ‘마을(洞, 村)’인지, ‘골(谷)’인지, ‘내(川)’인지 등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지명의 유형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에 사용된 어휘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sup>6)</sup>

오늘날 이 지역어는 ‘洞, 村’에 대해 ‘마을, 동네’가 사용된다. 애초에 ‘마을(<마슬), 고을’이 쓰였을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지명에 ‘-마을, -고을’이 사용된 것이고, 여기에서 축약현상이 나타나 (6ㄱ, ㄴ)처럼 ‘-말, -골’이 실현된 것이다. 아울러 후대에 형성된 마을은 지역어 ‘동네’를 반영하여 ‘-동네’ 지명어(6ㄷ)도 형성되었다. 반면 지역어는 ‘마을, 고을’이 쓰이다가 ‘동네’가 등장하면서 ‘고을’이 없어지고, 지금은 ‘마을’의 사용빈도도 줄어들었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마실 나간다’ 등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지명어가 지역어를 반영하였으되, 지역어의 옛 형태를 반영하여 간직하고 있는 것이요, 보수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세 이래 ‘ㄹ’과 ‘y’ 아래에서 실현된 ‘ㄱ’ 탈락형도 지명은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후부지명소와 지역어는 공시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6) ㄱ. 작골~작곡(鵲谷) [마을] (유성-안산) 상나무골 [마을] (유성-상대)  
 ㄴ. 선창말 [마을] (유성-도룡) 새말~신촌(新村) [마을] (유성-어은)  
 ㄷ. 새울 [마을] (유성-신봉) 배울 [마을] (유성-관평)  
 ㄹ. 새동네 [마을] (유성-궁동)<sup>7)</sup> 담너머동네 [마을] (유성-원촌)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을 이 지역에서는 ‘골짜기’라 한다. 그런데 지명의 갈래로서 이 골짜기가 후부지명소로 쓰일 때는 단음절의 ‘골’만 쓰이고 있다.(7ㄱ) 또한 고대 형태소로서 한계어의 ‘실(谷)’이 이 지역의 지명어에서 발견되고 있다.(7ㄴ)

반면 (8)의 ‘고개’에 대해서도 지역어로는 ‘고개’이지만, 후부지명소에는 ‘고개’뿐만 아니라 고어의 화석으로 ‘재’와 ‘티’도 발견된다.

- (7) ㄱ. 절덧골 [골] (유성-장동) 불당골 [골] (유성-대정)  
 절골(寺谷) [골] (유성-성북)  
 ㄴ. 공사실 [골] (유성-지족) 소라실 [골] (유성-지족) 오리실 [골] (유성-계산)  
 (8) ㄱ. 가물고개 [고개] (유성-갑동) 동산고개 [고개] (유성-송강)  
 ㄴ. 덕진재 [고개] (유성-둔곡) 이랭이재~아라재 [고개] (유성-대정)  
 ㄷ. 왕재~왕티(王峙) [산] (유성-반석) 대곡티(大谷峙) [고개] (유성-덕진)

한국방언자료집 IV(충청남도 편 1990)에 제시된 이 지역어의 ‘도랑-개울-내’는 ‘포랑-개울-내’이다. 그러나 필자의 최근의 답사에서는 ‘내(川)’ 대신 ‘냇물’만 제보 받았다. 따라서 (9ㄱ)은 ‘포랑’과 ‘내’라는 이 지역어를 후부지명소가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냇물’은 지명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한자어화에 의한 ‘천(川)’이 후부지명소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후부지명소도 지역어를 반영하였으되, 변이된 지역어까지는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6) 성희제(2010)에서 38개를 전래지명의 후부지명소로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38개의 한정된 어휘가 후부지명소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 대표적인 후부지명소에 국한된 논의임을 밝혀 둔다.

7) ‘새동네’는 1970년대 후반에 형성된 마을이다.

있는 것이다.

- (9) ㄱ. 반진또랑[내] (유성-원신흥)  
     황새봇들내[내] (유성-상대) 작은내[내] (유성-원신흥) 명수(시)내[내] (유성-용계)  
     ㄴ. 진잠천(鎭岑川) [내] (유성-원내) 건천(乾川) [내] (유성-학하)

‘샘(泉)’과 ‘바위(岩)’에 대해 이 지역어는 ‘삼~샘’, ‘바우~바위’로 교체 실현되고 있다. 지명의 후부지명소에서도 이와 같은 실현을 확인할 수 있다. ‘샘’과 ‘바위’로의 교체가 지역어와 지명어에서 공히 발견되는데, 학습의 결과인지 더 고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 (10) 용삼[샘] (유성-둔곡) 고무삼~고무샘[샘] (유성-구암)  
     땀띠기샘~삼[샘] (유성-계산)  
     cf. 두레삼골[마을] (유성-용산)  
     (11) 아들바위~아들바우[바위] (유성-대정)  
     뽕바위~부엌바위)~봉암(鳳岩) [바위] (유성-봉산) 부엌바우[바위] (유성-도룡)

논이나 밭 언저리, 또는 냇가에 움푹 파여 물이 괴어 있는 곳을 웅덩이라 한다. 웅덩이에 대한 이 지역의 방언형으로는 ‘뚝병’과 ‘툼병’이 있다. (12ㄱ)에서는 ‘뚝병’이, (12ㄴ)에서는 ‘툼병’이 후부지명소로 쓰였는데, 지역어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어로는 ‘웅덩이’의 변이형인 ‘웅당이(<웅덩이<웅덩이)’가 있지만, 지명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12) ㄱ. 도깨비뚝병[뚝] (유성-구암) 웅뚝병[뚝] (유성-세동)  
     cf. 뚝병골[골] (유성-방동)  
     ㄴ. 물툼병(동안) [툼] (유성-자운)

지명어는 고착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결코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 있는 언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어와의 대비의 어려움이 있다. 후부지명소도 예외는 아니다. 이 후부지명소는 보수적인 어휘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어휘도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지역어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실(谷), 울(<골, 洞), 티(峙), 재(峴)’ 등 고어 형태를 더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결국 지명은 지역어를 반영하고 있어 지역어와 같은 가치를 부여해도 무관할 듯하다. 아울러 지역어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지명소들은 지명어의 특징이 된다.

### 3. 지명과 지역 문화

전래하는 지명은 오랫동안 지역민들과 함께 해 왔다. 따라서 지명에 지역민들의 생각과 생활이 담겨 있을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테면, 다양한 생각과 생활을 대상물에 담아냈을 것이다. 소위 지역 문화의 반영이다.

- 피아골의 산물
- 당진<sup>8)</sup>의 역사
- 잣뒤의 유적

#### <지역 문화> : 지역성 반영

1) 종교 문화 : 주민의 생활사와 함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절실하게 형성 전개되었다.

첫째, 원시적, 토착적 민간 신앙의 반영이다. 즉 샤머니즘적 신앙과 같은 민중 의식이 지명으로 연결된 경우이다. 장승, 성황당(고개마루나 산밑 길가 정자나무에 기댐), 돌탑, 제단, 기도터 등에서 제를 올리고, 가정과 마을의 안녕 풍요를 기원한다. (13ㄱ)처럼 ‘산제당’이 있고 정월 초 산신제를 올린다. 이와 같은 전통 신앙이 반영된 ‘당산’이라는 모지명(母地名)은 ‘당산방죽, 당산뒷고라실’과 같은 자지명(子地名)으로도 외연을 확대한다. (13ㄴ)처럼 서낭당도 있고, (13ㄷ)처럼 기자신앙(祈子信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기자 신앙은 지역민 삶의 근원 문제이다. 그들의 관념이 지명에 투영된 것이다.

- (13) ㄱ. 산제골(山祭-) [마을] (유성-구암)      산제당(山祭堂) [제당] (유성-덕명)  
          산제당골(산지당골) [골] (유성-대정)      산제당(산지당) [제당] (유성-용계)  
          산제당골 [골] (유성-성북)      산제당골~산지당골 [골] (유성-세동)  
          당산(堂山) [山/마을] (유성-북용)  
          cf. 당산방죽 [못] (유성-북용)      당산뒷고라실 [들] (유성-북용)  
          당산말 [마을] (유성-대정)      당산앞들 [들] (유성-대정)  
      ㄴ. 서낭당이~서낭당이 [골] (유성-세동)      서낭당 [마을] (유성-문지)  
      ㄷ. 칠성바위 [바위] (유성-교촌)      아들바위 (바우) [바위] (유성-대정)

#### 둘째, 명당 신앙의 반영(풍수지리)

- (14) 초숫골 [마을] (유성-하기)<sup>9)</sup>      장고개(長峴, 노루고개) [마을] (유성-궁동)<sup>10)</sup>  
          도독골 [골] (유성-대정)

8) 백제 벌수지현(伐首只縣)을 신라 경덕왕 16년에 당진현(唐津縣)으로 개칭한 것이다. 당나라와 통하는 항구(나루)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9) 북쪽에 玉免望月形의 명당이 있다.

10) 幼獐顧母形의 명당이 있다.



셋째, 외래 신앙 : 전통적 민간 신앙과 습합되어 전개되는 형편이다.

- (15) 절터골[골](유성-장동)    염불고개[고개](유성-계산)  
 한절골(寒寺谷)[들](유성-교촌)    절골(굴골)[골](유성-덕명)  
 절터골[골](유성-지족)    불당골[골](유성-대정)    절터[골](유성-원내)  
 절골(寺谷)[골](유성-성북)    절터골[골](유성-전민)  
 불당재[고개](유성-세동)    불당재~불당산[산](유성-안산)

넷째, 수운교<sup>11)</sup> 관련 지명 (1927년 수운교주(水雲敎主) 이상룡(李相龍)이 세운 교인들의 마을)

- (16) 만선동(萬仙洞)[마을](유성-추목)    선인동(仙人洞)[마을](유성-추목)  
 자선동[마을](유성-추목)    천복동[마을](유성-추목)  
 천단(수운교 도술천)[유적](유성-추목)<sup>12)</sup>

종교(신앙)과 관련된 지명은 오랜 세월 집단 기억에 의해 형성, 전승된 것이므로 비교적 역사성을 갖춘 것이다.

## 2) 사상 문화 : 유교

유교문화의 유적(향교와 서원, 사우 등)으로도 남아 있는 것이다.

- (17) ㄱ. 향교골[마을](유성-덕진)  
 생교말~생저말~향교말~행교말~행저골(校村)[마을](유성-교촌)<sup>13)</sup>  
 행저골삼~샘[샘](유성-교촌)    하마비거리[거리](유성-교촌)<sup>14)</sup>  
 생교터(향교터)[터](유성-원촌)  
 ㄴ. 서당골[마을/골](유성-상대, 죽동)    서당골[골](유성-대정)  
 서당골~절골[골](유성-원신흥)  
 ㄷ. 서원말~선말~원촌(院村)[마을](유성-원촌)<sup>15)</sup>    서원산나루[나루](유성-원촌)

11) 수운교는 한말 이상룡(李象龍)이 창시한 신흥종교이다. 유(儒)·불(佛)·선(仙)의 무량대도(無量大道)를 현실세계에 널리 보급하여 사람을 지극히 섬기며, 영세의 행복을 누리고 덕(德)을 천하에 펼쳐 창생을 구제한다는 것을 교의(敎義)로 삼고 있다.

교인은 경천(敬天)·배불(拜佛)·주문(呪文)·청수(淸水)·공덕미(功德米)의 치성을 잘 지켜야 한다. 이상룡은 출가(出家)한 중으로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서 도를 깨닫고 각지를 순례하던 중 충청남도 청양군에 머물 때, 불교를 토대로 하고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를 부처의 후신이라 하여 그를 교조로 삼아 이 교를 세웠다.(두산 백과)

12) 대전문화재자료 제12호

13) 마을 뒤 진잠 향교가 있다.

14) 말에서 내렸던 거리, 이 뜻을 알리는 下馬碑가 있다.

15) 서생과 학사를 배출한 '崇賢書院'(회덕 일대 학문의 중심적 위치, 名賢을 모신 祠宇)이 있던 마을이다.

## 3) 인물/가문/집성

대전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주민이 거주하면서 다양한 문화유적과 함께 유구한 역사를 남긴 곳이다. 성씨와 인물이 형성되는 것은 조선시대이다. 대전지역에 입향하는 씨족들은 대체로 조선 초기에서 시작되어 15·16세기 활발하게 번창되어 이 지역의 토족으로 자리하고 향권을 주도하게 된다.

- (18) 홍산(洪山) [산] (유성-구암)<sup>16)</sup>    묵산(睦山) [산] (유성-북용)<sup>17)</sup>  
 설목(雪目) [마을] (유성-화암)<sup>18)</sup>    전촌 [마을] (유성-전민)  
 박산(朴山) [산] (유성-북용)<sup>19)</sup>    박산(朴山) [산] (유성-용계)  
 박산 [산] (유성-수남)    황촌(黃村) (계명촌) [마을] (유성-장대)<sup>20)</sup>

## 4) 유적 문화 : 대전시 둔산 지역 외 여러 곳에서 선사 유적이 발견되었다.

삼국시대 백제의 동쪽에 위치한 대전은 신라와 경계를 이루었다. 신라와의 전투가 잦았고, 그런 만큼 산성이 발달하였다.

- (19) ㄱ. 성북산성 : 삼국시대 석축산성  
 성문안 [골] (유성-성북)    성문이들 [들] (유성-성북)  
 성채 (산장이채) [고개] (유성-성북)    성채골 [골] (유성-성북)  
 잣뒤 (城北) [마을] (유성-성북)    아랫잣뒤 (디) (下城北) [마을] (유성-성북)  
 옷잣뒤 (디) (上城北) [마을] (유성-성북)  
 ㄴ. 안산동 산성 : 백제산성  
 성채 [산] (유성-안산)  
 작골 (鵲谷) [마을] (유성-안산)<sup>21)</sup>

## 5) 생업 문화 : 농업, 공업, 상업 생활 문화의 반영

- (20) 삼밭골 [마을] (유성-송강)<sup>22)</sup>    진밭산 [산] (유성-송정)    국논 [들] (유성-상대)  
 사기막골 (사그막골) [마을] (유성-계산)<sup>23)</sup>    사기정골 (사기장골) [골] (유성-계산)<sup>24)</sup>  
 옷골모랭이~옷골모통이 [마을] (유성-궁동)  
 점말 (店-) [마을] (유성-갑동)    유성장터 [터] (유성-장대)

16) 홍씨 문중의 산이다. 남양 홍씨가 대전에 처음 입향한 곳은 유성 반석동이다.(16세기 초)

17) 泗川 睦氏의 先塋이 있다.

18) '설목'이란 사람이 처음 살아서 마을이 되었다.

19) 高靈 朴氏 門中의 산이다.

20) 6,25때, 황해도 사람들이 피난와서 정착 형성된 마을이다.

21) 까치집 모양의 봉우리 셋이 있다.

22) '삼밭'이 있었다.

23) 고려시대의 사기소가 있었다.

24) 사기소가 있었고, 사기 팔던 장이 섰던 곳이다.

## 6) 행정 문화

(21) 향청(鄉廳)~상청[터](유성-원내)<sup>25)</sup> 향청재~상청재[고개](유성-원내)

진터벌[마을](유성-구암)<sup>26)</sup>

창말~창리(倉里)[마을](유성-구암)<sup>27)</sup>

궁말~궁리(宮里)[마을](유성-구암)<sup>28)</sup>

## 4. 결론

전래하는 자연지명은 토박이 집단에 의해서 형성된다. ‘마을, 골, 내’ 등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하기 위해 명칭 표준화에 준하는 ‘전부+후부’의 구성으로 정해져 후대로 전래하는 것이다. 이때 전래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의 언어와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래지명에는 토박이들의 지역어와 지역 문화가 담겨있는 것이다.

지역어의 반영은 전부지명소에서 생산적이다. 전부지명소는 지명 생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어휘의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정된 어휘가 사용되는 후부지명소에서도 지역어의 반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명어는 지역어와 달리 고어 형태나 사어가 화석으로 잔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어보다 더 고착적이고 보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문화는 지역 토박이들의 생각이나 행동, 생활양식이 전개되면서 형성된다. 이러한 지역 문화는 지역의 특징 문화로서 지명어에 반영된다. 이 지역의 문화도 지명어의 전부지명소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외래 종교에 대한 신념이나 해위 등이 지명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물이나 가문, 생업 문화, 유적 문화 등이 지명에 반영되어 문화로서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문화로서의 지명어의 가치이다.

따라서 지역어가 우리에게 풍부한 언어학적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자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지역어를 반영한 지명도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전래하는 지명 자료를 수집, 발굴, 정리, 보존, 활용하는 일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국어 문화유산으로서 소멸 위기의 지명을 발굴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기존의 자료가 정리되고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어야 한다. 나아가 음성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통합 DB로 구축되어야 한다.

25) 조선시대 진잠현(鎭岑縣)의 향청(鄉廳)이 있던 곳이다.

26) 조선 시대 왜군이 침입했을 때 군대가 진을 쳤던 곳이다.

27) 곡식 쌓아둔 창고가 있었다.

28) 유성현(儒城縣)이 있었던 중요한 마을이다.

<소결> 지명에 담긴 한국의 지역 문화와 전통을 세계화하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와 전통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글로컬리즘), 그렇다면 지명도 세계와 동질화하면서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 이질적인 면을 찾을 수 있는 문화 유산이다.

<활용> 문화콘텐츠화, 지역교육활용(초중등)<sup>29)</sup>, 다문화 가정 교육 자료 등

<제언> 지역어와 지역 문화가 반영된 국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 기존 자료 정리 및 신 자료 발굴
- 음성자료 디지털화
- 통합 DB 구축
- 문화 콘텐츠 활용

### <참고문헌>

- 곽재용(2007), 지역 교육 자료 구축을 위한 경상남도 지명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방법, 지명학 13, 한국지명학회, 5-46.
- 김정태(1996), 전래지명어와 방언과의 상관성 고찰(1), 한국언어문학 제37집, 한국언어문학회, 41-58.
- 김정태(1997), 전래지명어와 방언과의 상관성 고찰(2), 어문연구 25-2호(통권94호),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84-99.
- 김정태(2008), 지명어의 탈락과 축약 현상에 대하여, 어문연구 58, 어문연구학회, 51-76.
- 김정태(2013), 도시언어에 대하여, 어문연구 75, 어문연구학회, 33-56.
-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2014), 대전의 세거성씨(上,下), 대전광역시.
- 대전시사편찬위원회(1994), 대전지명지.
- 도수희(1994), 지명 연구의 새로운 인식, 새국어생활 제4권 제1호, 국립국어원, 3-27.
- 도수희(2010), 한국 지명 신연구-지명 연구의 원리와 응용-, 제이앤씨.
- 성희제(2010), 전래지명어의 후부지명소 설정 문제에 대하여, 지명학 16, 한국지명학회, 245-265.
- 이돈주((1971), 지명어의 소재와 그 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 - 지명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 한글학회50돌기념논문집, 한글학회, 353-387.
- 천소영(2001), 지명연구에 쓰이는 술어에 대하여, 지명학 5, 한국지명학회, 97-118.
- 한국방언자료집 IV(충청남도 편)(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9) 예를 들어, 중학교 참고도서로서, ‘대전의 역사와 문화(2010)’가 있다. 대전 지명에 대한 유래와 더불어 산, 천 등 대전 지역의 전래 지명에 관한 특징들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지명에 대한 교육적 활용의 예라 할 수 있다.

## 2) 제주의 자연지명, 무엇이 문제인가? —기존 지명 제정 법·정책과 관련하여 / 오창명(제주대)

### 목 차

1. 서론
2. 제주의 자연지명의 제정
3. 기존 제주 자연지명의 문제
4. 마무리

### 1. 서론

「지방자치법」(1949년 법률 제32호로 제정 / 2009. 4. 1. 일부개정. 법률 제9577호 / 2013. 3. 23.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이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3호 일부개정 2013. 07. 17.), 「지명법 안」(2013. 7. 25. / 경제법제국 심사의뢰요청 2013. 7. 30. / 국회제출 2013. 12. 31.) 등을 보면, 우리나라 지명은 크게 행정지명, 자연지명, 인공지명, 해양지명 등으로 나누고 있다.

1. “행정지명” : 「지방자치법」 등의 법률로 정한 지명
2. “자연지명”이란 마을, 산, 하천, 호수, 산맥, 고개, 섬 등(제4호에 따른 해양지명은 제외한다)과 같은 자연적인 지형지물의 이름을 말한다.
3. “인공지명”이란 도로의 부속시설물(터널, 교량, 교차로 등) 댐, 저수지, 공원, 주차장, 역, 공항 등과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만든 시설물의 이름을 말한다.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대상은 제외한다.
4. “해양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灣)·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海嶺)·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이상 「지명법안」〉

\* ‘자연지명’이라 하더라도 하천은 「하천법」, 국립공원에 관한 명칭은 「자연공원법」, 관광지 등은 「관광진흥법」에서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기존의 「측량법」 등을 통해서 정한 제주의 자연지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제주의 자연지명 제정의 문제, 지명 유래와 지명 유래집 오류의 문제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와 오류와 관련하여, 기존 법과 정책을 통한 자연지명의 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한다.

기존 지명 관련 법과 정책에 따라, 제주의 자연지명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에 많은 문제가 있

었다. 아울러 기존 제주의 자연지명 유래와 유래집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 지금까지 제정·공포된 제주의 자연지명에 문제가 많았다는 데서 ‘제주의 자연지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기존 제주의 자연지명 제정과 공포, 정비를 가능하게 했던, 관련 법과 그 과정을 보이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정되어 공포된 자연지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밝히려고 한다. 그리고 새로 제정되어 시행될 「지명법」을 바탕으로 한, 제주의 자연지명의 제정과 공포, 지명 유래집 발간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발표를 매조지하려고 한다.

## 2. 제주의 자연지명의 제정

현재 국가지명위원회와 관련하여 제도 총괄은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명과 해양지명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기관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립해양조사원이 지정되어 있다.

현재 「지명법 안」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기존에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지명 이외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를 따르고 있으며,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해당 시, 군, 구 지방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 도 지방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면, 시, 도 지방지명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여 결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제주의 자연지명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정·공포 되었을 텐데, 말소리도 잘못 제정하고, 그 유래도 잘못 소개하는 것이 매우 많다. 이러한 결과를 낳은 1차적인 문제는 시, 군, 구 지방 지명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고, 2차적인 문제는 시, 도 지방 지명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말에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제대로 된 문헌 조사와 현지 조사, 확인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 지명 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 과정을 일일이 제시하지 않고, 현재 제정, 고시된 제주의 자연지명 몇을 들고서, 지명의 본디 소리를 잘못 정한 문제, 그와 관련하여 표기를 잘못된 문제, 그와 관련하여 유래를 잘못 설명한 문제 등을 중심으로 그런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잘못이 재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려고 한다.

## 3. 기존 제주 자연지명의 문제

여기서는 기존 제주 자연지명이 어떻게 제정되어 공포되었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가, 그리

고 기존 제주 자연지명 자료집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서 발간되었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가 등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특히 지명은 말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소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형태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 옛 지명일수록 당연히 보수성(保守性)을 띠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보수성을 띠고 있다고 하면서, 본디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소홀하거나 오늘날 말소리가 마치 본디 소리인 것으로 파악해서 해독하거나 해석하게 되면, 본디 말소리는 물론이고 본디 의미와도 아주 멀어지게 된다. 그와 관련된 몇 예를 살피면서 그러한 것을 생각해보자.

1) 3.1 犬月岳(?), 개월오름(?), 개월이오름(?), 굴오리오름>ㄱ오리오름>ㄱ으리오름  
이 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강동과 봉개동 산간 경계에 있다. 이 오름 이름은 이름도 이상하게 기록되고 그 유래도 이상하게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진성기(1960)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1960년대 초반 지명위원회에서도 그것을 거의 그대로 수용해버린 듯하다.

ケーオルオルム / (\*개월오름)  
犬月岳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 ‘한라산’>

1960년대 초반에 제주도지명위원회에서는 ‘개월오름’으로 제정해서 보고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지정·고시되고, 지도에 표기되었다. 그렇더라도 일제강점기 이후에 고정된 한자차용 표기 犬月岳에 따른 한자음 ‘견월악’으로 표기되고 부르기도 하고 있다.  
그러다가 2002년에 ‘개월오름’을 ‘개월이오름’으로 고쳐서 제정·고시했다. 국토포털에서 ‘개월오름’과 ‘개월이오름’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개월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명유래 : 本岳이 밤에 개가 달을 보고 짓는 형이라는데 연유해서 불리워 졌다함.

구지명대장 : 本岳의 밤에 개가 달을 보고 짓는 형이라는데 연유해서 불렀다함.

개월이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명유래 : 봉개동 남쪽에 있는 오름으로 세개의 봉우리로 표고가 높은봉은 큰개월이 중간봉은 셋개월이 작은봉은 작은개월이라 하며 주봉은 가오리머리, 나머지 두봉우리는 가오리 꼬리와 닮았다는데서 개월이오름(가오리의방언)이라 칭함.

지명유래집 : 제주시 봉개동 남쪽에 위치한 측화산이다(고도: 744m). 대여섯 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로 이루어진 복합형 화산체이다. 오름의 사면은 자연림과 조림림으로 우거져 있다. 탐라지(제주), 동국여지지(제주), 대동여지도 등에 ‘표악(表岳)’이라 기재했다. 탐라순력도(한라장

축)에 ‘병오리(竝五里)’, 탐라지도병서와 제주삼읍전도에 ‘병악(竝岳)’으로 표기했다. 조선지형도에 ‘견월악(犬月岳)’이라 수록했다. 오름의 형세가 가오리를 닮았다 해서 ‘가오리오름’, ‘개오리오름’이라 불렀다 한다. 풍수지리에 의하면 개가 달을 보고 짚는 형국으로 동쪽에서 보면 개가 머리를 쳐들고 짚는 모양과 유사하여 ‘개월오름’이라 했다는 설이 있다.

<이상 국토포털>

1959년 제주시에서 작성한 지명제정철의 「예비지명조사표」를 확인했더니, 앞의 구지명대장과 내용이 같았다.

A: 개월오름 / B: 견월악(犬月岳)<sup>30)</sup> / 유래: 本岳의 밤에 개가 달을 보고 짚는 形이라는데 연유해서 불리워 졌다함. / 제정: 개월오름

1960년에 10월에 간행된 진성기(1960)은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반영한 책으로 추정된다.

개월오름(犬月岳)

산 모양이 밖에서 개가 달을 보고 있는 격이라 해서 ‘개월오름’이라 호칭함.

<진성기, 1960: 34-35>

한글학회(1984:513-14)에서 이 오름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앞의 말소리와 다른 것이 여럿 확인되고,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다.

가오리오름(가으리오름, 개오리오름, 개월오름, 견월악) : 용강동과 봉개동 경계에 있는 산. 높이가 740m. 모양이 개오리(가오리)처럼 생겼음.

가으리오름 → 가오리오름

개오리오름 → 가오리오름

개월오름 → 가오리오름

견월악(犬月岳) → 가오리오름

그러나 아쉽게도 이 오름의 본디 이름은 ‘개월오름’도 ‘개월이오름’도 ‘가오리오름’도 아니

30) 당시 「지명 조사표 기재 요령」을 보면, “5. 란(3)에는 지도상 기재 여부를 막론하고 지방에서 호칭되는 지명을 전부 A. B. C 각 란에 기재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필자가 이 대장을 확인한 결과, 당시 지명 제정 위원회에서 민간에서 부르는 지명을 모두, 그리고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주 많았다. 당시 제주시가 이랬으니,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9년 당시 지명제정관계기관 운영계통을 보면, 내무부 산하에 ‘중앙지명제정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도지명제정위원회, 군(시)지명제정위원회, 면(읍)지명제정위원회가 있었다. 그리고 국방부 산하에 ‘지리연구소’가 있고, 그 밑에 ‘지명 제정 지도반’, ‘도지도원’, ‘군지도원’이 있어서 협조를 서로 받았다.



다. 잠시 옛 기록과 민간의 음성형을 더듬어보자.

表岳 : 이원진 『탐라지』(1653), 유형원 『동국여지지』(1660-74), 김정호 「대동여지도」(1861) 등.

竝五里·竝五里岳 : 『탐라순력도』(1703)의 「한라장축」과 「산장구마」

竝岳·並岳 : 「탐라지도」(1707)와 「제주삼읍전도」(1872) 등.

犬月岳 :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

秋月峰, 犬月岳, 開月岳·開月伊·開月伊峰, 大開月伊·大開月岳, 小開月伊, 並月岳, 가월리 : 이 오름 주변에 있는 비문

ㄱ오리오름·ㄱ으리오름·고오리오름·고으리오름 : 고로의 말소리

이상의 표기나 소리를 통해서, 이 오름의 본디 이름은 ‘개월오름’도 ‘개월이오름’도 ‘가오리오름’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디 소리를 제대로 확정하지 못했으니, 그 의미는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 3.2 母地岳(?), 모지오름(?), 모찌오름, 무찌오름

이 오름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산간에 있다.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1대 2만 5천 지형도와 1대 5천 지형도에 ‘모지오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국토포털(<http://www.land.go.kr/>)에서 ‘모지오름’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모지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읍리)

지명 유래 : 산 모양이 어머니가 아이를 안은 것 같은 형태이므로 모지악이라 부르며 또는 못지오름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 오름 이름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무찌오름}>{무찌오름}으로 부르고 있다. 조선 후기부터 소리가 변하여 {모찌오름}>{모찌오름}으로 부르기도 했다. 오늘날도 고로(古老)들의 입을 통해서, {무찌오름}이나 {모찌오름}이라는 음성형을 쉬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위 지명 유래에서도 분명하게 ‘못지오름(무찌--)’이라 부른다고 했다. 그런데 왜 ‘모지오름’이라 했는가? 그것은 한자차용표기 가운데 하나인 母地岳(모지악)을 상정한 데서 비롯되었다.

1950년대 말 지명을 제정할 때 ‘모지오름’으로 정해서 써 버리고,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한 설명도 한자차용표기 가운데 하나인 母地岳(모지악)의 母地(모지)를 중시한 민간어원설인 ‘어머니가 아이를 안은 것’ 같다고 설명해버렸다.

이 내용은 일제강점기 지형도의 표기와 진성기(1960:90)에서 보이는 내용을 지명위원들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던 듯하다.

モチオルム / [\*모찌오름]<sup>31)</sup>

母地岳 / [\*모찌오름]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 '성산'>

모지악(母地岳), '뭇지오름'

산 모양이 어머니가 아기를 안은 것 같다 하여 '뭇지오름'이라 불리우던(불리던?) 것이 후에 한자표기에 의해서 '모지악'이라 호칭함.

<진성기, 1960:90>

한글학회(1984:396)의 지명 조사 결과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모자악(母子岳) → 모지오름

모지오름(뭇지오름, 모자악) : 영무르 서남쪽에 있는 산. 높이 306m.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이라 함.

뭇지오름 → 모지오름

그러나 이상의 몇 자료를 비교해보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조사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말소리는 물론, 지금도 민간의 고로들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말소리는 [\*무찌오름]이다. 그런데 이 말소리에 중심을 두지 못하고, 민간에서 전하는 母地(모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본디 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에 따라 의미도 제대로 구명하지 못한 결과를 낳아 버렸다.

옛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遯止岳 :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1702)와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정의읍지』(1899)

無止岳 : 「정의군지도」(1872)

母旨岳 : 『제주도』(1965:46)

禿地岳 / 遯止岳 · 茂枝岳 · 茂地岳 · 舞地岳 · 母地岳 · 母旨岳 · 武地岳 · 母池岳 / 母子岳, 母地岳, 母池岳 / 문주오름 / 모지악 : 주변의 묘비

遯止岳과 無止岳, 茂枝岳, 茂地岳, 母地岳, 母池岳 등은 모두 [\*무찌오름>무찌오름]의 한자 차용표기이다. 한글 '문주오름'은 [\*무찌오름]의 변음인 [\*무쭈오름 · 문쭈오름]의 한자차용표기이다.

기존에 제정된 자연지명을 보면, 말소리도 제대로 쓰지 못했고, 그 의미도 제대로 밝히지

31) 이하 \*(어깨 별표) 뒤 ( ) 안 내용은 필자의 해독음을 제시한 것임.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3.3 晩早岳(?), 망오름(?), 느지리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산5번지 임야 일대에 있는 오름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이표기가 쓰이고 있다.

이 오름은 예로부터 ‘느조리오름>느조리오름’ 또는 ‘느지리오름>느지리오름’으로 불려왔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1918)에서 다음과 같이 표기되었다. 곧 일본어 가나로는 スヅリオルム라 쓰고, 한자로는 晩早岳이라 표기했다. 일본어 가나 표기 스ヅリオルム은 ‘느지리오름’을 표기한 것이고, 한자 표기 晩早岳(만조악)은 제주 고유 지명인 ‘느조리오름’의 옛 한자차용표기 가운데 하나이다.

スヅリオルム / \*〔느지리오름〕

晩早岳 / \*〔느조리오름〕

일제강점기 지형도 표기의 영향에 따라, 미군정기(1945)에 만든 1대 5만 지형도에도 ‘NŬJIRIORŬM(\*느리지오름)’으로 표기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1956년에 제작한 1대 5만 지형도에도 ‘느지리오름 / 晩早岳’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1950년대 말에 지명을 제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팽배했던 듯하다.

망오름 : 옛날 산상에 망소(望所)를 설치하여 외선의 침입을 말발다해서(필자 주: ‘받았다 해서’?) 망악(望岳)이라 칭하며 다른 산의 망소로부터 연락하는 봉화의 빛이 느지빛이다(필자 주: ‘늦게 비친다’?) 해서 만조악 또는 느지리오름이라 불리운다(불린다?).

<구지명대장>

망오름(望岳), 만조악(晩照岳), ‘느지리오름’

옛날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이 산에서 봉화를 올리고 망을 보았을 때 다른 산보다 햇불이 늦게 비추었다는 데서 ‘느지리오름’ 또는 ‘망오름’이라 불리우나(불리나?) 후에 한자표기에 의해서 ‘만조악’이라 호칭함.

<진성기, 1960:164>

그래서 ‘망오름’으로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형도에 표기한 뒤 지금도 ‘망오름’이라 하고 있다. 국토포털에서 이 ‘망오름’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망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명리)

지명 유래 : 옛날 산상에 망소를 설치하여 외선의 침입을 받았다해서(받았다고 해서?) 망악이라 칭하며, 다른 산의 망소로부터 연락하는 봉화의 빛이 늦게 비춘다 해서 만조악이라 불리운다

다(불린다?).

구지명대장 : 옛날 산상에 망소(望所)를 설치하여 외선의 침입을 말발다해서(필자 주: ‘받았다 해서’의 잘못된 듯함.) 망악(望岳)이라 칭하며 다른 산의 망소로부터 연락하는 봉화의 빛이 느지빛인다(늦이 비친다?) 해서 만조악 또는 느지리오름이라 불리운다(불린다?).

지명유래집 :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 위치한 측화산이다(고도: 225m). 세 개의 봉우리가 두 개의 화구를 형성하고 있는 복합형 화산체이다. 오름의 사면에는 소나무를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무성하게 있다. 조선시대에 봉수가 있었는데 동쪽으로 도내봉수와 서쪽으로 대정현의 당산봉수와 교신했다. 탐라지(제주)에 ‘만리봉수(晩里烽燧)’, 탐라순력도(한라장축)에는 ‘만조망(晩早望)’, 탐라지도병서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 ‘만조봉(晩早烽)’, 제주군읍지의 제주지도에 ‘만조봉(晩照烽)’, 조선지리지자료에 ‘만조산(晩照山)’, 조선지형도에는 ‘만조악(晩早岳)’ 등으로 표기했다. ‘느지리오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인데, ‘느지리’의 의미는 미상이다. 16세기 이후 이곳에 봉수가 설치되면서 ‘망오름’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

<국토포털>

‘망오름’에 대한 ‘구지명대장’과 ‘지명 유래’의 설명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느지리오름’은 봉수가 설치되기 전부터 부르던 이름이고, 그것을 한자차용표기로 쓴 것이 晩里岳(만조리악)이고, 여기서 里(리)를 생략한 표기가 晩早岳(만조악)이다.

제주도에 봉수를 설치할 때(15세기 초)에는 이 오름에 봉수를 설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의 ‘제주목’조에서는 물론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조에서도 이 오름에 봉수를 설치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다가 16세기 중반에 다른 곳(널개오름)에 있는 봉수를 이곳으로 옮겼다. 그래서 그 뒤 기록인 「남명소승」(임제, 1577-78)에는 晩早里煙臺, 이원진의 『탐라지』(1653)에는 ‘晩里烽燧’, 이증의 『남사일록』(1679-80)에는 ‘晩早烽燧’, 17세기 말 「탐라도」와 이형상의 『탐라순력도』(1703)에는 ‘晩早望’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봉수를 폐지한 뒤에는 晩早岳, 晩照山, 晩早峰 등으로 표기했다.

그러므로 옛날 망소(望所)를 설치해서 왜적의 침입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산보다 햇불이 늦게 비추었다는 데서 ‘망오름’이라 했다는 설명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망오름’은 이 오름의 본디 이름도 아니다. ‘망오름’은 조선 중기부터 부르기 시작한 별칭에 불과하다. 더욱이 제주도에서는 봉수를 설치해서 망을 보았던 오름을 모두 ‘망오름’이라 했기 때문에, 이 오름만 ‘망오름’이라 부르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

### 3.4 甘水洞(?), 가물개>가물개 / 가물개, 감은모살, 玄沙洞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바닷가 마을을 예로부터 ‘가물개’라 불러왔다. 그래서 당시 지명제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던 모양이다.(1959년 지명제정철의 「예비지명조사표」)

A. 甘水洞(감수동) / B. 가물개 / 유래: 감수동은 4071년(필자 주: 1738) 설촌당시 지명이며

단물이 있는 부락이므로 가물개(필자 주: ‘가물개’의 잘못)라 호칭함. / 제정 : 가물개

감수동(甘水洞), 가물개 : 단기 4071년 설촌 당시부터 “단물”(甘水)이 있는 갯마을(浦里)이라 하여 ‘가물개’라 불리우다가(불리다가?) 후에 한자 표기에 의하여 ‘감수동’이라 호칭함.

<진성기, 1960: 31-32>

그런데 국토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가물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명유래 : 감수동은 1738년 설촌 당시 지명이며 바닷물이 있는 마을이므로 가물개라 호칭함.

지명 제정 당시 甘水洞(감수동)이 아닌, 고유어 ‘가물개’로 제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데, 그 의미나 유래 설명에는 문제가 있다. 특히 국토포털에서 제공하는 유래 설명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위 「예비지명조사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물개’가 본디 이름인가, ‘가물개’의 ‘가물’이 ‘든물(단물)’의 차자표기인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왜냐하면 옛 기록을 보면, 그와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可沙浦村 : 『여지도』의 「제주목」(조선 후기)

可沙村 : 「탐라도」(17세기 말)

可沙浦 :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甘水浦 : 『조선지리지자료』(1910)

甘水洞 : 일제강점기 1대 5만 지형도 ‘제주’

여기서 필자는 可沙浦와 可沙浦村·可沙村으로 표기된 한자차용표기를 제대로 해독해내면, 이곳의 본디 이름을 쉽게 재구해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可는 可의 음가자 표기이고, 沙는 ‘모래’의 제주말 “\*몰애”(요즘은 주로 ‘모살’과 ‘몰래’로 실현됨.)의 훈독자 표기이고, 浦는 ‘개’의 훈독자 표기이고, 村은 ‘마을’의 훈독자 표기이다. 그러므로 可沙浦는 “\*가물개”의 표기가 되고, 可沙浦村은 “\*가물개마을”의 표기가 된다. 可沙村은 可沙浦村에서 浦를 생략한 표기이다. 이 “\*가물개”가 시간이 흘러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에는 ‘가물개’로 변하여 실현되고, 이것을 ‘甘水洞(감수동)’으로 표기하면서 본디 이름과 멀어지게 하고, 본디 의미와 멀어지게 된 것이다.

“\*가물개>가물개”는 ‘감은(黑)+몰애(沙)+개(浦)’의 구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지금도 삼양2동의 해수욕장은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검은 모래밭으로 유명하다.

이와 비슷한 음성형을 유지하다가, 조금 다르게 변한 곳이 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1동 玄沙洞(현사동)이다. 현사동은 요즘은 ‘감은모살(가문모살)’이라 부르는 사람

이 많지만, 민간에 여전히 ‘가물개’ 또는 ‘섯가물개(西---: 석가물개라 하기도 함.)’라는 지명도 남아 전한다. 이곳 바닷가에도 검은 모살(모래)이 깔려 있다.

그런데 옛 기록을 보면 삼양2동의 ‘가물개’와 비슷하게 표기되었다.

可沙浦 : 『탐라순력도』(1703)의 「한라장축」(1702)와 「제주삼읍전도」(1872)

可沙村 : 「탐라지도」(1709)와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可沙浦 : 「탐라지도」(1709)와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旧可沙村 : 「제주삼읍도총지도」(18세기 중반)

可沙洞 : 『제주군읍지』의 「제주지도」(1899)

여기에 보이는 可沙浦는 바로 민간에 전하는 ‘가물개’와 ‘섯가물개’의 ‘가물개’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부터는 ‘검은 모살’이라 하고, 玄沙洞(현사동)이라 하고 있다.

1959년 「예비 지명 조사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A. 현사동(玄沙洞) / B. 가문모살 / C. 덕지동(德池洞) / 유래 : 가문모래가 쌓였기로 玄沙洞 한자로 풀어서 가문모살이라 부르고 또 논이 수확이 잘 되기로 덕지동이라 함. / 제정: 가문모살.

국토포털에서 ‘가문모살’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문모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명유래 : 검은 모래가 쌓여 현사동을 한자로 풀어서 가문모살이라 부르고, 또 논(查: 필자 주 - 畚의 잘못)이 수확이 잘되 덕지동(德池洞)이라 칭함.

이 예들에서 [가문모살], 곧 ‘검은모살’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지명 유래는 비논리적 인데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글학회(1984:542)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호1동

가문모살(현사동, 덕지동) : 중앙동 서남쪽에 있는 마을. ① 검은 빛의 모살(모래)이 많았음.

② 이호2동의 덕지물 아래가 됨.

덕지답 : 덕지동에 있는 답. 마을의 재앙을 막기 위해 살막이로 쌓음.

덕지동(德池洞) → 가문모살

현사동(玄沙洞) → 가문모살

이호2동

가물개(오도동) : 이호2동에서 가장 큰 마을. 가문모살(이호1동) 위쪽이 됨.

덕지물 : 갈왓(필자 주: 굴왓의 잘못) 서북쪽에 있는 큰 우물.

오도동(吾道洞, 烏道洞) → 가물개

이곳 주변에서 확인되는 비문에서는 可物介(가물개), 西可物(\*섯가물), 上可水(\*웃가물) 등으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대 5000 지형도에서는 ‘섯가물개’를 ‘석가물개’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말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제대로 썼다. 아쉬운 것은 본디 소리와 본디 의미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말소리를 적을 때도 좀 더 신중했을 것이다. 아울러 그 의미를 파악하여 해설할 때도 신중을 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

### 3.5 南水閣(?), 내팍골(?), 내팍골

제주특별자치도 일도2동 있는 동네 이름이다. 1959년 「예비 지명 조사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A. 남수각(南水閣) / B. 내팍골 / 유래 : 탐라시대 지어진 이름으로 水門을 말하든 것이 그대로 전해 내려와서 널리 쓰고 있으며, 지금은 패허(필자 주: 폐허?)된 옛터로 그 자취 주변에는 큰 부락을 이룬. / 제정 : 내팍골

국토포털에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

내팍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명 유래 : 탐라시대 지어진 이름으로 수문을 말하든 것이 그대로 전해 내려와서 널리 쓰고 있으며 지금은 폐허된 옛터로 그 자취 주변에는 큰 마을을 이루고 있다.

이곳 지명은 본디 이름은 물론 역사적인 설명도 논리가 맞지 않게 되어 있다. 제주성 동쪽을 끼고 ‘산짓내(산젓내)’라는 내가 흐른다. 조선시대에 이 내 안쪽으로 제주성을 쌓았다가 나중에 내 바깥으로 제주성을 물려세웠다.

“<제주>읍성 : <전략> 성 안에는 물이 없고 성 남쪽 큰 돌 밑에 큰 구멍이 있어서 물이 솟아 나오는데 이름이 가락컷물(嘉樂貴)이다. 깊이가 10자 가량 된다. 흐름을 가로막아서 겹성을 쌓았는데 성 안 사람들이 길어다 마신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제주목>

“<제주>읍성 : <전략> 성 안에는 물이 없고 가락컷물이 성 밖에 있어서 따로 겹성을 쌓아 성

안 사람들이 그 물을 길어다 마신다. 가정 을축년(명종 20년, 1565)에 괄할 목사 때 동쪽 성을 물려서 축조하니 가락쿿물이 지금 성 안에 있게 되었다. 또 산젓물(山底泉)이 있고, 동문·남문·서문이 있으며, 남·북수구(南北水口) 2문과 격대 27개소, 타첩 404개가 있다. <후략>

<이원진의 『탐라지』(1653) 제주목>

“申纘의 記에 ‘<전략>임진(효종3년, 1652) 가을 8월에 풍우의 재해를 입어 남·북수구가 모두 파괴되었다.……계사(효종 4년, 1653) 봄에 돌문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 위쪽에 초루를 짓고……拱辰樓라 했다.<후략>”

<이원진의 『탐라지』(1653) 제주목>

“拱辰樓：北水門 위에 있다. 효종 신묘(2년, 1651)에 목사 이원진이 세웠으나 중간에 폐지되었다. 순조 정묘(7년, 1807)에 한정운이 중건하고, 신묘(순조 31년, 1831)에 이예연이 삼천서당 북쪽으로 옮겨 세웠다.”

<이원조의 『탐라지초본』(19세기 중반)>

이상의 여러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에 내(川: 산젓내) 남쪽에 설치한 水口나 水門을 南水口(남수구) 또는 南水門(남수문)이라 하다가, 나중에 南水閣(남수각)이라고도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탐라시대 지어진 이름으로”라는 말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남수문, 곧 남수각 일대에 형성된 동네도 이를 따서 ‘남수각’이라 한 것이다. 그런데 민간에서 이 일대의 동네를 ‘내팻골(내팍골이 아님)’이라 하므로 이것이 본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내팻골’은 ‘내·냉(川: 산젓내)+팻·밖(밖, 外)+골(洞)’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름으로, 일찍부터 형성된 이름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南水閣’ 대신 ‘내팍골(?)’로 제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팻골’을 제대로 표기해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설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6 갈왓(?), 굴왓, 골왓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2동에 있는 지명이다. 이곳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굴왓’이라 부르다가, 근래에는 ‘골왓’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굴왓’으로 실현되는 지명을 ‘굴왓’으로 쓰지 못하고, ‘갈왓’으로 쓰면서 본디 말소리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

1959년 예비지명조사표를 보면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A. 로전동 / B. 갈왓 / 유래 : 이 부락은 갈대가 많았기(필자 주: 많았기) 때문에 갈왓이라 칭함. / 제정 : 갈왓



국토포털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갈왓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명유래 : 이 마을은 갈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갈왓이라고 칭함.

심지어는 진성기(1960:48)와 한글학회(1984:542) 조사 자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전동(蘆田洞), 갈왓

옛적에 본리에 갈대가 많이 있어서 ‘갈왓’이라 불리워졌으나 후에 한자표기에 의해서 ‘노전동’으로 호칭함.

<진성기(1960:48)>

갈왓(갈전, 노전) : 가물개 서북쪽에 있는 마을. 갈밭이었음.

갈전 → 갈왓.

노전(蘆田) → 갈왓.

<한글학회(1984:542)>

1995년에 간행된 『제주시 옛 지명』에서는 ‘굴왓·굴왓디’로 표기되었다. ‘굴왓’을 한자로 쓴 것이 蘆田(노전)이다.

기존에 제정된 자연지명을 보면, 민간에서 전하는 말소리를 제대로 표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주말의 특징은 육지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중세국어의 ‘으’ 또는 그와 비슷한 소리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으’가 발음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의 자연지명을 제정할 때는 그러한 것을 아예 무시해버렸다.

더욱이 표준어에서는 중세국어의 첫소리 ‘으’가 대부분 ‘아’로 변했지만, 방언에서는 주로 ‘오’로 변했거나 변하고 있는 데도 그것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

표준어 문자의 제약, 국가 지형도 문자의 제약 등으로 ‘굴왓’을 제대로 쓸 수 없다면 가장 유사한 발음인 ‘오’로 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데도 아예 ‘갈왓’으로 쓰는 것은 고유의 자연지명을 전혀 다른 지명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 4. 마무리

이상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제정·고시되어 지형도에 표기되고 있는, 제주의 자연지명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지명의 말소리가 제대로 조사되어 정리되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제대로 표기하지 못한 지명이 지금까지도 지형도에 표기되어 인쇄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말소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으니, 그 유래나 의미를 설명하는 데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지형도 위에 지명을 표기하면서 제 위치에 표기하지 못하고 엉뚱한 위치에 표기한 것도 많다. 심지어는 본디 이름을 표기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름을 표기한 것도 많다.

왜 이러한 오류가 생겼는가?

첫째 이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사 대상지의 지명을 제대로 조사해서 보고한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명을 제대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민간에서 불리는 이형(異形)의 지명이나 이칭(異稱)의 지명을 제대로 조사하고, 각 형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지명 제정에 참여하는 담당자와 지명제정위원(현재는 지명위원)들이 지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발행된 일부 지역 지명 유래집에는 지명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더욱이 일부 지명 유래집은 지명 전문가가 써놓은 것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옮긴 것이 많다. 이러한 것이 여태껏 반복되고 있으니 지명이 제대로 제정되거나 정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명법」이 새로 시행될 듯하다. 「지명법」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명 제정을 하려면 지명 전문가가 기초 조사와 자료 수집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지명위원을 선정할 때도, 지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을 선임 쓰듯이 위원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일정한 비율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위원에 배정하라고 해서 지명에 대해 문외한인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배제해야 한다.

기존에 제정되어서, 1대 5천 지형도와 1대 2만 5천 지형도에 표기된 제주 자연지명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이나 국토포털 등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지명 유래에 대해서도 수정되어야 한다.

재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질 때 기존과 같은 제정 방법, 기존과 같은 지명위원 선정 등으로는 자연지명이 제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지명법」을 제정한 기관에서 심각해서 반성할 일이다.

## &lt;참고문헌&gt;

-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 오창명(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 제주대학교출판부.
- 오창명(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I』, 제주대학교출판부.
- 오창명(2007),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 제주시 . 제주문화원(1995), 『제주시 옛 지명』.
- 진성기(1960), 『제주도 지명의 유래』, 제주도 관광 안내소.
- 진성기(1975), 『남국의 지명 유래』, 제주 민속 총서 7, 제주민속연구소.
- 한글학회(1984), 『한글학회 지은 한국지명총람 16: 전남편Ⅳ·제주편』.

## 3) 도로명 주소, 무엇이 문제인가 / 손희하(전남대)

## 목 차

1. 머리말
2. 현행 도로 명 주소의 구조와 체계
3. 현행 도로 명 주소의 문제점
4. 대안과 정책 제안
5. 맺음말

## 1. 서론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땅과 바다에도 이름이 있다. 인간이 땅과 바다에서 터를 일구며 살아가며, 이 생활 터전에 자연스레 이름(지명)을 붙이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명은 자연 환경과 생활 문화를 반영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알기 위해서는 지명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손희하·김경, 2009. 나주 혁신도시 수용 지구 지명. 빛가람, 천년의 빛으로 흐른다).

2014년에 들어 정부에서는 주소 체계를 동명에서 도로 명으로 바꾸었다. 그 동안 도로 명 주소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나 면담은 있었으나, 문제점을 적시한 글은 드물다.

이 발표는 도로 명 주소 체계의 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주소명 정책 수립과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14년(일제 동명 통폐합 100주년): 도로 명 주소 시행함

2007년: 도로 명 주소법 제정함

1995년: 생활주소라는 이름으로 추진함

## 2. 현행 도로 명 주소의 구조와 체계

○○로 △△번길 ×× - □□

## 1) 도로 위계

대로- 8차로 이상, 40m 이상.

노: 2차로~7차로, 왕복 12m 이상.<sup>32)</sup>

길: 왕복 1차로, '노' 이하.

32) 행정안전부나 안전행정부 자료에 보면 '로'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한글 맞춤법>에 어긋남.

## 2) 건축물의 주소

우측으로 짝수번호  
좌측으로는 홀수번호

## 3) 좌우 구분

좌우 구분하는 방법은 도로방향 기점을 남에서 북 방향으로 잡아서 좌우, 그 다음에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서 좌우, 20m마다 번호가 2개씩 증가함. 20m 구간 속에는 여러 건물, 아파트의 동과 호수로 붙이도록 함.<sup>33)</sup>

## 3. 현행 도로 명 주소의 문제점

### 1) 문화 역사 면

#### ① 전래 고유 문화 파괴 및 망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우리 고유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지명을 일본이 대대적으로 없앴는데, 그나마 남은 아름다운 고장이름이나 동 이름 등 우리 전래 고유 문화를 이번 현행 도로 명 주소에서 국민이 느낄 만큼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문제임.

보기: 채동, 쌍촌동, 양림동, 두암동, 유동, 궁동, 사직동 등등 조선시대부터 써온 이름들임.

도로 명 주소 사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승하는 동명을 없애고 국가의 주소 체계를 바꾸는 엄청난 사업인데도 안전행정부는 기반 조사와 시행 검토 과정에서 지명학, 지리학, 역사학, 문화학 성과와 관계자들의 충언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들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도로 명 주소 사업 시행에 따라 전래 지명이 점차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다. 동명 대신에 도로 명 주소를 쓰도록 하는 데, 전통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채 도로 명 주소를 유연성(有緣性) 없이 새롭게 마구 지었기 때문이다. 지명이 생활문화와 자연환경을 반영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그저 길 찾기나 주소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명이 단순한 길 찾기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선진국 등 다른 나라나 유네스코 등에서는 지명을 문화유산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임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동네나 길과 인연이 없는(유연성 없고) 가변적(可變的)인 도로 명을 새로 짓고 전래 지명을 폐지하는 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

33) 동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많아 필요할 경우에는 맨 끝에 괄호를 달아서 동명을 쓸 수는 있다.

## ② 문화 공동체 파괴

지명 변경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파괴 우려, 마을 문화 변질 우려가 있다. 지명 변경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파괴, 마을 문화 변질은 일제 강점기에 이미 경험했기에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 ③ 문화 차이 간과

■ 골목길 문화: 서구는 도로를 중심으로 인공적으로 계획해서 도시가 발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자연지형에 따라 골목길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한 것이다. 골목길 문화와 마당 문화의 차이를 간과한 처사로 보인다. 이는 노래나 어린 시절 추억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제주 올레길이라는 말도 골목 문화를 상징한다. 반면에 문화서구는 길가에 바로 집이 자리 잡은 것이다.

■ 향남 문화: 향북 기준- 전통 향남 문화 간과함

보기: 우청룡좌백호(右靑龍左白虎) ← 좌청룡우백호(左靑龍右白虎)

## 2) 정보 기억 인지·저장 면

① 현행 도로 명 주소는 ‘면’ 중심의 동 주소에서 ‘점’과 ‘선’ 중심의 도로 명 주소로 전환함. 면 인식에서 선 인식으로 감에 따라 인지 면에서 더 어려워짐.

② 2차원 → 1차원으로 저차원화하여 기억해야 할 정보 양 더 많아짐. 그것도 일시에 사람들에게 기억 부담과 고통과 혼란스러움을 가져옴.

③ 음절수 과다한 것 많음.

자하문로28가길, 남대문시장2가길, 사직대로176번길, 상봉중앙로6나길

노인이나 기억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1971년 영국 화폐단위 10진법화 후 자살자 다수 발생한 사례를 보면 심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34) 영국의 화폐 단위 제도 개정의 경우, 십진법 개정안을 1824년에 의회에 상정하여 처음 부결된 이후에 147년간 논의를 거쳐 1971년부터 시행하였다. 영국은 10진법 이전에는 12진법·20진법, 21진법·5진법·2진법을 혼용하였다.(1파운드=20실링, 1실링=12펜스, 1기니=21실링, 1크라운=5실링, 1플로린=2실링.)

통일대로는 47.6킬로미터- 과연 지리정보 개념이 설까? 인식 인지가 곤란하여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보임.

→ 길 찾기는 스마트폰이나 네비게이션 등을 활용하고 국민 마음이 편안하게 하고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특히 노인이나 기억 장애인을 생각해야 할 것임.

### 3) 국민 행복 추구 면

현행 도로 명 주소는 위 정보 기억 인지 면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억해야 할 정보 양 더 많아지고, 그것도 일시에 사람들에게 기억 부담과 고통과 혼란스러움을 가져오게 되어 국민 행복 추구 면에서 동떨어짐.

### 4) 문화 향유 추구 면

위헌소송 제기에서 알려진 것처럼, 현행 도로 명 주소는 헌법상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면에 어긋나고 국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함. 곧 문화 향유 추구, 국민 행복 추구 면에서 문제임.

문화계·학계에서 지명을 바꾸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함.

헌법소원 내용: "도로명주소법은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와 제9조 국가의 전통문화보존 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향유권도 침해한다."

### 5) 주소 체계 면

#### ① 현행 도로 명 주소는 기억하기 어렵게, 길고 복잡한 숫자 나열식 도로 명 주소로 되어 주소 체계 면에서 더 복잡해짐.

정부에서는 찾기 쉬운 숫자식이라고 주장함. 그렇다면 가장 찾기 쉽고 세계적으로도 통용할 수 있는 경위도 좌표식 주소는 왜 채택하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함.

현행 도로 명 주소는 너무 위계적, 너무 작위적, 길의 구간이 너무 길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인은 과학적 체계적인 것보다는 복잡하지 않고 편리한 것을 원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이라 할지라도 복잡하면 시행하기 전에 사용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주소를 처음 '○○로 ××'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계속해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로 △△번길 ×× - □□'로 하는 등 더 이상 현행 동명 주소보다 더 간편해진 게 없다. 오히려 '천 몇의 몇' 등 더 복잡해지고, 길고 바꾸다 보니 누더기풀이 된 것이다. - 애초 구상에서 어긋나 버렸다. 이는 외국 계획 도시 등 현상만을 모방하려다 그런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 이후 조성한 길이나 마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 지형대로 이루어진 길과 마을 모습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서구와는 다른 모습이다. 곧 1) 문화 역사 면 ② 문화 차이 간과 면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도로를 인공적으로 계획하여 조성한 곳에 적용한 방식을 우리나라처럼 자연지형에 따라 골목길이 난 곳에 적용하기는 힘든 것이다. 곧 골목길 문화와 마당 문화의 차이를 간과한 처사로 보인다. 이는 노래나 어린 시절 추억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제주 올레길이라는 말도 골목 문화를 상징한다. 반면에 문화서구는 길가에 바로 집이 자리잡은 것이다.

그리고 주소 체계 면에서도 서구 것보다 매우 복잡해졌다. 도로나 집의 형태가 바뀌면 주소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 ② **현행 도로 명 주소는 좌우를 홀짝으로 구별하는 등 얼른 보면 체계적이고 그럴 듯하나, 시골이나 서울 구도심을 가면 자연 지형을 따라 골목이 형성된 곳이 많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길이 난 곳이 대부분이고, 이 길도 한 바퀴 돌다보면 좌우가 바뀐다.<sup>35)</sup> 좌도우도 아닌 골목 마지막 중앙에 있는 집도 있다.<sup>36)</sup>**

시골은 수백 미터 이상 떨어져서 집이 띄엄띄엄 있는데, 앞으로 중간에 집이 생기면 ‘몇의 몇의 몇’으로 나가 주소를 기워야 할 판임.(집 사이에 집을 못 짓게 하지 않는 이상)

도시도 여러 집 합쳐 큰 건물 들어서면 번호가 이빨 빠진 듯하고, 어떤 곳은 몇’의 몇의 몇’으로 나가게 될 전망이다.

## 6) 도로의 가변성 면

- ① **현행 도로 명 주소는 도로의 가변성을 간과함. 도로나 집의 형태가 바뀌면 주소를 다시 바꾸어야 함.**
- ② **현행 도로 명 주소는 도로 없는 곳은 번지를 붙일 수 없어 번지가 다 사라짐.**

도로 없는 곳에 경우에는 ‘국가지정대로’라 해서 전국을 10m씩 바둑판처럼 격자(그리드)로 나누어 번호를 계획이라 하나, 일반인은 기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7) 길 찾기 면

- ① **정부는 도로 명 주소가 바둑판식, 모눈종이식이라 좌표처럼 찾기 쉽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 도시가 경지 정리 식으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형을 이용해 생겨난**

35)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생태를 파괴하고 생태에 반하여 자연을 관리하려고만 드는 인간에서 벗어나 곡형 자연은 곡형 자연 그대로 두어야 한다.(자연이라는 무한 다각을 유한 다각화하려 하지 말 것임).

저차원의 인간은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있는 자연을 단순하게 줄이는 역지를 모든 인간이나 자연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36) 실은 ‘.5’로 표기해야 바를 것이다.



마을임.

또 골목도 많으며, 특히 골목의 경우, 빙 도는 골목의 경우도 있어서 한 바퀴 돌다보면 좌우가 달라져 번호를 매기기 쉽지 않음. 판판하게 밀어버린 신도시 주택 단지에서는 찾거나 인지가 쉬울지 몰라도 지역이나 도시 달동네, 이런 데는 힘들.

- ② 현행 도로 명 주소가 내세우는 최대 장점인 길 찾기 면은 단적으로 말하면 다들 요즘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다고 함. 10여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과 밀어붙이기식 시행이라는 평판임.

오히려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은 기왕의 길찾기 도구에서는 ‘지명’을 잘못 치면 없다고 나왔으나, 현행 길찾기 도구에서는 숫자를 잘못 치면 엉뚱한 곳에 데려다 주어 혼란과 시간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만약 50킬로미터가 다 되는 통일대로나 길의 숫자 입력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 8) 선진국형 제도 면

이웃 선진국이 다 쓴다면서 오이시디 국가 운운하며 현행 도로 명 주소를 밀어붙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임.

이웃 중국을 보면 일부 도시는 도로 명식 주소를 적용하나 안 쓰는 곳도 매우 많다. 또 미국, 서구 등 외국 주소는 현행 도로 명 주소에 비해 간단하고 찾기 쉽다.

서구 선진국식이라고 하는데, 서구와 달리 기억하기 어려운 길고 복잡한 숫자 나열식 도로 명 주소이다. 서구는 짧은 거리 길 이름인데 현행 도로 명 주소는 서구식보다 개념이 잘 안 서고 인지하기 어렵고 못하고, 개선한다는 것이 오히려 누더기가 된 풀인 주소 정책이다.

효율이나 경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일본이 왜 시행을 안 하는지, 왜 안 바꾸는지를 눈 여겨 보고 숙고해 봐야 한다.

지금 선진국 등 다른 나라나 유엔 등의 기구에서는 오히려 지명을 문화유산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주무관이 여럿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년 말 지명 보고에서도 언급함)

## 9) 정책 면

현행 도로 명 주소는 왕권 강화를 위해 한화 정책(漢化政策)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 개혁을 단행한 신라 ‘경덕왕’의 중국식 지명 변경에 필적할 만한 중대한 사업이면서도 정책 수립과 시행 초 20년 동안 국민의 관심조차 모으지 못한 정책임. 곧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실패했다는 말이 돈 2013년 이전에도 비판을 많이 받은 바 있는 정책임. 정착하는 데에 짧게 10년, 30년~90년으로 봄.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장도 주된 사용자가 우편 · 택배 ·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송경주, 지역정보화지 78, 도로명주소 새주소). 이미 20년 전부터(1995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고, 2014년 전면 시행하였으며, 날마다 언론에 홍보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민 대부분이 자기 주소도 모르고 있다고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고,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용이 저조하다. 도로명 주소에 반발하며 아예 옛 주소를 고집하는 사람도 많다. 지금 엄청난 홍보비 들여 홍보하고 강제로 무조건 쓰라고 억지 쓴다고 될 일이 아닐 것이다.

#### 10) 주민 행정 관리 면

주민 행정 관리 면에서 결국 예전 동 단위 개념은 버릴 수 없을 것임. 현재 동 주민 센터 같은 경우 동단위로 행정이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노’나 ‘길’ 단위로 주소를 운영해야 한다면 과연 주민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의문스럽다.

예전 동 개념을 버릴 수 없다면, 결국 이중으로 행정과 인력과 비용을 낭비가 가능성이 크다.

#### 11) 일제 잔재 청산 면

현행 도로 명 주소는 일제 잔재 청산 면을 강조하고 있음. 그렇다면 오히려 일제 강점기 문화 말살 정책에 살아남은 법정지명을 없앨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사라진 지명을 되살려야 함.

보기: (1789년 호구총수) 동면(東面) 기례방리(奇禮坊里) 성저(城底) 시리(市里) 하리(下里) 보통(普通) 상루(上樓) 신촌(新村), 공수방(公須坊) 상하촌(上下村) → (1914년) 수기옥정(須奇屋町) → 수기동(須奇洞)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시대 당시에 천자호(天字號), 지자호(地字號), 현자호(玄字號), 황자호(黃字號) 등 지호(지번)를 매겨 주소를 부여했다.

“지번은 일제가 1910년에 식민 통치와 조세 징수 등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조사를 거쳐 작성했다.” 그래서 바꾸어야 한다고 홍보한다. 그럼 지번제 없애면 조세징수 안 한다는 말인지 궁금하며, 지금 지번제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일본의 세력 밑에서 꿈쩍 못하고 있다는 말인지 궁금하다.<sup>37)</sup>

37) 우리 사회에서 상대방을 꿈쩍 못하게 할 때에 잘 써먹는 무서운 말 두 가지가 있다. 껌떡하면(겉핥하면) 빨갱이요, 일제 청산이라는 말이다. 생각할 겨를 없이 여론몰이로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지명에서 일제 청산을 제대로 했으면 한다. 참고삼아 말하면 일제청산 하려면, 우리 법 문장부터 바꾸어야 한다. 일제의 법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이 우리 법이기 때문이다.

#### 4. 대안과 정책 제안

적어도 길 찾기 위한 도로 명과 지명을 분리해야 한다. (∵ 지명은 단순 길 찾기 도구용 이름이 아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승문화가 배어 숨 쉬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승 동명 지명은 그대로 두고, 일제강점기에 없어진 지명을 되살려야 한다.

사라지는 지명,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 곧 재개발 택지 개발 공단 들어서는 지역, 저수지 등등 지형 변개 지역 지명 조사 정리 반드시 필요하다.

#### 5. 맺음말

최근 새 도로 명 주소 사업 시행에 따라 전래 지명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동명 대신에 도로 명 주소를 쓰도록 하는 데, 지형, 역사, 문화, 전통을 무시한 채 도로 명 주소를 유연성 없이 새롭게 마구 지었기 때문이다. 지명이 생활 문화와 자연 환경을 반영하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그저 길 찾거나 주소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명이 단순한 길 찾기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선진국 등 다른 나라나 유엔 등의 기구에서는 지명을 문화유산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임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현행 도로 명 주소 사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승하는 동명을 없애고 국가의 주소 체계를 바꾸는 엄청난 사업인데도 안전행정부는 기반 조사와 시행 검토 과정에서 지명학자들의 성과와 충언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들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중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앞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현행 도로 명 주소는 문화 역사 면[전래 고유 문화 파괴 및 망실, 문화 공동체 파괴 우려, 우리와 외국 문화 차이 간과], 정보 기억 인지·저장 면(‘선’ 중심의 도로 명 주소가 면 인식에서 선 인식으로, 또 음절수 과다한 것 많아짐에 따라 인지 면에서 더 어려워지고, 기억해야 할 정보 양 더 많아짐.), 국민 행복 추구 면, 문화 향유 추구 면, 주소 체계 면(기억하기 어렵게, 길고 복잡한 숫자 나열식 도로 명 주소로 되어 주소 체계 면에서 더 복잡하고, 자연 지형을 따라 골목이 형성된 우리 현실 여건에 알맞지 않고,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이라고 하나 일반인은 과학적 체계적인 것보다 복잡하지 않고 편리한 것 원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가 정책은 국민 행복 추구, 문화 향유 돕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다. 국민 복지와 국민 권익을 화두에 올리는 현 시점에서는 특히 노인 등 기억 장애인을 생각해야 한다.

예산 면에서 이미 4000억 원 이상이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버렸는데, 밀고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만 두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들 돈은 국민 기억, 심적 고통 비용, 문화 향유, 행복 추구 등등 수조원이 넘을 것이다. 다음 비유가 이 지적

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서울로 가야 하는데, 가는 길을 잘못 들어 부산 다 와서 알아차렸다면 그냥 부산으로 가야 할까? 아니면 방향 틀어 서울로 가야 할까?

### <참고문헌>

『戶口 總數』(1789)

국토지리정보원(2013), 국가지명위원회 자료집.

손희하·김경(2009), 『나주 혁신 도시 수용 지구 지명. 빛가람, 천년의 빛으로 흐른다』.

송경주(2013), 『지역정보화지』 78, 도로명주소 새주소.

조명래(2014), '도로명 주소'...혼란 어떻게 줄일까?, 와이티엔 2014. 1.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496022>

조선총독부(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영인판,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태학사, 1997.

## 2. 제2차 포럼

### 가. 일정

- ▶ 주제 :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중언어 정책과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
- ▶ 일시 : 2014년 8월 21일(목) 09:30~18:30
- ▶ 장소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박물관 세미나실
- ▶ 주최 : 국립국어원·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 ▶ 주관 : 우리말학회

#### 〈국어 정책 포럼〉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 / [원진숙(서울교대)]

다중 언어 정책의 필요성과 문화 다양성 / [강휘원(평택대)]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위상 / [권순희(이화여대)]

#### ▶ 포럼 일정

구 분		발 표 및 내 용	사 회
국어 정책 포럼	14:30 ~ 14:50	축사 국립국어원장 민현식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대표 이삼형	배도용 (부산외대)
	14:50 ~ 17:50	<주제 발표> 1) 원진숙(서울교대),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 한 언어 교육 정책 2) 강휘원(평택대), 다중 언어 정책의 필요성과 문화 다양성 3) 권순희(이화여대),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위상  <질의 및 응답>	
휴식	17:50 ~ 18:00	휴식	
총회	18:00 ~ 18:30	우리말학회 총회 및 간담회	김문기 (동아대)

## 나. 발표 내용

### 1)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 / 원진숙 (서울교대)

#### 1.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학습자의 출현

우리나라는 지난 5천년동안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단일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왔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국가 간 인구 이동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자 등이 급증하게 되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13년 8월 교육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5만 5,767명으로 전년도 대비 8,813명이 늘어나 약 20%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정부가 다문화 가정 학생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06년 9,389명과 비교하면 7년 만에 무려 6배가 늘어난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가 매년 22만 명씩 감소하는 것과 대비하여 다문화 학생 수는 연평균 7천 명씩 증가하여 현재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약 1%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유형별로는 국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자녀가 4만 5,674명(81.9%), 외국에서 태어나 중도입국한 국제결혼 자녀가 4,931명(8.8%), 외국인 가정 자녀가 5,162명(9.3%)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생이 3만 9,423명(70.7%), 중학생이 1만 1,235명(20.1%), 고등학생이 4,827명(8.7%)으로 초등학교생들의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어린 시절을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하는 중도입국 학생 수가 전년도 대비 69%나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중도입국 학생들은 이주로 인한 생애 전환을 경험하면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낯선 한국의 교육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섬’처럼 고립되어 지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이 가장 절실한 수요자들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인 이들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 정체성 혼란, 학업 부진을 겪고 있으며, 절대 다수가 부모의 인적 자본(학력, 직업, 한국어 능력 등)이 취약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고 학업 중단율도 높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학습자군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급증하는 이들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련될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다른 여러 나라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 현황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부 주도하에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기반해 바람직한 우리 한국 사회의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총체적인 언어 교육 정책의 지향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2.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의 국제 동향

전세계적으로 국가 간 인구 이동이 늘어남에 따라 이민자 가정의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 지원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의 경우, 다문화 배경 아동에 대한 언어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주류 언어인 제2언어교육과 학습자의 모어 유지를 장려하는 계승어 교육 및 이중언어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1989년 11월 20일 UN 총회에서 결의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9조의 다‘항에서 모든 아동이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류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를 학습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 가치를 통해 건전한 세계인(global citizen)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 1) 캐나다의 사례

캐나다는 이민자 자녀의 계승어 교육이 ‘국익으로 연결되는 언어 자원’이라는 이념 아래 4세-14세 아동의 계승어 유지 권리를 다문화주의법(Multiculturalism Act)으로 보장해 주고, 주 교육위원회가 추천하여 계승어 유지를 위한 보호자 계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계승어 교육을 희망하는 보호자가 교육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주당 25시간의 계승어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지어 교육은 ESL, ELD, LEAP라는 세 종류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현지어인 기초 영어 능력을 강화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프로그램, 영어 회화는 할 수 있지만 읽기와 쓰기가 부족한 학생을 위한 ELD(English Literacy Development) 프로그램, 교과 학습 언어 능력을 강화하는 LEAP(Literacy Enrichment Academic Program) 프로그램이다.

또한 새로운 교육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이주 가정의 부모와 만 6세까지의 자녀를 위해 가족 문해력 프로그램(Family Literacy Program)을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서 자녀와 접촉하는 방법,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읽기 쓰기의 기초, 학교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지역 사회 안의 제반 공공시설에 관한 정보를 지원해 주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또한 이들 소수 언어 학생을 위한 교사 자격 제도가 체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 이미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ESL을 가르치기 위한 자격(Part 1), 교과목으로서 ESL을 가르치기 위한 자격(Part II), 다문화 아동이 많은 학교의 교장이나 코디네이터가 되는 자격(Part III) 등 세 가지의 추가 자격을 요구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2) 호주의 사례

언어적 통합을 호주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주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호주는 현지어인 영어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비영어계 이민자들의 주류 문화에로의 적응을 촉진하는 한편 그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소수 민족 공동체의 문화 및 언어(Community Culture and Language)로 간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언어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류 문화에의 반발과 불만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영어 교육과 더불어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 교육이 호주 국익에 직결된다는 연방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호주는 학령기 이주 청소년 대상 영어 교육을 국가 수준의 책무로 인식하고 CMEP(Child Migrant English Program)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전체 교육 과정 속에 ESL이 유기적으로 흡수되도록 하면서 다문화 다언어 다인종 사회에 대한 인식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 위원회를 설립하고 연방 다문화 교육 정책의 수립을 통해 영어 이외의 언어 교육, 즉 학령기 이주 청소년들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것이 호주 사회의 통합과 경제적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1주에 최소 2시간 이상 해당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Community Language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

## 3) 미국의 사례

대표적 다문화 국가인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거주하며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령기 인구가 이미 20%를 넘을 정도로 많아 이들을 위한 영어 능력 향상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68년 이중 언어 교육법(Bilingual Education Act)이 개정되기 전까지 비표준 영어를 사용하는 소수 민족 어린이에게 하루 속히 자신의 모어를 버리고 표준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준 영어만 인정하고 가르치는 단일 언어 교육을 시행해왔다. 소위 ‘용광로(Melting Pot)’로 비유되는 동화 정책에 입각해서 소수 민족 아동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표준 영어를 가르치려 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표준 영어만을 가르치는 단일 언어 교육은 소수 민족의 아동들로 하여금 하루 빨리 주류 계층의 언어를 배우게 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적응하게 하겠다는 배려 차원의 언어 정책이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소수 민족 아동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교육적 배려 차원의 언어 교육이 자신의 모어를 거부하고 주류 계층의 언어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춰져, 도리어 학교 생활을 위축시키고 적응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미국이 이중 언어 교육을 시행하게 된 사회적 배경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 결과였다. 이중 언어 교육은 소수 민족 출신의 아동들에게 자신의 모어와 표준 영어의 두 개 언어를 통해서 교육함으로써 학교에서 보다 나은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중언어교육법은 1968년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무려 다섯 번의 재개정 과정을 거치다가 2002년 NCLB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통과되면서 정체되었다. 국가 수준의 시



험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고 학생의 수준 향상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부과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를 달성하는 것을 강조하는 NCLB 법에서는 영어 능력이 낮은 학생과 이민자 학생의 영어 능력 및 학업 성취도 향상을 골자로 하는 Title III를 포함하고 있다. NCLB법은 그동안 방치되어 온 소수 언어 출신 학습자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구조화된 영어 몰입 프로그램, 교과 통합 보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영어 습득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여 다문화 구성원들의 소수 민족 학생의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이 갖는 잠재적 가치를 인정하기 보다는 모국어 사용은 물론 이중언어교육을 위축시켰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4) 중국의 사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다언어 다문화 국가인 중국은 소수 민족들의 언어와 문자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조에서 “각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과 습관을 보존 또는 개혁할 자유를 가진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 정책으로 인해 각 소수 민족들은 중앙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각 민족 학교를 중심으로 고유의 민족어로 자녀들을 교육함은 물론 각 지방 자치 기관을 중심으로 출판, 방송, 문화, 예술, 학문 등을 자신의 문화적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인민 정부는 소수 민족 문자로 된 교재와 출판물의 출판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은 물론이고 대학교와 중등 전문 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때 소수 민족 수험생들의 합격 기준과 조건을 낮춰 주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은 이렇게 다민족 다언어 국가로서 수 민족의 언어 사용을 권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동시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한족의 언어인 ‘보통화(普通話)’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소수 민족이 자신의 언어와 문자만 학습하고 보통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없고, 관리가 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유 언어와 함께 보통화를 배우게 되면서 민족어와 보통화인 한어에 대한 경쟁적 관계가 형성된다.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캐나다, 호주, 미국,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오랜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서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자신의 모어 내지 계승어를 유지하면서도 주류 언어인 현지어 교육을 통해서 문화 충돌을 최소화하고 그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조화롭게 병행해 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어가 한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도구이며,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다문화주의의 측면에서 보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벽을 허무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여러 나라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교육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 3. 한국의 다문화 학생 대상 언어 교육 지원 정책 현황

언어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도구이지만 삶의 본질을 결정하는 요인이고, 문화가 전수되는 도구이기도 하다. 사회 통합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결국 언어 교육의 문제이다. 어느 사회든 그 사회가 지닌 중핵적 가치 체계는 학교에서 통용되는 정교화된 코드로서의 언어를 교육함으로써 전수되게 마련이고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언어를 학습함으로써 그 사회의 유능한 일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국가적 수준에서 다문화 배경 언어 소수자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는 출발선상에서부터 사회적으로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한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주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언어적 소수 집단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언어 교육의 방향은 제2언어 교육의 관점, 계승어 교육의 관점, 외국어 교육의 관점,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 이렇게 네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본 절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배경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의 방향을 크게 KSL 교육과 이중언어교육으로 나누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아직 시작 단계라 확고한 운영 철학이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나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미 공교육 안에서 2009년부터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하여 일선 학교에 배치하여 중도 입국 학생 등 다문화 배경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고, 2012년에 KSL 교육과정이 개발 고시되어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KSL 교육이 몇몇 다문화 예비 학교, KSL 연구 학교, 글로벌 선도학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SL 교육은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이들 언어 소수자 자녀의 한국어 능력 및 학업 성취도를 함양해 줌으로써 일반 학생과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갖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 이중언어교육은 자신의 배경이 되는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 부모와의 소통은 물론 점차 그들 모국과 우리 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 1) KSL 교육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언어 소수자 자녀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한다면 무엇보다 학교에서 주류 사회의 언어를 습득하고 일정 정도의 학업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 주류 사회의 언어를 숙달하지 않고서는 학교에서 교육적 성공을 경험하기 어렵고 학업 중퇴율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KSL 교육은 공교육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다문화 언어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공교육 안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자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정책 방향을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및 기초 학력 향상, 다

문화 가정 학부모의 교육 역량 강화, 다문화 교육 기반 구축, 다문화 이해 제고 및 확산으로 설정하고 2012년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 지원, 한국어 교육과정 도입, 기초 학력 책임 지도 등을 골자로 한 ‘다문화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다문화 교육 선진화 방안’에 기반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중도입국학생과 같이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개발 고시하고 2013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다문화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KSL) 교육을 시행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7월 교육부에서 개발 고시한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국어 과목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교과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써 장차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하는 과목이다.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어(KSL)’ 과목의 성격은 제시된 바와 같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이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여러 교과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배경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활 한국어 능력과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요구되는 학습 한국어 능력 신장이라는 이원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 KSL 교육은 일반적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FL)이 의사소통에 필요한 생활 한국어(BICS)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달리 교과 학습에 필요한 학습 한국어(CALP)까지도 함께 신장시켜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이 학교에 편입되는 순간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능력과 교과 학습을 위한 한국어 능력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KSL)은 단순히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자칫 부족한 한국어 능력 때문에 원천적으로 접근이 어렵지만 그 학령기에 반드시 학습해야 할 수학, 사회, 과학 등 일반 내용 교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반드시 가르쳐야 할(minimum essentials) 교육 요소들을 교육하는 일종의 보호 프로그램(Sheltered Program) 내지는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둬으로써 일반 학급에서 모여 학습자들과 나란히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딤돌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다.

한국어를 모르는 소수 언어 학습자를 일반 아동과 같은 반에서 그들이 배우는 모든 정규 교과목을 한국어로 배우도록 할 경우, 대개는 서브머전(submersion) 상태에 머무르게 되면서 한국어와 교과 학습 면에서 심각한 수준의 좌절과 부적응을 경험하게 됨은 물론 자신의 모어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제한적 이중언어 상태에 빠져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갖게 되고 급기야

학교를 중도에 이탈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KSL 교육과정은 한국어 모어 화자인 일반 학생들로부터 새롭게 목표 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을 분리하여 일상적 의사소통 능력인 생활 한국어뿐만 아니라 그 학년 수준에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 내용으로서의 학습 한국어를 가르치는 보호 프로그램(Sheltered Program)의 차원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보호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에게 목표 언어인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어 능력은 물론 학년에 맞는 교과 내용을 함께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교사는 교과 내용이 학습자에게 의미 있게 전달되도록 다양한 비계 지원 전략을 사용하여 수업 내용을 학습자의 언어 숙달 정도에 맞추고 교과 내용을 학습자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과 결부시켜 학습자간의 협동 작업을 통해 교육과정의 내용을 교수한다.

흔히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한국어를 모르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에 대해 갖기 쉬운 편견은 이들이 겪는 학습 부진을 그들의 인지 능력 부족 혹은 학습 장애로 인식한다거나 내용 교과 학습은 어느 정도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은 단지 한국어를 모를 뿐 학습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며, 한국어로 이주해 오기 전에 이미 자신의 모어로 학습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비계 지원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내용 교과 학습이 가능하다. 한국어를 어느 수준으로 배운 다음에야 교과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과 학습을 하면서 오히려 한국어 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절대 다수의 다문화 배경 학생들에게 KSL 교육은 학교라는 삶의 공간 안에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을 통해 장차 한국이라는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 KSL 교육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2012년 7월 ‘다문화 학생 대상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개발 고시하고,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급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표준 교재 개발 작업과 국립국제교육원을 중심으로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진단 평가할 수 있는 검사 도구 개발 작업, KSL 담당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다문화 예비 학교 및 다솜학교, 인천 한누리 학교 등과 같은 공립형 다문화 대안 학교 설치, 글로벌 선도학교, KSL 교육과정 연구 학교 등을 지정하였다. 2013년 1학기부터 초중등학교 시행령에 의거,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학생이 있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지역 사회나 학교 상황에 맞게 주당 10시간 내외로 한국어 교과를 개설하고, KSL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교육 안에서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전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국가 평생 교육진흥원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일선 학교의 KSL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중심으로 KSL 표준 교재 배포 및 KSL 담당 교원 연수, KSL 교육 현장 실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KSL 교육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KSL 교육은 지역 사회와 단위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유형별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형태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 2)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는 언어 문제는 관점에 따라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 문제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사회적 자원이 될 수도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배경이 되는 언어(heritage language)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될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 부모의 모국과 우리 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언어적 배경을 충분히 배려하여 두 개의 언어를 통한 이중 언어 교육(bilingual education)을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개성 있는 일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은 자신의 배경이 되는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들 부모와의 소통은 물론 장차 그들 모국과 우리 사회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박영순(2008)은 이러한 이중 언어 교육의 원리로 모든 아동은 부모의 재산이나 직업, 인종과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의 원리, 이중 언어 교육은 인권(human right)의 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원리, 사람은 교육적 처방만 제대로 해 준다면 여러 개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개인의 능력 개발 극대화 원리를 들고 있다. 이중언어교육은 넓은 의미로는 '두 개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이지만, 좁은 의미로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여 가르치는 교육을 의미한다. 전자는 이중언어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초점이 주어진 개념 정의라면, 후자는 교육 방법을 강조한 개념 정의이다. 공교육 안에서 이중언어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은 한국어와 자신의 배경 언어 둘 다를 훌륭하게 잘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방향의 교육과 보호 프로그램인 KSL 교육 국면에서 한국어를 처음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중언어 강사의 비계 지원을 통해 접근하는 방향의 교육이 있을 수 있다. 아직 우리의 공교육 현실에서 전자의 이중언어교육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지만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여 가르치는' 후자의 이중언어 교육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중언어 강사 제도를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이주 배경 중도 입국 학생을 전혀 새로운 교육 환경 속에서 어떠한 교육적 배려나 지원 없이 낯선 한국어로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교과목을 배우도록 방치할 경우, 이들 학습자들은 서서히 자신의 모국어도 잊어버리면서 한국어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는 침잠(submersion)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주류 언어가 한국어인 교수 학습 환경 속에 노출되

면서 상호 작용의 양이 많지 않은 자신의 배경 언어는 자연스럽게 퇴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문화 학습자는 자칫 자신의 모어도 잃어버리고 주류 언어인 한국어 능력도 부족한 제한된 수준의 이중언어 상태에 머무르게 되어 일반 학생과 인지 발달 측면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중도 입국 학생의 경우 자신의 제1언어인 모어로 어느 정도의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중언어 강사의 적절한 비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어 습득과 교과 학습이 어떻게든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없이 서브 머전 상태로 방치될 경우, 제1언어가 충분하지 않은 시점에서 제2언어를 집중적으로 접하게 되면 모어를 상실하고 제2언어도 불충분한 감산적 이중언어 상태에 빠지게 되어 학습 부진의 늪을 벗어날 길이 없어지게 된다.

Cummins(1979, 1991)는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숙달도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제1언어의 공고한 토대가 제2언어를 보다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소수 민족 아동의 제 1언어를 유지하는 것이 제2언어의 숙달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Guthrie(2004:4)의 지적처럼 학교에서의 모어 사용은 다문화 배경 학생의 자존감을 고양하여 두 문화에 대해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습자가 가장 처음 배운 언어이면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학습자의 모어(L1)는 그들의 자존감과 자아정체성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중 언어 교육에 관한 이러한 제반 관점들을 고려한다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제1언어는 학교 생활 적응을 저해하는 방해 요인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의 인지 능력을 극대화하는 매우 가치로운 자산인 셈이다. 다언어, 다문화 사회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두 개 이상의 언어에 통달하게 도와주는 것을 본질로 하는 이중 언어 교육은 이들 다문화 가정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류 사회의 학교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부여할 수 있는(empowerment) 매우 가치로운 교육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다문화 배경 고학력 결혼 이주 여성들을 선발하여 초등 교사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교에서 6개월 900시간의 집중 교육을 통해 이중 언어 강사로 양성하여 일선 학교에 배치한 이래 인천, 경기도, 경남, 경북, 부산, 강원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현재 400여명의 이중언어 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중언어 강사는 학생들과 비슷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동질감과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이중언어 강사는 학교에서 수업의 협력자로서 중도 입국 학생 등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다문화 배경 학습자에게 적정 수준의 이해가능한 입력을 제공해 주는 인지적 측면의 비계 지원자 역할은 물론 낯선 언어를 통해 학습하는 데서 생길 수 있는 긴장을 최소화함으로써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이중언어 강사는 다문화 배경 학생의 부모 나라 언어 및 문화 지도, 학교 생활 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학습 보조 교사, 통역 지원, 다문화 학생 상담, 다문화 학생 교육 활동과 관련된 업무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

학생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중언어 강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되면서 학생과 학교 교직원들의 다문화적 감수성과 다문화적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이중언어 강사가 배치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 이중언어강사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이중언어 교육보다는 일반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40.20%)과 방과후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교육(31.86%)에 집중되어 있고,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 교육이나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통한 학교 교과 수업 등 이중언어 교육 본연의 업무는 극히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이중언어 교육은 소수 집단의 배려, 정체성 확립, 모국어 보전, 글로벌 인적 자원의 육성 및 활용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육 현장의 이중언어 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이중언어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중언어 강사 정책은 당초 시작 단계부터 명확한 목표 설정 없이 시작됨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 범위가 모호하고 이로 인한 혼란이 온전한 이중언어 교육이 착근되도록 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방향

지금까지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다른 여러 나라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 현황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정부 주도하에 공교육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고 있는 KSL 교육과정 및 이중언어 강사 제도를 통한 다문화 학생 대상 언어 교육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우리 공교육 안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사회 통합은 관점에 따라 자칫 다른 문화권 출신의 외국인을 우리 문화에 복속시키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이란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이민자들이 자신의 고유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언어와 문화, 규범 등을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그들 나름의 언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건강한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사회의 언어 교육 정책은 장기적이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류 문화권의 언어인 제2언어와 함께 소수 문화권의 언어인 계승어를 함께 고려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방향에

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회 통합 차원에서 비주류권인 소수 언어 사용자로 하여금 주류권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더 큰 무게를 두면서도 동시에 소수 언어권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고 장려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언어 교육 정책은 이중언어교육 등을 통해서 소수 문화권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언어와 문화로 대표되는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면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통해 문화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면서 그들이 지닌 언어와 문화를 우리 사회의 가치로운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일방적 보상과 시혜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추진되어 온 면이 없지 않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을 미래의 자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다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언어 소수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언어 정책은 소외 계층을 최소한 줄여 보자는 소극적 의미의 정책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율적 권리와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으로 키우고자 하는 적극적 의미의 정책 의도를 반영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닌 체계적인 절차와 과정을 수반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교육 안에서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캐나다가 이주 가정의 학생의 계승어 유지 권리를 다문화주의법으로 보장해 주고, 미국이 NCLB법(학생 낙오 방지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Title III에 의거하여 이민 배경 학생들의 영어 교육 및 학업 성취를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다문화 교육 기반과 언어 교육 정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교육 안에서 착근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다문화 가정 학생 언어 교육 지원법’을 마련하거나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적극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의무화’의 문구를 포함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조항들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을 공교육 안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선 지속적 재정 확보와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렵게 양성한 이중언어 강사들을 일선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중언어 교육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충하고 확고한 이중언어 강사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KSL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KSL 교육 대상 학교 선정 및 지원, 전문성 있는 교육 인력 확보, 교육의 질 관리, 평가 관리 체제 구축 등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처 간의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이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



되는 것을 막고 정책의 질을 보장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는 교육부가 주도하면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 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지역별 다문화 배경 학습자 대상 맞춤형 한국어 교육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일관된 원칙하에 학교 안에서 교과외의 지위로 들어온 KSL 교육과정을 실행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문성 있는 교사 양성 및 배치, 교과서 개발 및 보급, KSL 교육 업무와 KSL 연구 운영 학교 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강은국(2013), 중국의 민족 어문 정책과 조선 어문 교육, 새국어생활 23권 4호.
- 교육부(2013), 한국어(KSL) 교육과정.
- 김윤주(2014),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의 이해와 원리, 한국문화사.
- 나카지마 가즈코 편저(2012), 이중언어와 다언어의 교육-캐나다·미국·일본의 연구와 실천, 한글파크.
- 나카지마 가즈코(2013), 다중 언어 육성 이론의 동향과 캐나다, 미국, 일본의 다언어·다문화 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23권 4호.
- 모경환·황혜원(2013), 미국의 이중언어교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새국어생활 23권 4호.
- 박형민 외(2014),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CR 2014-1,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중앙다문화교육센터.
- 성기철(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의 과제, 한국언어문화학 제5권 2호.
- 원진숙(2007), 다문화 시대의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연구 30.
- 원진숙(2013),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KSL 교육의 정체성, 언어 사실과 관점 31.
- 원진숙(2014),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의 과제, 국어교육 144.
- 이재분 외(2010), 다문화 가족 자녀의 결혼 이민 부모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 지원 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 장인실 외(2014), 이중언어강사의 역할과 발전적 활용 방안, 경인교대 한국다문화교육연구원.
- 전은주(2009),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6.
- 정희원(2013),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와 언어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23권 4호.
- 최희재(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교육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 지원 방안 모색, 한국프랑스학논집 75.
- Cummins, J.(1978) Educational Implications of Mother-tongue Maintenance in Minority-language Children.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34(3), 395-416.
- Cummins, J.(1991), Interdependence of first-and second-language proficiency in bilingual children, E.Bialystok(ed.), Language Processing in Bilingual Childre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70-89.
- Cummins, J.(2001), *Negotiating Identities: Education for Empoerment in a Diverse Society* 2nd ed. LA California Association for Bilingual Education.
- Cummins, J.(2007), *Language Interactions in the Classroom: From Coercive to Collaborative Relations of Power*, In O. Garcia & C. Baker(eds). *Bilingual Education: An Introductiory Reader*. Clevedon, UK:Multilingual Matters 108-134.
- Guthrie(2004), *Teaching for Literacy Engagement*,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36(1))
- Snow (2005), *A model of academic literacy for integrated language and content instruction*, In Hinkel, Eli(eds),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3rd ed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 693-712./
- Socorro G. Herrera & Kevin G. Murry(2005), *Mastering ESL and Bilingual Methods-Differentiated Instruction for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Students*, Pearson.
- Thomas, W. & Collier, V.(2002), *A national study of school effectiveness for language minority students' long-term academic achievement*. Santa Cruz. CA and Washington, DC;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Diversity and Excellence.

## 2) 다중 언어 정책의 필요성과 문화 다양성 / 강휘원(평택대)

### I. 서론

특정 국가 내의 다양한 인종의 존재 및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재발견은 그 국가 내 사회통합의 당위성을 인식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ies)에 대한 소수인종의 참여 및 접근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하여 인종적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처할 필요성이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성은 지구상에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일반적인 특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세계화 담론의 확산 및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인한 냉전과 양극적인 국제질서의 종식 등은 인종적, 종교적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들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세계화’는 시간과 공간을 압축시켜 대규모 사회적 및 문화적 변화를 초래하면서 고전적 국가이론에 도전하고 있다(Robertson, 1992). 이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인종의 국제 이주 증가는 국가 차원의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이주민, 즉 난민(refugees), 이민자(immigrants) 및 노동자(workers)의 이동 등에 의하여 유도된 대규모의 이주는 다양한 소수인종의 문화적·언어적 정체성 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대하게 하였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와 같은 전통적인 이민국가의 소수인종 문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의 탈식민적 국가 형성과정에서의 인종 문제, 유럽국가 내의 소수인종 노동자들의 문제, 탈 소련 국가들의 민족적·인종적 문제 등 지구상의 수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다양성의 문제를 안고 갈등을 겪어 오고 있다. 인종적·문화적 다양성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별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정책 지향을 위한 국가 이념을 채택하여 사회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이념 분류의 한 유형으로 배제주의(분리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로의 구분을 들 수 있다(Castles & Miller, 2009). 그러나 배제주의나 동화주의에 대한 인식은 항상 의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극단적인 경우에 인종차별이나 대량학살과 같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제도적 관행을 통하여 암묵적이고도 간접적인 배제도 포함한다(Gamson, 1995; Inglis, 1996).<sup>1)</sup>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사회의 문화적 및 사회적 다양성의 대응을 위한 민주적인 정책대응이다(Inglis, 1996; Vertovec, 1996). 인종 및 문화 다양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으로서, 교육, 언어, 경제 및 사회적 요소와 특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 대응하는 다문화주의는 소수의 국가,

1) 이러한 배제주의(분리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실례로, 때로 보스니아와 르완다에서와 같은 갈등 상황과 비극을 들 수 있다. 보스니아 내전은 1992년 4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보스니아 지역에서 일어난 유고슬로비아 연방 내 민족들 간의 무력 충돌이며, 결과적으로 유고 연방이 해체되고,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으로 분립 독립하였다. 이 내전은 ‘인종청소’(ethnic cleansing)라는 비극적 용어도 유행하게 하였다. 르완다 내전은 투치족과 후투족 사이의 오랜 부족 갈등으로 인하여 지엽적인 분쟁을 겪어오던 차에 비극적인 1차 내전은 1990년 10월 1일부터 1993년 8월 4일, 2차 내전은 1994년 4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민간인들에 대한 집단학살 및 기아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50-1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Wikipedia 참조)

특히 호주, 캐나다 및 스웨덴에서 채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한 국가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구성된 다양한 인종에 기반한 문화 다양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 갈등 해소에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다중언어정책이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중언어정책의 필요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인종·문화 다양성의 형성 요인, 인종(민족)집단 형성에서 언어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둘째, 다중언어정책의 본질적 특성을 다루는데, 여기서는 우선 국가 이념으로 다문화주의의 성립과 그 집행 정책의 하나로 다중언어정책의 유형과 특성 등을 다룬다. 셋째, 다중언어정책을 채택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그들이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면, 궁극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 다중언어정책의 필요성의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다중언어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다중언어정책’은 복수의 언어가 국가 내의 공식언어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책이 아니라, 소수인종 언어 사용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공식언어를 포함하여 소수인종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고려하는 언어정책을 의미한다.

## II. 문화다양성과 다중언어정책 논의의 이론적 배경

### 1.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형성 요인과 특성 변화

문화 다양성의 원인으로는 인종 다양성이 전제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발생한 정치적, 경제적 및 인구학적 변화의 결과로서 인종관계의 유형 및 인종 다양성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과거 연구에 의하면, 전체 국가들의 10% 내지 15%만이 동질적인 민족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Connor, 1994; Väryinen, 1994). 그러나 현재는 이 비율이 점점 더 감소할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적 동질적인 인종과 문화에 기반한 민족국가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해 온 우리나라와 같이, 소위 기존에 소수인종이 거의 없었던 국가들까지도 현재 인종 다양성 이슈를 다루어야 하고 적절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인종 다양성의 긴 역사를 지니고 있던 국가들도 기존 소수민족 사이의 관계가 최근 변화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한 국가 내에 인종·문화 다양성의 형성요인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설명될 수 있다.

#### 1) 국가 내 정치적 변화

유럽이나 소련 등 기존 국가들의 분열이나 연방의 해체, 또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독립 신생국이나 과거 식민지 정부들이 안정된 정부조직을 세우려는 국가에서는 민족관계의 유형은 가장 유동적이면서 종종 폭력적인 양상을 띤다. 기존에 식민국가가 더욱 활력적인 정치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곳에서, 법적 시민권의 획득을 협상할 수 있는 토착 민족 내지는 인종집단들 가운데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갈등을 노출해 왔다.

## 2) 국가 간 이주

### (1) 아시아 지역의 이주 유형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경험한 근래의 아시아 국가들은 노동력 부족을 영주정착을 위한 이주보다는 계약 노동이주 또는 불법이주를 포함하는 과정을 통하여 충족되어 왔다. 이주자 소수집단에 속한다는 것은 불이익과 관련되어지는데, 이들 새로운 이주자들이 기존의 주류사회나 오래된 소수민족이 향유하는 시민권도 없고 사회참여를 온전히 향유하기 위한 다른 권리들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약 노동이주를 채택하고 있는 중동, 일본 및 한국에서 법적 지위의 차이는 이주노동자 집단과 동질성이 강한 지배민족 간의 사회적 분리로 인해 더욱 강화된다.

### (2) 유럽의 이주 유형

서유럽만큼 인종관계의 공존 유형의 다양성이 더욱 뚜렷한 곳은 없다. 많은 유럽국가에 존재하는 기존에 확립된 소수민족 집단들과 더불어 이러한 새로운 이민자집단들을 고려할 때, 인종 다양성의 유럽식 유형의 복잡함은 관련된 특정 민족집단들과 그들의 법적 지위의 양자의 관점에서 확실해진다. 첫째, 1970년대까지 독일, 스위스 및 기타 유럽 국가에서 폭넓게 사용된 계약 노동이민 또는 '게스트 워커'(guest workers) 노동이민이었다. 최근에 다시 대두된 노동력의 필요성은 이 제도의 재도입을 고려하게 되었다. 실례로, 1993년에 독일은 중앙 및 동유럽으로부터 181,000명, 스위스는 72,000명, 오스트리아는 16,000명, 프랑스는 11,000명의 계약노동자들을 불러들였다(OECD 1995, p. 21). 그러나 독일 인구의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는 독일 시민권을 발급받기가 용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90만 명의 터키인들과 게스트워커 그리고 독일에서 태어났으나 독일 시민권이 없는 그들의 자녀들이다(OECD 1995, p. 202). 이와 유사한 비시민권자 집단들이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존재한다. 둘째, 국가 간 노동이주의 중요한 유럽형 유형으로 1992년 1월 이후 유럽연합(EU) 역내에서는 EU 역외 계약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규제 없이 자유로이 이주하고 일할 수 있는 EU 회원국들의 노동자 이주이다.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럽국가로 이주한 사람과 영국 또는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의 과거 식민지 출신으로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의 이주유형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서 서독은 전후(戰後) 동독이나 동유럽으로부터 많은 독일인들을 수용하였으며 이들은 바로 독일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넷째, 유럽 국가들은 많은 인구의 유학생, 기업인 그리고 다양한 범위의 거주 권리를 지닌 난민들이 존재하고 있다. 유럽의 민족 다양성 유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수의 망명 신청자, 불법 입국자 및 여러 국가에서 기타 법적 제한 아래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다.

### (3)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통 이민국가의 이주 유형

영주이민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호주, 캐나다 및 미국에서 조차 새로운 형태의 이주와 새로운 출신지역의 다양화는 기존 소수민족 관계에 중요한 새로운 차원을 초래하였다. 민족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제도적 유형들의 혼합은 이민자 배경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의 토착집단들도 포함하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다른 인종집단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노예역사를 가진 흑인 인종집단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전통적 이민국가들과 다른 아시아, 유럽 국가들과의 차이점은 새로운 인종집단들의 이민과 영구적인 정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 2. 인종(민족)의 형성과 언어의 사회적 역할

### 1) 언어의 역할

일반적으로 언어의 사회적 역할은 사회통합의 도구로 간주되어 진다. 첫째는, 사회의 양 개체간의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수단으로, 그리고 둘째는 공동의 세계관을 제공하면서 인종(민족)집단을 구분하고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Edwards, 1994). 사회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커뮤니케이션의 공유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의 공유된 시스템 없이는 참여자들이 협동하거나 그들의 행동계획을 조정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비록 다른 수단도 있을 수 있지만, 언어가 진화적이고 심리 발달적 의미 모두에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체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다.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사회적 과정, 행동의 상호 조정, 개인의 사회화는 언어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되어 왔다(Habermas, 1984). 따라서 언어가 사회통합에 공헌하는 것은 언어의 의사전달 기능(communicative function)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언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차원에서 공유된 세계관을 제공하는 표현 체계로서 기능한다(Luckmann, 1984). 결국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된다는 현실은 결국 표현 체계, 즉 무엇보다도 언어에 의하여 중개되는 외부화(externalization), 객관화(objectification), 내면화(internalization)의 사회과정의 결과로서 고려된다. 언어를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의 현실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공동의 세계관을 제공함으로써 집단의식의 구성과 집합적 정체성의 상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동의 세계관의 공유는 그렇지 못한 집단과 구분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인종 또는 집단은 다른 인종 또는 집단과 구분되며, 커뮤니케이션(의사전달) 수단과 공유된 표현을 통한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을 통하여도 사회통합에 공헌한다.

## 2) 언어의 인종(민족)집단 형성의 접근 방법과 분석틀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는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상징적 표현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민족 구성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와 인종(민족)집단 형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주로 소개되고 있다. 첫째, 민족의 영속적 성격을 강조하는 원초주의(primordialism)이다(임지현, 2000). 이 이론은 사회집단이 객관적으로 “주어진”(given) 것으로 간주되는 영토, 종교, 문화, 사회조직, 언어와 같은 원초적 유대에 기초해 있다고 가정한다. 언어와 공통의 문화, 유산, 종교, 관습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민족의 기초로서 강조하는 객관적 민족이론이다. 둘째, 민족 정체성을 복잡한 사회과정의 결과로서 간주하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로서, 이 사회과정에서 민족의 상징적 경계(symbolic boundaries)는 신화나 공통의 과거 및 언어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재구축된다고 본다(Barth, 1969). 셋째, 민족을 근대화의 부산물로 보고 있는 도구주의(instrumentalism)이다. 여기서 민족주의는 근대화와 도시화라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데올로기로서 그 역사성을 강조한다. 이 주관주의적 민족이론은 민족공동체에 기꺼이 자신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민족 구성원의 주관적 의지가 민족을 만들어 낸다고 믿는다(임지현, 2000). 이 접근 방법은 정치적 동원 및 조작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언어의 민족 구성요소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상징적 표현 기능에 대한 접근 방법 가운데서 도구주의 이론은 민족을 상징적 경계선 구축과정의 결과로서 설명하면서 언어를 민족 정체성 구축에 가장 중요한 매개수단으로 보고 있다(Fishman, 1977). 이 이론은 언어 습득의 다양한 도구와 유지 요인, 특정 민족의 언어적 구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소수집단 가운데 언어 사용의 다양한 유형들을 연구해 왔다(Dow, 1991). 최근에는 민족 형성의 정치적·경제적 요인 및 언어의 도구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이는 근대국가 및 국민형성의 맥락에서 민족과 언어가 정치 동원과 정치 갈등의 주요 원천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탈된 사회경제적 지위는 소수언어의 지위와 상호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개인의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장은 근래 “언어의 경제”(economy of languages)라는 주제의 핵심이다(Grin & Sfreddo, 1996).

이러한 세 가지의 접근 방법 가운데서 문화의 다양성과 다중언어정책의 관계는 도구주의의 입장이 강조될 것이다. 사실 오늘날의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형성은 동일한 인종이나 언어와 같은 원초적 유대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신화나 공통의 과거와 같은 구성주의 요소로서 사회나 국가가 재구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산업화내지는 세계화, 정보화, 도시화 등의 산물로서 인종이나 민족의 교류, 혼합이 이루어지고, 이를 새로운 국민국가 형성의 맥락에서 이들에게 향상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여하고 언어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정책도구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Ⅲ. 다문화주의와 다중언어정책

#### 1. 다문화주의와 정책수단

##### 1) 국가 이데올로기로서의 다문화주의

오늘날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개념의 등장 배경에는 물질 중심의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던 근대주의(modernism) 이후 1960년대에 접어들어 탈근대주의(post-modernism)의 확산과 더불어 부상한 개념으로 민주주의의 확산과 다양한 인종의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가에서 국민통합 이데올로기로서 주로 호주와 캐나다를 시작으로 채택된 개념으로 그 이후 유럽 선진국에서 많이 논의되어 온 개념이다(Parekh, 2000; Kymlicka, 2007).<sup>2)</sup> Vertovec(1996)에 의하면, 다문화주의는 몇 개의 인접한 소수집단의 단위문화가 주류사회의 단위문화를 배경으로 점점이 박혀있는 ‘모자이크(mosaic)’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 공존하며 각자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고유의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루어 내는 이른바 ‘샐러드 그릇(salad bowl)’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문화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상준(1995: 81)는 ‘다문화주의’ 용어는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과 행위를 가리킨다고 정의한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다문화사회에서 야기될 수 있는 인종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야기되는 차이의 문제로 혼란이나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주의는 다양성과 차이의 포용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지금까지 지속된 특정문화의 지배를 종결짓고, 소외당하거나 주변에 있던 다른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유문화가 독자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시·공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강희원, 2006).

한편 다인종으로 인한 다문화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가 특정 이념이나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정책 대응도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다수의 연구들은 유사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関根政美(1996)는 정부나 사회적 주류사회가 다문화정책을 시행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주의를 자유주의적, 조합적(corporate), 그리고 급진적(radical)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Castel & Miller(2009)는 배제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모델로 구분하며, Banting(2005)은 자유주의 모델, 민족주의 모델, 다문화 모델로 분류하고 있다.

2) 그러나 실제 다문화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취했던 국가들에서조차 다문화정책의 부정적 측면이 심하게 노출되면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국가 정책이념으로서의 다문화주의가 상당 부분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Joppke, 2004; Castles & Miller, 2009; MacDonald, 2010).



## 2) 다문화주의의 실현 수단으로서 다문화정책

다문화주의를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의 정합성을 높이면서 다원성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와 관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제도가 다원주의를 반영하고 구체화해야만 한다(강휘원, 2006). 이러한 구체화의 수단으로서 다문화 관련한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다문화정책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정책이슈들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주류사회의 언어와 문화교육, 통역제도, 다문화방송, 이민자·소수집단의 문화 및 언어 보존을 위한 교육과 보조,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교육·취업 상의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 사회적 관용성을 증대시키고 차별의식을 타파하여 기회평등을 저해하는 인종적, 문화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있을 수 있다. 다음 <표 1>은 사회통합을 위한 소수인종 정책이슈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다문화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소수인종 정책이슈

1. 소수민족 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민족 언어를 사용할 자유</li> <li>- 학교 강의의 매개언어로서 소수민족언어의 교육 및 사용</li> <li>- 소수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라디오, TV, 출판물의 존재</li> <li>- 보건, 복지, 법률 서비스를 포함하는 다른 제도 분야에서 소수민족 언어의 사용</li> <li>- 통역자의 이용과 소수민족 언어로 번역된 정보의 공급</li> </ul>
2. 국가 공식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 및 부모에 대한 국가 공식언어 교육에의 접근성 향상</li> </ul>
3.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배의 자유와 종교적 의식 및 관행 행사의 자유</li> <li>- 법제도나 교육에서 종교 교리에 부합한 제도나 조직 설립의 자유</li> </ul>
4. 법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시민권 거주자로서의 지위 보호</li> <li>- 영주국가의 국적 취득의 용이</li> <li>- 이중 국적의 허용</li> <li>- 소수민족집단의 특별 지위 인정</li> <li>- 소수민족 내 결사의 자유 및 자체 사회조직의 형성 권리 보장</li> <li>- 문화적 표현의 자유</li> </ul>
5.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성취기회의 평등성</li> <li>- 소수민족 학생들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는 커리큘럼</li> </ul>
6.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 없는 고용기회에의 접근성</li> <li>- 기존 자격 요건과 경험의 인정</li> <li>- 훈련기회에 접근성</li> </ul>

7. 보건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 및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성</li> <li>- 소수민족의 문화적 관습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제공</li> </ul>
8.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 없는 적절한 주택에 접근</li> </ul>
9. 인종편견 및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종 편견의 부재</li> <li>- 차별적 관행의 부재</li> </ul>
10. 국가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정체성에서 소수민족의 인정</li> </ul>
11. 정치적 대표성과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결정에서 소수민족의 참여</li> <li>- 소수민족이 자신의 관심사에 관련된 의사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 부여</li> </ul>

출처: Inglis(1996)에서 정리

## 2. 사회통합의 수단으로서 언어정책

### 1) 언어정책의 역할과 개념

이 연구는 다인종·다문화사회와 관련하여, 한 국가 내의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데, 많은 국가들이 점점 다문화사회로 변모되는 상황에서 특정 소수민족의 정체성 주장을 존중하고, 다양한 집단 간에 공유되는 공공영역에서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이원적 임무에 다중언어정책(multi-language policies)이 필요하다고 전제한다. 이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국가 또는 인종(민족)집단을 구분하는 정체성의 가장 기본단위이며, 그 집단 내에서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인종 정체성의 상징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언어 정책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 “국가가 그 나라에서 쓰는 말을 통일·발전시키려고 쓰는 정책”이라는 사전적 정의(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로 표준어의 규정, 맞춤법의 확립, 글자의 통일이나 개혁, 외국어 교육, 문맹 퇴치 등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 나아가 여기에 실천적 범위를 넓혀 “국민이 일상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국가 정부의 시정 방책”(송기중 1993: 1), 또한 언어 문제에 대해 “국가라고 하는 기구와 관련되어 나타나거나 시도되는 제반 사회적 정치 집단의 합목적적 계획이나 노선 그리고 실천”(김하수 1993: 116) 등의 좀 더 포괄적인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언어정책은 언어의 “지위(위상)계획”(status planning)과 “자료계획”(corpus planning)을 구분함으로써 분석되어진다(Kloss, 1969). “지위(위상)계획”은 주로 미디어, 교육,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 공식언어로서의 법적 지위 또는 위상 획득과 관련된 반면, “자료계획”은 언어의 음성(phonetic), 의미(semantic) 및 문법적 측면을 규칙화함으로써 공식언어 사용의 현대화 및 표준화와 관련되어 있다.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주로 언어정책 가운데서 자료계획 내용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반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는 특정 언어의 지위(위상)과 관련되어 많은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 2) 언어정책의 유형

### (1) 국가 내 다수 언어의 존재 양상(중심-주변부)에 따른 분류

국가 내 복수 언어들의 기능과 존재 양상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단일 공식언어 정책으로 사용자의 수나 지위의 측면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나의 언어만이 국민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과 관련되고 다른 언어들은 종속화 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의 대표적인 국가로는 아이슬란드와 프랑스 및 한국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아이슬란드와 우리나라는 역사적, 지리적 요인에 의해 실질적인 단일 언어 사용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면,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단일언어정책을 펼치는 국가들은 실질적으로는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임에도 ‘1국가-1언어’ 체제를 이상형으로 강력한 단일언어 사용을 추진하는 국가이다(조태린, 2010).

둘째, 이중(또는 삼중) 공식언어 정책으로 두 개 또는 세 개의 언어가 국민적 정체성과 관련되고 나머지 언어들은 주변화되는 정책으로, 벨기에, 캐나다, 스위스 등의 언어정책을 들 수 있다. 벨기에에서는 플랑드르어(네덜란드어)와 왈론어(프랑스어)가,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스위스에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이 각각의 국민적 정체성을 대변하면서 공식언어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이중 또는 삼중 언어정책에서는 특정 언어들의 사용 범위와 기능에 관한 ‘지위계획’ 측면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료계획’은 언어권 지역별로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 다수의 비공식언어 정책으로 어떠한 언어도 국민적 정체성과 관련을 맺지 못하는 다중언어 정책이다(Spolsky 2004: 60). 이러한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의 언어정책에서 흔히 발견된다(조태린, 2010). 이들 국가의 대부분의 국경선은 민족이나 언어 사용의 경계와는 상관없이 식민지배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그 경계선 내에 매우 다양한 인종 및 문화, 언어 공동체를 포함하게 되면서 과거 지배국가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했던 경험은 어느 특정 민족(인종, 부족)의 토종 국민어가 성립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중언어 상황 가운데서 특정 언어에 특별한 위상과 기능을 부여하는 ‘지위계획’ 측면이 가장 주목을 받게 된다.

### (2) 소수인종(민족) 언어의 지위에 관한 분류

국가 내에 소수민족 이슈의 수용 또는 배제를 다루는 논의와 관련하여 분리주의, 동화주의, 다문화주의의 3가지 모델로 분류되는 이론모형이 존재한다(Castles & Miller, 2009). 이러한 모형에 유추하여 다양한 소수민족 언어를 다루는 언어정책에도 동화주의, 분리주의 및 다문화주의의 3가지 모델을 적용하여 논의한다.<sup>3)</sup> 첫째, 분리주의(differentialism) 또는 배제주의

3) 이 부분은 강휘원(2009: 267-68)에서 인용하였다.

(exclusionist) 모델은 단일언어주의 이념에 의해 유도되는 측면은 동화주의와 유사하지만, 이것은 소수민족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제한다. 이 모델은 주류사회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제도와 같은 것들을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제도, 즉 학교, 미디어, 시민단체와 같은 동일한 기관들의 창출을 허용하지만, 반면 소수민족의 이러한 병렬적 기관들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킴으로써 주류사회에 소수민족의 참여를 제한한다(Keonig, 1999).

둘째, 동화주의(assimilationism) 모델은 단일언어주의를 주장하는데, 이는 주류사회로의 언어적 동질화를 목적으로 소수민족의 개인은 그들 고유의 언어적, 문화적 및 사회적 특징들을 포기한다. 비록 소수민족은 관용될 수 있고 또한 그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부여될지라도, 실제로 동화주의정책은 공공교육에서 공식언어 하나로 교육받는 것을 강요하는 교육정책에 의하여 소수집단 언어의 유지와 사용을 억제한다(Keonig, 1999). Inglis(1996)는 동화주의와 분리주의를 스펙트럼 상의 양극단에서 서로 대치하는 모형으로 분류한다.

셋째, 언어정책의 다문화주의 모델은 공공영역에서 정치권력의 공유 및 언어적 소수민족들의 동등한 참여를 목적하고 있다. 한 국가 또는 사회 내에서 민족 및 문화 다양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문화주의는 다원주의적 시민사회에서 민족 또는 문화적 정체성 집단의 독립적 존재를 인정하고,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며, 따라서 국가 헌법에 근거하여 사회통합의 모델을 제공하는 한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 안으로 포함되어 질 수 있다(Habermas, 1994).<sup>4)</sup> 위의 3개 모델 가운데서 단지 이 다문화주의 모델만이 다양한 인종(민족) 간의 평등의 필요와 그 정당성을 인정한다(Inglis, 1996). 그런데 다수의 국가에서 취하는 다문화주의의 언어정책 형태는 ‘지역적 변화유형’(regional variant type)과 ‘사회문화적 변화유형’(socio-cultural variant type)의 두 개의 하위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Keonig, 1999). 전자는 특정 문화 및 언어를 가진 민족(또는 종족)들을 속지주의 즉, 지역성 원칙(territorial principle)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지역마다 다른 언어정책을 수용하는 정책으로 벨기에나 스위스의 언어정책을 반영한다. 반면, 후자는 특정 소수민족의 교육기관, 시민단체, 미디어 등과 같은 사회적·문화적 기관 또는 제도들을 특정 지역과는 상관없이 주류사회와 동일하게 이들만의 유사한 기관 또는 제도 등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형태로 주로 호주와 캐나다의 정책 모형이 여기에 속한다.

### 3. 언어의 정치 확산과 다중언어정책

#### 1) 언어 다양성의 형성요인

역사적으로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나 민족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되어 왔다. 지구상의 약 200여개의 주권국가 가운데서 2004년 현재 160개 국가가 단일언어를 공식언어로 채택하

4) 헌법에 다문화주의를 국가이념으로 공식적 규정한 나라는 캐나다와 호주이다(Banting & Kymlicka, 2004).

고 있으며, 30개 국가가 2개 언어, 7개 국가가 3개 언어, 그리고 2개 국가가 4개 언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Breton, 2004). 이것은 세계 전체 국가의 20% 이상이 복수언어를 공식 언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언어를 나타내는 숫자에 불과하다. 실제 한 국가 속에는 법률로 규정하는 공식언어 외에도 사용되는 수많은 언어들을 가지고 있다. 실례로, 유럽언어목록(Les langues d'Europe)을 보면 유럽 46개 주권국가에 인구가 9억6천6백만명인데 222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sup>5)</sup>

한 국가 내에서도 1개 이상의 다중 언어를 사용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강휘원, 2009a: 265). 첫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에 대한 정복을 통하여 피정복국가의 주민들을 정복국가로 병합한 결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강제적 이주 또는 식민지화의 결과이었다(Spolsky, 1998: 52). 실례로, 20세기에 소련에 의하여 위성국가화되거나 민족 간 분쟁에 의한 국가의 통폐합을 경험한 다수의 중/동부 유럽국가 및 소련에 합병되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들 수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 다중언어 사용의 독특한 혼합은 그러한 과거를 반영한다(Hogan-Brun, 2006). 둘째, 스위스와 벨기에 같은 다중언어 국가들은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연합(federation)에 의하여 탄생하게 된 유형이다(Grin, 1998). 셋째, 캐나다(Cummins, 1984; Bourhis, 1994), 호주(Ozolnis, 1993; Smolicz, 1994)와 같이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하여 다민족화된 국가의 다중언어 사용을 들 수 있다. 넷째, 세계화의 따른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은 다수의 국가사회를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모시키면서 다중언어정책의 필요성이 많이 논의된다. 실례로, 1990년대 유럽연합(EU)의 형성은 유럽 역내 사람들의 이동을 증가시키고,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언어 다양성과 교류수준 증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다(Extra & Yagmur, 2004).

## 2) 언어 정치의 확산과 다중언어정책 수용의 증가

한 국가 내의 언어·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점점 더 언어 간 또는 문화 간 충돌을 경험하게 되고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의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정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확립하려는 시도는 당해 언어의 재민족화(re-ethnicization)를 초래하기 때문에 또 다른 소수집단 언어에 대한 차별과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하나의 언어를 공식언어로 사용하는 국민국가 내의 언어문제로 인한 주류사회 및 소수집단 간 갈등관계는 근래 세계화 과정에 의해 더욱 강화되어 왔는데(Extra & Yagmur, 2004),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근까지 발전한 유엔협약 및 국제법상(예, EU 협약 등)의 소수민족의 언어적 권리 보호 규정, 개별 국가 차원의 개인적 권리 보호규정과 탈민족화 및 자유민주주의 법제도의 확립은 소수집단들이 언어에 근거한 차별의 비정당성(illegitimacy)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법적·정치적 권리 주장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근거 수단들을 제공하게 되면서 갈등이 증가하고 자연적으로 언어의 정치가

5) "Les langues d'Europe" ([http://www.tlfg.ulaval.ca/axl/Langues/1div\\_cont\\_Europe.htm](http://www.tlfg.ulaval.ca/axl/Langues/1div_cont_Europe.htm)).

확대되었다(Keonig, 1999).

일반적으로, 많은 소수민족들이 공존하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의사소통의 효율성, 국가통합, 경제성 등의 이유로 단일언어의 사용을 지향하는 국가들이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갈등 해결을 언어의 동질성에서 찾으려고 단일언어를 공식언어로 선택하였다(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노르웨이, 폴란드 등)(최은순, 2005). 그러나 다른 다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갈등의 해결을 오히려 이중언어(캐나다, 핀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나 3개 언어(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심지어 4개 언어(스위스와 싱가포르)를 공식언어로 선언하게 되었다(강휘원, 2009a: 266).

#### IV. 사회통합을 위한 다중언어정책 사례 분석

##### 1. 스위스 - 다문화주의의 지역적 변화유형

스위스 연방은 중부 스위스의 3개의 조그만 독일어 공동체의 방어를 목적으로 1291년에 형성된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태리어의 공식적 지위는 1874년의 개정 연방헌법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레토-로망스어는 1938년에 공식언어로서 인정되었다(Watts, 1997: 280-1). 오늘날 스위스는 700만 명이라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레토-로망스어의 4개 국가 공식언어를 가지고 있다. 스위스는 26개의 주로 분할되어 있으며, 각 주는 스위스 연방헌법에 따라 언어적 자치가 허용되었고(제47조), 그들 자체의 공식언어를 지정한다(제70조 2항). 이 가운데서 17개 주는 독일어, 4개의 주는 프랑스어, 3개의 주는 독일어와 프랑스어의 이중언어, 1개 주는 이태리어, 1개 주는 레토-로망스어와 이태리어 및 독일어의 3개 언어를 함께 공식언어로 지정하고 있다. 2개 언어를 사용하는 주와 3개 언어를 사용하는 주는 그들의 주헌법을 규정하기 위한 언어를 선택하는 방법에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연방정부는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이들 주에 대한 지원의무를 가지고 있다(제70조 4항). 스위스에서 언어의 다양성 관리를 위한 3개의 제도적 근본원칙은 언어의 영토성(language territoriality), 언어 선택의 자유(language freedom), 언어정책의 종속성(language subsidiarity) 원칙을 취하고 있다(Grin, 1998). 영토성 원칙에 따르면, 각 주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 언어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제70조 2항). 언어 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부여(제18조)는 주민들이 상업이나 거래와 같은 사적 영역에서 자신들이 선택하는 언어를 사용할 기본적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 종속성의 원칙은 언어정책이 주의 차원에서 결정되고 집행된다는 근거에서 운영되며, 따라서 주의 권한에 속한 언어정책의 종속성은 고도로 분화되어 있다.

주요 정책효과로서, 영토성 원칙은 언어적 및 문화적 다양성의 관리를 위하여 주 사이의 균형을 특징으로 한다. 연방헌법은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어, 레토-로망스어를 공식언어로 선언하며 각 주가 주권을 가진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개별 주에서 각 언어집단들은

공립학교, 공공 미디어 등에 독립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입법의 비차별 조항들은 각 주에서 개인의 언어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수용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에서 주요 언어집단들의 동등한 대표성과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에도 중요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Grin & Sfreddo, 1996). 첫째, 법적으로 영토성 원칙에 초점을 두는 이 유형은 개인의 언어적 권리를 소수민족의 정체성 강화와 조화시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 유형은 종종 경제적 및 정치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그것은 이태리어와 같은 소수민족 언어의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이 유형은 소수집단들 사이의 상호 무관심을 심화시키는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결속을 강화시키는 다중언어교육과 같은 메커니즘의 부족을 이유로 든다. 즉, 국가 내의 다수의 공식언어가 존재함에도 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할 수 있는 연계 언어(linkage language) 또는 다중언어교육이 결핍되어 있음을 지적한다(강휘원, 2009a).

## 2. 캐나다 - 사회문화적 변화유형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다문화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주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순수 영국계와 프랑스계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다른 집단들의 비율은 다양한 정도로 증가하였다. “가시적 소수인종집단”(visible minorities)은 1996년 당시 총인구의 11.2%를 차지하였던 비율이 2001년에 13.4%, 2006년에는 16.2%로 증가하였다. 2006년 현재, 가시적 소수인종집단 가운데 아시안이 62.3%, 흑인이 15.4%, 남미계가 6.8%, 기타가 16.0%를 차지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왜 다민족 간의 화합과 평등을 주장하는 다문화국가로 되었는가? 캐나다가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영국계의 정치 경제적 우위가 확립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이민자들에게는 주류문화인 영국문화에의 동화가 요구되었지만(유정석, 2003), 역사적으로 프랑스계의 반발, 영국계/프랑스계를 제외한 백인들의 불만, 그리고 이민정책의 변화는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해 갔다. 자유당 정부는 1971년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주의를 확대한 다문화주의를 선언하게 되며, 이후 다문화주의는 1982년 캐나다 헌법에서, 1988년에는 세계 최초로 다양성을 캐나다 사회의 기본적인 성격으로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법’을 제정하였다(강휘원, 2009b).

다문화 언어정책의 사회-문화적 변화유형은 지역의 토착 원주민 언어와 이민자 언어 등 소수민족 모두의 언어적 정체성을 명백히 지원하고, 또한 “이민자 소수언어 교육”(immigrant minority language instruction, IMLI)과 같은 전략을 포함한다. 이러한 캐나다의 다민족적·다언어적 특성은 공립학교 교육제도에서 공식 및 비공식언어 모두를 사용하는 이중언어 교육제도를 창출한다. 이민자들이 자신의 모국어와 하나의 공식언어(영어 또는 프랑스/독일) 모두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 언어정책의 우선적인 목적이었다(Koenig, 1999). 이와 같이, 캐나다에서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은 보편적으로 다문화 언어정책에 의하여 강화되어 왔다.

캐나다 이중언어정책의 주요 긍정적 효과로는 첫째, 소수집단의 요구에 부응하며 그들의 정체성 회복과 다문화의 유지 및 발전을 초래하였다. 둘째, 국가의 공식언어와 소수집단의 언어를 교육언어로 병용하는 이중언어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는 노력을 통하여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치 전환을 통해 국가 내의 상징적 질서를 재구축하고 소수민족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켰다(강희원, 2009b). 그러나 많은 부정적 문제점도 노출하였는데, 첫째, 다문화주의 채택 이후 급속한 속도로 다양성이 캐나다 사회에 몰아쳐 종래와는 달리, 캐나다 사회의 영국/프랑스계 주류집단에게는 새로운 이민자의 대부분이 전문성과 업적 지향성을 지니면서 곧 바로 캐나다 주류사회에 참여하여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경쟁자로 인식되었다. 둘째, 다문화주의는 소수인종 집단의 문화와 언어를 인정하여 오히려 사회 분리현상을 고착시켜 사회통합에 방해가 된다는 견해가 자주 나타났다(Bourhis, 1994). 이와 같이, 전체 사회통합에 반대하고 다문화주의에 대항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3. 키르기스스탄 - 다문화주의 언어정책으로의 전환

1990년 소련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키르기스스탄은 10세기 이후 몽고, Chungizid족, 코칸드 칸국, 러시아 등 여러 세력에게 종속되어 왔으며, 주로 유목민 사회를 구성하며 살았는데, 1920년대의 소련 지배 이후 전통적인 키르기스 사회의 정치와 생활양식 등에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소연방 편입은 궁극적으로 생산방식과 조직유형의 변화, 다른 소수민족 거주 비율의 증가, 민족 계층화에 따른 러시아인의 우위, 도시인구의 비율 증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Koenig, 1999). 소련 해체 직전인 1989년의 다양한 언어 사용을 반영하는 인종 구성은 키르기스인 52.4%, 러시아인 21.5%, 우즈베크인 12.9%, 우크라이나인 2.5%, 독일인 2.4%, 타타르인 1.6%, 다른 중앙아시아인 0.95, 기타 3.2%로, 인구의 절반은 거의 키르기스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로 구성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장병옥, 2005).

키르기스스탄의 독립 이후 1990년대 초의 언어입법은 이전에 러시아어에 주어진 공식언어로서의 지위를 무효화하고, 공식언어로서 키르기스어의 단독 사용을 확립하였다(Huskey, 1995; Kolstoe, 1995). 그러나 다시 1993년 헌법 제5조의 수정을 통하여 러시아어에 키르기스어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이중언어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이중언어정책의 주요 배경에는, 러시아어의 공식언어 지위를 박탈하는 분리적이고 배타적인 언어정책이 오히려 소수민족 구성원의 언어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경제, 산업, 교육부문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던 전문인력의 탈국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을 비롯한 국가의 막대한 손실도 초래하였던 점이 깔려 있었다. 또한 러시아어의 종속화에 대한 반대와 단일언어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도시의 고학력 키르기스인들의 항의는 궁극적으로 단일언어 신념의 강력한 수정을 초래하였다(Koenig, 1999). 이러한 움직임은 1993년 헌법 제5조의 수정을 통하여 러시아어에 공식언어 지위를 부여하였고, 러시아인들과 독일인들은 이중국적이 허용되었으며, 인구의 다수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러시아어를 공식언어로



지정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효과는 지역적 차이를 다문화주의의 사회문화적 상이함과 조합하면서 엄격한 단일언어주의로부터 다문화 언어정책으로의 연속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것은 다원주의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이중언어(bilingual) 교육과 다국어 미디어 시스템의 확립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상황 흐름에 유연하며 민주적인 거버넌스 전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강휘원, 2008).

## V. 다중언어정책의 필요성 논의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소수인종들의 정체성과 권리 보호 및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당위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영어 교육에 대한 열풍 속에서 많은 해외 외화 유출을 초래하는 한국의 조기유학이나 해외연수 및 고가 유아원 영어교육 경쟁 환경 등, 또한 언급한 다중언어 국가들의 언어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중언어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 1. 소수인종의 정체성을 위한 ‘분리된 영역’의 인정

언어 권리조항에 있어서 동화 지향적 관용으로부터 소수민족의 명시적인 권리 강화로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소수민족 정체성의 보존과 강화가 어떻게 공공영역(public sphere)의 기능과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분석을 요구한다. 다수 연구들은 언어 권리에 대한 개인적 이해가 문제분석의 시작 단계에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Stavenhagen, 1996). 즉, 언어적 소수민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강화가 오히려 비차별, 평등, 문화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해석되어 진다. 소수민족의 정체성 강화는 소위 Eide(1994)가 말하는 “분리된 영역”(separate domain)에 위치하는 반면, “공통의 영역”(common domain)에서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이 인정되어야만 사회통합을 확보할 수 있다.

다문화 언어정책이 특정한 소수집단 언어의 상징적 정체성(분리된 영역)과 국가 전체사회 내에 작동하고 있는 정치경제시스템(공통의 영역)에서의 언어의 도구적 기능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언어적 권리와 관련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민족 분쟁을 줄이는데 분리주의 및 동화주의 정책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Stavenhagen(1996)도 다문화(다원주의적) 인종정책이 인종 갈등을 관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지적한다.<sup>6)</sup> 다문화주의 이념이 개별 문화 각각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들 문화간의 보편성을 추출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분리된 영역”과 “공통의 영

6)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에 의하여 수행된 민족갈등관리(ethnic conflict management)에 관한 비교관점의 경험적 조사에 근거하여 이와 같이 주장한다(Stavenhagen, 1996).

역" 사이의 구분을 존중하는 것은 현대의 국민국가에서 사회통합의 구조적 딜레마에 대한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대응이라고 본다.

## 2. 다문화주의 이념의 정립과 소수인종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Kymlicka(2002)는 다문화주의를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와의 통합성을 높이면서 다원성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분절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민형성의 이데올로기라고 정의한다. 다문화주의는 한 나라 안에서 상호 순환하고 통합하며 발전하는 주류사회의 문화와 수입문화의 다원적이고 역동적인 혼합(salad bowl)이다. 따라서 진정한 다문화주의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권력의 평등하고 합법적인 공유를 요구한다. 함께하는 다문화주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 공유의 적절한 장치를 통해 다양성을 조화시키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헌법과 정책의 책무가 될 것이다. 정치와 경제 부문으로 구성되는 공통의 영역에서는 언어가 도구적 기능으로 축소되고 특정집단의 상징들은 점점 더 탈민족화(de-ethnicized)되는 반면, 인종집단 별 분리된 영역에서는 언어가 소수집단의 정체성을 위한 상징적 기능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두 영역 모두에 대한 분석은 권력의 공유와 정치참여에 대한 복잡한 모델들이 소수집단들 가운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고 시도하지만, 다문화주의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본다.

## 3. 소수인종 언어 권리의 국제적 보호조항의 준수

국제조약과 유엔 협약 및 선언들은 개별 국가들의 민족화에 대한 대응으로 당해 국가 영토 내에 존재하는 소수민족 구성원에게 평등한 대우와 비차별의 원칙 및 시민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규범과 기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 언어적 권리가 보편적인 인권의 요소로서 이해된 것은 비로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는데, 특히 유엔의 감독 아래 이루어졌다. 이후 40여년 동안의 발전 결과로, 유엔 총회는 1992년 12월 18일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DRPM)을 채택하였다. 이 1992년의 UN DRPM(유엔선언)은 소수민족 정체성의 촉진 필요성을 인정하며 권리를 천명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첫 번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 유엔선언은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의 제4조(2)는 비차별과 평등원칙은 오히려 소수민족 정체성의 적극적 강화를 통해서만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 조항은 국가로 하여금 입법에 의해 이러한 차별 금지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언어와 그 사용자들을 무시하는 불관용의 행동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 유엔선언은 명확하게 국가로 하여금 사적, 공적, 집합적 행동에서 사적 언어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수민족 언어의 공적 사용(public use)을 언급하고 있다.<sup>7)</sup> 비록 이들

은 국내법 보다는 구속력이 강하지 못하지만, 권고와 교육을 통해 언어적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류사회와 소수집단 사이에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엔 선언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소수민족 언어교육과 교육부문에서 문화 상호간(inter-culturalism)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권고한다.

#### 4. 인종(민족)집단에서 시민사회로의 전환

인종(민족)집단은 영토, 종교, 문화, 관습, 언어와 같은 원초적 유대에 근거하고 있다면, 시민사회는 합리적이고 법적 실체로서 간주되고 집단에의 포함과 배제는 시민(civic) 개념이다. 이것은 출생에 의하거나 합법적으로 성립된 기준과 절차에 근거하며, 이 기준을 갖추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집단적 실체의 구성원이 된다(Breton, 1988). 이 기준은 사회의 문화나 언어의 동질성이 아니라 법적 시민자격(citizenship)이다. 실례로, 캐나다 사례분석에서 종족 중심의 민족주의 특징을 가진 영어권 및 불어권 캐나다인들이 서로를 인정하여 두 개의 공식언어를 선언하고, 나아가 오늘날 수많은 소수언어집단의 언어까지도 존중하여 이중언어주의(영어, 또는 불어 택일 + 소수언어인 모국어)를 채택하게 된 것은 사회의 성격이 종족사회의 특징에서 시민사회로의 전환을 전제로 언어정책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의 과정을 논의한다. 즉, 캐나다 역사에서 영어 위주의 언어정책에서 이중언어 사회로, 그리고 점차로 소수민족의 언어를 배려하게 된 것은 사회 구성원의 자격이 종족적 관점에서 보편적인 시민적 권리의 관점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강휘원, 2009b).

#### 5. 사회통합의 기반으로서 다중언어정책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인종(민족)집단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은 민족 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전략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키르기스스탄 사례에서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키르기스어를 제외한 언어의 사용을 규제하는 민족주의적 추진은 많은 논쟁과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수많은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하여 복수언어를 수용하는 다문화정책으로 전환하였는데, 이것은 다원주의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탄력적인 민주적 거버넌스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강휘원, 2008). 더욱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7) 예를 들면,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유엔 선언(UN DRPM, 1992) 제4조(3) 및 제4조(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3): 국가는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이 그들의 모국어를 배우거나 모국어로 가르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능한 곳에서는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한다.

제4조(4): 국가는 영토 내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의 역사, 전통,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소수민족 구성원들은 전체로서의 사회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사회통합이 필요하다.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민족 간의 계급화된 사회구조는 민주화를 향한 가장 큰 장애물이며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평등하고 비차별적인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6. 경제 및 소득 향상과 다중언어정책

다중언어정책은 소득 향상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 다인종·다문화로 인한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할 때에 단일언어보다는 다중언어가 훨씬 더 실용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으로 다가오게 된다. 국경이 사라지고 무역장벽이 사라지는 초국가적 기업 현상이 확대되어지는 오늘날 다중언어의 능력은 개인에게는 고용의 기회와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가 차원에서는 상품의 가치와 수출의 잠재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신찬용, 2006). 어느 개인 한 사람의 언어 능력이 그 자신의 노동 가치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이들의 다중언어 능력 또는 소수언어 구사 능력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격차의 요인이 될 수 있다(Grin, 1990: 160). 이것이 물적 자본에 비유하여 '언어자본'으로 오늘날 많은 기업이나 조직에서 이 자본 확보에 관심을 보이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중언어정책의 구상에는 신중함을 요구한다.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로 인한 조기유학의 열풍이나 사교육비의 비중, 한글 경시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언어학적인 측면에서도 습득자 개인의 환경과 구사력, 언어 습득 순서, 사용방법, 언어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이중언어가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은 연구와 신중한 대비가 요구된다(강휘원, 2009b).

## 7. 인종(민족)간 연계언어로서 공식언어(공용어)의 교육

다중언어정책을 채택하는 캐나다, 스위스,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사례분석은, 비록 이들 국가들의 역사적 전통과 지역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형의 언어정책들을 필요로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민족 간에 커뮤니케이션 언어의 도구적 적절성이 강조되는 연계언어의 개발 또는 이를 위한 정책도입이 필요한 것을 보여 준다. 이 연계언어를 무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사회의 공통영역인 경제와 정치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분리된 영역 속에 존재하는 특정 소수민족 공동체에도 소외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위스의 지역적 변화유형은 국가 내에 분할된 영토성 원칙에 따라 공식적 지역언어를 존중하는 다중언어정책을 실시하지만 지역 간의 또는 언어 간의 상호 연계가 부족하여 경제적 또는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며, 소수민족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강휘원, 2009a).

## &lt;참고문헌&gt;

-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34.
- 강휘원 (2008). 키르기스스탄의 언어정책: 민족주의에서 다문화주의로. 「행정논총」 46(2): 77-97.
- 강휘원 (2009a). 스위스의 다중언어정책: 다민족의 공존과 언어의 정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263-85.
- 강휘원 (2009b). 캐나다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이중언어정책. 「국가정책연구」 23(3): 193-222.
- 강휘원 (2011). 언어적 권리 보호를 위한 다민족 사회의 언어정책 비교. 「사회과학연구」, 평택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5: 47-69.
- 김하수 (1993). 독일의 언어 정책. 국어학회 (편). 「세계의 언어 정책」. 서울: 태학사, 115-138.
- 송기중 (1993). 언어 정책. 국어학회 (편). 「세계의 언어 정책」. 서울: 태학사, 1-13.
- 신찬용 (2006). EU의 다중언어정책과 소수언어 카탈루냐어. 「이중언어학」 30: 275-303.
- 유정석 (2003). 캐나다 - 다문화주의 제도화의 산실. 「민족연구」, 11: 12-26.
- 임지현 (2000). 민족담론의 스펙트럼: 원초성, 근대성, 탈근대성. 「영미문학연구」, 8: 65-87.
- 장병옥 (2005). 키르기스스탄의 이슬람과 민족문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5(1): 29-48.
- 정상준 (1995).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여름호: 79-95.
- 조태린 (2010). 언어 정책이란 무엇인가? 「새국어생활」 20(2): 117-32.
- Banting, K. (2005). The Multicultural Welfare State: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North American Narratives.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9(2): 98-115.
- Barth, Fredrik (ed.). (1969).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a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 Oslo & London: Universitets Forlaget & George Allen and Unwin.
- Bourhis, Richard Y. (1994). Ethnic and Language Attitudes in Quebec. in Richard Y. Bourhis (ed.). Ethnicity and Culture in Canada: The Research Landscape, 322-358.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Breton, Raymond. (2004). Atlas des langues du monde, Paris, Editions Autrement.
- Castles, Stephen & M. J. Miller.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Y: The Guildford Press.
- Connor, W. 1994. Ethnonationalism: The Quest for Understand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ummins, Jim. (1984). Linguistic Minorities and Multicultural policy in Canada. in John Edwards (ed.). Linguistic Minorities, Policies and Pluralism, 81-106. London: Academic Press.

- Edwards, John. (1994). *Multilingual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 Eide, Asbjørn. (1994). *Peaceful and Constructive Resolution of Situations Involving Minorities*. Oslo: Norwegian Institute of Human Rights.
- Extra, G. & K. Yagmur. (2004). *Urban Multilingualism in Europe: Immigrant Minority Languages at Home and School*. Clevedon, Phil.: Multilingual Matters Ltd.
- Fishman, Joshua. (1977). *Language and Ethnicity*. in Howard Giles (ed.). *Language, Ethnicity and Intergroup Relations*. London: Academic Press.
- Gamson, W. A. (1995). *Hiroshima, the Holocaust, and the Politics of Exclusion*. 1994 A.S.A. Presidential Addr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1-20.
- Grin, F. (1990). *The Economic Approach to Minority Language*.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11-12.
- Grin, F. (1998). *Language Policy in Multilingual Switzerland: Overview and Recent Developments*. Paper presented at the Cicle de conférences sobre política lingüística Direcció general de política lingüística. Barcelona, Spain, Dec. 4.
- Grin, F. & C. Sfreddo. (1996). *Minority Language and Socio-Economic Status: The Case of Italian in Switzerland*. Genève: Université de Genève.
- Habermas, Jürgen.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2nd vol. in Thomas McCarthy (trans.). Boston: Beacon Press.
- Habermas, Jürgen. (1994). *Struggles for Recognition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in Amy Gutmann (ed.).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ogan-Brun, Gabrielle. (2006). *Are Models of Multilingualism Transferable from Western to Central/Eastern European Contexts?* *Kalbotyra*, 56(3): 66-74.
- Huskey, E. (1995). *The Politics of Language in Kyrgyzstan*. *Nationalities Papers*, March 23.
- Inglis, Christine. (1996). *Multiculturalism: New Policy Responses to Diversity*. (MOST Policy Papers, No. 4). Paris: UNESCO.
- Joppke, Christian. (2004). *The Retreat of Multiculturalism in the Liberal State: Theory and Polic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5(2): 237~57.
- Kloss, Heinz. (1969). *Research Possibilities on Group Bilingualism: A Report*. Québec: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 Koenig, Matthias. (1999). *Democratic Governance in Multicultural Societies: Social Conditions for the Im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hrough Multicultural Policies*. (MOST Policy Papers, No. 30). Paris: UNESCO.
- Kolstoe, Paul. (1995). *Russians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Bloomington &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Kymlicka, Will. (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An Introduction*.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ymlicka, Will. (2007). The Global Diffusion of Multiculturalism. in Panassian, R., F. Berman & A. Linscott. (eds.). (2007). *Governing Diversity: Democratic Solutions in Multicultural Societies*. Rights & Democracy.
- Luckmann, Thomas. (1984). Language in Societ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36(1): 5-20.
- MacDonald, Alistair. (2010). Multiculturalism Loses Its Allure. *The Wall Street Journal*, Feb. 10, 2011.
- Niven, Paul R. (2003). *Balanced Scorecard: Step-By-Step for Government and Nonprofit Agencies*. John Wiley & Sons.
- Ozolnis, Uldis. (1993).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ustral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ekh, B. (2000). *Rethinking Multiculturalism: Cultural Diversity and Political Theory*. Palgrave: Basingstoke.
- Robertson, Roland. (1992). *Globalization.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London: Sage Publications.
- Smolicz, Jurek. (1994). Australia's Language Policies and Minority Rights: A Core Value Perspective. in T. Skutnabb-Kangas & R. Phillipson (eds.) *Linguistic Human Rights: Overcoming Linguistic Discrimination*, 235-252.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Spolsky, B. (1998). *Sociolinguis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avenhagen, Rodolfo. (1996). *Ethnic Conflicts and the Nation-State*. London: UNRISD/Macmillan.
- Väyrynen, R. (1994). *Towards a Theory of Ethnic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 Occasional Paper 6, Kroc Institute, Notre Dame, Notre Dame University.
- Vertovec, Steven. (1996). Multiculturalism, Culturalism and Public Incorpo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19(1): 49-69.
- Watts, R. (1997). Language policies and Education in Switzerland. in Watts, R. & J. Smolicz (eds.) *Cultural Democracy and Ethnic Pluralism: Multicultural and Multilingual Policies in Education*, 271-302. Frankfurt/New York: P. Lang.

### 3)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위상 / 권순희(이화여대)

#### 1. 서론

우리말학회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중언어 정책과 한국어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다. 다중언어 정책에 대한 논의는 국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역사 등에 대한 해안이 있는 사람이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필자는 본고에서 대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했으나 그러한 해안이 없어 소소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위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중언어 사회의 개념과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한국어 유형을 먼저 살펴보겠다.

#### 1.1. 이중언어와 다중언어 사회

보통 이중언어(bilingualism)는 개인이 두 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다중언어(multilingualism)는 개인이 세 개 이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다중언어를 다언어주의로 번역하기도 한다. 다언어주의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 여러 언어가 그 사회에서 가지는 지위에 상관없이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희경, 2009). 김희경(2009: 16)에 의하면, 유럽연합(EU)이 정의하는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는 단순히 학습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간 대화 및 사회적 결속을 뒷받침하는 원리로서, 다른 언어들의 존재에 대한 존중과 언어적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방책으로 개인이 여러 개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증진에 달아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박윤주(2006: 488)는 이중언어를 개인적 개념으로, 다중언어를 사회적 개념으로 보고 있다. 즉 이중언어는 개인이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포함한 개인적 경험의 의미인 반면에 다중언어란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거나 요구되는 사회적 개념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다중언어 사회란 이중언어 구사자들이 증가하고, 상호 문화 이해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 구성원이 다양화 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사회를 일컫는 것이다. 세 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개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단일 언어 구사자, 이중언어 구사자, 다중언어 구사자가 어울려 사는 사회로 다중언어 사회가 도래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를 논의할 때는 이중언어 사회라는 용어 대신 다중언어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다문화 사회’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다문화 사회라는 용어가 사회학적 관점의 용어라고 한다면 언어학(국어학) 및 언어교육(국어교육)적 관점에서는 다중언어 사회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



## 1.2. 한국어 유형

한 사회의 모든 것을 집대성해 놓은 문화의 결정체는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문화 교육에서 언어의 문제는 중요한 주제이며 다문화 시대의 국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중언어 사회를 국내에 한정할 것인지 국외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의 범위를 논할 수 있다. 교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외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까지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 선상에서 다중언어 사회를 논의해야 한다.

국내외에 존재하는 한국어를 세분화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한국어 유형

국내외 구분	한국어 유형	비고
국내 다중언어 사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이 배우는 한국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한국어
	방언으로서의 한국어	분단 문제와 연결된 한국어, 통일을 염두에 둔 한국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국어
국외 다중언어 사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이 배우는 한국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유학생, 이민1세대, 1.5세대 한국어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고려어, 조선어, 교민 한국어 등

첫째, 국내의 한국어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사용하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북한이탈주민<sup>1)</sup>이 사용하는 한국어나 북한의 조선어 등을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방언으로서의 한국어라 하고, 그 외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둘째, 국외의 한국어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와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로 구분할 수 있다. 국외에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유학생, 이민 1세대, 한국에서 태어난 후 한국어를 배우고 이민을 간 이민 1.5세대가 구사하는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이민 국가에서 태어난 교민 자녀들이 사용하거나 배우게 되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가 있다.

위 구분법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방언으로서의 한국어와 계승어로서의 한국어이다.

논의거리가 될 만한 것이 방언으로서의 한국어라는 용어이다. 고려어, 조선어와는 달리 북한

1)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6월 현재 26,854명이다.

에서 사용하는 조선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와서 사용하는 한국어는 방언으로서 한국어라는 위상을 지닌다. 이것은 남북통일을 대비한 명명이며 남한말이나 북한말 모두를 사회학적, 지역적 방언이라는 위상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남한말과 북한말은 지역적 방언으로 그 차이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70여 년간의 남북 분단과 남북 사회체제의 차이로 인해 사회학적 방언으로 그 차이가 심화<sup>2)</sup>되었다. 평양 방언, 서울 방언, 함경 방언, 제주 방언 등과 같이 남북언어에 대등한 방언으로서 한국어라는 위상을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표준어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승어는 보통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로 명명되어 오거나 소수언어로서의 한국어로 명명되었으나 국내 다문화 배경 학습자가 사용하는 한국어와 구별하고, 국외에서 한국어가 공식어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계승어(heritage language)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고려인의 경우 국내를 떠나 간도로 이주한 이후 15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고려인은 소련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시베리아를 지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 되고, 고려어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 속에서도 고려어를 지켜왔다. 그런데 고려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중국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 역시 그들 나름의 한국어 역사를 견지하면서 계승된 한국어로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한국어와 차이가 있다. 조선족이 사용하는 조선어는 남한의 한국어보다는 북한의 조선어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여러 나라마다 교민 공동체가 사용하는 한국어는 우리나라의 한국어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연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 2. 선행 연구 검토

다중언어 사회에서 이중언어 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설광석(2004)은 다중문화 속에서 사회적 정체성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다중문화란 일반적으로 모든 에스닉 집단이 그들이 가진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사회에 평등하게 참가하여 통합을 지향함을 말한다. 한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전체사회의 통합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간주해 왔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세계화 내지 세계사회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문화적 차이의 유지와 전체사회의 통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지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순희(2009)는 이중언어교육을 통하여 학업 성취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소수와 다수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이중언어교육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이중언어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진선희(2010)는 다문화 사회를 맞아 국어과 교육은 그 목표 차원에서 민족중심주의를 넘어서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내용 차원에서 국어과 교육 내용에 이중 언어 교육 혹은 다중 언어 교육 시대에 알맞은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 새롭게 설계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2) 자세한 논의는 신명선, 권순희 외(2012),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박이정. 참고할 것.

황진영(2012)은 다문화가족 위주의 이중언어 교육뿐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확대·발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중언어 교육 정책은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실행하기보다는 수요자를 위주로 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중언어 교육 정책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현장 연구를 통해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준비와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송지희(2014)에 따르면, 영국이나 미국의 길거리를 걷다보면 수많은 언어가 사용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영어도 다양한 종류의 억양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발음 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약 300여 가지의 다른 언어가 영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집에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32% 정도임을 밝혀냈다(Baker & Eversley, 2000). 즉, 이중언어자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이와 같은 예를 지구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유럽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83%의 학습자는 제2언어를 공부하고 있으며(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7), 룩셈부르크의 53%는 친구들과 한 가지 이상의 언어로 말하며 56%는 직장에서 한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한다고 하였다(European Union, 2004, 송지희 2014 재인용).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 청소년 자녀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태도 및 동기를 “투자(investment)로서의 언어학습”으로 보고 있듯이 이중언어주의는 이점이 많다고 논의하고 있다. 한국어는 이제 다중언어 사회에서 다양화 된 한국어로서의 위상, 경제생활의 도구, 사회통합의 도구로 등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로서의 언어학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3. 다양화 된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 필요

문화적 이해와 사회적 상황 이해가 필요시 되는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유형별 사용 및 학습요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한 이중언어 사용자는 문어능력과 구어능력이 불균형하게 발달한다. 이에 따라 문어능력과 구어능력의 균형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타문화권 환경에서 성장하여 이중문화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로 인한 사회언어학적 측면의 화용 오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문화 한국어의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화용적 측면에서의 오류는 의사소통에 있어 완전 무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의미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적절하지 않은 언행 등 어색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 (예1) (학생에게 책을 한권 주겠다고 했던 강사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다. 학생이 찾아와서 마치 맡겨놓은 것을 달라는 식으로 강사에게 말하는 어투로 말한다.)  
“선생님 책 주세요.”

- (예2) “저, 선생님 책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언제 찾아뵙까요?”

억양이나 표정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같은 표현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예 1)의 표현을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사용하였을 경우는 한국인이 받아들일 때 용인하면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평안북도에서 이주한 북한이탈주민이 “선생님 책 주십시오.” 처럼 문장의 끝을 빠른 속도로 끊어 말한다면 이를 듣는 사람은 무례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해를 하거나 기분 나빠하기도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교민이 “선생님 책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의가 없는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예1)은 화행 위주의 표현이며, (예2)는 예의를 갖춰 표현한 것이며 관계를 고려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2)에는 “저,”라는 주저하는 표현이 있으며, “책 주신다고 하셨는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전에 약속한 것을 상기시키고, “언제 찾아뵙까요?”라고 말하여 우리 문화에서는 아랫사람이 어른을 찾아뵙고 부탁을 하는 언어문화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이 의미 전달 위주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는 초급, 중급 한국어 수준의 교육을 받았거나 북한이탈주민이나 교민 후손이 한국어를 학습할 시기에 타 문화권에서 성장함에 따라 사회언어학적인 능력을 키우는 데 미흡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언어학적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살펴보고 그 요구를 바탕으로 고급한국어 구사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의 방향성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어 학습자의 다양성은 한국어 교육 양상에 다양한 접근을 하게 한다. 한국어 교육을 생활 한국어 교육, 직업 한국어 교육, 문화 한국어 교육으로 나누고 학습자의 정체성 지도를 추가하여 한국어 교육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 문화 한국어의 구별은 2012년 한국어 교육과정<sup>3)</sup>에서 제시한 생활 한국어, 학습 한국어, 문화 의식과 태도라는 틀을 응용한 것이며, 정체성의 문제는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따로 설정하여 강조한 것이다.

국내의 한국어 학습자만을 고려할 때도 <표2>와 같이 다양하다. 학습자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한국어 교육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표2> 국내 한국어 유형에 따른 한국어 교육 방향

한국어 유형	대상 학습자	한국어 교육 방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 근로자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 문화 한국어
	국제결혼 이민자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필요에 따라), 문화 한국어, 정체성
	비보호 청소년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연령에 따라 학습 한국어), 문화 한국어, 정체성

3) 교육과학기술부(2012),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4호.

한국어 유형	대상 학습자	한국어 교육 방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 근로자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 문화 한국어
	국제결혼 이민자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필요에 따라), 문화 한국어, 정체성
	비보호 청소년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연령에 따라 학습 한국어), 문화 한국어, 정체성
	단기 체류 외국인 학습자(유학생, 어 학연수생, 관광객 등)	생활 한국어, 학문 목적 한국어(필요에 따라)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역이민 교민 2세대, 3세대	(필요에 따라)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 다문화 배경 학습자, 일부 국제결 혼가정 자녀, 역이민 교민 2세대, 3세 대 등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 문화 한국어, 정체성
방언으로서의 한국어	북한이탈주민, 탈북학생	대응 생활 한국어 <sup>4)</sup> , 대응 학습 한국어, 대응 문화 한국어, 정체성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일부 국제결혼가정 자녀, 역이민 교민 1.5세대	국어교육, 정체성

넷째, 고려인<sup>5)</sup>, 조선인 등이 한국으로의 역 이주로 인하여 언어 환경이 한국어 환경으로 변화되었고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차원의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내용으로서의 한국어, 화용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넘어 관계 중심의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방언으로서의 한국어,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등은 다양한 한국어로 기록되고 보존되고, 연구되어야 한다. 연변의 이중언어 사용자들(조선족)의 한국어는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어와는 다소 다르다. 연변의 한국어는 이주 당시의 언어를 보존함과 동시에 북한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와는 음운, 억양, 어휘, 문법 등의 면에서 다소 이질성을 갖고 있다(마금선, 2009). 다중언어 시대가 되면 한국어 양상이 더 다양화되어 그 스펙트럼이 더 커질 것이다.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쓰기 실태에서 혼종어가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이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여섯째, 한국어의 다양성 인정과 함께 표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양

4) “어린이들이 탁아소에 입소할 때도 입소 원칙이 있다. 우선 아이가 건강해야 되며 어린이 한 명당 손수건 다섯 장, 기저귀 스무 개, 베개 등 탁아소에서 요구하는 것을 바치야 했다.”-북한이탈주민 여금주 글에서-(한만길 2007:28). 이 글에서 ‘바치다’는 남한처럼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물건을 정중하게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출하다’는 의미임. 북한에서는 ‘서류를 바치다’, ‘도서관에 책을 바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함.

5) 2013년 현재 국내에 취업한 고려인은 1만 1천여 명에 이르며 영주 귀국한 사람도 4천명에 이른다.

성 속에서 또한 보편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중언어 시대에는 표준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 표준 한국어는 현행 표준어 규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표준 한국어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4.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양상

한국인이 호주로 이민을 가서 사는 경우 한국 이민자들의 한국어 사용을 보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쓰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예3) 에스테이트 에이전시가 나와서 인스펙션을 해요. 인스펙션 받고 본드를 되돌려 받게 된다고요.

(예3)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주의 부동산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호주의 경우<sup>6)</sup>는 집을 렌트하여 사용할 때, 월세도 아닌 주세의 개념으로 렌트비를 내면서 산다. 또한 보증금에 해당하는 본드를 주인에게 준다. 그런데, 집을 다 쓰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필요에 의해 나가게 될 때는 복덕방에서 와서 집을 점검(인스펙션)하게 된다. 청소 상태는 어떠한지? 마모된 기물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본드비에서 일부를 감하고 되돌려주는 제도가 있다.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3)을 이해하기 어렵다.

(예3)은 조사나 어미만이 한국어이고 대부분의 어휘가 영어라서 마치 영어를 듣는 느낌이 드는 말이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이민자나 유학생들의 일상적인 말투가 되어 버렸다. 흔히 이러한 말을 피진(pidgin)과 크리올(creole)로 설명하는데 장명환(2005)은 이러한 표현을 보조언어로 보고 있다.

한국에 이주한 이주민이나 유학생 사이에서도 위의 사례가 흔히 발견될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 조사 연구를 아직 접하지 못하여 인용을 생략한다. 다만 이주동포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장영우(2006), 임용택(2010), 이광일(2012), 박경주(2012) 등이 있다.

다중언어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피진과 크리올을 사용할 것이며, 임계다수(critical mass)의 사용자와 역사적, 사회적 현상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그 언어는 생명력을 얻어 집단의 당당한 언어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피진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문법구조나 어형 및 어휘 그리고 음운체계를 간소화 하여 주고받는 단순한 언어의 형태로서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 존재하면서 보조언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크리올은 피진이 발전하여 자체의 모국어 화자를 갖게 된 경우를 말하며, 보조언어의 상위개념인 정상적인 언어로 취급받게 된다. 이와 같이 이민 국가 내 언어 문화로 인해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는 우리나라 한국어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6)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도 부동산 임대 제도는 비슷하다.

중국어 조선어, 중앙아시아<sup>7)</sup>의 고려어에 대한 연구와 이주민들의 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치 호주나 캐나다의 영어는 영국이나 미국의 영어와는 차이가 있지만 또 하나의 영어로서 연구 되듯이 계승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다중언어 사회에서 한국어의 역할과 위상

언어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유럽의 경우를 보면 로마 제국의 그리스어, 중세의 라틴어, 18세기와 19세기의 프랑스어가 공동체 언어로 사용되었다. 21세기에는 영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타 언어 배제와 힘 있는 언어의 패권이라는 구조였다면 요즘에는 타 언어 포용이라는 구조 속에서 언어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중언어 사회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여기에서 배제와 포용이라는 언어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화주의는 일종의 배제 언어 정책<sup>8)</sup>이며, 이중언어 주의는 포용 언어 정책이다.

요즘 대학에서도 신자유주의가 유입되면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듯 요즘에는 대학가에서도 영어 수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 학술지 영어 논문 업적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개정 중인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시수를 줄이려는 움직임 또한 한국어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공용어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어를 경쟁 언어로 선택하고, 타 언어를 배제하려는 언어 정책과는 달리 다중언어 사회를 지향하는 다중언어 정책은 여러 언어를 평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언어 다양성 보존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통일 정책, 이민자 정책, 한국어 세계화 정책, 다중언어(다문화) 정책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개괄적인 면에서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위상을 논하겠다.

첫째, 한국어 교육은 언어의 다양성이라는 언어 생태계의 보존 차원에서 중요하다.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등의 보존 등은 한국어의 다양성을 유지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언어의 다양성과 더불어 표준 한국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고려인의 역사를 보면 현재의 다중언어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각성하게 한다. 인권이 무시된 채 강제 이주를 당하고, 고려어 사용과 교육을 금지시켰던 스탈린 시대의 모습과는 달리 1991년 소련으로부터 많은 나라가 독립을 할 때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아픔을 알게 한다. 인터넷 인터뷰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중앙아시아에 이주한 고려인들은 150년 전 우리나라를 떠났지만 모국을 잊지 않고 살아온 동포들이다. 구한말과 일제 때 10만 명 이상이 구국 항일투쟁의 선봉이 됐으니 후손 대에서 모국이 값아야 할 빛도 많다.”

<http://interview365.mk.co.kr/news/60290>

8) 언어 정책의 유형을 동화주의 모델, 배제주의(또는 분리주의) 모델, 다문화주의 모델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강휘원, 2009: 267). Inglis(1996)는 동화주의와 배제주의를 스펙트럼 상의 양극단에서 서로 대치하는 모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경제 생산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로서의 한국어의 위상이다.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역시 삶의 도구, 경제적 생산 능력의 도구로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거주국가의 공용어를 구사하지 못하여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국외에서 한국어를 구사한다면 교민 사회의 소통 수단을 취득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셋째, 국가 공동체 내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 국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의 위상을 생각해야 한다. 민족 공동체 차원의 통합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차원의 통합을 지향하는 게 현실이 되었다. 또한 언어 공동체의 통합을 지향하게 되었다.

넷째, 평생교육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역이민의 수요자 증가 등을 보건대 평생교육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어 교육이 개인의 책임 또는 언어학적 능력의 관점에서 주로 보는 인지적 접근방식을 보완하는 사회 언어학적 관점의 한국어로서의 위상을 생각할 수 있다.



## &lt;참고문헌&gt;

- 강희원(2009), 스위스의 다중언어정책: 다민족의 공존과 언어의 정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권, 한국정책과학학회, 263-285쪽
- 권순희(2009),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국어교육학연구 34, 국어교육학회, 57-115쪽.
- 김희경(2009), 유럽연합의 다언어주의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3(4),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5-23쪽
- 마금선(2009), 연변에서의 이중언어 사용 실태와 한국어 교육, 세계 한국어문학 1, 세계한국어문학회, 57-90쪽.
- 박경주(2012),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가족 해체로 인한 자녀 교육 문제의 서술 양상과 그 해결의 모색, 문학치료 연구 22, 한국문학치료학회, 77-106쪽.
- 박윤주(2006), 전통 언어와 이중 언어, 교과교육학연구 10,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485-496쪽.
- 설광석(2004), 다중문화와 사회적 정체성, 사회과학논집 23,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5-27쪽.
- 송지희(2014), 이중언어 사용자의 제3언어 습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일(2012), 조선족과 고려인 문학발전단계 비교 고찰, 국제한인문학연구 9, 국제한인문학회, 87-112쪽.
- 이남근(2003), 미국에서 한국어의 언어지위 향상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66, 한국국어교육학회, 193-210쪽.
- 임용택(2010), 일제강점기의 만주조선인 문학 소고, 한국학연구 2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07-135쪽.
- 장영우(2006), 해방 후 재미동포 소설 연구, 상허학보 18, 상허학회, 295-326쪽.
- 진선희(2010), 다문화 사회의 국어과 교육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403-428쪽.
- 황진영(2012),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중언어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ker, P. and Eversley, J. (2000), Multilingual Capital, London: Battlebridge.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1997), Commission Interpretative Communication, Freedom to Provide Services and The Interest of the General Good in the Second Banking Directive.
- Inglis, Christine(1996), Multiculturalism: New Policy Responses to Diversity, (MOST Policy Papers, No.4), Paris: UNESCO.

### 3. 제3차 포럼

#### 가. 일정

- ▶ 주제 :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학의 세계화 전략
- ▶ 일시 : 2014년 11월 7일(금) 14:00~17:20
- ▶ 장소 :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3층 시청각강의실(81동 331호)
- ▶ 주최 : 국립국어원·한국어문학술단체총연합회
- ▶ 주관 : 한국국어교육학회
- ▶ 014년 제3차 통합과 소통의 국어정책 개발을 위한 포럼 일정표

14:00 ~ 14:40	등 록
14:40 ~ 15:00	개회식 사회 : 이호승(충북대) 개회사 한국어교육학회장 김진식(충북대) 축 사 국립국어원장 민현식 한국어문학술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이삼형(한양대)
15:00 ~ 15:30	새로운 세계화 시대의 공생공영의 (한)국어교육 발표 : 김건희(서원대) 토론 : 조형일(Washington Global University)
15:30 ~ 16:00	한국어 습득 연구의 세계화 방안 발표 : 권성미(부경대) 토론 : 오지혜(세명대)
16:00 ~ 16:20	휴 식
16:20 ~ 16:50	한국어교육학의 경계와 지평 탐색 발표 : 최영환(경인교대) 토론 : 박병철(서원대)
16:50 ~ 17:20	소통과 통합을 통한 한국어학의 세계화 발표 : 김상태(청주대) 토론 : 전철웅(충북대)
17:20	폐회 및 간담회

## 나. 발표 내용

### 1) 새로운 세계화 시대의 공생공영의 (한)국어 교육 / 김건희(서원대학교 국어교육과)

#### 1. 서론

필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발맞추어 소위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쓰자는 ‘영어 공용화’ 논쟁이 한창이었다. 따라서 필자에게 ‘세계화’하면 먼저 떠오르는 잔상은 소위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언어 시장 잠식’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어 교육’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어 교육’의 생존을 논해야 했다. 곧 영어 교육이 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밝힐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모국어 교육과정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해 있었다. 물론 (조기) 영어 교육 문제는 지금도 중요한 과제이며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필자가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이 모두들 체감하는 것처럼 2014년 한국어가 처한 언어 환경은 영어 교육에 중심을 두고 언어 교육 정책 판을 짜아하는 10년 전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만큼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그 원동력은 한마디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단적으로 1997년 한국어능력 시험이 처음 시행될 때는 응시자가 2000명에 불과했지만 교육부와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따르면, 누적 지원자가 2013년에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4년 현재까지 모두 125만 9467명이다. 따라서 필자는 소위 세계 주요 언어가 된 한국어의 위상을 바탕으로 또 다른 도약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가 처한 새로운 세계화 시대의 언어 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공생공영의 (한)국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세계 주요 언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을 살펴보고 세계화의 정의 및 한국어의 세계화 단계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필자가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4장에서는 국어 교육이 처한 당면 과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문제와 국어 교사의 한국어 교육 문제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처한 당면 과제로 국내외의 계승어 교육 문제를 살펴본다. 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어 교육의 당면 과제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 2. 소위 세계 주요 언어로서 한국어가 처한 세계화

### 2.1. 세계 주요 언어로서의 한국어

얼마 전 언어 관련 공식 통계를 제공하는 에스놀로그([www.ethnologue.com](http://www.ethnologue.com))가 한국어 사용자 수를 종전에 세계 18위에서 세계 13위로 상향 조정하였다.(2014년 5월 14일) 이는 최신 통계를 반영해 달라는 국립국어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국립국어원은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http://www.kosis.kr))'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기존 정보를 수정해 줄 것을 에스놀로그 편집진에 요청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 사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 대폭 상향 조정된 언어는 한국어와 터키어 둘뿐이며, 다섯 계단 이상 순위가 상승한 언어도 한국어와 터키어 둘뿐이다. 따라서 국토 면적 대비 사용 인구수 및 최근 대폭 상향된 사용 인구수라는 측면에서도 불어 사용자보다 많은 한국어는 명실상부한 세계 주요 언어이다.

양적인 사용 인구수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국제적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9월 제43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한국어가 국제공개어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한국어로 국제 특허를 제출하거나 특허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7년 아셈 회의에 이어 2011년 헝가리에서 열린 아셈 회의에서도 한국어가 동시통역어로 선정되었다.(권재일(2010:2) 참조)

이와 같이 양적인 사용 인구수 및 국제적 사용 측면에서 한국어는 명실상부한 세계 주요 언어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처럼 달라진 한국어의 위상을 바탕으로 한국어가 당면한 현실을 '새로운 세계화 시대'로 규정하고 좀 더 희망적인 한국어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 2.2. 세계화의 정의 및 한국어의 세계화 단계 진단

세계화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 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으로 정의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러한 세계화의 '정치, 경제, 문화' 영역 중에서도 '문화', 소위 '한류'가 세계화를 이끌어 '한국어'는 그야말로 강제로 세계에 진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영순(2007:7-8)에 의하면 '한국어의 세계화'란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를 종합해서 일컫는 말이라고 하였다.

첫째로, 인지도에 있어서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어'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로, 세계에서 당당한 하나의 외국어로서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국제무대에서 몇 개의 주요 언어로 인정되어, 각 나라 고등학교의 외국어 선택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고 대학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넷째로, 위와 같은 여건이 마련되어 한국어를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서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고, 대학원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한 사람도 많이 나오며, 또 그들이 일할 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다. 다섯째로, 제2언어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구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평가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한국어 교육이 극대화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박영순(2007)의 논의는 ‘한국어의 세계화’를 결국 교육적 차원에서 완성되는 것으로 접근하여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박영순(2007)의 논의를 토대로 세계화가 나라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성 및 양면성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나라 밖’과 ‘나라 안’으로 나누어 ‘한국어의 세계화’ 단계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 밖)<sup>9)</sup>

- 1단계 : 세계에 ‘한국어’의 존재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각 나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외국어 선택 과목에 한국어가 포함되는 단계
- 2단계 : 1 단계를 거쳐 대학에서도 외국어로서 한국어가 교육되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어가 국제 공개어로 인정되는 단계
- 3단계 : 한국어가 세계 주요 언어로 공식화되고 ‘세종 학당’과 같은 한국어 교육기관이 세계 각지에 분포하는 단계
- 4단계 : 대학원에서 한국어학을 전공한 사람도 많이 나오며 그들이 일할 자리가 많이 생기는 단계

(나라 안)

- 1단계 : 다양한 문화 배경의 ‘한국어 학습자’에 대해 인식하고 국내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하는 단계
- 2단계 : 1단계가 좀 더 체계화되어 국가적 규모의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 곧 국립국어원의 내용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가기관의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협력을 구축하는 단계
- 3단계 : 제2언어(다문화 배경 학습자)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준비가 완성되어 한국어 교육이 극대화되는 상태
- 4단계 : 한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한국어 학습자를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 부모의 모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대규모 학습자군을 형성하는 집단의 계층어)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배경의 학습자를 언어,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하여 한국과 그들 나라 사이의 교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 키워가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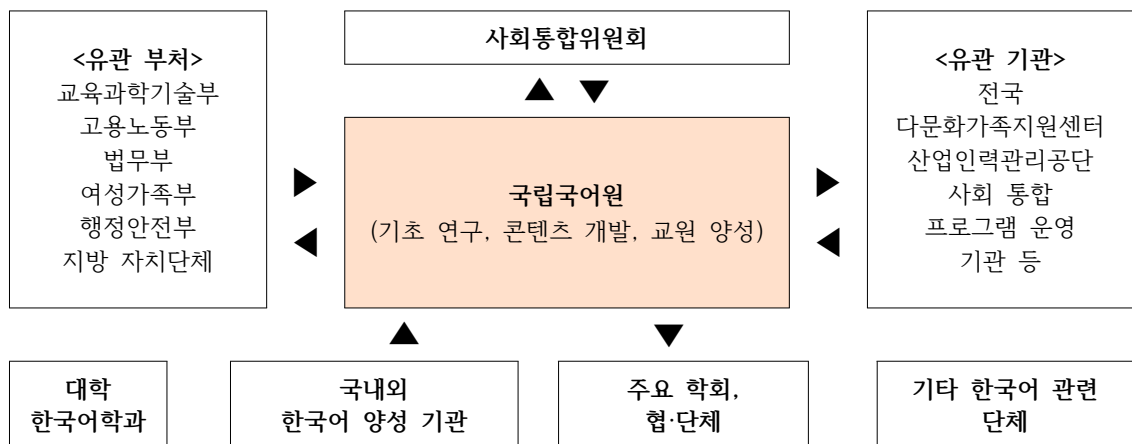
현재 이러한 ‘한국어의 세계화’와 관련된 ‘나라 밖’과 ‘나라 안’ 단계별 상황을 살펴보면 2.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나라 밖 세계화’는 4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물론 단계별로 더 나아갈수록 이전 단계의 특성도 더 공고해져야 한다. ‘나라 밖 세계화’에서 지금 현 단계를 4단

9) 다른 관점에서 비유하자면 ‘나라 밖 세계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곡인 ‘개논변주곡’을 가야금으로 연주하여 우리를 알리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후기 단계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아리랑’을 가야금으로 연주하여 우리 고유의 정서를 알리고 가장 한국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공감을 이끌어 수 있는 단계이다.

계로 나아간다고 규정했는데 이때 2단계의 ‘대학에서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교육된다’는 차원도 현 4단계에서는 단순히 외국어로서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언어학적 구조’에도 관심을 가지는 수준 높은 한국어학 전공이 많이 개설되는 것을 뜻한다. ‘나라 밖 세계화’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단계적 특성을 확인해야 하나 본 지면으로는 한계가 있다.<sup>10)</sup> 따라서 우리가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는 ‘나라 안 세계화’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다. 본고는 ‘나라 안 세계화’가 4단계로 나아간다고 보았는데 ‘3단계 한국어 교육이 극대화된 상태’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장에서는 먼저 공공 기관의 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또한 이에 더하여 필자가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하겠다.

### 3. 공공 기관의 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성과

먼저 한국어 교육 관련 업무 추진 관계 및 정부 부처별 한국어 교육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관련 업무 추진 관계(박정아(2012:17))

구분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관련 법률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교육기본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10) 1단계는 1995년 5월 10일 미국 대학 시험인 SAT II에서 외국어 중 9번째 언어로 한국어가 채택된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2단계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2007년 대규모 국제 회의에서 한국어가 국제공개어나 동시통역어로 채택된 것을 들 수 있다.

3단계는 에스놀로그를 통한 사용 인구수의 객관적인 지표 확인을 들 수 있고 ‘세종 학당’에 관해서는 기존 세계화 논의에서 많이 설명되었으므로 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정책 대상	·여성 결혼 이민자 ·귀화 희망자	·여성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 취학 전 자녀	다문화 가족 취학 아동	외국인 노동자
교육 기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지정 기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207곳	·전국 초·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을 위한 대 안학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주요 사업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집합 교육 및 방문 교육 ·자녀 대상 언어 발달 교육	·한국어 과정 도입·운영 ·다문화 가정 학생 한국 어·기초 학력 지도	·한국어 교육 지원 ·취업 전 현지 한국 어 교육
국립 국어원 추진 사항	·표준 교재 개발 지원 ·교원 연수 과정 개발 ·한국어 강사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표준 교재 개발 보급 ·교원 양성과정 개발 ·방문지도사 대상 한 국어 교원 양성과정 개발 운영	·한국어 교재 개발 ·한국어 교재 교원용 지 침서 개발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lt;표 1&gt; 정부 부처별 한국어 교육 사업 현황 (정희원(2013:83))

다음으로 ‘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겠다.(권재일(2010), 박정아(2012), 정희원(2013) 참조)

#### (1) 한국어 교육의 기반 연구

##### 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 한국어 세계화, 현지화를 위한 표준 교육과정 개발
- 영어권 표준 한국어 교재 개발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권별, 수준별 말뭉치 구축

##### 2) 한국어 교육 관련 조사 연구

- 한국어 교육 연감 발간
-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 실태 조사
-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조사
-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의식 조사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문 규정 연구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표준 문법 연구

## (2) 한국어 교재 발간 및 보급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 외 용	초급한국어 (영,중,베,몽,타,태)	교재	발간						
		지침서			개발	발간			
	중급 1 (한,영,중,베,몽,타)	교재	개발	발간					
		지침서		개발	발간				
	중급 2 (한,영,중,베,몽,타)	교재		개발	발간				
		지침서			개발	발간			
	고급	교재				개발	발간		
		지침서					개발	발간	
학습자용 워크북 및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개발	발간	
국 내 용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	1,2 개발	1,2 발간/ 3,4개발	3,4 발간	4,5 개발	4,5 발간		
		지침서		1,2 개발	1,2 발간	3,4 개발	3,4발간 /5,6개 발	5,6 발간	
	부부공동학습 교재 “알콩달콩한국어” (중,베)	교재	개발	발간					
	이주노동자와 교재 “아자아자 한국어”	교재		1 개발	1발간	2 개발			
		지침서				개발	개발	발간	

\* 초급 교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 초급 교재 추가 발간 계획 : 스페인어, 러시아어

&lt;표 2&gt; 한국어 교육 교재 개발 및 발간 (권재일(2010:13))

## (3) 한국어 교원 양성

- 국외 한국어 교원 연수
- 국내 한국어 전문 교원 양성 및 파견
-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 한국어 전문 교원 양성 기관 인증 제도 추진
- 한국어 교원 재교육을 위한 전문 연수학교 개설

## (4) 한국어 학습 지원

- 주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학습 지원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확대



위와 같이 ‘한국어 교육의 기반 연구, 한국어 교재 발간 및 보급, 한국어 교원 양성, 한국어 학습 지원’의 크게 네 부문으로 나뉘는데 국어이론 문법을 전공한 필자가 덧붙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1) 한국어 교육의 기반 연구’와 ‘(2) 한국어 교재 발간 및 보급’에 관한 것이다.

### 1) 한국어 교육의 기반 연구(언어유형론)

교육 기반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표준 문법’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언어 유형론<sup>11)</sup>’에 대한 기반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손호민(2008:91)에서는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이 외국인의 한국어 습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특히 한국어 유형과 근본적으로 다른 영어 원어민에 대한 한국어 교육 문제는 심각하고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해외 대학의 외국어 교과과정은 범주1에 속하건 범주4<sup>12)</sup>에 속하건 같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4년간 공부하면 범주1에 속하는 언어는 상급 수준에 오를 수 있지만 범주4에 속하는 언어는 중급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하였다. 중급이라면 일상생활에서 간신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생존 수준’을 의미한다. 결국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습득과 교육에 지대한 관련이 있다는 것, 그 때문에 학습자의 모국어와 대조하여 철저한 세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는 것, 연구 결과를 교과과정, 교재, 교수, 평가 등에 반영하여 한국어 학습에 크게 기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권재일(2013)에서도 한국어 학습의 어려운 점 가운데 한 가지는 학습자의 모어와 한국어 사이의 언어유형론적 차이이고 모어와 한국어가 유형론적으로 같거나 비슷한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이 훨씬 더 크므로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단적으로 최근 한국어 교육의 문법 내용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논문의 주제가 ‘어미’이다. ‘어미’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선 한국어 교육용 교재의 어미에 대한 문법적, 의미적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극복하고자 어미에 대한 정교한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외국인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어미’에 대응되는 문법 요소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 학습자들이 다양한 오류를 만들어 내거나 아예 사용할 엄두를 두지 않는 골치 아픈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논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연결 어미 ‘-아서’에 대응하는 일본어의 문법적 범주는 ‘접속조사’로 일본인 학습자에게도 ‘어미’라는 문

11) 언어 유형론이란 첫째, 서로 다른 언어들을 비교하여 언어 현상의 구조적 유형들을 찾고 어떤 언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연구하는 유형적 분류론(typological classification)과 둘째, 언어마다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패턴들(cross-linguistic patterns)을 찾고 연구하는 유형적 종합론(typological generalization), 그리고 셋째, 구조주의 언어학, 생성 문법 등과 대조되는 하나의 언어 이론 즉 기능적-유형적 설명론(functional-typological approach) 등 이 모두를 망라한다(손호민(2008:66) 참조)

12) 손호민(2007: 87-88)에서는 미국인 성인이 가장 쉽게 배우는 언어(소위 범주1 언어)는 화란어, 불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이고 그 다음으로 어려운 범주2 언어는 독일어, 히랍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우루두어 등이고 그 다음으로 더 어려운 범주3 언어는 버마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필리핀어, 노어, 타이어, 터키어, 월남어 등이고 가장 어려운 범주4 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라고 했다.

법 항목에 대한 새로운 교수·학습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국어 이론 연구에서는 언어의 특이성이나 불규칙성을 찾아내어 규명하고 한국어 교육에서는 언어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교육한다고 설명한다.(백봉자(2007)) 그러나 '어미'의 경우 '언어 보편성 중심' 교육보다는 먼저 학습자의 언어권을 고려하여 그 '오류' 문장을 분석하고 세계 언어에서 발견되는 풍부한 구조적 다양성을 연구하여 그 보편성(통일성)과 개별성을 밝히는 유형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보편적인 용어(예를 들어 서술격 조사 '이다' 대신 계사)를 사용하여 국어의 개별성을 자세히 제시해야 한다.

백봉자(2007:27)에서는 한국어 교육 전공자(내국인)들의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를 보더라도 '문제 제기-이론적 배경-선행 연구-자료 분석'에서 끝나고 논문 첫머리에서 제기한 문제 해결에 이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이 석, 박사 학위 과정에서 학위 논문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주제가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교, 대조하는 논문이다. 이때 문법 주제에 대해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세부적으로 문법 주제를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정교하게 논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외국인)들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는 '문제 제기-이론적 배경(+언어유형론적 연구)-선행 연구-자료 분석-대조언어학적 연구-한국어 교수학습 방안'의 틀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곧 이론적 연구가 언어유형론 연구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sup>13)</sup>

## 2) 한국어 교재 발간 및 보급(말뭉치와 사전)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양한 언어권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학습 목적, 연령, 성별, 직업,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교재를 편찬하고 있다. 다만 이에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특히 학습자가 자주 틀리는 '오류 말뭉치(초급, 중급, 고급)'를 학습자의 언어권별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 말뭉치'는 기반 연구, 교수 학습 및 교재 발간, 교원 양성, 학습 지원 모두에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학습자 사전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본적인 어휘 사전 외에도 문법 사전, 유의어 사전, 구문 사전<sup>14)</sup>과 같은 전문화된 개별 사전이 좀 더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13) 언어유형론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김건희(2014), 언어유형론 개관과 국어 연구, 한말연구 34' 참조

14) 참고로 필자는 현재 [한국중앙연구원의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 사업]으로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사전의 편찬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사구문 사전을 편찬하는데 그것은 우선 동사가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법범주일 뿐 아니라 다른 문법범주를 분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착어인 한국어는 동사 활용이 특이하고 동사 자체가 다양한 합성어 및 파생어를 구성하는데 이 어휘적 구성이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특이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 4. 국어 교육이 처한 당면 과제

먼저 국어 교사들이 공교육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학습자들은 ‘다문화배경 학습자’와 ‘탈북 청소년 학습자’이다.

‘다문화배경 학습자’는 결혼 이주 여성(남성)들의 자녀로 1990년대부터 결혼 이주 여성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다문화배경 학습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서 일찍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한국어 교육’이 양적, 질적 성장을 거친 것처럼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성장해 왔다. 단적인 예로 전국 교대에는 ‘다문화 교육’을 관장하는 부설 연구기관이 있다. 그러나 사범대에서는 아무래도 ‘중등교원 임용 시험’이라는 큰 장애물을 먼저 넘고자 이에 대한 다양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중, 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대학원이나 대학교의 교사 양성 과정을 통해 ‘한국어 교육 과정’을 새로 공부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 과정’이 ‘교원 연수 과정’과 같은 재교육 과정은 물론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사범대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sup>15)</sup>

다음으로 ‘탈북 청소년 학습자<sup>16)</sup>’에 관한 문제이다. 최근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 현재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28명(남 575명·여 553명), 중학교 684명(남 325명·여 359명), 고등학교 371명(남 189명·여 182명) 등의 재학 현황을 나타냈다. 이외에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에 위탁된 학생 수는 283명(정원 외)으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대전 41명(초 27명·중 7명·고 7명), 충남 116명(초 66명·중 41명·고 9명) 등이 분포했다.<sup>17)</sup>

15) 사범대 교육과정은 최근 문, 이과 통합 교육 과정이 개정되어 다양한 통합 교과 과정도 추가적으로 개설되어야 하므로 실제적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이 어느 정도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지, 수업시수, 교과목 선정 등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16) 탈북청소년이란 좁은 의미로 말하면, ‘북한에서 출생하여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만 6세 이상 24세 이하의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곧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청소년 연령의 집단을 탈북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교육지원 대상이 되는 청소년 연령은 초·중·고등학교 학령과 청소년 기본법이 규정하는 만 24세까지 연령을 포함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볼 때, 탈북청소년에는 ‘부모 중에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 3국에서 출생한 아동, 청소년’이 포함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법률이 정의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탈북가정의 자녀로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에 도착한 탈북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들(만 7-13세 아동)은 하나원 인근의 삼죽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14-19세)은 하나원 내의 하나돌학교에서 기초교육을 받는다. 2011년 3월부터 하나원 하나돌학교 청소년반 학생들은 대부분 하나원 재원기간 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되는 학력심의를 거쳐 한국학교에 편입할 수 있는 학력을 인정받는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누리집 참조)

17) 희망적인 것은 학업중단 비율이 같은 기간 6.1%에서 2.5%로 크게 낮아지는 추세다. 사유별로는 이민 등 출국(13명)>진로변경(12명)>장기결석(8명)>가정 사정(4명)>학교부적응(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구분	학생수			계
	초	중	고	
북한출생	534(47.3%)	313(45.8%)	357(96.2%)	1,204(55.2%)
중국 등 제3국 출생	594(52.7%)	371(54.2%)	14(3.8%)	979(44.8%)
계	1,128(100.0%)	684(100.0%)	371(100.0%)	2,183(100.0%)

&lt;표 3&gt; 탈북청소년 재학 현황 (2014년 현재)

탈북학생 수의 증가에는 특히 중국 등 제3국 출생자들<sup>18)</sup>의 입국비율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실제로 국내로 유입된 전체 탈북학생 수를 ‘북한출생’과 ‘제3국 출생’으로 각각 구분할 때 북한출생 학생 수는 유지 또는 감소한 반면 제3국 출생자들은 매년 100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9)</sup> 곧 초등학교 1,128명(51.67%), 중학교 684명(31.33%), 고등학교 371명(17.00%)인데 이 중 ‘제 3국 출생 탈북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인원의 45%를 차지한다.

무엇보다 제3국 출생 탈북 학생들도 학력심의를 거쳐 공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으므로 이들에 대한 언어 교육 문제가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의 언어 문제는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다문화 배경 학습자)와 계승어로서의 한국어(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 동일 민족어로서의 한국어(부모 중 한 명이 탈북 이탈 주민)<sup>20)</sup>’ 등 복잡한 문제가 얹혀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로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북한 출신 학생에 비해 이들 ‘제3국 출생자’에 대한 교육 지원이 시급하다. 이들은 대학 입학 및 교육비 지원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 하는 등 그야말로 언어 소외 계층이다. 참고로 필자는 최근 (2013, 02) 연구책임자로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국어 교과 어휘 학습 교재 개발’ 연구에 참여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 및 남북한 교과서 분석, 탈북 학생 및 전문가 어휘 인지도 설문 조사, 연구집필진 협의 회, 국립국어원 감수 등을 통해서 개발된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국어 교과 어휘 학습 교재의 특징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 초등학교 4,5,6학년의 국어과 교과서(듣기·말하기·쓰기, 읽기) 1,2학기 총 12권에 서 939개의 어휘를 선정하고 실제 기술에서는 보충적으로 240개의 어휘를 추가하여 1190여개의 방대한 어휘를 다루었다. 이러한 방대한 어휘를 학습하면 중,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어휘들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다.

둘째, 국어과 교과과정으로 4,5,6학년을 「말하기듣기」, 「쓰기」, 「문법」, 「읽기」, 「고급어휘」, 「배경지식」, 「학교생활」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초등학교 국어과 고학년을 통합할 수 있는 통합적 기

18) '제 3국 출생 탈북학생'이란 부모 중 1인이 북한이탈주민이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이다.  
 19) 연도별로는 북한출생이 2012년 1284명, 이듬해 1182명, 올해 1204명의 현황을 나타냈고 제3국 출생은 2012년 708명, 이듬해 840명, 올해 979명 등으로 지속적인 오름세를 기록했다.  
 20)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다문화 배경 학습자), 계승어로서의 한국어(재외동포, 고려어, 조선어), 동일 민족어로서의 한국어(북한 이탈 주민)

술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전 학년 및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학습자의 보편적 이용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셋째, 다른 교과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국어 교과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국어과 전문 용어의 영역을 뛰어넘는 「고급어휘」, 「배경지식」, 「학교생활」의 영역을 마련하였다. 기존 국어 교과서 어휘 교재 및 어휘집들이 국어과 전문 용어와 단순한 교과서 내용 용어를 구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초장, 중장, 종장, 문맥, 모듬, 온라인, 통신 체제, 전개, 텃새, 한국진도견협회, 이륜마차’가 국어 교과서 용어로 영역 구별 없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과영역을 고려하여 「말하기듣기」, 「쓰기」, 「문법」, 「읽기」로 구분하고 또한 국어 교과서 내용과 관련되는 용어들을 「고급어휘」, 「배경지식」, 「학교생활」로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 용어의 특징을 소개하자면 먼저 「고급어휘」에서는 ‘① 한자어로 꾸미는 말, ② 특징 또는 생각과 관련된 낱말, ③ 알아두면 힘이 되는 동사, 형용사’ 등을 다루었고 「배경지식」에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① 위인, ② 명절과 기념일, ③ 인터넷 문화, ④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반을 다루었다. 「학교생활」에서는 ‘① 학습, 음악, 미술 준비물, ② 수업과 교과서’에 관련된 용어를 다루었다.

넷째, 단순히 낱말 위주의 설명이 아니라 실제 교과서에 나오는 구적 쓰임에 주목하여 관련되는 표현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근거’의 경우 ‘근거를 마련하다, 근거가 타당하다, 근거가 알맞다, 근거가 적절하다’와 같은 관련 표현(언어 구성)도 자세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련 표현에 대한 기술 원칙은 2회 이상 교과서에 출현하면 어휘 목록으로 선정하여 기술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낱말 열기’, ‘이 낱말만큼은 꼭’, ‘낱말 펼치기’, ‘낱말 익히기’, ‘쉬어가기’의 순차적인 단계 학습을 통해 국어과 수업 보충 교재 및 자습 교재로서의 특징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섯째, 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등학교 및 중,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탈북 청소년 학습자의 연령 및 학습 배경을 고려하여 무엇보다도 낱말에 대한 쉬운 설명을 하였다. 또한 어휘 뜻 풀이도 단순히 사전식 뜻풀이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의 국어 수업이라는 학습 맥락을 고려하여 제시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삽화 등도 많이 수록하였다.

일곱째, 남한에서의 국어과 교과 활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시를 비롯한 다양한 읽을 거리를 활용하여 설명함으로써 국어 교과서 및 교과 활동에 더 한층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의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국어 교과 어휘 학습 교재는 앞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탈북 학생이나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며 독학하는 탈북 학생을 위해서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어휘 학습 교재가 될 것이며 나아가 다른 교과서 학습을 위한 예비적인 기본 어휘 교재로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또한 ‘고급어휘, 배경지식, 학교생활’의 단원은 탈북 부모 및 탈북 주민들에게도 훌륭한 남한 어휘 학습 교재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탈북 청소년의 학업 수행을 위한 어휘 교재’는 언어 교육 지원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상위학교로의 진학을 목표로 한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보다 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어휘 교재도 ‘탈북 이탈 주민의 학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어휘 교재’, ‘직업

선택, 및 취업을 위한 탈북 이탈 주민의 어휘 교재’ 등 연령별, 직업별, 문화적 배경 등 요구별로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 5. 한국어 교육이 처한 당면 과제 : 계승어 교육 문제

권재일(2002:2-3)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문 칼럼<sup>21)</sup>을 소개하였다.

한글 교육은 자녀들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고 부모 세대와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여유로운’ 영역에 머물 수 없다. 우리 자녀들이 주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이다. 한글 교육은 이제 생존 교육이다. . . . . 주류 사회 기업들은 한인 직원들에게 한인 시장을 책임 지우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을 요구한다. 모든 것이 전문화 되고 세분화돼 가는 추세이니 ‘한인이 한인 사회를 맡는 식’의 전략은 기업으로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일 것이다. 일례로 명문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돼 법률회사에 취직한 뒤 빚을 받하기는커녕 회사에 붙어있기도 벅차 고민하는 한인 2세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한다. 회사에서는 중국 커뮤니티는 중국인, 일본 커뮤니티는 일본인, 한인 커뮤니티는 한인 변호사에게 일임하지만 한인 시장을 맡을 능력이 없는 한인들이 드물지 않다. 최근에서야 회사에서 살아남으려고 교회의 주말 한글학교를 다녔다는 30대의 한 변호사는 어려서 자신을 한글학교에 보내지 않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다. 어느 업종이나 한인 시장이 있고 이는 대개 한인 직원이 담당하게 된다. 한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적을 올리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무능한 직원으로 찍히게 되고 최악의 경우 ‘퇴출’ 된다. . . . . 주류 사회에서 제몫을 다하려면 한글을 알아야 한다.

([http://www.ihkib.com/news/opinion/frontline/04162002/92\\_73877.asp](http://www.ihkib.com/news/opinion/frontline/04162002/92_73877.asp))






이러한 신문 내용은 생존이 걸린 계승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 한편 미국 내의 언어 교육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이민자들의 국가인 미국은 용광로 정책(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용광로에 녹여 하나의 새로운 동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에 기초한 다문화 교육을 시행한 대표적인 국가로 적극적인 영어 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나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을 표방해 왔다. 이후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는 문화 다원주의적인 성격의 ‘샐러드 볼’(다양한 각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 정책도 등장하게 되었으나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의 이면에는 분명한 주류 사회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원진숙(2007:34) 참조) 결과적으로 미국의 문화 다원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평화적 공존이 아닌 백인 주류 문화로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이해영,이준호(2012:109) 참조) 이러한 거시적인 정책이 반영된 미국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은 모경환,황혜원(2012:67)에서도 영어 습득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여 다문화 구성원들의 모국어 사용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21) <미국판 한국일보> (2002년 4월 16일자) 박봉현 편집위원의 “한글 교육은 생존 교육”이란 컬럼의 일부임, 밑줄은 필자

비판한다.

이러한 미국의 언어 정책과 위에서 제시한 미국의 우리 동포 언어 문제 사례는 한국어 교육이 처한 계승어 교육 문제의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조태린(2014:383)에서는 계승어를 '가족 또는 혈연의 관련성으로 인해 아동기에 노출된 경험이 있어서 최소한의 수동적 지식 이상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비주류 또는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로 정의하고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육과정<sup>22)</sup>을 계승어 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재외동포의 언어 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림 2>와 같은 국립국어원의 정책 연구가 보여주듯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조태린(2014)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기본적인 교육과정조차 체계가 잡히지 않은 실정이다.

10 제목 동포 검색 전체 옛 한글 사용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5	재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사업(입찰 공고)		국립국어원	2014-04-25.	504
4	입찰공고 - 독립국가연합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2013-02-14.	423
3	입찰 공고 - 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조달청 공고 참고)		국립국어원	2012-02-20.	217
2	입찰 공고-재중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2012-02-03.	245
1	입찰공고-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2011-03-22.	319

<그림 2> 국립국어원의 국외 동포 언어 조사 기초 연구 사업 (2011년 - 2014년)

이러한 실태를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세계화 시대에는 ‘국외 동포를 위한 계승어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이주자 자녀의 모국어 교육’이라는 측면의 계승어 교육에도 주목해야 함을 주장한다. 즉 나라 밖의 ‘국외의 계승어 교육’ 문제와 나라 안의 ‘국내의 계승어 교육’ 문제의 두 측면에서 계승어 교육을 다룰 수 있다.

- (1) 국외의 계승어 교육(국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 (2) 국내의 계승어 교육(국제결혼 이주자 자녀의 모국어 교육)

(1)은 <그림 2>와 같이 국립국어원에서 기초 연구부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미국 내 언어 전문 기관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국외 한국어 및 한국학 지원 기관의 일원화, 체계화를 지향하며 힘을 다하고 있다.

이제 본고에서는 (2)의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의 계승어 교육은 소위 주요 언어인 ‘중국, 일본어’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자 중 ‘베트남, 필리핀,

22) 따라서 조태린(2014:405)에서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또는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육과정은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으로서 그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한 교육 목표 설정과 체제 구성, 교수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교육과정의 실제적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재외동포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 정체성적 측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과 체제가 구성되어야 한다.

캄보디아, 타이, 몽골' 등 대규모 학습자군을 형성하는 언어권의 교육에 정책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계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타이	몽골	기타
전체	149,770	62,657	39,565	12,037	10,099	4,578	2,634	2,393	15,807
여성	128,281	50,751	39,219	10,874	9,806	4,568	2,576	2,317	8,170
남성	21,489	11,906	346	1,163	293	10	58	76	7,637

<표 4> 국제결혼 이주자 국적별 현황(출처: 법무부, 2013. 7. 단위: 명)(정희원(2013) 재인용)

캐나다, 미국, 일본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분석한 나카즈마 가즈코(2013:8)에서는 다음과 같이 Churchill(1986)<sup>23)</sup>을 소개하였다.

- 단계 1: 현지어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 특별 보장 프로그램(영어는 ESL, 일본어는 JSL)을 설치한다.
- 단계 2: 현지어 습득을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가정교사, 상담사 등)이나 현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보호자 지원 프로그램(사회 복지사, 통역사 등)을 제공한다.
- 단계 3: 학교 당국·교사가 CLD 아동<sup>24)</sup>에게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다수의 모국어 화자 아동에게 국제 이해 교육, 반 인종차별 교육을 실시한다.
- 단계 4: CLD 아동이 계승어를 짧은 시간에 후퇴·상실하는 것에 대한 시책으로 계승어 프로그램(정규 과정의 일부 또는 방과 후)을 학교 내에 설치한다.
- 단계 5: 계승어를 매개어로 사용하는 교과 학습을 실시한다.
- 단계 6: 다수와 소수 언어 집단이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듯이, 소수 언어 집단을 위하여 소수 언어를 공용어로 하는 특별 교육기관이나 학제를 설치한다.

덧붙여 나카즈마 가즈코(2013)는 코슨(Corson 1999)을 인용하여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대다수의 나라가 단계 1과 단계 2에 머물러 있으며, 단계 3, 4, 5를 실시하는 나라는 드물며, 단계 6을 실시하는 나라는 캐나다뿐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세계를 통틀어 현지어 지원이나 현지 생활 적응에 대한 지원은 있어도 계승어까지 지원하고 있는 나라는 지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희망적인 사실은 최근 뉴스에서 이러한 계승어 교육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먼저 2014년 10월 27일 KBS 뉴스 보도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3) 이중 언어 화자 육성에 필수 불가결한 현지어와 계승어 지원에 관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여러 나라의 정책을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분석한 연구(Churchill 1986).

24) 언어 형성기(2~15세)의 '문화적·언어적 배경이 다른 아동 학생(CLD 아동, Culturally Linguistically Diverse Children)'



제목 : '다문화 청소년 1%, 인재로 키워야'

어머니가 필리핀인 김에스라 양의 경우 필리핀어 실력 덕분에 관광 통역 안내사를 꿈꿉니다.

<인터뷰> 김에스라 : "(안녕하세요. 저는 김에스라입니다.) 필리핀 말은 정말 자신감이 있어요.

필리핀말과 영어, 한국말 섞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고..."

최근의 이러한 뉴스(다문화 가정 학생이 6만 7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1%를 차지함)는 정부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나가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것을 소개한다. 실제로 몇몇 대학(대구대, 선문대 등)에서 '글로벌 브리지 사업<sup>25)</sup>'을 통해 부모의 출신국을 이해하고 향후 그 나라와의 교류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본고에서는 계승어 교육과 관련하여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 정책이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그 시작으로 '현지 언어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브리지 사업에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언어 교육 주관 및 시행

둘째, 외국어 교육과 연계한 계승어 교육의 기초 연구 및 교육 과정 연구

셋째, 전국 대학의 석,박사 학위 과정에서 언어 비교 및 대조 연구를 하는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논문 지도

넷째, 특정한 언어권 화자를 위한 사전 집필

다섯째, 학습자 오류 말뭉치 분석을 통한 대조 언어 연구

이와 같이 '현지 언어 전문 자문위원회'는 특히 이중 언어 구사자<sup>26)</sup>들로 이들의 역할 중에서 세 번째 역할을 좀 더 살펴보면, 앞서 한국어 교육의 기반 연구에서도 언급한 '학문 목적 학습자들의 논문'을 지도하는 역할이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논문의 참고문헌을 보면 자신들의 모국어 참고문헌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연구자로서는 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따라서 자국의 참고문헌 인용에 대해서 그 참고문헌 목록부터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명사'에 관한 한국어와의 대조 연구이면 자국의 어떤 참고문헌을 참조해야 하는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넷째, 다섯째 역할은 바로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한국어 교육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함께 사전 집필이나 대조 연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다.

25)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글로벌 브리지 사업은 다문화 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6) 특히 이러한 '현지 언어 전문 자문위원회'에는 국내에서 1990년대부터 한국어 교육을 받고 성장한 언어 관련 종사자(외국인 한국어 교육자 및 지도자)들도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이들의 한국어 교육 생애 주기를 고려하면 다양한 한국어 교육을 학습하거나 교수한 경험이 있으므로 다문화 배경 청소년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6. 결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소위 세계 주요 언어가 된, 한국어의 달라진 위상을 바탕으로 한국어가 당면한 현실을 ‘새로운 세계화 시대’로 규정하고 공생공영<sup>27)</sup>의 (한)국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육의 기반 연구에서 ‘언어유형론’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어 교재 확장의 일환으로 ‘오류 말뭉치’ 구축과 다양한 ‘사전 편찬’을 제시하였다.

셋째 ‘한국어 교육 과정’이 ‘교원 연수 과정’과 같은 재교육 과정은 물론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의 ‘사범대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개설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넷째 ‘탈북 청소년 학생’ 교육 문제에서 특히 ‘제3국 출생 탈북 학생’들의 언어 교육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다섯째 계승어 교육 문제에서 ‘국외의 계승어 교육(국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국내의 계승어 교육(국제결혼 이주자 자녀의 모국어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를 언어,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하여 한국과 그들 나라 사이의 교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 시민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작으로 ‘현지 언어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27) 국어기본법 제6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2007년에 제1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2012년에 “문화 창조와 상생, 한국어의 도약을 위한” 제2차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고는 ‘2. 공생공영의 국어 문화 확산’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본고를 작성하였다.

1.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위한 국민의 창조적 국어 능력 향상
  - 1-1.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
  - 1-2.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 1-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2. 공생공영의 국어 문화 확산
  - 2-1. 언어적 소외계층의 언어 환경 개선
  - 2-2. 남북 언어 통합 기반 구축
  - 2-3. 한민족 언어 소통 강화
3. 공공언어 개선을 통한 사회 이익 증진
  - 3-1. 공공언어의 대국민 소통성 제고
  - 3-2.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 3-3. 언어 사용 문화 개선
4. 한국어 보급을 통한 우리말 위상 강화
  - 4-1. 세종학당 확대 운영
  - 4-2. 한국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4-3. 한국어 교원의 현장 역량 강화
5. 우리말 문화유산 보전과 활용 기반 마련을 통한 국어 진흥
  - 5-1. 한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 5-2. 언어 정보 자원 통합 관리
  - 5-3. 지역 언어문화 보존 및 활성화

## &lt;참고문헌&gt;

- 권순희(2012),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어 사용, 학습 실태 및 정책적 제언, 새국어생활 22-3, 국립국어원.
- 권재일(2002), 미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 한말연구 11, 1-21.
- 권재일(2010), 세계화 시대의 국어 정책 방향, 국어국문학 155, 5-17.
- 권재일(2013), 언어유형론과 한국어 교육 방법론, 한국(조선)어교육연구 8, 75-91.
- 김건희(2013), '탈북 청소년을 위한 국어 교과 어휘 학습 교재 개발' 결과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국립국어원 공동 기획.
- 김건희(2014), 언어유형론 개관과 국어 연구, 한말연구 34, 5-44.
- 나카지마 가즈코(2013), 다중 언어 육성 이론의 동향과 캐나다, 미국, 일본의 다언어.다문화 교육정책, 새국어생활 23-4, 국립국어원.
- 모경환.황혜원(2013), 미국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 새국어생활 23-4, 국립국어원.
- 민현식 외(2005), 한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 박영순(2007), 세계화 시대 한국어의 위상, 국어교육학연구 30. 5-21.
- 박정아(2012), 다문화 시대의 한국어 교육 정책 방향과 추진 현황, 새국어생활 22-3, 국립국어원.
- 백봉자(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한다,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 17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21-31.
- 손호민(2008),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 한글 282, 61-95.
- 원진숙(2007),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연구 30. 23-47.
- 이삼형(2007), 세계화 시대의 사범대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379-402.
- 이해영.이준호(2012), 국외 다문화 사회의 언어 교육 정책 -호주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22-3, 국립국어원.
- 정희원(2013),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와 언어 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23-4, 국립국어원.
- 조태린(2014), 계승어 교육 측면에서 본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총론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55, 381-407.
- Corson, D.(1999), Language Policy in Schools: A Resource for Teachers and Administrators, New York: Routledge.
- Churchill, S.(1986), The Education of Linguistic and Cultural Minorities in OECD Countries,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2) 한국어 습득 연구의 세계화 방안 / 권성미(부경대)

# 한국어 습득 연구의 세계화 방안

2014. 11. 7

권성미

부경대학교

세계화란 무엇인가?

2 / 14

##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란?

-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지구화? 서양화?, 열강화?, 미국화?
- 표준국어대사전:

**세계-화**(世界化) [세 : 계-/세 : 게-] [전체 보기](#)

「명사」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임. 또는 그렇게 되게 함.

- **김유중(2009)**

한 국가의 문제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시대.  
국가 단위를 초월한 개인, 집단 간 교류와 소통의 역할이 중요해짐.  
근대 민족 국가 성립과 더불어 형성된 배타적인 경계 인식에 대한 일종의 도전  
(탈구대선)

→ 인력, 자본, 지식, 정보에 있어서 경계 허물기, 개방하기, 교류하기

- **학문의 세계화**

→ 연구자, 연구·교육비, 연구 성과, 연구 자료에 있어서  
경계 허물기, 개방하기, 교류하기, 소통하기

COSMETIC

##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 교육과정

#### 1영역: 한국어학

한국어학에 대한 일반 내용(음운, 문법, 어휘, 의미, 화용, 역사, 어문규범 등)

####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언어학 일반에 관한 내용이나 언어학 연구 결과를 실제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 4영역: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도움이 되는 한국문화를 학습함

####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전공 학생이 실제 한국어교육을 실시

참고: 한국어교원 자격에 대한 국어기본법 시행령

## 학문적 성격

- 학습자 언어 연구(중간언어 연구): 학습자 언어의 언어적 특징 분석  
➡ 응용언어학
- 교수·학습 방법론 연구: 방안의 모색, 방안의 효용성 검증 등  
➡ (언어) 교육학
- 교수자·학습자 연구: 비언어적, 개인적·집단적 특징  
➡ 교육학

## 연구재단 학술 연구 분야 분류

<u>대분류</u>	<u>중분류</u>	<u>소분류</u>	<u>세분류</u>
사회과학	교육학	교과교육학	한국어교육학

### • 관련 연구 분야:

<u>대분류</u>	<u>중분류</u>	<u>소분류</u>
인문학	언어학	응용언어학
인문학	언어학	대조언어
인문학	언어학	언어교수법
인문학	언어학	언어교육
인문학	언어학	언어습득

➡ 인문학적 속성과 사회과학적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

## 한국어 교육학 연구의 변천

### 80~90년대 초기 연구들

-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들

한국어 특징 기술



교수·학습 방안 제시

언어 대비



교수·학습 방안 제시

학습자 오류 분석



교수·학습 방안 제시

### 2000년대 연구들

- 학습자 언어를 연구하는 기초 연구와 교수·학습 방안의 효용성 검증 연구로 이분화

중간언어 연구



교육학적 제언

특정 교수 학습 방안의  
효용성 검증수정된 교수·학습  
방안의 제시

## 2010년 이후

- 미제 해결
- L2 혹은 FL 습득 연구의 일환으로서 한국어 습득 연구

## 해외 한국학과 국내 한국학

- **한국학 :**  
한국적 특징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는 학문 영역들  
문학, 어학, 철학, 사학, 민속학, 종교학, 예술,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법학, 경제학 등  
↳ 한국어교육학: 응용언어학, 언어습득론, 언어 교수·학습론
  - **해외 한국학(Korean studies) :**  
국외에서 수행되는 한국의 인문·사회 관련 연구  
타자의 시선에서 상대를 바라보는 입장  
일종의 지역학
- cf) **국내 한국학:** 국학(national studies), 민족주의 정향

전상인(2007)



## 해외 한국어교육학과 국내 한국어교육학

해외 한국어교육학과 국내 한국어교육학은 어떤 다른 길을 가고 있나? 혹은 가야 할까?  
해외 한국어교육학이 한국어교육학의 세계화를 의미할 수 있을까?

### 교육학적인 부분

국내 KSL 상황의 교수·학습 방법론 연구, 교수자·학습자 연구

해외 KFL 상황의 교수·학습 방법론 연구, 교수자·학습자 연구

➡ 국내, 해외 역할이 구분됨

### 응용언어학적인 부분

#### SLA 가설, 이론의 보편성 검증

- SLA의 주요 연구 대상인 영어 습득의 경우 다수의 외국어 습득의 경우와 구분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진정한 초급자(true beginner)는 거의 없고, 모국어로 학습이 어느 정도(대체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진 후 영어 원어민 교사에게 수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음.
- 한국어 학습자는 대체로 true beginner인 경우가 많음
- 정규 학습 이전에 노출된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최근 한류 영향으로 달라지고 있음

➡ 한국어 습득 연구의 세계화 도모 가능한 영역.  
학문 추구에 있어서 국내, 해외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음. 역사, 문학, 정치 등의 한국학의 다른 주요 영역들과는 차이가 있음.

## 한국어 습득 연구의 이원화된 기능

- **지역화:** 한국어교육 방안 개발, 교육 방안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능함
- **세계화:** SLA 가설과 이론 검증

## 해외 한국어 습득 연구 동향

- **조사 대상:**  
응용언어학 분야의 2개 저명 저널과 음성학 분야 1개 저널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nguistics 분야 인용 지수 순위 4/169 (2013년 기준)  
Applied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Linguistics 분야 인용 지수 순위 11/169 (2013년 기준)  
Journal of Phonetics  
Academic Press, Elsevier
- **조사 범위:** 1980년-2014년 현재, 출판 논문
- **조사 방법:**  
초록 or 제목에 Korean 있는 논문 검색  
→ 검색 결과물 초록 읽고 내용 확인 → 최종 확인

## •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관련 논문: 6편

cf) 일본어 습득 연구: 14편

연구 주제 및 연구자

한국어 학습자 문법 습득 양상: William O'Grady, Miseon Lee and Miho Choo(2003), K. Seon Jeon and Hae-Young Kim(2007), Sunyoung Lee-Ellis(2011)

학습자의 motion event 분석: Soojung Choi and James P. Lantolf(2008)

한국어 이야기(narration)의 담화 특징: Shin Ja Joo Hwang(1989)

근본적 차이 가설(FDH) 검증: Hyang Suk Song and Bonnie D. Schwartz(2009)

## • Applied Linguistics

관련 논문: 1편

cf) 일본어 습득 연구: 12편

연구자 및 연구 주제

Eun Sung Park(2013): 초급 학습자의 생성 주목 행동: 학습자 L2에 나타나는 L1 영향 중심

## • Journal of Phonetics

관련 논문: 1편

cf) 한국어 영어 대비, 한국어 특수성 연구, 한국인의 영어 습득 연구 32편

연구자 및 연구 주제

Charles B. Chang(2012): L2 학습이 L1 음성 산출에 미치는 영향

➡ 한국어 습득 연구, 수 적음

## 해외 한국어 습득 연구 및 연구자 특징

- 미국을 비롯한 '영어 사용 나라들 혹은 유럽'의 연구는 어느 정도 공유 가능하나, 그 외 나라의 연구 결과 공유하기 어려움
- '영어 사용 나라들 혹은 유럽'의 연구자들, 한국계 연구자가 주를 이룸.

예) Lucien Brown and Jae Hoon Yeon(2015).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London: Wiley-Blackwell.  
 Choi, S. First Language Acquisition.  
 Harkness, N. Linguistic Emblems of South Korean Society.  
 KANG M. Agnes. Social Aspects of Korean as a Heritage Language.  
 Kim, J-Y.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Phonology.  
 Yoon, James. Double Nominative and Double Accusative Constructions.

### • 비교

William O'Grady: 하와이대, 언어학  
 Ross King: 캐나다 UBC, 언어학  
 N., Harkness. Harvard Univ. 인류학  
 Lucien Brown: Oregon State Univ, 한국어 습득론, 언어 교수 방법론

## 국내 한국어 습득 연구 사례

### SLA 가설 검증 사례

권성미(2009):  
 일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모음 발음을 조사해 Flege의 음성습득모형(Speech Learning Model, SLM) 검증(L2 음성 습득에 유사성이 미치는 영향 조사)  
 연구 결과로 SLM에 대한 반증 제시  
 → Kim, J-Y(2015).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Phonology,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Ed. Lucien Brown and Jae Hoon Yeon, London: Wiley-Blackwell.

### SLA에 새로운 가설 제시 사례

권성미(2013):  
 성인 학습자의 L2 음성 습득의 아주 초기에 일어나는 일 관찰  
 음성적 민감성(음성 변별 재능)과 음소 습득 능력의 상관성 조사

목표어에 이미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 연구 불가능  
 한국어가 목표어인 경우에 가능한 연구 주제  
 연구자의 향후 계획: 이전 연구에 미안마인 등의 데이터를 부가적으로 분석해 결과물을 해외 학술지에 게재  
 →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어떤 어려움이?

### 한국어 습득 연구 세계화 방안

- 글로벌 연구 인력 양성
- 연구 결과물 공유 증진

## 해외 연구 인력 양성 현황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해외 교수직 설치 지원 사업

일정 수준의 한국학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해외 대학에 한국어 및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함으로써 대학 내에서 한국 관련 강좌와 연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

일정 기간 재단이 급여의 일부를 지원한 후 수혜대학이 교수직을 지속 운영하는 TTP (Tenure-track Position) 교수직과 재단과 대학이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의 이식금으로 수혜 대학이 교수직을 영구 운영하는 기금교수직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참고: <http://www.kf.or.kr/7menu00=147>

## 한국학 전공 교수직 설치 지원 현황



△ 지역별 지원 수 (2013년 기준)

※ 영국 옥스퍼드대, 인도 네루대, 두 곳만 언어학 전공.  
 학부 다른 곳과 비슷함.  
 대학원에서 언어학 전공 가능.

전공별 지원 수 (2013년 기준) &gt;

분야	교수직 수
한국어(언어학)	21
한국어 문화	13
역사	17
역사 문화	4
문화 사회	5
문학	12
한국어 문학	4
문학 문화	3
미술사	2
민족학 기타	
경제 경영	3
정치	10
사회	5
정치 사회	1
국제관계	3
인류	2
지리	2
한국법	1
사회과학 기타	4
계	112

## ※ 해외 한국어·한국학 운영 대학 추이

1990년

32개국 151개처

일본: 64, 미국: 25, 러시아: 5, 중국: 3, 태국: 1

(한국학술진흥재단 조사)

2005년

62개국 735개처

일본: 335, 미국: 140, 러시아 42, 중국: 40, 태국: 16

(한국국제교류재단 조사)

## 해외 연구자 연구 지원 현황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해외한국학지원사업>  
 목적: 해외한국학 연구기관 및 연구 인력의 제반 학술활동을 지원하여 한국학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국제적 확산 도모,  
 지원 분야: 한국학 관련 전 분야 (한국어 습득 연구자, 혹은 한국어 전공자의 수혜율?)  
 지원 내용: 강의 지원, 학술 연구, 학술회의, 학술지발간, 출판 지원 연구 장려(편당 3,000불)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학자 DB: 업데이트 필요함

## 국내 연구자 양성 현황 및 연구 지원 현황

- 한국어교육학 및 한국어 습득 연구를 위한 별도의 연구자 양성
- 연구 지원  
 관련 노력?

## 정책 수립과 수행 방향: 수행 기관

### 해외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 수행 정부 부처

- 정부 부처별 국외 한국어 교육의 교육 대상과 특성:

구분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방향	재외국민의 교육권을 통해 대한 정책	재외동포재단법	재외국민법 (재외국민의 보호 등)
교육 대상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 한국 국적이 없는 동포 일체의 한국어 연구자	한국 국적이 있는 장기 체류자 및 영주권 자 국적을 불명하고 한인계의 행적을 지닌 자	한국 입국전(일반 비자) · 재외동포를 위한 비자 및 한국 국적이 없는 국외자
교육 내용	재외국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 연구자 지원	재외 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 화 교육 재외 한국어 전문 지원	일반 비자(일반 비자) 대상의 생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의 이해
교육 성격	재외 국민 대상의 장기·단기 교육 운영 재외 한국어 교육 실시	재외 동포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사업 지원	일반 비자(일반 비자) 대상의 생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의 이해
교육 자격	재외국민 자격증 · 재외국민(재외국민)	비자 없음	한국어교육 자격증 · 한국어(교육)자격
2014년도 예산	37.4억 원	145.8억 원	15.4억 원

### 한국어 교육 유관 기관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진흥원(KOSET), 연구재단
-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세종학당재단

### 한국어 습득 연구 세계화

- 국내 연구자 양성 및 학술 활동 지원: 연구재단, 국립국어원
- 해외 연구자 양성 및 학술 활동 지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국제교육진흥원



## 국내 연구자의 어려움

### • 도구 언어 문제

전임교원의 경우, P대학교 사례

논문영문서비스

목적: 국제 학술연구활동의 기반조성 도모

내용: SCI SSCI AHCI SCIE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투고 시  
전문가(번역, 교정) 활용 비용으로 연간 500,000원.  
사업자 등록된 업체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제도의 비현실성

### • 통계

전임교원의 경우, P대학교 사례

지원 없음

-> 연구 설계(research design) 단계부터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지원 부재

## 지원 방향

### 해외

- 해외 연구자 명단, 연구물 목록 확보
- 비영어권 연구자 연구 결과물 한국어 혹은 영어로 번역
- 교수직 설치 사업 및 연구 지원 사업의 지속 혹은 확대
-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한 장려금 지급

### 국내

- 한국학의 다른 분야와 달리 국내 연구자 지원에도 어느 정도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 한국어로 된 우수 연구물 번역 출판
- 도구 언어(특히, 영어) 제약 해결
- 한국어학, 한국어교육학 학술지, A&HCI급, 혹은 SSCI급 학술지 승급 지원

※ A&HCI급 국내 한국학 학술지

계명대 Acta Koreana 2007년 연구재단 등재지, 2009년 12권 1호부터 A&HCI 등재  
서울대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 참고 문헌

- 권성미(2009). 한국어 발음 습득 연구: 모음 중심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박이정.  
 (2013). 외국어 음에 대한 음성적 민감성과 음소 습득 능력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97, pp.209-232.
- 김유중(2009). 한국 문화의 바람직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고찰, Comparative Korean Studies 17(1), pp. 251-275.
- 김호정(2013). 2013년 국어 정책 통계 조사, 국립국어원.
- 전삼인(2007). 해외 한국학의 진흥을 위하여(pp.14-28),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 한국국제교류재단(2007). 해외한국학백서, 을유문화사.
- 한국학술진흥재단(1990). 해외 한국학의 개황과 발전 방향, 한국학술진흥재단.
- Brown, L. and Yeon, J. (2015), The Handbook of Korean Linguistics, Wiley-Blackwell.
- Chang, C. (2012). Rapid and multifaceted effects of second-language learning on first-language speech production: original research article, *Journal of Phonetics*, 40(2), pp 249-268.
- Choi, S., and Lantolf, J. (2008). Representation and embodiment of meaning in L2 communication: motion events in the speech and gesture of advanced L2 Korean and L2 English speaker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0(02), pp 191- 224.
- Hwang, S. (1989). Discourse features of Korean narra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1(04), pp 484-484.
- Jeon, S. and Kim, H. (2007). Development of relativization in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he noun phrase accessibility hierarchy in head-internal and head-external relative claus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9(02), pp 253-276.
- Lee-Ellis, S. (2011). The elicited production of Korean relative clauses by heritage speaker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3(01), pp 57-89.
- O'Grady, W., Lee, M., and Choo, M. (2003). A subject-object asymmetry in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as a second languag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5(3), pp 433-448.
- Park, E. (2013). Learner-generated noticing behavior by novice learners: tracing the effects of learners' I1 on their emerging L2, *Applied Linguistics* 34 (1), pp 74-98.
- Song, H., and Schwartz, B. (2009). Testing the fundamental difference hypothesis testing the fundamental difference hypothesi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31(02), pp 323-361.

### 3) 한국어교육학의 경계와 지평 탐색 / 최영환(경인교육대학교)

#### 1. 서론

1990년대 초반 국어교육학계에서는 국어교육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였다. 당시 논쟁의 핵심은 국어교육학과 국어학이나 국문학의 관계, 국어교육학이 독자적 학문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난 후 한국어교육학계에서는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다.<sup>1)</sup>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은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과 그 맥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

국어교육학 정체성 논쟁 과정은 국어교육학이 ‘국어학 + 교육학’이라는 단순 도식이 아니라 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 이제는 국어학과 국문학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학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과정은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초기 단계에는 ‘한국어학 + 교육학’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한국어교육학’이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내놓는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어교육학에서 ‘한’이라는 조건을 제외 하면 국어교육학과 무엇이 다르고,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까지 추가되어야 한다.

사실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많은 연구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한국어교육에 관한 풍부한 기초 지식을 확보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어교육학 관련 학문의 연구 경향이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본질이 왜곡될 위험을 방지하고, 한국어교육을 단단한 기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한국어교육학의 위상에 대한 논의를 일회적 규정으로 끝내지 않고, 한국어교육학의 본질 및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계 안에서의 좌표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오래 다루어왔던 논점 몇 가지를 재론하고자 한다.

#### 2. 한국어교육학의 언어교육적 역할 탐색

한국어교육학의 경계 설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과의 관계이다. 한국어교육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관련 학문과 어떤 의미역을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논의를 위해 몇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면, 한국어교육학의 경계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강승혜(2003), 김중섭(2004) 외 여러 연구물이 있다.

<표 1> 한국어교육학의 핵심 요소<sup>2)</sup>

요소 \ 학문	한국어교육학	국어교육학
교육 내용	한국어	(한)국어
교육 대상	비모어 화자	모어 화자

한국어교육학은 목표 설정, 교재 개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이런 영역은 사실 교육 내용인 한국어와 교육 대상인 비모어 화자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sup>3)</sup> 이 두 가지 요소 중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양상이 바뀔 수 있다.

### (1) 교육 내용의 공유로 인한 동질성

한국어교육은 국어교육과 ‘(한)국어’라는 교육 내용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 한국어교육학의 많은 연구 내용이 국어교육학의 연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이런 동질성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학문 사이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다. 이런 논의는 남북한 언어를 비교 연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남북한 언어가 다르다고 연구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남한의 언어와 북한의 언어가 같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남북한 언어를 통합하여 겨레말 사전을 발간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질화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를 진행하는 일 자체가 이미 두 언어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적어도 우리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공동 사전, 한국어와 중국어를 합친 사전 등을 기획하는 일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질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다르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어교육학 역시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일단 기대야 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물이 이런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연구 결과들이 많다. 따라서 동질성을 재확인하는 것에서 멈추지만 않는다면, 한국어교육학은 적어

2) 한국어교육학을 논의할 때 국어학, 국문학 등도 학문적 관련성이 높지만, 이는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로 볼 수 있으므로, 핵심 요소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런 방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진 학자들도 없지 않겠지만, 이는 국어학이나 국문학을 출발점으로 하여 한국어교육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 견해로 생각한다. 한국어교육학은 그 자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그에 기초하여 다른 학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생각이다.

3) 이 연구는 한국어교육학의 경향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갈 바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목표나 교재 등과 관련된 논의는 제외한다.

도 국어교육학과 가장 친밀한 학문이며, 국어학 및 국문학과 그 다음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어교육학 연구자들 상당수가 이미 이런 학문에 직접, 간접으로 맥이 닿아 있고, 이런 학문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육학이 다루는 내용이 ‘한국어’인 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이런 동질성에 기반을 두고 한국어교육학이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과 연구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현재 적지 않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어교육학에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일부 학문적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된 듯한 인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한국어교육의 일종의 붐에 편승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연구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학자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 (2) 교육 대상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

한국어교육학은 이런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학문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 필연적 이유를 갖는다.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이 한국어교육학의 연구를 대신할 수 없고, 한국어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육학이 그동안 국어학이나 국문학, 국어교육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라는 목표에 따라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학 이론을 도입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한국어교육학이 영어교육학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비모어 화자를 교육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 때문이다. 영어교육학의 의사소통식 언어교수법(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CLT)에 기반을 둔 한국어교육 방법이 그동안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고, 최근까지 개발된 대학의 한국어 교재, 국가에서 개발한 세종학당 교재, 재외한글학교용 한국어 교재, 다문화 학습자용 한국어 교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CLT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학 관련 개론서 및 각 영역별 전공 서적의 내용 역시 모어로서의 영어교육학이 아닌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sup>4)</sup>

사실 의사소통식 언어 교수법은 언어 사용을 우선하고, 그 안에 담긴 내적 원리는 그 결과로서 학습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실제로 그 내적 원리를 학습하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학습하면서 반복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원리 학습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은 근원적 교육이 아니라 대증적 처방일 뿐이다.<sup>5)</sup>

4) 이런 CLT가 영어교육과 한국어교육에서는 전혀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면 안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최정순(2012) 등이 상당히 강조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는다.

5) 연구자는 의사소통식 언어 교수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상황 및 주제 선정이 의도적이거나 유목적적이지 않고, 체계도 부족하며, 그 안에 담긴 내용 역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논의 초점이 아니므로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그친다.

사실 영어교육학에 의지하여 국어학, 국문학, 국어교육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결과, 한국어 교육학의 교재는 때로는 영어의 단순 번역처럼 보일 때가 많다. ‘인사’를 주제로 한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의 한국어 교재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6)</sup>

가: 안녕?

나: 안녕하세요?

가: 이름이 뭐예요?

나: 영숙이에요.

가: 중국 사람인가요?

나 : 아니에요, 한국 사람입니다.

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 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소통식 언어 교수법에 의한 한국어 학습 내용은 우리가 받아온 영어 교육 교재와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는 단순히 영어를 번역한 것이라고 해도 크게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사’를 다룰 경우, 한국어의 ‘인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

우선, 이 대화는 구어 중심인지 문어 중심인지 분명하지 않다. 대화를 보면, 인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단계에서 가르쳐야 할 문법 요소는 ‘-이에요’, ‘-예요’이다. 대화를 위해 가장 먼저 누군가를 만나면 인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의 제일 단계로 인사를 다룬 점은 다른 외국어 학습과 다르지 않으므로 일단 대화 내용이 같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고, 굳이 이것이 의사소통식 언어 교수법의 번역에 의한 것이라고 억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와는 달리, 여기에는 한글맞춤법의 요소가 문법적 조건에 의해 드러난다. 사실 ‘-이에요’는 몇 가지 설명을 동반해야만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받침이 있는 체언 뒤에서 ‘-이에요’,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서는 ‘-예요’인데, ‘아니’라는 말은 모음으로 끝났으니 ‘-예요’가 맞지만 ‘아니’ 뒤에서는 용언 뒤에 붙는 것이므로 ‘-예요’가 되어야 하고, 사람의 이름이 받침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뒤에 ‘영숙이’와 같이 ‘이’가 붙으므로 ‘영숙이에요’라고 다시 ‘-예요’를 붙여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어요’의 사용 조건까지 포함시킨다면 더욱 복잡해진다. 이런 조건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매우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현상이다. 즉 인사가 초점인지 한국어 문법 중 맞춤법이 초점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런 문법 사항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만큼 이 내용이 한국어교육에서 중요도가 그렇게 높

6) 이 대화는 「세종한국어 1」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교육용 교재의 가장 앞 부분에 나오는 대화를 필요에 따라 조합한 것이다.

은 것인지 의문이다. 이처럼, 단순히 영어 번역식 교육 내용은 한국어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3) 교육 내용과 교육 대상의 통합에 의한 특성화

한국어교육의 이질성은 역설적으로 한국어교육의 동질성을 보장하는 ‘한국어’에서 만들어진 다. 동질성을 담보하는 ‘한국어’는 충돌하면서 교육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육학이 학문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하게 하고, 향후 독자적인 발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으로서의 한국어와 교육 대상이 가진 모어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 특수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가 한국어와 어떤 영향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교육 내용의 수정 및 변환을 고려하는 과정 역시 중요한 특성화 작업이다. 국어교육학이 모어로서의 국어를 전제로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반면 한국어교육학은 비모어로서의 한국어를 다루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모어와의 영향이 직·간접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두 개 이상이 언어가 작용하는 과정을 보면 언어의 전체 체계에서 영향 및 간섭이 일어난다. 즉 음운과 형태, 통사 및 화용이라는 전통적인 언어학적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고 할 경우,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교육학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한국어학습자의 모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를 해야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의 대화에서 음운의 차원에서는 ‘안녕’이나 ‘중국’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하는 언어권이 존재하므로 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음 지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중국 사람’이라는 구조가 아니라 korea와 korean, Japan과 Japanese로 표기하는 식의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대우법 체계 중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위 대화에서 여러 가지 대우법 체계를 혼용하고 있다. 이런 것은 다른 언어에서는 다루지 않는 한국어의 특징으로 인사를 배우면서 대우법까지 다루어야 할 부담을 동시에 지게 된다.<sup>7)</sup>

한국어교육의 특성화는 한국어교육의 학습 대상자의 언어적 특성 이외에 다른 조건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국어교육학에서도 유아 및 초등, 중등이나 고등의 경우 교원 양성을 달리하고 있고, 교육 내용이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역시 다르게 하고 있다. 한국어교육학이 학문으로서의 체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의 대상인 학습자의 연령이나 학교급별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요소, 교육 내용의 차별화, 교육 조건에 대한 고려 및 교수 및 학습 방법 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7) 한국어교육학의 특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 연구의 목표가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간단한 예로 대신하기로 한다.

### 3. 한국어 문화와 한국문학의 경계 설정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한국문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포함된다. 국어기본법에 의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필수 이수학점 중 한국 문화에 대한 것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어기본법의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필수 이수학점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제13조제1항 관련) -

번호	영역	과목 예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필수이수 시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부전공		
1	한국어학	국어학개론, 한국어음운론, 한국어문법론, 한국어어휘론, 한국어의미론, 한국어화용론(話用論), 한국어사, 한국어어문규범 등	6학점	3학점	3~4학점	30시간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응용언어학, 언어학개론, 대조언어학, 사회언어학, 심리언어학, 외국어습득론 등	6학점	3학점		12시간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한국어교육개론, 한국어교육과정론, 한국어평가론, 언어교수이론, 한국어표현교육법(말하기, 쓰기), 한국어미해교육법(듣기, 읽기), 한국어발음교육론, 한국어문법교육론, 한국어어휘교육론, 한국어교재론, 한국문화교육론, 한국어한자교육론, 한국어교육정책론, 한국어번역론 등	24학점	9학점	9~10학점	46시간
4	한국문화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학,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	6학점	3학점	2~3학점	12시간
5	한국어교육 실습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 등	3학점	3학점	2~3학점	20시간
	합계		45학점	21학점	18학점	120시간

※ 한국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lt;표 3&gt;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의 한국어교원 자격에 필요한 과목 세부 심사 기준

## [시행규칙 별표]

-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 -

## 1.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번호	영역	세부 심사기준
1	한국어학	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일반 언어의 보편적인 구조와 특징,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 등의 일반언어학의 하위 분야 내용 또는 일반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하위 분야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의 교육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4	한국문화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민속·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5	한국어교육 실습	한국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 하는 등 한국어교육 실습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은 크게 5대 영역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 한국 문화는 한국어교육 실습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이며,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과 동등한 비중을 차지한다.<sup>8)</sup>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한국문화 과목으로 예시한 강좌명은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학,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의 이해 등”이다. 여기서 ‘문학’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에서는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을 보면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의 역사·민속·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 교육의 내용은 ‘역사~예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 중요한 조건은 “한국어교육에 필요한”이라는 점이다. 이것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지만, 한국문화 또는 한국문학이 한국어교육에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8)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대학원 등을 제외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대학의 주전공 또는 복수 전공 기준 학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 (1) 문화의 개념에 따른 한국어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문화의 개념에 따른 인식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문화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무작정 문화의 개념을 학자 개인이나 학자군에 맡기면 한국어교육학에서 문화의 비중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문화 개념을 선택하고 그에 맞춰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어대사전에서 문화의 개념을 보기로 한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표준국어대사전)

여기에는 문화의 개념에서 항상 충돌하는 두 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개념은 사실 문화를 규정하는 정의에서도 나타난다.

첫째, 문화는 상징 체계 또는 생활양식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에서 규정하는 방식이다.

“사회학이나 인류학에서는 흔히 문화를 인간의 상징체계, 혹은 생활양식으로 정의한다. 인간은 상징체계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고 인식하며 다른 인간과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한다. 인간이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상징체계를 습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며, 그 상징체계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의 질서와 규범, 즉 생활양식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양상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언어생활이다. 예컨대 한국어에서는 지위,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그러한 언어 규범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전통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언어 규범에 따라 말을 할 때 한국어의 언어 체계가 담고 있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에 따르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그렇게 보면 사회에서 의미질서, 혹은 상징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그 자체가 문화임을 알 수 있다. 문화를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혹은 그것의 기반이 되는 상징체계라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정신적 작용의 산물이 아니라 한 사회의 관습, 가치, 규범, 제도, 전통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밑줄 부분은 필자가 강조한 것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 또는 ‘양식’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문화가 가진 재생산의 기능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문화가 세대를 이어가며 전승되고, 유지되며, 발전되는 것이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와 과정이 일정한 양식으로 존재하여 세대 간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개념이 바로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정신적 산물’은 양식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재생산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사실 언어를 학습한다는 것이 학습한 언어 자체를 그대로 반복하여 복사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점은 매우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를 토대로 하여 유사한 언어 사용 방식을 언어 문화로 공유하고 재생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문화는 한국인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며 언어로 사유하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음운이나 형태에서 화용까지 모든 언어 체계에 작용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시대를 넘나드는 핵심 기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문화를 예술 및 정신적 산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주로 문학 작품 등을 일컫는데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현대사회에서 문화는 주로 정신적이거나 지적이고 예술적인 산물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신문의 문화면은 문학, 예술, 종교, 학문, 교육, 패션, 방송, 영화 등의 주제로 구성되며, 이는 신문의 다른 면을 구성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영역과 구분된다. 문화를 이렇게 인간의 정신 활동과 관련된 몇 가지 영역으로 정의하는 방식에는 문화를 물질적 생산이나 분배를 둘러싼 사회 관계와 분리해 사고하는 관념이 깔려 있다. 여기에는 흔히 배타성, 순수성, 전문성과 같은 개념이 개입한다. 문화는 사회와 무관한 순수한 것이며 고유의 배타적인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이런 식의 문화 개념에서 쉽게 나타나곤 한다. 이렇게 문화를 인식하는 것은 ‘교양으로서 문화’ 개념을 대중문화에까지 확장하면서도 유구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밑줄 부분은 필자가 강조한 것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엄밀히 말해 문화라기보다는 ‘문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즉 문화를 일정한 생활 양식, 사유 방식, 표현 양식이라고 할 때, 이런 양식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은 문화의 산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문학은 한국어 문화라고 규정하기보다는 한국어 문화가 반영된 한국어 문화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 (2) 한국어 문화 교육 안에서 한국 문학의 위상

문화의 개념을 통해 한국어 문화를 재정립할 경우, 한국 문학 교육은 한국어교육에서 매우

다른 위상을 갖게 된다. 일단 한국어 문화의 산물로서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기 어렵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한국어 문화의 본령에 다가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한국문학을 한국어 문화의 일부로 다루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① 작품의 고유한 가치를 담은 한국 문학 교육
- ② 문학 작품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 ③ 한국어교육(한국인의 언어 사용 방식)을 위한 도구 또는 제재로서의 한국 문학 교육

대개 국문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①을 선호하는데, 이는 수십 년간 국어교육학 안에서 진행된 논쟁과 동일하다.<sup>9)</sup> 반면에 한국어교육학에서는 ②가 매우 보편적이다. 국어교육학에서 ②를 주장하는 것은 거의 부정되어 왔지만 그 뿌리와 세력이 대단하여 쉽게 논쟁이 가라앉지 않는 데 비해, 한국어교육학 안에서는 ②와 같은 접근이 비교적 자유롭다. 실제로 한국어교육학 연구 논문에서 ‘한국문학 작품이나 장르를 통한 한국어교육’이라는 틀로 구성된 논문 제목이 아주 일반적이라는 현상은 이를 대변해준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한국어 문화 교육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한국어교육의 필요에 의한 연구가 아니라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필요에 의한 연구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구자 자신의 학문 결과가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도구로 사용된다고 할 때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집중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우리는 ③과 같은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②는 수단이 선행하고 그에 따라 목표가 뒤따르는 구조인 반면, ③은 목표가 선행하고 그에 따라 수단으로서의 한국 문학이 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sup>10)</sup> 다시 말하면 한국어교육이라는 목표에서 한국어 문화적 속성을 찾고, 그 속성을 가르쳐 한국어 사용에서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문학 작품을 제재로서, 도구로서 선택하는 과정이 합리적인 과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문화 교육은 출발점을 한국 문학이 아니라 한국어교육으로 수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 문화라는 관점이 연구 및 교육의 출발점이 되지 못한 까닭은 이에 대한 인식 부족이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한국 문학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연구 결과와 강력한 자료적 가치의 영향권

9) 사실 국어교육학 안에서는 수십 년째 문학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어과교육 안에서 문학 작품을 다루는 것이 독자적인 가치가 있는지, 단순 제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 결과를 참조할 것.

10) 이런 연구의 단초는 이미 한국 문학 연구자들이 시도하였는데, 그 접근 방식이나 과정을 바꿀 경우 ②에서 ③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염은열(1996), 최인자(1996)의 연구에서 그 순서를 바꾸는 일과 같은 것이다.

안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 문학은 한국어교육에서 수단이나 제재로서의 가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유일한 논의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 문학은 한국어 문화 교육에서 놓이는 위치를 달리 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첫 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한국 문학이 출발점에 놓이면서 한국어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하기보다는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제재나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는 여러 언어 자료 중 하나로 인정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한국어 문화의 속성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언어 실체로서의 한국 문학은 한국어 문화 교육의 일정 주기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한국어 문화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즉 한국어 문화 교육의 분절적 접근에서는 한국 문학 작품이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분절적, 분석적 대상으로 사용된다면, 한국어 문화 교육의 통합적 총체적 접근에서는 한국 문학 작품이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담고 있는 하나의 한국어 사용 현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으로 목표에 따른 한국 문학의 기여 방식을 분리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문학의 위상과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될 듯하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한국 문학은 한국어 문화 교육이라는 점에서 문화적 산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한국어 문화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한국인의 언어 사용 양식, 한국인의 언어 사용 방식, 한국어의 사용 체계를 보여주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sup>12)</sup>

사실 이렇게 한국어 문화라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까닭은 한국어교육학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하기 위함이다.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에서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문화 내용으로 “역사·민속·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라는 세부 항목을 제시하면서도 “한국어교육에 필요한”이라는 조건을 명시한 것은 한국 문화 교육이 문화 교육이라는 원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한 내용만을 대상으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는 자칫 한국 문화 교육

11) 심상민(2014)에 의하면 문화 교육 자료 선정 기준으로 문화내용의 균형성과 학습 내용의 균형성(언어 학습과 문화 학습의 균형), 목표 언어와 다양한 이문화 내용의 포함, 문화 자료가 문화 인식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 실제 문화의 반영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기여라는 네 가지 기능을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이들 네 가지 기능에 의한 기준 설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것이 대등한 것은 아니라 의사소통 기능에 기여한다는 것을 제1기준으로 하고, 문화적 속성을 제2기준으로 하는 것이 한국어교육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12) 영어학에서 공손법의 원리라는 연구 결과는 매우 보편적인 언어 사용 방식으로 영어뿐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리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우법 연구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우 체계에 대한 것에 국한하여 다른 언어교육학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십수 년 전부터 이루어진 한국적 언어 사용 방식인 ‘상생화용’ 또는 ‘상생언어’에 대한 연구 역시 그 소재목을 보면 ‘원효의 화쟁 사상 연구’ 등이 있는데, 이는 언어교육학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한국어교육학이 세계의 언어 교육학에 기여할 수는 없다. 반면에 최영환(2006)의 연구는 상생화용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형식 변환, 내용 변환, 형식 및 내용 변환 등의 기제를 밝힘으로써 우리의 대우 및 상생화용의 내적 구조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를 보편적 언어 사용의 방식으로 확장 보급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향후 한국어교육학에는 이런 연구가 변화의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이 한국어교육의 범위를 벗어나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산되어 초점을 잃게 될 우려를 담은 것이고, 한편으로는 한국어교육 연구자들에게 한국 문화 연구자들과 구별되는 연구 초점을 알려 주기 위한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 한국어교육 연구자들이 한국의 역사, 민속, 철학, 정치, 경제, 예술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에 비해 그 분야에 대한 연구력이 높을 수 없고, 연구 결과 역시 그러하겠지만, 설사 연구력이 출중하고 연구 결과가 우수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어교육학의 내용이 아니라 해당 연구 분야의 내용이 될 뿐이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은 한국어문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

#### 4. 다문화 사회 속의 한국어교육

우리 사회는 최근 십수 년에 걸쳐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매우 오랜 세월을 걸쳐 다문화 사회를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해 온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는 짧은 역사 속에서 문제에 대한 대중적 처방을 하는 수준의 다문화 교육에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어교육학은 다문화 교육과 어떤 관계에 서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어교육의 정체성 확립 및 역할 수행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언어 교육의 구별

다문화라는 것은 사실 그 문화를 형성하는 인간이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문화 문제는 개인에게는 인권의 문제이고, 정부로서는 정책의 문제이며, 사회적으로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은 다문화 교육이다. 다문화 교육에 관한 논의는 교육학 및 교과교육학이 함께 관련하고 있지만, 논의에 앞서 먼저 다문화 교육의 대상을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필요에 따라야 하고,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수립자, 법률가, 사회학자, 교육자 등이 관련되지만 이 모든 것은 한국어교육학과 간접적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은 다문화 교육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주 교육 대상이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 집단이 아니라 다수 집단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수 집단이 다른 문화에 대해 포용적이면 많은 문화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연이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다문화 교육 안에서 한국어교육학이 논의될 경우 다수자를 위한 연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내에 공존하는 문화의 수가 적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인데, 모

든 다문화를 교육 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이상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개별 문화를 이해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여러 문화에 대한 태도와 이해를 위한 접근을 통해 다수 집단이 다른 문화를 접할 때마다 주도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교육은 지나치게 친절하다는 생각을 한다. 한국 사회에 편입되는 소수 집단의 문화는 해당국 관련자들의 몫이어야 하고, 우리 정부와 사회는 이를 지원하되 공교육 안에서는 한국어교육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수 문화 집단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 속으로 편입이 지연되고,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은 결국 다문화 교육이 오히려 다문화 학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어교육이 다수 집단을 위해 연구할 것은 그리 많지 않다.

## (2) 다문화 언어 교육의 중핵성 확인

공교육에서 다문화 교육 대상자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와 한국어를 비모어로 하는 학습자이지만, 다문화 언어 교육의 대상자는 한국어를 비모어로 하는 학습자뿐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어교육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려면, 다문화 사회에서 언어 교육의 문제를 다루면서 ‘다문화 언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제안한, 다음과 같은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면, 언어 교육은 다문화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에 답을 제공한다. 언어 교육에서 출발하는 다문화 교육은 그 중심에 언어 교육을 두고 있다.

많은 다문화상의 문제가 의사소통의 문제, 곧 언어 문제이다. 이것은 한국을 포함하여 다문화 사회 공통의 보편적 현상으로, 그 해결을 위한 답은 분명하다. 언어교육이다.” (성기철 2008:12)

이 주장은 한국어교육학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주장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첫째, 언어는 문화간 장벽을 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소통 수단이면서 가장 고등하고 정교한 수단이기 때문에 다문화교육은 한국어교육을 본질로 하고, 다문화적 접근은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비모어화자를 위한 모어 문화 제공은 한국어교육학이 담당할 내용이 아니며, 한국의 교육계가 담당할 내용도 아니다. 이 문제는 성인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유아 및 초등 중등 수준의 한국어교육 관련 내용이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한국어교육학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은 다

문화 학습자를 위한 언어 교육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출발점을 갖되, 다른 학문과의 연계 선상에서 공조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자칫 다문화 교육의 하위 영역 정도로 여기거나, 다문화 교육을 보조하는 것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역사적·사회적·국제적으로 언어교육 이상의 다문화 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한국어교육에서 언어 문화적 속성을 탐구해야 한다. 공교육 안에서 다문화 교육과 한국어교육을 구별하지 못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한국 사회에 편입된 소수자들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다문화 교육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교육 시간에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다문화 교육을 보는 것이다. 전자는 공교육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문제가 적지 않으나 한국어교육학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다른 문화 집단과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후자는 한국어교육에서 중대한 문제가 된다. 한국어 교재를 살펴 보면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한국어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다.

「세종 한국어 1」에 나타난 문화 교육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세종한국어 1」에 나타난 문화 교육 내용<sup>13)</sup>

문화 주제	세부 내용	설명 내용(일부)
한국인의 인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 만나는 상황 인사</li> <li>* 알고 있는 사람과의 일상적인 인사</li> <li>* 한국의 절</li> </ul>	한국에서는 특별한 날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을 합니다. 한국의 설날에는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어른들에게 절을 합니다.
한국의 화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사용하는 화폐</li> </ul>	물건을 살 때,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표나 문화상품권 등을 이용해서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사계절</li> <li>* 한국의 계절 레포트</li> <li>* 한국의 계절 축제</li> <li>* 한국의 계절별 활동</li> </ul>	한국 사람들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강이나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산에서 스키를 탑니다. 봄에는 꽃놀이를 하고 가을에는 단풍놀이를 갑니다.
한국인의 주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의 주말 활동</li> </ul>	한국 사람들은 주말에 등산이나 운동을 즐겨 합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집 안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3) 「세종 한국어 2」에서도 문화 요소는 '한국 음식, 한국의 대중교통, 한국의 여행지, 한국 사람들의 모임'으로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른 교재들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종 한국어 1」로 경향만 보여주기로 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 한국어 1」은 문화 교육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어교육의 내용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다. 앞서 국어기본법 시행 규칙 중 영역별 과목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에서 “한국어교육에 필요한”이라는 조건이 중요한데, 위 네 가지 문화 교육 내용 중 어떤 점이 한국어교육에 필요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한국어교육에서 필요한 것이 문화 자체가 아니라 ‘한국어 문화’라면, ‘한국인의 인사’에서는 ‘절’이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언어적 표현과 몸짓’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즉 여기 제시한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그대로 둔다고 해도, 한국어의 문화란 언어적 차이를 다루어야 하고, 특히 절을 할 때에는 사용하는 인사의 내용을 다루되, 그것을 하나의 사례로 다루기보다는 그런 인사법이 실제 한국어 사용에서 다른 영역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우법 체계 및 의사소통 방식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화폐’는 화폐 자체를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화폐 단위와 수를 세는 방식에 담긴 한국적 표현’, 물건을 사고 팔 때의 흥정 등에 나타나는 ‘한국의 언어 문화’가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그냥 의사소통 접근법에 의한 단일 설정과 문화 내용의 선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내용의 선정 방식은 문화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한국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언어 현상을 관찰하고, 그 현상 중 언어 문화적 속성이 있는 것들을 묶어서 내적 체계 및 사용 원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교육적 위계 및 교육 내용을 설정하여야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어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선 한국어교육을 위한 언어 문화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서 언어 문화적 요소를 추출하여 재배열하는 것이 한국어 문화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 5. 결론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연구 영역을 확보하는 일과 지속적으로 연구 지평을 확장하는 일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는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국제적으로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어교육학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면서도 다층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 한국어교육학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모든 연구 역량을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할 경우 추세 반전에 따른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연구는 추세에 따른 한국어교육학의 현재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한국어교육 및 한국어교육학의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학에 대한 논점 중 크게 세 가지를 선택하여 한국어교육학의 본질 및

역할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어교육학은 교육 내용으로서의 한국어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교육 대상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를 비롯한 특성에 따른 연구를 통합하여 국어학이나 국문학, 또는 국어교육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확보하고 그 연구 결과를 얻어 한국어교육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은 문화가 아니라 문화의 산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문학이 가진 독자적 가치는 부정되지는 않으나, 한국어교육 안에서 한국문학은 한국어문화를 위한 수단이나 자료로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에 출발점을 두고 분절적 교육 단계에서는 한국어문화를 담은 자료로 한국 문학 작품을 사용하고, 한국어 문화의 통합적 교육 단계에서는 한국어 문화여러 요소 및 수준이 복합된 한국어 사용 실체로서 문학 작품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한국어교육은 다문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임을 인지하고, 다문화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 언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현재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힘을 기울이는 다문화 교육은 문화 교육으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효율적으로 높이지 못하여 우리 사회에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교육은 다문화 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핵심으로서의 위상을 자각하고 다문화 언어교육을 위한 언어 문화적 요소를 탐구하고 교육적으로 적용하는데 연구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는 한국어교육학의 출발점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면서 동시에 한국어교육학의 위상을 점검하는 좌표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어교육학은 이 세 가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독자적 학문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다른 언어교육학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 &lt;참고문헌&gt;

- 강승혜(2003), 한국어교육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교육 14-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강승혜(2012), 한국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제9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강현화(2010),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최신 동향 및 전망, 국어국문학 155, 국어국문학회.
- 고정은(2013), 다문화교육 전문가 양성과정의 전문성에 대한 제언: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양성과정과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7권 1호, 성결대학교다문화평화연구소.
- 국립국어원(2013), 「세종 한국어 1」, 세종학당재단.
- 권오경(2009), 한국어교육에서 문화교육 내용 구축 방안, 언어와 문화 5-2, 한국언어문화학회.
- 김대행(2008), 언어교육과 문화인식, 한국언어문화학 제5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김대행(2012), 한국 언어문화교육 연구의 내용학적 지평:학제적 접근 가능성의 탐구, 한국언어문화학 제9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김영순(2013), 한국문화교육의 교과내용학 체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 김재욱(2012), 세종학당에서의 한국문학 교육, 나라사랑 121집, 외솔회.
- 김중섭(2004),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박갑수(2013),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 교육」, 역락.
- 박영미(2013), 한국어 문화 교재의 개발 영역과 문화 교육 모형의 개발, 다문화와 평화 제7권 2호, 성결대학교다문화평화연구소.
- 배재원(2013),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문화 교육 방안 연구:한국문화의 상호관계성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제24호, 시학과언어학회.
- 성기철(2008),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교육의 과제, 한국언어문화학 제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심상민(2014), 한국어 문화교육 자료로서의 텍스트 선정에 관한 일고(一考), 국어교육 144, 한국어교육학회.
- 염은열(1996), 상소문의 글쓰기 전략 연구:「간타위소(諫打圍疏)」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오지혜(2007),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제4권 제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오지혜(2013), 문화 능력의 재개념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연구:문화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제10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윤여탁(2013), 문학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0권 제2호, 국제

한국언어문화학회.

장소원(2012),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와 문화의 연계, 한국언어문화학 제9권 제2호,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조항록(2000), 초급 단계에서의 한국어교육과 문화 교육, 한국어교육 제1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지현숙(2010), 한국어교육에서 문화 교육과정 연구의 새로운 탐색:소위 '다문화 교육'을 넘어, 한국언어문화학 제7권 제1호,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최영환(2006), 상생언어 연구의 과제, 국어교육 120, 한국어교육학회.

최인자(1996) 조선시대 상소문에 나타난 설득방식과 표현에 관한 연구: <간폐비소>와 <간타위소>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최정순(2004),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의 등가적 통합, 언어와 문화 창간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최정순(2012), 한국어교육 연구의 균형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새국어교육 92, 한국국어교육학회.

최정순(2013),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언어교육에서 문화교육까지 문화 간 의사소통적 접근법을 제안하며,

한국학중앙연구원(20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상미(1999), 한국어교육에서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교육 방안:이사소통 민족지학 연구 방법론의 적용, 한국어교육 10-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 소통과 통합을 통한 한국어학의 세계화 / 김상태(청주대)

# 소통과 통합을 통한 한국어학의 세계화

김 상 태  
(청주대학교)  
kst2002@cju.ac.kr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포럼, 충북대학교, 2014년 11월 7일

## 1. 서론

1.1. 한국어학의 세계화 : 한국어가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의 학문 대상으로 연구되는 것.

1.2. 소통과 통합 :

해외에서의 한국어 연구 + 국내의 한국어 연구

### 1.3. 구성

첫째, 세계 한국어학 대회

(The World Congress of Korean Linguistics)

둘째, 학술지의 세계화

## 2. 세계 한국어학 대회

(The World Congress of Korean Linguistics)

### 2.1. 해외 학술대회

The Harvard ISOKL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분야: Korea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syntax, semantics, pragmatics, acquisition,  
discourse analysis, historical linguistics,  
computational linguistics, lexicography,  
any subjects related to Korean linguistics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2008: SUNY at Binghamton & Cornell University, USA

2010: Mongolia University of the Humanities, Mongolia

2012: Xuzhou University, China

*Inquires into Korean Linguistics,*  
*Korean Linguis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분야 : Harvard ISOKOL

## The Congress of International Linguists

2008, Korea University, Korea

2013, Geneva University, Switzerland

1. Saussure and his legacy
2. Origin of language and human cognition
3. The life, growth and death of languages
4. Phonology and morphology
5. Theoretical and comparative syntax
6. Semantics, pragmatics, discourse
7. Psycholinguistics
8. Sociolinguistics and multilingualism
9.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to language and linguistics
10. Varia

## 코리아 국제 학술토론회

(The ISKS International of Korean Studies)

2011년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2013년 Guan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China

분야: 역/력사 History 문학 Literature

철학, 종교 Philosophy/Religion

예술, 민속 Art/Folklore

언어 Linguistics 사회, 교육 Sociology/Education

정치 Politics 경제 Economics

과학기술 Science/Technology

## 한국어학의 위치

▶ 일반언어학

한국학

한국어학



제1차 세계영어학자대회(2012. 6. 26.-6.30.)  
(The 1st World Congress of Scholars of English  
Linguistics) - 5년마다 개최

주관: 세계영어학협회  
(The World English Linguistics Association)

주최: 한국영어학회, 한국언어학회, 한양대학교

후원: 한국연구재단, 한양대학교, 한국영어학회

분야: 1. 생물언어학/인지언어학 2. 전산언어학  
3. 코퍼스언어학 4. 영어담화분석 5. 영어문법화  
6. 영어사 7. 영어습득 8. 영어교육 9. 영어형태론  
10. 영어음성학 및 음운론 11. 영어의미론 및 화용론  
12. 사회언어학 13. 영어통사론

▶ The World Korean Linguistics Association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 해외 한국어학 관련 학회

▶ The World Congress of Korean Linguistics  
(가칭)

분야: 1. 한국어음성학/음운론 2. 한국어형태론  
3. 한국어통사론 4. 한국어의미론 및 화용론  
5. 한국어사회언어학 및 담화 분석 6. 한국어사  
7. 한국어교육론 8. 한국어정보학 9. 한국어문자론  
10. 응용언어학

### 3. 학술지의 세계화

#### 3.1. 로마자 표기법

-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기준 변화 : 학술지의 특성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지표(국제화)
- ▶ 국제화 : 학술지를 해외 연구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해외 우수 연구자 활용, 해외 학술지 DB 등재, DOI 발급 노력 등)

### 3. 학술지의 세계화

#### 3.1. 로마자 표기법

-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기준 변화 : 학술지의 특성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지표(국제화)
- ▶ 국제화 : 학술지를 해외 연구자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해외 우수 연구자 활용, 해외 학술지 DB 등재, DOI 발급 노력 등)

## Yale Romanization of Korean vs. Korean Romanization

### Vowels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ㅚ	ㅜ	ㅟ	ㅞ	ㅟ	ㅠ	ㅡ	ㅢ	ㅣ
Y	a	ay	ya	yay	e	ey	ye	yey	o*	wa	way	oy	yo	u/wu**	we	wey	wi	yu
K	a	ae	<u>ya</u>	<u>vae</u>	<u>e</u>	e	yeo	ye	o	<u>wa</u>	<u>wae</u>	<u>oe</u>	<u>vo</u>	u	wo	we	<u>wi</u>	<u>vu</u>

### Consonants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ㅋ	ㆁ	ㄷ	ㅌ	ㅍ	ㅎ
Y	k	kk	n	t	tt	l	m	p	pp	s	ss	ng	c	cc	ch	kh	th
K	<u>g</u> .k	<u>kk</u>	n	<u>d</u> .t	<u>tt</u>	r, l	m	<u>b</u> .d	pp	s	ss	ng	j	<u>ij</u>	<u>ch</u>	k	t

## Yale Romanization      Korean Romanization

한국	<u>hankwuk</u>	<u>hanguk</u>
한글	<u>hankul</u>	<u>hangeul</u>
세종	<u>seycong</u>	<u>sejong</u>
신라	<u>sinra</u>	<u>silla</u>
학문	<u>hakmwun</u>	<u>hangmun</u>
늙은	<u>nulk.un</u>	<u>neulgeun</u>
같이	<u>kath.i</u>	<u>gachi</u>

## 중세 국어의 로마자화

	Phonemic	Phonetic	Romanization
<u>ㅍ</u>	β	[β]	β
<u>ㅌ</u>	z	[z]	z
<u>ㅇ</u>	ʔ	[ʔ]	ʔ
<u>ㅇ</u>	o	[o]	o

불·휘	기·픈	남ㄱ·ㄴ
<i>pul·hwi</i>	<i>ki·phun</i>	<i>namkən</i>
ㅂ·ㄹ·매	아·니	:뮐·ㅅ·ㅣ
<i>pəlo·may</i>	<i>a·ni</i>	<i>:mul·ssəy</i>

(Sohn, 1999)

## 훈민정음 예의편

ㄱ ㅋ ㅇ ㄷ ㅌ ㄴ ㅂ ㅍ ㅁ ㅈ ㅊ ㅅ ㅎ ㅇ ㅎ ㅇ ㄹ ㅌ  
 k k' ng t t' n p p' m c c' s q x h l z  
  
ㅏ ㅑ ㅣ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ㅞ ㅠ ㅢ  
 a ε i o a u e yo ya yu yo

(Ledyard 1998)

(Kim 2008)

compound grapheme					
consonant letter			vowel letter		
double		triple	double		triple
double consonant letter	double consonant cluster	triple consonant cluster	double vowel letter	double vowel cluster	triple vowel cluster
ㄱ ㄴ ㄷ ㅂ ㅅ ㅈ ㅊ ㅎ	<u>ㅃ ㅍ ㅍ</u> <u>ㅆ ㅅ ㅅ</u> <u>ㅈ ㅈ ㅈ</u> <u>ㅊ ㅊ ㅊ</u> <u>ㅅ ㅅ ㅅ</u> <u>ㅈ ㅈ ㅈ</u> <u>ㅊ ㅊ ㅊ</u> <u>ㅅ ㅅ ㅅ</u> <u>ㅈ ㅈ ㅈ</u> <u>ㅊ ㅊ ㅊ</u> <u>ㅅ ㅅ ㅅ</u>	ㅃ ㅃ ㅃ	<u>ㅏ ㅏ</u> <u>ㅑ ㅑ</u> <u>ㅓ ㅓ</u> <u>ㅕ ㅕ</u>	<u>ㅗ ㅗ ㅗ</u> <u>ㅛ ㅛ ㅛ</u> <u>ㅜ ㅜ ㅜ</u> <u>ㅠ ㅠ ㅠ</u> <u>ㅡ ㅡ ㅡ</u> <u>ㅣ ㅣ ㅣ</u>	<u>ㅗ ㅗ ㅗ</u> <u>ㅛ ㅛ ㅛ</u> <u>ㅜ ㅜ ㅜ</u> <u>ㅠ ㅠ ㅠ</u> <u>ㅡ ㅡ ㅡ</u> <u>ㅣ ㅣ ㅣ</u>

### 3.2. 문법 용어의 약어

ai      ka      pang ey ki-e      tul-e w-ass-ta.

Child NM room to crawl-INF enter-INF come-PST-DC

‘The Child crawled into the room.’ (Sohn, 1999: 267)

NM = Nominative case particle

INF = Infinitive suffix

PST = Past tense and perfect aspect suffix

DC = Declarative sentence-type suffix



나는 그가 떠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

*Na-neun geu-ga tteona-n sasil-eul jeonhyeo molla-ss-da.*

I-JX he-JKS leave-ETM fact-JKO absolutely don't know-EP-EF-SF.

I didn't know absolutely the fact that he leaves.

(Kim 2014:227)

JX= 보조사 JKS= 주격조사

ETM= 관형사형 전성어미 JKO= 목적격 조사

EP= 선어말어미 EF= 종결어미 SF= 마침표

나는 그가 떠난 사실을 전혀 몰랐다

*Na-neun geu-ga tteona-n sasil-eul jeonhyeo molla-ss-da.*

I-JX he-JKS leave-ETM fact-JKO absolutely don't know-EP-EF-SF.

I didn't know absolutely the fact that he leaves.

(Kim 2014:227)

JX= 보조사 JKS= 주격조사

ETM= 관형사형 전성어미 JKO= 목적격 조사

EP= 선어말어미 EF= 종결어미 SF= 마침표

세종분석표지(2000): 종결어미 EF

Sohn(1999)

*pi ka o-n-ta*

rain NM com-IN-DC DC= declarative sentence-type suffix

*pi ka o-ni?*

rain NM com-Q Q= question marker,

i.e. interrogative sentence-type suffix

*pi ka o-nun-kwun!*

rain NM come-IN-APP APP= apperceptive sentence-type suffix

*ye-ki tto o-ca.*

here again come-PR PR= prpositive sentence-type suffix

*ye-ki tto w-ala.*

here again come-IM IM= imperative sentence-type suffix

*na nun ka-ma.*

I TC go-PRM PRM= promissive sentence-type suffix

## 5. 결론

한국어학의 세계화

소통과 통합의 장 :

The World Korean Linguistics Association

The World Congress of Korean Linguistics

학술지의 세계화 :

로마자 표기법의 표준화

문법 용어의 약어 표준화

universal factor + individual factor

## Main References

- 김흥규. 2000. 21세기 세종 계획: 국어 기초자료 구축. 문화관광부
- 민현식. 1999. 국어정서법 연구. 서울: 태학사.
- Kim, S.-T. 2008. The System of Graphemes in the Hunminjeongeum. *Inquires into Korean Linguistics* 3, 305-317.
- Kim, S.-T. 2014. The Correlation between Linguistic Knowledge and Writing Competence in Korean Diagnostic Writing Assessment. *Korean Education* 101, 209-247.
- Ledyard, G. K. 1998. *The Korean Language Reform of 1446*. Seoul: Singu Publishing Co.
- Sohn H.-M. 1999. *The Korean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제3부

## 학술 대회

### 1. 행사 개요

- 가. 일정 및 장소
- 나. 목차

### 2. 발표 내용

- 가. 기조강연
- 나. 제1분과
- 다. 제2분과
- 라. 제3분과
- 마. 특별기고





## 1. 행사 개요

### 가. 일정 및 장소

- ▶ 주제 : 언어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문화개선 운동
- ▶ 일시 : 2014년 10월 10일 9:30 ~ 17:45
- ▶ 장소 : 국립한글박물관 시청각실 · 세미나실, 국립중앙박물관 제1강의실
- ▶ 주최 : 국립국어원
- ▶ 주관 :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 나. 목차

#### 〈기조강연〉

주시경 정신과 근대 어문 개선 운동 / 송철의(서울대)  
언어생태학적 위기와 언어문화개선 / 우한용(서울대 명예교수)

#### 〈제1분과〉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이론적 배경 / 황화상(서강대)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현황과 실천 방안 / 최혜원(국립국어원)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사 / 이정복(대구대)  
우리말 다듬기와 21세기 언어문화개선 운동 / 박덕유(인하대)

#### 〈제2분과〉

고전 읽기와 문명 읽기 / 김석회(인하대)  
고전소설의 국어문화적 위상 / 서인석(영남대)  
풍수와 역(易)의 관점에서 본 현대의 환경시(詩) / 송희복(진주교대)  
한국 현대소설과 생태학 / 임명진(전북대)

#### 〈제3분과〉

한국어의 언어 습득 환경 개선 전략 / 허용(한국외대)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언어문화 교육의 정책적 과제 / 최정순(배재대)  
국어 문화의 실태와 국어교육의 대응 모색 / 이관규(고려대)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의 언어문화 교육의 가치와 발전적 계승 / 조희정(조선대)

#### 〈특별기고〉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과 그 사랑 이어가기 / 권재일(서울대)

## 2. 발표 내용

### 가. 기초강연

#### 1) 주시경 정신과 근대 어문 개선 운동 / 송철의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 1. 서론

올해(2014년)는 개화기의 대표적 선각자 중 한 분이었던 주시경의 서거 100주기가 되는 해이다. 그는 어문민족주의자였고 애국계몽사상가였으며, 최초의 근대적 국어학자였다. 그는 또 한 우리 어문을 교육하고 보급하기 위해 헌신한 교육자요 어문운동가이기도 하였다.

우리가 오늘날 편리한 어문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그의 헌신적인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운이 기울어 가던 암울한 시기, 근대적 학문이 이제 겨우 싹트려 하던 시기, 국어와 국문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했던 시기, 그런 시기에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진서를 공부하면 그만이지 언문은 그까짓거 무엇에 쓰려고 공부하느냐’고 조롱을 받으면서도(대한국어문법 26a),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국어와 국문의 연구에 매진하여 국어학의 초석을 놓았으며 현대 한글 표기법의 골격을 완성하였다. 주시경이 이론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뜻을 파악하기에도 효율적인, 이런 표기법(맞춤법)을 마련해 주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편리한 문자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화기의 선각자 주시경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 상황은 대체로 어떠하였으며, 그 시대가 요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국어와 국문은 어떤 상태이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시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였는가? 우리가 주시경으로부터 배울 것은 무엇이고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시대적 배경

개항 이후 선각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사대관계(事大關係)를 청산하고 자주 독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갔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문명개화하고 부국강병을 이루어야 하며, 신분제를 폐지하여 만민평등을 실현하여야 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 각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이 필요했고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을 위해서는 다시 언어와 문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의 도구는 언어와 문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어와 문자 중에서 당시의 우리나라에서

는 문자 문제가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문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야 했다. 하나는 한글 사용을 공식화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글의 문자 체계를 재정비하고 표기법을 통일하여 정립하는 일이었다.

그러면 먼저 이 시기에 왜 한글 사용을 공식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가? 거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첫째는 현실적인 이유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국민 계몽과 국민 교육을 수월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글 사용을 공식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상층부의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한자·한문은 배우기도 어렵거니와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그것으로 일반 국민들을 널리 계몽하고 교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오면 公·私문서의 양이 대폭 늘어나고, 신문, 잡지, 각종 교과서의 출판이 크게 늘어나면서 문자의 기능이 급격히 증대되는데(이기문 1970:16), 이렇게 기능이 급격히 증대된 문자의 역할을 소수의 사람들만이 향유하고 있던 한자·한문이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한자·한문에 비해 한글은 배우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한글로 우리말을 표기해 놓으면, 그것은 입으로 하는 말과 일치하기 때문에(언문일치) 이해하기도 쉽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한글 사용을 공식화하는 일은 당시로서는 거의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명분상의 이유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선각자들은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이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갑오경장 직후 군국기무처는 그 첫 회의에서 중국의 연호를 버리고 개국기년(開國紀年)을 쓰기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에 고종은 종묘에 고한 ‘독립서고문(獨立誓告文)’에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선언하였다. 이는 정치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처럼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고유 문자(한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문자인 한자와 중국의 글인 한문을 사용한다는 것은 명분상 바람직한 일일 수 없었다. 이에 종래 언문이라 불러 오던 한글을 국문이라 부르면서 공문서에서의 국문 사용을 법률(고종의 칙령)로써 공식화했던 것이다. 필자는 이를 앞서 말한 정치적 독립 선언에 비견되는 문화적 독립 선언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이 되려면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독립을 하여야 할 터인데, 그러려면 우선 한글 사용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한글 사용의 공식화는 자주독립의 한 명분으로서도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로써 이 시기에는 한글 사용을 공식화해야 할 당위성도 생기게 된 셈이었다. 그러나 한글 사용을 공식화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한글 사용을 공식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한글의 문자체계와 표기법이 상당히 혼란한 상태에 있어서 한글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글 사용 찬성론자들은 한편으로는 한글 사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거를 찾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어와 국문(한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글의 문자체계를 재정비하고 표기법을 새로이 정립하려 노력하였던 것이다.

당시에 한글 사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거로 제시된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한글은 간편하고 글자수가 적어서 배우기 쉬운 문자이므로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다. 개화기의 사람들은 한글을 한자와 비교하면서 한자는 자수고 많고 배우기도 어려운데,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유길준은 『世界大勢論』(1883년)에서 이미 “漢文은 字數 衆多 故로 學成하기 甚難且久 故로 本國文은 字數가 些少 故로 學得하기 甚便且易”하다고 하였고,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1896년)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하였다. 주시경도 「국문론」(1897년)에서 한글은 배우기도 쉽고 쓰기도 쉬워서 어리석은 어린 아이라도 하루 동안만 공부하면 넉넉히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sup>14)</sup>.

둘째, 남녀노소 상하귀천 없이 누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배우기 쉬운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무렵 서구의 만민평등 사상이 들어오면서 선각자들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립신문』 창간호에서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토로만 쓰는 거슨 상하귀천이 다 보게 흠이라”라고 한 것이 이를 잘 말해 주는 것이다. 주시경도 비슷한 언급을 여러 번 하는데, 그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본래 의도가 ‘남녀노소 상하 빈부귀천 없이’ 다 일체로 문자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이해하였다.<sup>15)</sup>

셋째, 한글은 우리나라의 國文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글을 숭상하고 자기 나라 글을 통달한 후에야 타국 글을 배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나라 글만 숭상하고 본국 글에 대해서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니 절통한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국문인 한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자주독립의 이치로 보더라도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과 글은 한 나라의 자주국이 되는 징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독립국임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자인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글은 우리말의 음에 따라 만든 문자이므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연발생론적 어문관에서 나온 논거라고 할 수 있다. 자연발생론적 어문관에서는 지구상의 육지가 천연으로 나뉘어 구역이 되고 구역에 따라 각종 인종이 생기고 그 인종에 따라 각기 다른 말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으며, 그 각각 다른 말에 따라 그에 합당한 문자가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주시경은 이런 맥락 속에서 세종대왕이 우리말의 음에 의거하여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말하기도 하였다<sup>16)</sup>.

여섯째,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실무상의 공부를 하려면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자, 한문을 사용하려면 그것을 배우는 데 십년, 혹은 이삼십 년을 허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할 여가가 없는데, 한글을 사용하게 되면 배우기가 쉬워서 한자, 한문을 배

14) 한글이 간편하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것은 이미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에서부터 언급되었던 것이다. “(훈민정음은) 간결하면서도 요령 있고 정밀하면서도 (잘) 통한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이 끝나기도 전에 깨우칠 수 있고 우둔한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簡而要 精而通 故 知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15) 『훈민정음』 ‘어제서문’의 “慾使人人 易習 便於日用耳”라는 구절을 그렇게 이해한 듯하다.

16) “世宗朝게서 國音을 依히여 國文을 作히시니 國文의 發音이 國語의 發音이라” (국문연구 ‘國文淵源과 字體發音의 沿革’)

우느라 허비하던 세월을 실무 공부를 하는 데에 쓸 수가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직업상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려면 한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각종 직업상 필요한 공부도 해야만 학문이 넓어지고 나라가 문명 부강하여질 것이라는 것이다.

### 3. 주시경의 언어관과 문자관

#### 3.1. 주시경의 언어관

주시경의 언어관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민족주의적 언어관이고 다른 하나는 기능주의적 언어관이다.

주시경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이 외세의 간섭을 받아 위기에 처해 있던 시대이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선각자들은 누구나 민족 자각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보이였다. 거기에다가 서구의 어문민족주의 사상과 사회진화론이 들어오면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은 더욱 짙어지게 되었다. 주시경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 그러기에 그의 언어관은 자연히 민족주의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주시경은 민족이란 域(지역), 種(인종), 言(언어)이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이루어 형성되는 단체라고 보았는데, 한 민족이 국가를 이루어 독립하는 데 있어서 ‘域’은 독립의 ‘基’요, ‘種’은 독립의 ‘體’이며 ‘言’은 독립의 ‘性’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性’은 ‘本性’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을 구성하는 세 요소 중에서 언어가 가장 중요한 요소,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민족의 본질을 언어공동체로 보는 이러한 언어관을 민족주의적 언어관이라 할 수 있겠는데, 신용하(2014:9)에서는 주시경의 이러한 언어관이 콩트나 스펜서 같은 서구 사회학자들의 언어관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당시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직접, 혹은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온 서구의 민족주의 이론이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는데(이광린 1977, 신용하 1995), 주시경도 그러한 민족주의 이론이나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민족주의적인 언어관을 형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주시경은 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족(인종)이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며, 각기 다른 그 민족에 따라 各異한 언어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러기에 주시경은 민족과 언어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민족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던 그로서는 국가의 성쇠도 언어의 성쇠에 달려 있고, 국가의 存否도 언어의 存否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sup>17)</sup>. 또한 그는 ‘文言을 갈고 닦아서 그 민중의 智術을 精하고 精하게 하는 자는 他衆을 복종시키며 흥성하고 文言을 갈고 닦지 않아서 그 민중의 智術이 不興하는 자는 他衆의 압제를 받으며 쇠망하게 된다’고<sup>18)</sup> 하였다. 주시경의 이러한 언어관은 자연발생론적 언어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7) 『국어문법』 序

18) 「必尙自國文言」의 ‘人類競爭文言有關’

한편 주시경은 ‘말과 글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경영의 의사를 발표하여 그 인민을 연락케 하고 동작케 하는 機關’<sup>19)</sup>이라고 하였다. 이는 언어의 기능이 의사소통임을 인식하고서 사회가 성립되려면 구성원들 사이에 언어로써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능주의적 언어관이라 부를 만한 것이다. 주시경은 언어가 한 사회의 기관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기관, 즉 언어를 잘 修理하여 精鍊하면 그 사회의 동작도 敏活케 될 것이고 수리치 아니하여 노둔하면 그 사회의 동작도 막히고 필경에는 패망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민을 가르쳐서 그 사회를 보존하며 발달케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말과 글을 닦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 3.2. 주시경의 문자관

주시경은 말과 글을 구별하려는 인식이 있었고 이와 평행되게 음(소리)과 문자를 구별하려는 인식이 있었다.<sup>20)</sup> 그는 음(音)은 청각기호요, 문자는 시각기호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대한국어문법』 등에서 말은 ‘귀청을 울려서 듣는 경락으로 들어가면 신(신경)이 깨닫고 아는 것’이요 글은 ‘눈에 비치어 보는 경락으로 들어가면 신(신경)이 깨닫고 아는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주시경이 음은 청각으로 인지하는 기호요 문자는 시각으로 인지하는 기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는 일찍부터 문자에는 두 가지 종류, 즉 表音文字(記音文字)와 表意文字(記事文字)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표음문자가 표의문자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표음문자는 언문일치를 이룰 수 있게 해 주며, 글자의 수가 적고 문리가 있어서 배우기와 쓰기에 쉽고, 근세의 문명한 시대에 서구 여러 문명국들이 쓰는 문자이기 때문에 표의문자보다는 우수한 문자라는 것이다. 주시경이 표음문자의 우수성을 강조한 것은 표의문자인 한자를 폐지하고 표음문자인 한글을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그는 또 ‘음(音)은 천지(天地)에 자재(自在)한 존재요 문자는 그 음에 바탕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천지에 자재한 음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는 그렇게 완전한 존재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음이 문자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 문자가 음에 부족한 경우는 있어도 음이 문자에 부족한 경우는 없다고 보았으며 음을 떠난 문자는 문자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였다. 이는 결국 음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문자라야 진정한 문자라는 것이며 문자는 음과 1:1 대응을 이루어야 이상적인 문자라는

19) 『대한국어문법』 발문

20) 음과 문자를 한편으로는 구별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음과 문자는 결국 같은 것이라고 여기기도 하였다.

“世宗朝게서 國音을 依히여 國文을 作히시니 國文의 發音이 國語의 發音이라”(국문연구 17ㄴ)

“國文은 國語의 影子요 國語의 寫眞이라”(국어문전음학 60)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시경은 하나의 음에 두 개의 문자가 대응되는 것도, 하나의 문자가 두 개의 음에 대응되는 것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것은 음이 아니라 문자요, 言文一致란 ‘言’에 ‘文’을 일치시키는 것이지 ‘文’에 ‘言’을 일치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주시경은 문자는 시각기호라는 문자관, 표음문자가 표의문자보다 우수하다는 문자관, 문자는 음과 1:1 대응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문자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주시경은 이러한 문자관을 가지고 한글의 문자 체계를 재정비하였으며, ‘言’과 ‘文’을 일치시킬 수 있는 한글 표기법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 4. 주시경의 국어연구와 표기법

### 4.1. 주시경의 국어연구(학문)

주시경이 국어를 연구하게 된 동기는 당시의 혼란된 언어생활과 문자생활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주시경이 국문을 접하면서 파악한 당시의 표기법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었다. ‘書書不同하고 人人異用하매’ 하나의 단어를 數十種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국어문법 26), 문자와 표기의 문제를 注意 밖에 덮어 두어 ‘誤解誤書하는 弊’가 많은(대한국어문법 발문4ㄱ), 그런 표기법이었던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였기에 주시경은 그 혼란된 표기법을 통일하고 잘못된 표기법의 習俗을 교정하여 새로운 표기법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주시경은 표기법의 혼란이 국어의 音理를 이해하지 못하고 국어의 문법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표기법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스스로 국어학의 길로 들어 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주시경의 국어연구는 음운론에서 시작하여 형태론, 통사론으로 확대되어 갔는데, 그의 학문은 매우 독창적이면서 체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직 근대적 학문으로서의 국어학이 아직 싹도 트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 국어학이라는 학문을 하기에는 매우 척박했던 풍토 속에서 주시경이 그러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주시경이 그런 척박한 풍토 속에서도 독창적인 학문, 즉 독창적인 국어 연구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해 본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 주시경은 논리적 사고의 소유자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주시경은 15세에 국문을 처음 공부할 때 “조희와 붓과 먹과 벼루와 칩은 선비의 쓰는 물건이라”와 같은 문장에서 오늘날 우리가 공동격 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와’가 쓰이고 어떤 경우에는 ‘과’가 쓰이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스스로 탐구한 결과 받침이 있는 말 아래에서는 ‘과’가 쓰이고 받침이 없는 말 아래에서는 ‘와’가 쓰인다는 사실을 알아 내었으며, 이를 미루어 다른 말들을 더 고찰한

결과 ‘은/는’, ‘을/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대한국어문법』 24ㄱ~25ㄱ). 또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는 모음의 분합을 생각하다가 ‘ㅣ ㅏ’, ‘ㅣ ㅑ’, ‘ㅣ ㅓ’, ‘ㅣ ㅕ’의 합음이 있으면 ‘ㅣ ㅡ’의 합음도 있어야 할 터인데, ‘ㅣ ㅡ’의 합음을 나타내는 문자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ㆍ’가 ‘ㅣ ㅡ’의 합음을 나타내는 문자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논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구조적 빈칸을 찾아 내기도 한 셈이다. 또 주시경은 한 때 ‘△’음의 음가를 ‘ㄹ’과 ‘ㅎ’의 합음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훈민정음에서의 자음의 배열 순서와 격음은 ‘평음+ㅎ’의 합음이라는 사실을 종합하여 추론한 결과이었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ㄹ’과 ‘△’이 같은 부류(半音)에 속하는 음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ㄹ’과 ‘△’이 같은 부류에 속하는 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버리게 된다. 그렇지만 이상의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시경이 논리적 사고가 몸에 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신학문을 통해서 습득한 자연과학 및 수학의 기초 지식과 방법을 국어 연구에 응용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말을 이루는 소리(말소리)는 공기의 파동이라고 물리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든지,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말소리는 청각으로 인지되고 문자는 시각으로 인지된다고 설명한 것이라든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單音을 元素로 설정하고 나머지 복합적인 음들은 모두 원소의 합성으로 기술한 것, 그리고 ‘ㆍ’가 ‘ㅣ ㅡ’의 합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1중에서부터 제6중까지 제시하기도 했던 것 등등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기초 지식 또는 방법을 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이기문·송철의 2014).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는 독창적인 자신의 학문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그런 독창적인 기술방식을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에 평행되게 적용시켰다. 음운론의 기본 단위로는 ‘고나’, 형태론의 기본 단위로는 ‘씨’, 통사론의 기본 단위로는 ‘드’를 설정하고서 나머지 복합적인 단위들은 각각의 기본 단위의 합성으로 설명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학문은 체계적이라는 평가도 받게 되었다.

셋째 전통 국어학을 계승 또는 수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시경은 우리의 어문에 관련된 책이면 무엇이든 열심히 읽고 참고하였다. 그가 언급한 문헌은 『화동정음통석운고』, 『훈몽자회』, 『훈민정음』(『문헌비고』 ‘악고’에 실린 것), 『용비어천가』, 『훈민정음도해』 등이다. 그는 어문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또는 자신의 주장이 역사적으로도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들 문헌을 열심히 연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음운론에서 사용한 ‘본음’이라는 용어는 전통 국어학에서 사용해 왔던 용어였다. 그가 『언문지』를 보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두 경우의 기술은 『언문지』의 내용과 너무 흡사해서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각하(閣下)라 하면 그 소리가 가카와 갓흐니” (국문문법 11ㄱ)

“諸全清以作終聲而(중략)承以曉母次清生焉 如각하爲가카, 갓하爲가과” (諺文志 8ㄱ)

“웃즈의 종성이 … 모음을 맞나 그 음이 려흐면 각〃 본음을 들어내니” (대한국어 문법 37)

“凡諸全清 以作終聲 而承以喻母 則本音生焉 如각아爲가가 갓아爲가바” (諺文志 8ㄱ)

그는 또 모든 자음을 종성(받침)으로 써야 한다는 자신의 표기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의 ‘終聲復用初聲’이라는 구절을 끌어 오기도 하고 『용비어천가』에서 ‘ㅈ, ㅊ, ㅌ, ㅍ’등이 받침으로 쓰이고 있음을 증언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주시경은 전통 국어학을 부분적으로는 계승하거나 수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간략한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주시경 학문의 독창성과 체계성은 위의 세 가지 요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4.2. 주시경의 표기법<sup>21)</sup>

주시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국어연구를 수행하면서 그러한 연구를 반영하는 한글 표기법을 확립하여 나갔다. 그의 업적들을 연대순으로 고찰해 보면 그의 표기법이 점차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다.

그는 처음에는 문법에 맞는 표기법을 주장하였다. 표기법의 혼란이 문법을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문법에 맞는 표기법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표기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우리가 흔히 분철표기라고 했던 것을 의미한다. 물론 7종성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이 시기에는 이미 분철표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연철표기와 중철표기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표기법이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주시경은 체언과 조사, 용언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표기하는 표기가 문법에 맞는 표기이므로 그런 쪽으로 표기법을 정립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주시경은 문법에 맞는 표기법을 주장하다가 음운론 연구에서 본음 이론을 정립하면서부터는 ‘문법에 맞는 표기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본음대로의 표기법’을 주장하였다. 주시경의 표기법은 본음 이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흔히 ‘본음주의 표기법’이라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대략 다음의 (3)과 같은 표기법이었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의 표기법은 아래의 (1)과 같았고, 개화기에는 표기법이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서도 대체로 (2)와 같은 표기법을 지향하였다. 지석영 같은 분이 지향했던 표기법이 바로 (2)와 같은 것이었다(송철의 2013). 지석영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2)와 같은 정도의 표기법을 선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주시경은 본음 이론을 바탕으로 (3)과 같은 표기법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1)	(2)	(3)
밥 :	바비, 바ㅅ로, 밥과	밥이, 밥으로, 밥과	밥이, 밥으로, 밥과
막-:	막고, 마ㅅ면, 마가	막고, 막으면, 막아	막고, 막으면, 막아
놓-:	노코, 노ㅎ면, 노하	노코, 노흐면, 노하	놓고, 놓으면, 놓아
놓-:	놉고, 노ㅅ면, 노파	놉고, 놉흐면, 놉하	놓고, 놓으면, 놓아

21) 이 부분은 이기문·송철의(2014)에서 가져온 것이다.

주시경이 지향한 표기법의 특징은 훈민정음 창제 이래 몇 백 년 동안 지켜져 온 ‘8종성법(八終聲法)’<sup>22)</sup>을 버리고 모든 자음을 종성(받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위의 (1)이나 (2)와 같은 표기법을 채택하면 받침이 8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면 족하다. 이를 ‘8종성법’이라 하는데, 이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에 정해진 표기법 원칙이었다. 그런데 주시경은 한글 표기법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랜 전통을 깨고 문법에 맞는 표기법, 나아가서는 본음대로의 표기법, 즉 (3)과 같은 표기법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3)과 같은 표기법이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기법으로서 한 마디로 말하자면 ‘형태음소적 분철표기’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3)과 같은 표기법을 채택하게 되면 8종성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자음(ㅈ, ㅊ, ㅋ, ㅌ, ㅍ, ㅎ 등)을 받침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당시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주시경의 표기법이 생소하고 어렵게 여겨졌던 모양이다. 주시경 자신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자신의 표기법이 옳다는 것을 벗들에게 누누이 설명해 보았지만 흔쾌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친구들조차 그의 표기법을 쉽게 받아들이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 당시 어문 연구, 어문 운동의 대가였던 지석영 같은 분도 주시경 표기법에 대하여 학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어렵고 생소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도 주시경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sup>23)</sup> 자신의 표기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표기법 이론을 정립하여 나아갔으며 제자들을 길러 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시경의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계승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표기법이 너무 어렵다든가, 이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너무 생소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시경의 표기법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계승되어 현대 한글 맞춤법(표기법)으로 정착될 수 있게 된 요인은 무엇일까? 필자는 대략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첫째는 주시경의 표기법이 본음 이론이라는 탄탄한 이론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둘째는 주시경의 표기법은 표음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표의적 기능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독서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표기법이라는 것이다. 하나의 형태소를 하나의 고정된 모습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 든 예들에서 (1)이나 (2)와 같은 표기법보다 (3)과 같은 표기법이 의미를 파악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주시경의 표기법은 이러한 장점을 가졌기에 점차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음 이론에 바탕을 둔 주시경 표기법의 우수성은 현대 표기법 이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다시금 입증되기도 하였다(이익섭 1971, 이익섭 1985).

주시경은 한글 표기법을 정립함에 있어 “俗習을 改하고 音理와 語體에 正當하게 記用하여 可히 萬世에 法될 만호 國文을 成케 하자 하였노라”(『국어문전음학』 59)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그러한 염원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말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은가 한다.

22) 개화기 당시에는 이미 ‘7종성’으로 바뀌어 있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8종성’이라 하기로 한다.

23) “이 뜻을 껴어코 이루어보고자 하는 마음을 근치지 아니하여”(『대한국어문법』 31ㄱ)

## 5. 근대 어문개선 운동과 주시경

개화기, 또는 근대 계몽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 사용을 공식화하는 일이었다. 이 한글 사용 문제를 제일 먼저 거론한 사람은 유길준일 것이다. 그는 일찍이 1885년 12월 28일 福澤諭吉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 사람들이 한문으로 된 책만을 읽다보니 완고해지고 애국심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오직 작은 이익만을 도모한 지가 오래 되어 문제가 있으니 먼저 조선의 국문을 사용하도록 하는 교육법을 시행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데 편리하게 하고 애국심도 가르치게 해야한다”<sup>24)</sup>

고 하였다. 이것은 물론 개인적인 편지글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유길준이 일찍부터 한글 사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길준과 함께 한글 사용 문제를 거론한 사람은 박영효였다. 박영효는 『使和記略』 중의 1882년 11월 3일(양력)과 12월 18일자 일기에서 국한문혼용이긴 하지만 한글을 사용한 바 있으며, 1888년 2월에 올린 상소에서는 종래 가르치던 청나라 역사나 문장 대신에 우리나라의 국어·국문을 가르칠 것을 건의하였다. 윤치호도 공사관 통역의 일을 맡아 보고 있을 때 한글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아 언문을 보급하여야 조선사람이 속히 깨이겠다는 뜻을 미국 공사에게 여러 번 진언하였다고 한다(김인선 1991:7). 윤치호는 2년 넘게(1887.11.25~1889.12.15) 한글 일기를 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지석영도 1891년 『신학신설』이라는 책을 순한글체로 저술하였는데, 비록 간행되지는 못하였지만, 이것을 통해 지석영도 한글 사용을 실천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여러 선각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1894년 갑오경장 직후에 드디어 한글은 고종의 칙령으로 국가의 공식문서(공문서)에도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한글 사용의 공식화가 이루어진 셈이며 한글이 국가의 공식적인 문자가 된 셈이다. 한글 사용이 이처럼 법률에 의해 공식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갑오경장에서 개혁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유길준의 힘이 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글 사용의 공식화는 우리의 문자생활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우리 문자 생활에 큰 변혁이 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 사용의 공식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표기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한글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글로 된 글을 읽기가 한문으로 된 글을 읽기보다 더 어렵다는 불평을 하기도 하였다. 한글로 된 글을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데다가<sup>25)</sup> 표기법이 혼란되어 있

24) “且念朝鮮人 自讀漢書以來 頑固成習 不知愛國心爲何等事 各自爲心 只謀小利者久矣 故務先行教育法 而用朝鮮國文 以便訓習 使教以愛國”(『與福澤諭吉書』, 『유길준전서V』, p.278).

25)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건 다름이 아니라 첫지는 말마디를 빼이지 아니하고 그저 줄줄니려 쓰논 것들에 글씨가 우희 부터는지 아리 부터는지 몰나서 몇번 일거본 후에야 글씨가 어디 부터는지 비로소 알고 일그니 국문으로 쓴편지 훈장을 보자하면 한문으로 쓴 것보다 더디 보고”(『논설』, 『독립신문』 창간호 1896. 4. 7.)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글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를 실현하고 표기법을 정비해야 했던 것이다. 표기법 정비와 관련하여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지석영과 주시경이었다.

지석영은 표기법과 관련된 어떤 이론을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긴 시간에 걸쳐 자신의 표기법을 정립하였다. 지석영은 간단하기는 하지만 최초의 한글 표기법 案이라고 할 수 있는 「新訂國文」을 지어서 국가로 하여금 공표하게도 하면서 자신의 표기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나갔다. 지석영의 표기법이 정립되는 것은 『자전석요』(1909)에 이르러서였다. 대체로 7종성에 한하여 분철표기를 허용하면서 전통을 따르는 표기법이었다. 앞에서 제시한 (2)번과 같은 표기법이었다. 지석영이 지향한 표기법은 일반 대중이 배우기 쉬운 표기법이었다. 당시는 한글을 빨리 보급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으므로 지석영은 배우기 쉬운 표기법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주시경은 이론적인 표기법, 이상적인 표기법을 지향하였다. 표기법 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론적(문법적)으로 타당한 표기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주시경 역시 점차적으로 자신의 표기법을 정립하여 나갔는데, 그의 표기법은 『국어문법』(1910)에 이르러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띄어쓰기 문제와 관련하여서 지석영은 『자전석요』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자전석요』는 한자 자전이어서 띄어쓰기 문제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으나 ‘나무를휘여둥글게 할권(圈, 21ㄱ)’ 같은 경우를 보면 띄어쓰기를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시경도 빈칸 띄어쓰기는 하지 않았다. 권점을 찍어서 띄어쓰기를 대신하였다. 빈칸 띄어쓰기를 한 『독립신문』의 한글판 조필로서 『독립신문』에 깊이 관여하였으면서도 주시경이 왜 자신의 글들에서 빈칸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이 시기에 또 하나 급한 일은 한글을 보급하는 일이었다. 한글 사용을 공식화했다 하더라도 한글을 읽고 쓸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한글을 보급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재필과 주시경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서재필은 순한글판 『독립신문』을 간행함으로써 한글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고, 주시경은 서울 시내 각급 학교에서 국어 과목을 담당하여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일요강습소, 하계강습소 등을 개설하여 국어 문법과 표기법을 가르침으로써 한글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시경은 각급 학교를 돌아다니며 주당 40시간이 넘는 수업을 하였다고 하니 그가 국어 국문의 교육에 얼마나 헌신하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어문생활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자주 언급된 것은 국어사전 편찬이었다. 잘 편찬된 국어사전이 있어야 일반 대중들이 그것을 참조하여 언어생활과 문자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국어사전은 또 표기법을 통일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들을 하였다. ‘한글 맞춤법’과 같은 규범을 만들 생각을 못했던 때이니 사전이 그런 기능을 해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전을 편찬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주시경은 조선광문회에서 몇몇 제자들과 《말모이》라는 사전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사전은 원고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 시기에 표준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주시경은 한 단어의 변이형들 중에

서 ‘좋은 몸’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여 주었고 규칙적인 언어를 지향하려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국어를 개선하고 표준화해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개화기의 어문운동에서 주시경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주시경만큼 오로지 우리 국어국문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 6. 맺음말

국운이 기울어 가다가 결국에는 國亡의 지경에 이르렀던 그 어려운 시기에, 국어와 국문을 연구하는 일이 별로 환영 받지 못하던 그러한 시기에, 주시경은 우리 민족의 언어생활과 문자생활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어와 국문을 연구하는 일에, 그리고 한글을 널리 보급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바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가 남긴 족적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창적인 국어연구를 함으로써 근대 국어학의 초석을 놓았고, 합리적인 표기법을 마련하여 우리의 어문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으며, 한글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제자들을 길러 냄으로써 국어연구와 어문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말과 우리 문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 줌으로써 일제 식민지 치하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국어국문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게 하였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말과 문자를 사랑하게 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처럼 주시경이 남긴 족적은 매우 큰 것이기에 우리가 주시경으로부터 배우고 이어받아야 할 것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들어 본다면 모든 일을 지성으로 일관했던 삶의 태도, 독창적으로 학문하는 정신, 우리말과 글에 대한 끝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한다(이기문·송철의 2014).

## 2) 언어생태학적 위기와 언어문화개선—An Essay on the Earth of Language / 우한용(서울대 명예교수)

가벼워지기를 바라고 새가 되기를 바라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가르침이다.  
- 니체 <짜라투스트라, 313>

### 1. 기본 관점 ; 언어문화 생산론

언어의 주체는 인간이다. 언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언어로 의미의 동질성을 확인한다. 그리고 의견을 조정하며, 아울러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념을 실천하기도 한다. 언어는 그 운용 양상이 상호적이기 때문에 대화성을 지닌다. 그래서 언어는 인간 삶의 맥락을 총체적으로 움직여가는 막강한 힘이 된다.

인간이 언어를 운용하는 데는, 좀 느슨하고 명료하지는 않지만 ‘규칙’이 작용한다. 그 규칙은 언어 자체의 규칙이기도 하고, 언어주체들 사이에서 행동의 지표로 작용하는 규범이 되기도 한다. (언어 자체라는 말은 모순이다. 인간의 운용이 전제되지 않은 언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규칙은 겉으로 명료화되기도 하고 잠재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언어주체들은 그러한 규칙을 익혀 일상에서, 특수한 정황에서 규칙을 따라 언어를 운용한다. 이를 넓은 의미의 언어문화라 함직하다.

언어문화를 개념화하면 언어적인 측면에서 언어주체들이 만들어낸 산물을 포함한다. 규칙이기 때문에 구조를 지니기도 하며, 주체들이 따라가야 하는 규제력을 지닌다. 그리고 주체들의 집단에서 자신들의 이념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지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주체들은 자신이 운용하는 언어문화 안에서 그 언어문화를 향유하면서, 언어문화를 만들어간다. 문화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고정적 원형을 상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언어 운용의 규칙은 환경의 변화를 거둬들이면서, 언어문화 실체의 생산을 거둬들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화는 습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재생산을 지속해 간다고 하는 편이 정당한 표현이다. 그런데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당성은 다른 말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가치는 언어주체의 삶에 비익(裨益)되는가 하는 점과 현재 운용되고 있는 언어문화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기준으로 판단된다.

언어문화의 재창조, 그리고 지속을 위해서는 언어운용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그 운용이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언어문화 재창조가 지속될 수 있다. 이를 언어문화에 대한 생태론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생태론은 생태학, 환경론 등의 용어로 달리 불릴 수 있다.)



생태론은 이념적 지향으로 말미암아 생태 자체를 최종적인 가치로 상정하기도 한다. 그렇게 되다보면 ‘자연’을 최종적 가치로 부각한다. 그러할 때 자연은 이념화(이데올로기화)된다. 이념화된 자연은 자연 자체와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한다. 먹이사슬로 표현되는 정글의 법칙아래 움직여가는 자연의 본성에 대해 도외시하게 되어 오히려 부자연한 국면에 몰리기도 한다. 자연의 잔인함과 폭압성을 고려하지 않는 생태론은 자칫 가치의 절대화로 인해 사태를 왜곡할 가능성마저 있다.

언어생태론은 언어가 운용되는 제반 요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그 방향을 정당하게 잡아 나가는 노력을 포함한다. 언어 운용에서 생태론은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언어가 자연생태의 산물이 아니고, 더구나 언어문화는 상징적 교섭의 체계란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 2. 언어주체에 대하여

언어사(言語事)는 인간이 언어를 운용하는 일이다. 언어 운용의 주체는 언중이다. 언중은 개별적 주체들로 구성된다. 구성된다는 것은 구조화되고 성층화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언어주체의 언어운용은 구조적으로 통제되고, 아울러 성층적 특성 때문에 계층적으로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언중이 속한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복속되기도 한다.

언어는 대화적으로 운용된다. 이는 말이나 글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화적이라는 것은 상호적이라는 뜻이다. 대화의 주체는 모두 동질적 대화능력을 가진 존재일 수 없다. 친구간, 모녀간, 부자간, 사제간, 상사와 직원간을 상정해 보라.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능력으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화는 바흐친이 지적하는 바처럼 전투적(戰鬪, la lutte) 속성을 지닌다. 이는 대화의 생산성을 보장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부단한 합의와 화해만 이어지는 데서는 생산과 창조가 불가능하다. 창조는 극복이기 때문이다. 예술에서 양식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말하는 사람의 자격이 규정되고, 그 자격의 규정을 지키면서 대화는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자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층위를 이룬다. 경제력, 지위, 권위, 전통 등에 따라 자격이 규정된다. 이들 자격을 규정하는 요인을 언어적 요인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약간의 상호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계층이나 계급의 층위가 언어에 의해 바뀌지는 않는다. 머슴이 주인의 말(명령)을 거부하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머슴이 아무리 말을 잘 해도 주인의 칭찬을 듣거나 약간의 물질적 보상으로 끝난다. 말이 머슴을 주인으로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머슴이 주인과 말로 경합을 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일련의 장치는 있다. 그게 바흐친이 말하는 카니발이다.

대화의 양상은 주체들의 위상에 따라 달라진다. 주체의 위상이란 주체들이 가진 언어자본 또는 언어능력이다. 언어자본은 P. 부르디외의 문화자본이란 용어를 변용한 것이다. 언어자본(言語資本, capital linguistique)은 언어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개인과 집단의 역능을 뜻한다. 고용주와 고용자는 언어자본으로 구분된다. 교사와 학생의 경우도 그렇다. 다른 경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평등은 능력, 인격 등의 평등을 전제한다. 그 반대로 외형상 평등한 관계로 비치지만 언어적 불평등, 언어자본의 불균형은 불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낸다.

언어주체의 교체가 나타내는 극단적인 언어단절이 전쟁이다. 전쟁으로 인해 나라가, 국체가 바뀌면 야훼가 하느님이었던 사람들에게 알라를 하느님으로 섬기도록 강요한다. 1453년 기독교 국가였던 동로마제국이 이슬람에게 망해 종교를 바꾸어야 했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할 만하다. 중국 역사에서 원나라와 청나라는 한족이 아니었던 세력이 건설한 나라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문화주체로서 나라는 경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라의 소멸과 함께 언어가 소멸된 예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를 두고 문화력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학문의 방법론 때문에 언어를 실제로 고정하고 운용 양상을 기술하고 구조를 분석한다. 그러나, 거듭하거니와 말의 주인은 말하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연관을 지니며 살아간다. 그 연관은 대부분 말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언어 운용의 실상을 엄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언어 운용의 주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언어운용의 주체가 정당한 언어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윤리가 정립되어야 한다. 언어주체는 심리적 주체이며, 사회적 주체이고, 이념적 주체이다. 언어문화를 생태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바람직한 언어운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언어주체의 복합적인 사회적 측면이 총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3. 언어주체의 언어능력

언어능력은 말을 잘 한다는 것, 글을 잘 쓴다는 것으로 표상된다. 그런데 언어능력이 발휘되는 장(場, le champ)에 따라 능력이 달리 규정된다. (언어장이란 용어를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동료 사이에, 직업 수행에서, 교수로서, 판사로서, 의사로서, 목사나 스님으로서 말을 잘 한다는 것은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실용적인 문장과 예술 영역에 속하는 글에서는 언어능력이 달리 평가된다. 일상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우선 언어습득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언어습득능력은 기본언어 습득능력과 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언어습득능력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기본언어 습득능력은 거의 생득적이다. 학습에 의해 약간의 차이가 생길 뿐이다. 그러나 언어습득기라고 하는 3세에서 6세까지 언어습득 능력이 평생의 언어능력을 좌우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기의 언어습득 능력을 길러주는 문제는 개인의 생애사(生涯史)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언어교육의 문화와 연관된다. 어린이의 언어를 길러주는 교육은 그 자체가 언어문화의 한 양상이다. 성인들의 언어습득은 대부분 학습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학습은 공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개인적으로 자기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개인적인 언어학습은 언어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언어에 대한 민감성, 언어의 논리와 구조에 대한 흥미, 언어의 가치에 대한 인식 등이 언어에 대한 태도와 연관되는 사항들이다. 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언어문화주체들의 언어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언어주체가 언어문화 주체로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것은 언어문화의 생태적 자생력의 근간이 된다. 일상에서는 물론, 언어문화와 연관된 논의에서 언어주체의 자기인식은 거의 언급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언어문화를 넓게 규정하자면, 언중이 말하고 글쓰는 모든 행위가 그 안에 포획된다. 그 언어사(言語事)가 누구의 일인가를 아는 것이 언어주체로서의 자기 인식이다. 언어사는 언어주체의 자기 인식, 실천, 윤리, 평가를 포함한다.

개인의 언어사(言語事)는 다른 언어주체와 함께 언어를 ‘운용’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그 언어사가 언어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요건이다.(사용이라는 말 대신에 운용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사용이라는 말이 환기하는 과도한 기능주의적 의미를 견제하려는 뜻이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가 사는 시대의 언어, 또는 언어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실천에 참여하는 일이고, 자기가 하는 말과 쓰는 글에 책임을 져야 하며, 나아가 자신이 한 말과 쓴 글에 대한 평가를 할 줄 아는 언어비평(critique du langage)이 요청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언어비평이 남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언어적 실천은 넓은 의미의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텍스트라는 용어는 가치배제적이다. ‘바른말 고운말’은 한국어 텍스트의 정제된 영역을 가리킬 뿐이다. 개인들의 일상 담화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이루어지는 하고많은 말들, 신문과 잡지에 실리는 수많은 글들이 모두 한국어텍스트에 포함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언어를 비롯해서, 종교언어, 군사언어, 정치언어 등이 모두 한국어 텍스트이고, 따라서 그러한 언어를 운용하는 주체들이 모두 한국어 언어문화의 주체들인 것이다. 말하고 글을 쓰는 일체의 행동은 한국어 텍스트 생산에 참여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는 언어능력, 혹은 언어문화능력에 해당한다.

창작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용운의 탁월한 시편만 한국문학사에 기록되는 언어문화가 아니라, 신문과 잡지에 실리는 수많은 시편들이 한국의 언어문화의 산물이고, 그 필자는 모두 한국언어문화 창조 혹은 생산의 주체인 것이다. 이 주체들의 언어능력이 곧 한국언어문화의 능력으로 전환된다. 이들 언어는 언중의 언어가운데 특정한 맥락에 맞는 말이 선택되고 그 운용 패러다임을 약간 달리한 것일 뿐이다. 작가의 역할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어 운용 패러다임을 수정하여, 그 언어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그렇게 하여 작가는 언어문화의 창조와 재창조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언어는 문화실천의 한 국면이다. 문화실천이란 문화 안에 살고, 문화와 더불어 자신이 변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체의 기획과 실천을 포함한다. 그 실천에는 막강한 힘이 실리게 마련이다. 특히 구두언어로 수행되는 개인적 소통에서 언어는 막강한 에너지로 상대방에게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언어가 작용하는 두 양상을 에르곤(εργον)과 에네르게이아(ενέργεια)로 설명한 것은 흄볼트였다. 에네르게이아를 작용, 행동 등으로 번역하지만, 정작 그것이 실현될 때는 대단한 강제력을 가진 물리적인 힘(δύναμη)이 된다. 말 한 마디가 사람의 생애를 달리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거나 단절하게도 한다. 나아가 어떤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문장 하나가 어떤 인간의 이념을 규정하게 한다. 집단에서 언어는 거부할 수 없는 권력으로 작용한다.

어느 국가가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경우, 언어의 힘은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기도 한다. 일본의 제국주의 치하에서 천황에게 충성을 서약한다든지, 독일의 나치정권하에서 일하던 관료들의 언어,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체제 아래서 수행된 전쟁의 언어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국가가 언어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경우, 그 언어에 대한 언중들의 비판을 불허한다. 그리고 그 언어의 운용 결과는 홀로코스트로 나타난다. 공식언어 또는 국가의 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책임’이 권리로서 작용되지 않는다.(한나 아렌트)

한편 언어는 자기부정과 자기반성이 가능한 이데올로기 체계이다. 정치이데올로기나 신앙인의 신념은 자기반성의 언어적 장치가 거의 배제되어 있다. 절대자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반성과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는 절대성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궁극적으로는 언어적 반성과 자성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그러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대개 언어 외적인 힘들이다. 중요한 것은 언어외적인 힘이라도 그 힘을 발휘하는 양식은 언어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언어능력은 한편으로 문화적 단절과 구별을 하는 매개역을 하기도 한다. 어느 집단이 자기의 순수성을 강조할 때, 이는 다른 집단과 구별을 전제한다. 혹은 구별을 촉발한다. 중국어로 된 시, 영어로 쓰인 소설, 독일어로 창작된 희곡 등은 그 언어의 능력, 또는 역능을 실현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은 다른 언어로 창출된 언어문화와 연맥관계 속에서라야 정당한 의미를 획득한다. 그렇게 본다면 언어순혈주의는 이념으로만 존재하는 허울이라 해야 한다. 문학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도, 언어적 특수성과 언어적 보편성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언어가 민족개념을 성립하게 하는 요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따라 다 문화시대에 언어의 민족적 순수성을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자성이 필요한 사항이다.

#### 4. 언어규범과 언어운용의 창조성

언어규범의 체계 가운데 표준어는 매우 강력한 규범 역할을 한다. 표준어는 근대민족국가 형성과 맥을 같이한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의식의 단일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적 과업 수행에 표준어는 필수 요건이다. 의식의 단일성은 국민의식의 주입으로 사고의 자율성을 제한한다. 효율성을 위해서는 언어가 강제력을 지녀야 한다. 그 강제력을 위해서는 표준어를 규정하고 이를 교육과 행정 용어로 통일해야 한다. 더 나아가 표준어를 통해 국가적 동질성을 성립시켜야 하는데, 이른바 국가적 정체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규범을 만들고 이를 강력하게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규범을 따르지 않는 언어 운용은 제재를 당하게 된다. 경상도 사투리로 공문을 작성할 수 없다.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이들은 반드시 표준어를 익히도록 교육과정에서 규제한다.

표준어는 어느 지역을 대표언어로 해서 거기다가 언어적 권위를 부여한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어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인공어’라 할 수 있다. 이 인공어로 국민의 언어를 삼을 때 인공어의 범주를 이탈하는 언어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의 자격(교양)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된다.

표준어에서 밀려난 언어는 능력을 상실한다. 공적인 장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한 집단의 언어적 다양성은 제한된다. 대신 능률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연중의 언어생활이 이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직장에서는 표준어를, 가정에서는 방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범적 언어 가운데 학술어를 들 수 있다. 학문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언어가 학술어다. 그런데 학문은 개념어와 추상어를 바탕으로 수행된다. 보편성을 지닌 이론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언어의 ‘감정가치’라든지 ‘문체적 가치’ 등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추상성으로 인해 학문 수행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학문을 추구해서 얻은 결과는 소통을 해야 하는데 소통의 장에서 수용자는 추상어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때 일상어와 비유를 동원하게 된다. 학문어는 대부분이 일상어를 사용하더라도 자기 영역에서 학문 특성에 따라 개념을 다시 규정하는(reconceptualization) 전문어가 된다. 그 전문어가 일상어 속으로 다시 들어와 일상어를 풍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어(jargon)는 학파에 따라 개념을 달리 쓰는 경우가 흔해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철학에서 쓰이는 리얼리즘과 문학에서 쓰이는 리얼리즘의 개념이 달리 규정되는 것이 한 예이다. 문학 내에서도 리얼리즘은 층위를 달리하여, 문학적 경향을 따라 개념이 달리 규정된다.

전문용어 가운데 의료용어나 공업, 농업, 제약 등의 산업 용어는 그 이용자들과 소통이 안 되기도 한다. 이는 계층을 갈라놓는 데 기여한다. 의사의 말을 환자가 못 알아들을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게 된다.

일상생활에 전문어가 녹아들어 언어의 층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국어의 문법을 설명한다든지, 자신의 신체 변화를 설명하는 데 의료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자기가 듣는 음악의 기법을 설명할 수 있다면 언어의 풍부성을 높여줄 것이다. 철학용어 사회과학용어 등 일일상어에 대량 포함되어 들어와 사고를 풍부하게 하는 독일어의 예를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예술용어, 디자인 용어가 일상생활에 포함되어 들어간 이탈리아어와 프랑스어의 예도 언어가 풍부해지는 데 전문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사례가 된다.

언어규범을 지키면서 운용되는 가운데 언어 운용의 체계가 잡힌다. 규범을 적용하되 규범을 새로 규정하는 데서 창의적 언어가 생겨난다. 이는 언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운용의 패러다임을 변화함으로써 언어의 창의성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띤다. 시적인 비유의 운용에서 그러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용운의 ‘님’이나 서정주의 ‘국화’가 그런 예에 해당한다.

## 5. 언어의 윤리성과 언어문화

언어사는 가치개념을 포함한다. 언어는 일차적으로 인간의 인식과 소통에 객관성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본질상 가치개념을 개재하지 않을 수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가치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언어운용은 있을 수 없다. 우선 화제의 선택이 가치지향적이다. 태풍을 이야기하지 않고 국화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가치의 선택과 연관된다. 아울러 어떤 어휘를 선택하

는가, 어떤 문형으로 말하는가, 어떤 대상을 향해 말하는가 하는 데 따라 가치개념이 개입된다. “나는 자연을 사랑한다.”는 언표는 인공적인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다.”라고 한다면, 감성적 동물, 행동적 동물 등을 배제한다. “노력하는 자는 방향한다.”는 괴테의 말은, 그 말을 누구한테 하는가에 따라 의미(가치)가 달라진다. 이러한 가치평가적인 요건을 전혀 배제한 언어사는 현실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 (침묵까지도 가치 선택의 의미를 지닌다.)

언어가 인식과 소통에 가장 중요한 매체인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언어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어떤 대상을 표현하거나 의사소통을 도모할 때 언어적 절망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등 언어의 한계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언어의 한계는 나의 한계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언명은 언어적 존재로 인간을 보는 한, 예외가 없을 듯하다.

언어의 윤리 가운데 첫 항목은 언어사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는 언어의 존재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진다. 언어적 존재로서 타자의 인정은 타자와 대화를 원하는 의욕이다. 윤리는 참여를 기본적 전제로 한다. 참여는 다른 말로 관심이다. 나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파하는 일은 자신이 관계존재라는 점을 확인하는 윤리적 행위이다. 언어사에 참여하는 일이 관심과 실천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작가의 말대로, 침묵은 기억의 파괴인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는 지결임은 에너지의 무한 방출이다. 언어사에 참여하되 그 언어사가 윤리성을 지닐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아가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언어윤리는 언어사의 주관성과 연관된다. 자신이 참여하는 언어사의 참여를 선택한 것 자체가 주관성을 드러낸다. 언어표현의 주관성은 언어사의 대단한 힘이기도 하다. 이를 이용하여 왜곡된 의도를 가지고 언어를 운용하는 이들이 있다. 이를 넓은 뜻에서 언어조작이라 할 수 있다. 조작된 언어의 주관성을 최대한 견제하고, 그 가운데서 의미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언어윤리의 한 양상이다.

정치언어는 주관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해 가끔 말썽을 빚는다. 정치언어는 정확성보다는 설득력을 추구한다. 설득력을 위해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언어를 선택한다. 이는 선택의 언어가 지니는 기본속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전칭판단적인 용어를 자주 동원한다. “사랑하는 오천만 국민 여러분!” 등이 그 예가 된다. 전칭판단적이기 때문에 추상성을 띤다. 듣는 사람이 그 오천만 가운데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실감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논리적 폭력이 드러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윤리가 결핍된 언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신화 만들기’를 들 수 있다. 이의 극단적인 예가 음모론일 것이다. 어떤 사건의 잘못된 의도, 불합리한 과정,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결과 등으로 이어지는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어떤 인물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이 음모론이다. 음모론은 영웅화로 치달아가는 신화만들기와 영웅의 껍질을 벗겨내는 탈신화화(脫神話化, demythification) 양편으로 작용한다. 신화만들기는 어떤 대상을 극단적으로 상승된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끌어올려 허상을 만들어 추켜올리는 일이다. 이와 반대로 탈신화화는 대상이 지닌 가치를 무화하는 작업이다. 어떤 특정 대상을 못된 인간으

로 만드는 것이 그 예이다.

윤리를 구축하는 기반은 자기의 존재 긍정이다. 니체식으로 말한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다. 내 생을, 내가 운용하는 언어를, 그 언어가 자리잡은 환경을 사랑하는 일이 윤리의 시발점이다. 윤리의 타락 가운데 첫 번째가 자기 존재의 부정이다. 존재의 부정은 자신이 운용하는 말의 부정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말을 부정하는 태도는 언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말에 속고, 말에 상처받고, 말에 희롱당하는 경험이 축적되면 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관되는 일이며, 아울러 정치적인 맥락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현섭 교수 등이 도모하는 ‘상생화용론’은 언어윤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언어문화를 윤리적 측면에서 고려할 경우, 문화를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방법론은 재검토가 요망된다. 차별이 있을 뿐이지 가치를 변별할 수 없다는 인류학적 입장은 의문의 대상이 된다. 언어가 일방통행적으로 운용되는 나라와 대화적 쌍방성을 보여주는 나라의 언어문화를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독재를 인정하는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 하는 이념의 차이를 드러낸다. 상대방의 연령, 지위, 경험 등을 고려하여 운용되는 경어법이 과연 계층차별적인가 하는 의문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선배와 후배의 말의 층위(speech level)도 재조정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욕설에 대한 언어문화적 시각을 마련하는 일과 거기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언어문화와 연관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박인기)

언어윤리가 절대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가 인간의 자기 존재 긍정과 개인, 집단의 자유를 추구하는 삶의 기본 이념과 연관되는 점은 비껴갈 수 없는 사실이다.

## 6. 언어예술과 언어문화

언어예술이라는 말은 많은 전제를 달아야 정당한 개념설정이 가능하다. 예술의 구체성과 언어의 추상성이 본원적으로 갈등을 빚기 때문이다. 문학은 형태상 언어텍스트이기 때문에 언어학의 하위 영역에서 설명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논지가 널리 전개되었던 적이 있다. 또 문학과 언어학(국어학)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는 일도 의미 깊게 추진되었다. 그러나 문학과 언어학을 대체하거나, 역으로 언어학을 문학으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은 가능성이 잘 안 보이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이 나 있는 셈이다. 대상의 속성과 방법론의 차이 때문이다. 그러나 문학이 언어문화의 실체를 구성하며, 언어문화 운용의 전범이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언어문화 논의의 한 분야를 차지한다.

문학작품을 생산하고, 이를 연행(演行, performance)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창작이라고 한다. 창작이라는 말은 규범이라는 말과 맞서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널리 보면 창작 가운데에, 창작에 관여하는 규범이 있다. 이를 장르의식이라고도 하고, 혹은 시학(詩學 poetics)이라는 용어로 쓰기도 한다.

언어예술 혹은 예술언어의 창조성 혹은 법칙성은 장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예술언어는 인간의 정서적 활동과 반응에 관여하는 언어활동으로 규정된다.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언어사가 인간의 사유와 활동을 관장하는 한에서는 정서와 논리니, 이념과 실천이니 하는 양분법적 파악은 생산성이 없다. 문학작품, 특히 소설의 경우 작중인물의 정서, 논리, 윤리, 성찰 등을 종합적으로 형상화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나 사태를 정서적 측면만 한정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로만 야콥슨처럼 언어의 몇 가지 국면을 상정하고 각 국면에 고유한 기능을 부여하다 보면, 언어 자체 혹은 메시지 그 자체는 물질적 속성을 짚게 드러내고, 언어의 물질성을 바탕으로 운용하는 언어를 시적 언어라 한다면, 시는 언어의 시적 기능을 중점적(重點的, dominant)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앞에서 암시한 대로 소설이라든지 희곡 등 다른 장르에서는 언어의 시적기능 일변도로 전개되지 않는다.

예술언어는 일종의 질문의 언어이다. 작가가 나는 이렇게 본다, 당신은 어떻게 보는가 하는 질문을 작품을 통해 제기한다. 존 설 같은 화행론자들은 문학의 언어가 제안의 언어라고 한다. 제안은 영어의 프로포지션(proposition)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하자 하는 것보다 약하기는 하지만 명령적 강제가 다소 포함된다. 그러나 확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작가가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의 언어고, 독자는 그 제안에 소극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예술언어가 독자의 자유를 긍정하면서 작품 안으로 독자를 이끌어들이는다는 점에서는 질문의 언어라 하는 게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작품에 대한 책임을 끌어안게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데 당신은 어떻게 보는가 하는 질문이 예술언어의 특징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독자가 세계에 대해 자각하게 하고, 그 가운데 삶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게 한다. 여기서 독자의 안목이 작가의 안목을 이끌어올리는 상승작용을 수행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독자가 의미의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문학언어 혹은 예술언어는 당대의 언어문화 한 국면을 담당한다. 낭만적인 분위기가운데 죽음과 절망을 주로 노래하던 한국의 상징파 시인들의 작품은, 당대의 사회분위기 혹은 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1970년대 노동소설 또한 당대의 언어문화를 형성했다. 문인들이 조성하는 문학의 분위기와 특성이 곧 그 시대 언어문화의 특성인 것이다.

예술언어를 통해 언중은 언어적 감각을 익힌다. 김소월 같은 시인이 한국적 정서를 형상화하여 당대의 시대 분위기와 함께 한국인의 정서적 원형(原型, archetype)을 발견해낸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예술언어는 새로운 발상법에 기초하고 운용된다. 이는 이전의 언어의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김소월이 <진달래 꽃>을 통해 사랑의 환희와 그 구원한 자장을 일궈낸 것이라든지, 한용운이 황금의 비유를 통해 민족언어의 원형을 구축한 것 등은 언어를 새롭게 함으로써 한국어의 감수성을 혁신한 예에 해당한다. 염상섭과 채만식이 구축한 산문예술로서의 소설은 한국어언어문화의 층을 한결 두텁게 해 주었다.

이러한 언어의 혁신을 통해 한국어언어문화의 특질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작가들은 계속하고 있다. 독자의 언어적 감수성과 언어능력의 성장이 작가들의 작품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는 언어문화 교육과 연관되는 사항이다.



## 7. 언어문화와 국어교육

교육은 도야개념을 내포한다. 도야(陶冶, Bildung)는 교양, 형성, 교육 등과 상응하는 용어이다. 언어적으로 잘 도야된 사람은 어떤 인간인가, 언어적으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 그 동안 국어교육에서는 언어능력을 국어능력으로 한정하여, 국어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해 왔다. 이 언어능력은 주로 개인의 능력으로 한정된 느낌이 짙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언어가 총체적인 인간의 기획이라면, 언어능력을 개인차원으로 환원하는 이러한 규정은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

우선 국어교육에서 국어라는 개념의 재개념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 국어는 국민국가 형성을 전제로 한다. 국어는 국민국가의 ‘국민들’ 의식을 단일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들이 갖추어야 하는 교양이며 도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정되는 국어는 인간적 성숙이라든지, 인간의 자기성취 나아가 예술의 향유 등과는 거리가 있는 인공언어이다. 종교적인 내밀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도 아니다. 국가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이 이용하는 언어인 것이다. 그러한 개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감없이 유효한가 하는 점은 재고되어야 하고, 국어를 규정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아울러 국어가 민족의 열과 혼이 담긴 언어라고 하는 국수주의적 언어관 또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민족개념의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언어관에서는 인간의 보편성과 동질성을 추구하는 다문화환경의 언어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

국어교육의 교육과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의 도구성, 실용성을 강조해 왔다. 국어가 실용성을 띠는 과목인 것은 틀림없다. 개인적 생활의 도구,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의사소통의 도구, 학문추구의 도구, 등이 국어의 도구성을 드러내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념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등의 역사-사회적 측면의 언어에 대해서는 그다지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국어교육의 언어관을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 국어교육에 적용되는 언어관은 도구관이 주도했다. 이른바 국어를 의사소통의 도구, 사고의 도구 등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 차원의 정신형성, 집단 차원의 상징체계 형성 등이 국어의 언어관이 될 필요도 있다.(김명순 - 국어과 교육과정의 언어관)

또한 언어예술의 측면을 소홀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통교육을 상징할 경우, 중·고등학교에서 익혀야 하는 언어교양은 언어규범을 익히는 범위를 넘어선다. 규범언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니다. 규범을 넘어서서 창조되는 언어문화로 접근하는 시각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국어를 운용하는 주체들은 왕조시대의 ‘백성’이 아닌 것은, 물론 국민국가의 국민으로만 존재하지도 않는다. 탈근대기획의 주체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탈근대를 모색하는 시대에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책임지고 참여할 줄 아는 존재라야 한다. 자아의 성취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의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뜻에서 현재 운용되는 국어교육의 영역 혹은 범주는 재고되어야 한다.(자세한 논의는 다른 기회로 미룬다.)

국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되는 국어교육은 그 범주를 확대하고, 수준을 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 국어생활의 언어주체들은 실용적 생활인으로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어를 운용하는 언중은 ‘국어문화 창달’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언어문화 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학습자를 가르쳐 이끌어야 하는 의무가 교육과정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 소통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알아 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아울러 공동체 집단의 감수성을 습득하고, 상징의 체계에 접근해야 하며, 의식(儀式)에 익숙해지고 참여하며, 공감과 배려 등 공동체 리더십 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박인기, 박창원; 49-50) 나아가 언어로 이루어내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되는 국어라는 개념이 자명한 것인가, 물음을 던져야 한다. 아울러 국어교육의 범주를 확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어교육이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서사문화 창출의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서사는 삶의 언어적 전개를 뜻한다. 삶의 언어적 전개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과 계획, 실천, 의미화 등을 두루 아우르는 용어이다. 이 과정에서 서사연출이 주요 방법으로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서사연출(敍事演出, narrative production)이란 삶을 이야기하는 제반 기획을 포함한다. 이는 스토리텔링 개념을 포용할 수 있다. 서사주체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서사를 언어적으로 연출하는 것과 자신이 서사를 만들어내는 두 층위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시를 낭송하는 것이나 소설을 읽는 것 등은 남이 만들어 놓은 서사를 내가 연출하는 일이다. 나의 생애 서사를 쓰고 그것은 남과 소통하는 일은 자신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한국 언어문화의 실체라는 점이다. 한국언어문화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활하는 것처럼 국어교육을 기획하는 것은, 언어문화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미흡하기 짝이없는 국어교육의 기획이다.

국어교육의 교수방법이라든지, 평가방법 등은 국어교육에 대한 재개념화를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하다. 학습자가 한국 언어문화 창출의 주체이고, 그들의 말과 그들이 쓰는 글들이 한국언어문화의 실체라는 것을 진솔하게 인정해야 한다. 학습자는 미완성의 존재가 아니라 성장하는 존재이다. 그 성장의 주준을 확보해 주고, 성장의 방향을 모색해 주는 일이 교육과정을 입안하고 교육을 수행하는 이들의 몫이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와 학습자를 주체와 타자로 갈라놓아 소외시키지 않는다. 언어문화 창출 교육의 장에서는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의 주체가 되어 구두언어든 문자언어든 한국어텍스트를 창출하는 문화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어교육은 총체적인 언어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현실에서 겪는 국어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이 입시용 교육이 되었다는 현실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고, 틀에 갇힌 교수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낡은 논의를 하는 이유는 국어교육의 목표와 이상을 언어문화 창조의 국어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 8. 언어문화의 생태론적 재생산을 위하여

언어가 생태학적으로 운용되는 최선의 양상을 상정할 수 있을까.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운용된다. 자연적 운용은 자생력으로 실현된다.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 거대한 숲의 생태를 바꾸어 놓는 원인은 산불, 한발, 지진, 병충해 등의 자연재해다. 인위적으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지구 온난화를 인간적 재앙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통제가 안 된다는 점에서는 자연적으로 운용되는 지구시스템의 한 양상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생태계라는 개념을 구성할 때, 여전히 인간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다. 예컨대 잡초와 곡식을 구분하는 이분법이 그 가운데 하나일 터인데, 인간에게 유용한 식물과 그렇지 못한 식물로 갈라놓는 것이다.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등은 그 용도가 다양하다. 이런 나무들은 제쳐두고 쓰임새가 크지 못한 나무들을 잡목으로 분류하는 것도 인간중심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경우다. 화초와 잡초도 같은 분류법이다. 기생식물은 대체로 숙주를 죽게 하면서 번식한다. 그런데 기생식물 가운데 약효가 있는 것들은 자연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단일 수종의 숲은 보기는 좋지만 종다양성 측면에서 보자면 자연스럽지 못하다.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 또한 인간적 가치기준으로 자연을 평가한 결과이다.

언어가 운용되는 시스템을 생태계에 비유하여 지칭할 때 언어생태계란 말을 쓸 수 있다. 언어생태계는 인공적인 문화상징의 체계로 변화를 거듭한다. 그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가 여부는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자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는 인간이 상징적 교섭작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체계이다. 그 체계가 역동적이고 자기생성적이라는 점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생태학, 언어생태론이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비유적 언어의 패러다임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언어생태를 자연생태로 환원한다면 논리의 비약에 빠지게 된다.

언어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언어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지는 대체로 어문정책이나 언어정책으로 구체화된다.(민현식) 언어의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려 할 경우, 가치가 개입된다. 가치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이념성을 띠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국어는 근대국가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다. 어문정책은 ‘민족의 독립, 근대화, 민주화 등과 호응하여 행해진다.’(민족문화대백과)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 그리고 남북의 분단 등 정치현실의 변화는 어문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았다. “현대국어의 어문정책 중 최대과제는 한글전용 여부와, 의사외래어(擬似外來語) 또는 외국어의 남용, 표준국어사전의 편찬, 국어정서법의 확립, 남북한 언어이질화의 극복 등 국어순화문제로 집약된다.”(민족문화대백과) 국어순화는 국어가 잡스럽게 운용된다는 언어 현실태의 파악을 전제한다.

이들 과제 가운데 ‘외국어의 남용’은 순수한 우리말을 지켜야 한다는 도덕 감정이 바탕에 깔려 있다. 외국어를 남용하지 않고 적용(適用)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가. 결국 외국어 없는 순수우리말을 상정하는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데 문화현상으로서 언어를 고려할 때, 그러한 순수성은 개념으로만 존재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자동차의 경우 순수우리말로 이름이 붙는 경우는 없다. 은행 이름이 그 어원을 알 수 없는 방

식으로 바뀌었다. KB, NH, SH 등. 회사와 공사 이름들 또한 그렇다. LG, KT 간판은 어지럽기 이를 데 없다. 화장품 가운데는 세계적 명성을 얻은 시 구절을 원용한 것도 있다. innisfree 등)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활언어 가운데 들어와 있는 외국어는 경제논리와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경제논리만한 이념체계가 달리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어를 통제하는 방법이 선명하게 부각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서 언어순화는 한계에 봉착한다.

‘남북한 언어이질화의 극복’의 문제에서, 이질화는 이념적 투쟁과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결과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이념적 대결이 끝나지 않는 한 극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언어의 이질화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는 데 따라 문제를 달리 설정할 수도 있다. 표기법의 차이, 차용하는 외래어의 차이 등은 기실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언어구조 즉 문법의 차이를 가져올 정도가 아니면 그 이질화는 정치적 통일 이후에 적절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가의 언론 통제 정도라든지, 통신의 국가 점유 정도 등이 남북 언어 이질화의 핵심사항이 될지도 모른다.

언어와 현실은 상호연관되어 역동적으로 작용한다. 경직된 사회는 단일논리적(monologic) 언어를 만들어낸다. 언어가 일방적으로 흘러간다. 상명하복(上命下服) 식으로 언어가 수행된다. 언어폭력으로 지칭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이러한 단일논리적 언어운용에 기인한다. 상대방 인격의 무시, 자존감의 파괴,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 등, 일방적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그러한 언어로 실현된다. 단일논리적인 언어가 사회적으로 운용되는 양상은 독재적, 전제적이라는 특징을 드러낸다. 이는 계급적 절대성을 전제하는 언어운용이다. 독재국가의 언어특징은 비대화적이라는 점이다. 정적의 숙청에 대화가 있을 수 없다. 사회가 민주화되어야 언어가 대화적으로 수행된다. 이때의 대화는 얼마간 경합적 혹은 전투적인 특성을 띠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합적 에너지는 대상 문화를 자기 문화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동력이다.

문제는 언어와 사회, 언어와 권력, 언어와 국가이데올로기 등의 관계가 상호교환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른말 고운말을 쓰면 그 사회가 바른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고, 비리와 부조리가 척결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다. 물론 공자의 정명사상(正名思想)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확한 교호관계를 형성하는 체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언어문화는 어느 사회나 국가의 문화 전반의 맥락과 연계되어 있어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신체, 본능, 감성, 행동 그리고 그 위에 이들을 통괄하는 정신구조로 언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다른 생태적 안정성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언어와 사회는 느슨한 연관관계 속에서 서로를 규제하는 열린 체계로 존재한다.

이 지점에서 언어의 자기성찰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언어의 자기언급, 자기지시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탁월한 능력이다. 그림으로 그림을 설명하거나 음악으로 음악을 묘사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우리는 어떤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 이야기는 대상을 객관적 상태로 떠올리게 한다. 음악을 언어로 재서술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음악은 언어적 구조체가 되어 이해의 지평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그 음악을 평가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다른 예술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이 언어 자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무엇에 대하여(aboutness)라는 특징이 언어에 적용될 때, 이를 메타언어라 하는 것은 로만 야콥슨 이래 널리 용인되는 사항이다. 대상언어와 메타언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운용하는 언어를 성찰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운용하는 언어를 재서술하고, 구조화하여 설명하여, 평가하는 일련의 작업을 언어비평(言語批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고, 개인들의 언어활동 가운데 자신의 언어를 그 언어가 운용되는 삶의 맥락과 연관지어 평가하는 양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생태학적 관점을 도입이 가능해진다. 언어비평을 국어교육에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한 경우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은규, 2011) 국어교육에 언어비평을 도입한다기보다는 국어교육 가운데 언어비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언어비평은 결국 삶의 비평으로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연관된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문화상황 가운데서 언어를 운용한다. 차라리 우리는 언어로 연맥화되어 존재한다고 해야 옳다. 나의 자아가 언어로 타자와 유대를 갖게 된다. 타자는 다른 인간, 자연, 사회, 학문, 이념,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한다. 가히 존재의 그물망 가운데 나의 자아가 자리잡는다. 이러한 언어의 고리를 섬세하게 세련시키는 것이 언어교육의 가치로 부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언어교양이라 해도 좋고, 어느 집단이 그 언어교양을 형성하고, 운용하며, 스스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를 언어문화라 규정할 수 있다. 언어문화 가운데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 그리하여 언어문화 창조의 주역으로 상호교섭작용을 지속해가는 것이 언어문화의 주체로서 책임이기도 하다.

이 논의 끝에, 우리가 운용하는 언어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세계에서 운용되는 언어가운데 50%가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단도 있다.(Nicholas Evans,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죽다) 언어의 제국주의적 운용이, 그리고 나치체제 하에서 공식언어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데 대한 보고도 있다.(이연숙, 한나 아렌트) 그런데 인터넷 매체는 물론 국제적인 힘의 역학관계 가운데 그야말로 팩스 아메리카나(미국말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평정)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국어가 개별언어로 살아남는 일은 세계의 언어다양성에 기여하는 중대한 과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목도하는 국어의 혼란상은 흘러가는 언어문화 가운데 나타나는 지극히 작은 문제일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언어생태학적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팽창도 필요하지만, 언어의 질적 향상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건이 된다.(김혜숙) 한국인의 감수성과 이념이 형상화된 예술언어로서 한국어는 문학에 바탕을 두고 성장한다. 학문을 수행하는 학술언어로서 한국어는 한국의 학문발전과 맞물려 있다. 외교, 통상에 동원되는 언어는 물론, 관광을 활성화하는 언어도 한국어의 자장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김현승 시인의 표현대로 ‘겸허한 모국어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의 정신적 높이를 이끌어 올리는 자리에 내리는 축복과 은총이 아니겠는가. \*\*.

## 나. 제1분과

### 1)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이론적 배경 / 황화상(서강대)

이 글에서는 언어문화개선의 이론적 배경으로 다음의 두 가지 학문 분야를 살펴본다. 첫 번째로 살펴볼 학문 분야는 민족 언어학이다. 이는 언어문화의 개선을 언어의 차원을 넘어 문화(그리고 사고)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학문 분야는 생태 언어학(혹은 언어 생태학)이다. 이는 언어문화의 개선을 언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

언어문화는 우리의 언어생활(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네 가지 언어 행동 면에서 본 우리의 생활, <표준국어대사전>)에 관한 문화를 말한다. 그리고 언어문화의 개선은 바르고 성숙한 언어생활을 지향하는 일련의 활동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잘못 쓰는 말을 바로잡고, 품격이 낮은 말(비속한 말, 폭력적인 말, 모욕적인 말, 편견을 조장하는 말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외국어(혹은 외래어)의 남용을 막고,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살려 쓰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문화의 개선은 단순히 우리의 언어생활을 가꾸는 차원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언어는 그 자체가 문화인 동시에 문화를 창조하고 공유하고 계승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어에는 문화 전반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언어문화는 다른 종류의 문화와는 구별되는 특유성을 가지며, 언어문화의 개선은 문화의 개선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언어는 그것이 사용되는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전제로 존재한다. 따라서 언어문화의 개선은 언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곧 언어와 사용자들, 언어와 사회, 그리고 사용자들과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될 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와 관련하여, 그리고 민족 언어학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먼저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 1767~1835)를 주목할 수 있다. 그는 언어의 차이를 세계관의 차이로 설명했는데 이는 ‘세계관 가설’로 알려져 있다.<sup>1)</sup>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은 사피어와 워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언어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사피어-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언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곧 그들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를 매개로 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그들은 문화적 상대성을 언어적 상대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는데, 이런 점에서 그들의 가설을 ‘언어 상대성 가설(linguistic relativity hypothesis)’이라고도 한다.<sup>2)</sup>

1) 언어와 사고(그리고 문화)의 관계에 대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전통에 대해서는 김진우(1996:16-33)을 참조할 수 있다.

2) 사피어-워프 가설(언어 상대성)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한다.’는 강한 진술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약한 진술로 나뉜다(Kövecses 2006, 임지룡·김동환 옮김 2010:70-71). 한편 Steinberg(1982:111-113)에서는 언어가 같아도 문화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언어가 달라도 문화는 같을 수 있다는 점, 언어는 고정되어 있어도 문화는 변할 수 있다는 점, 언어를 번역할 수 있다는 점, 다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언어 상대성 가설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김진우 1996:215-230 참조)

언어와 문화(그리고 사고)의 관계가<sup>3)</sup>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언어를 중심으로 문화를 이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화를 중심으로 언어를 이해할 수도 있다. 전자에서는 언어가 문화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후자에서는 문화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언어와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슬라브 학자이자 민속학자로서 민족 언어학의 토대와 이론적 방법을 개발한 니키타 일리치 톨스토이(Никита Ильич Толстой)를 주목할 수 있다.

언어와 문화(그리고 사고)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들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실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일방향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양방향적인 것이다. 곧 (문화의 산물로서)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며, 언어는 다시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이 거듭되면서 언어와 문화의 관계는 더욱 더 긴밀해진다. 언어가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언어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나 현상을 인식하는 고정된 틀로서 문화공동체(혹은 언어공동체)에 공유되기 때문이다. Sapir(1921:17)는 인식의 고정된 틀로서의 언어를 ‘족쇄’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해 언어가 제공하는 고정된 인식의 틀은 언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왜곡된 현실을 고착화하고, 때에 따라서는 왜곡을 가속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처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바로 여기에서 최근의 언어문화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는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점에서 언어문화는 다른 종류의 문화와는 구별되는 특유성을 가지며,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의 언어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그리고 사고)에 관련된 문제이다. 곧 언어문화의 개선은 다른 아닌 문화의 개선이다. 이는 언어문화의 개선은 우리말에 반영된 우리의 문화를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며, 또한 문화의 개선을 궁극적인 목표로 할 때 언어문화의 개선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생태 언어학은 ‘언어와 그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Haugen 1972:325)이다. 언어 환경에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있다. 언어문화는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특히 언어문화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이는 언어가 사고의 도구라는 데에서 비롯된다. 물론 사고는 언어 없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를 매개로 할 때 추상적인 생각은 구체화되며 이리저리 얽히고설킨 복잡한 생각들은 분명한 생각들의 조각들로 분절된다.

언어가 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언어는 우리가 마

3)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언어와 사고 가운데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사고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사고우위론), 언어가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언어우위론), 그리고 언어와 사고를 동등한 것으로 보는 관점(양자동위론)이 있다(김진우 1996:98-99). 이를 언어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각각 언어가 사고의 도구라는 도구관, 언어가 사고를 형성한다는 형성관, 언어와 사고가 하나라는 일체관이 된다(김민수 1964/1986:19).

주하는 어떤 대상 혹은 어떤 현상을 개념화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대상 혹은 현상을 그 자체로서 인식하지 않는다(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언어화함으로써 이를 인식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언어는 곧 어떤 대상 혹은 현상의 개념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떤 대상 혹은 현상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되며,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

그런데 언어 혹은 그 언어에 내재한 개념은 본질적으로 어떤 대상이나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언어화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의 본질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일 뿐이지 그 자체는 아니다. 바이스게르버가 지적했듯이 언어는 사물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일 뿐이다.

바로 여기에서 언어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생태학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우선 세상에 대한 인식의 주체, 곧 언어화의 주체는 인간이다. 따라서 언어는 본질적으로 인간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Fill(1993, 박옥현 옮김 1999:181-189)에 따르면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 명칭의 대부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간을 위한 유용성의 가치를 나타내며, 동물이나 식물에는 인간과 다른 단어들을 사용한다.

언어문화를 둘러싸고 생기는 다양한 생태학적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인간들 사이의 힘의 관계가 언어화의 과정에 반영된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곧 언어화의 과정에서는 약자(여성, 소수)보다는 강자(남성, 다수)가 중심이 되며, 따라서 언어는 강자 중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남성’은 긍정적인 개념들과 관련되고 ‘여성’은 부정적인 개념들과 관련된다는 것을 살펴 보았는데, 이는 언어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를테면 범언어적으로 남성적인 개념 ‘오른쪽’은 긍정적인 다른 뜻을 가지며, 여성적인 개념 ‘왼쪽’은 부정적인 다른 뜻을 갖는다.

여성을 나타내는 혹은 여성에 관련된 특별한 단어들이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도 언어가 남성 중심적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곧 남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사람을 통칭하는 언어로 남성을 지칭하거나 남성 지칭어를 특별한 표지 없이(곧 무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언어적으로 반영되고, 여성에 대한 특별한 인식은 여성 지칭어를 별도의 표지를 붙여서(곧 유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언어적으로 반영된다.

이 밖에 문법적 성(gender)이 구별되는 언어에서 남자와 연관된 개념은 거의 예외 없이 남성이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어에는 여자와 연관된 개념 가운데 소녀(das Mädchen), 미혼 여자(das Fräulein) 등 중성으로 취급되는 명사들이 있다.

다수와 소수의 문제도 이와 다름이 없다. 힘없는 소수는 힘있는 다수에 의해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며, 이는 힘있는 다수에 의해 부정적 의미로 언어화한다. 이를테면 따돌림을 당하는 소수를 지칭하는 언어는 있지만 따돌리는 주체인 다수를 지칭하는 언어는 없다.

이와 같이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라는 특정한 환경에서 존재한다. 언어문화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 환경에서 유지된다. 따라서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언어를 개선하는 일인 동시에 언어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언어문화의 개선은 우리의 언어 환경을 살펴보는 데에서 출발해야 하며, 또한 이를 궁극적인 목표로 할 때 언어문화의 개선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언어문화의 개선은 언어는 오염될 수 있다는 전제와 오염된 언어는 정화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Bolinnger(1980)에 따르면 모든 흐름, 즉 물, 공기, 빛, 소리, 언어 등은 오염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밤하늘이 공기 오염 때문에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현실의 모습들도 불분명하고 왜곡된 언어를 통하여 파손되고, 또는 아주 못쓰게 되거나 때로는 너무 날카롭게 되거나, 또 다른 경우 완전히 은폐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냇물과 같이 언어는 정화될 수 있다. (박육현 옮김 1999:14)

언어문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이제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우리의 경우 ‘국어순화’(북한의 경우 ‘말다듬기’) 운동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그 성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자연언어에 대한 인위적 통제의 한계도 있었겠지만 언어문화개선을 언어 자체의 차원에서 좁게 바라본 탓도 있었을 것이다. 언어문화의 개선은 단순히 언어의 차원을 넘어 문화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며, 언어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 2) 언어문화개선 운동의 현황과 실천 방안 / 최혜원(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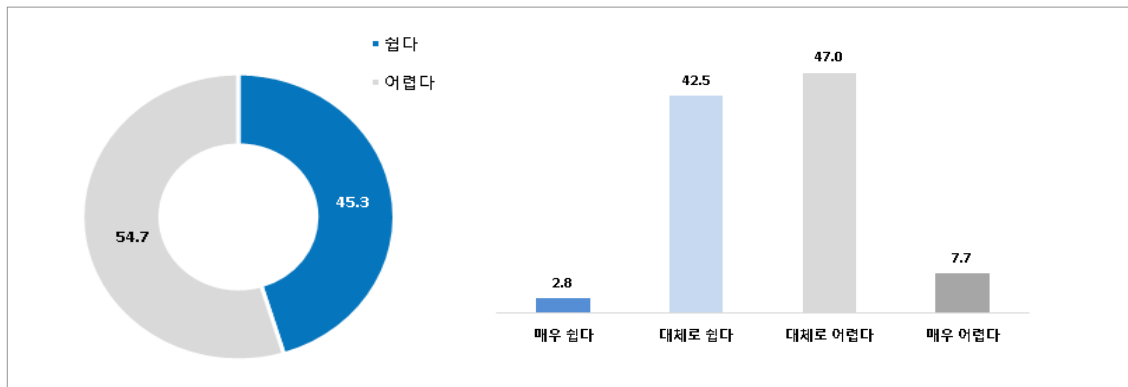
지금의 새로운 세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권위주의를 탈피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화와 매체의 발전에 맞는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나름의 소통 방식을 찾아 새로운 언어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국가, 문화, 세대 공동체간의 불소통과 어지러워진 언어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 소통을 가로막고 언어문화를 빈곤하게 만드는 언어 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 ① 어려운 외래어·외국어로 가득한 공공언어

패스트 트랙, 클린 교차 등 공공 부문에서 외국어나 외래어나 전문용어를 씌으로써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가 낮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정보 격차를 조장하는 현상은 공공언어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정책 용어)** 농촌 어메니티 체험(→쾌적한 농촌체험), 클린교차로(→안전교차로), U턴 기업(→국내 복귀 기업), Fast Track 제도(→신속처리제도), Barrier Free(→무장애, 장애 없는)

\* **(공공기관명)** 한국잡월드(Job World), 코레일(KORAIL), 코스콤, LH, NH, SH, 케이워터(K-Water)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언어생활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7%가 민원서류나 금융기관 서류에 쓰인 언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 ② 품격을 고려하지 않는 방송언어

전파를 통해 소리와 영상을 전달하는 텔레비전 방송은 인쇄 매체보다 보편적이어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그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 방송에서 행해지는 전반적인 언어행위는 한 사회의 언어문화 형성과 시청자의 언어습관, 더 나아가 시청자의 사고방식과 가치 체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최근의 방송 환경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우려하는 것은 인터넷 발달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검증되지 않은 신조어들을 방송이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줄임말, 통신언어, 우

리말 문법 체계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사적인 대화의 공간을 넘어 방송이라는 공적인 영역까지 확산되어 언어문화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오락 프로그램의 기본 역할인 재미와 시청률 위주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 하겠으나 방송 편성의 비율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영역의 프로그램에도 이 같은 언어 사용의 형태가 전이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방송언어 지적(권고) 건수: '12년 1,267건 → '13년 8월 4,82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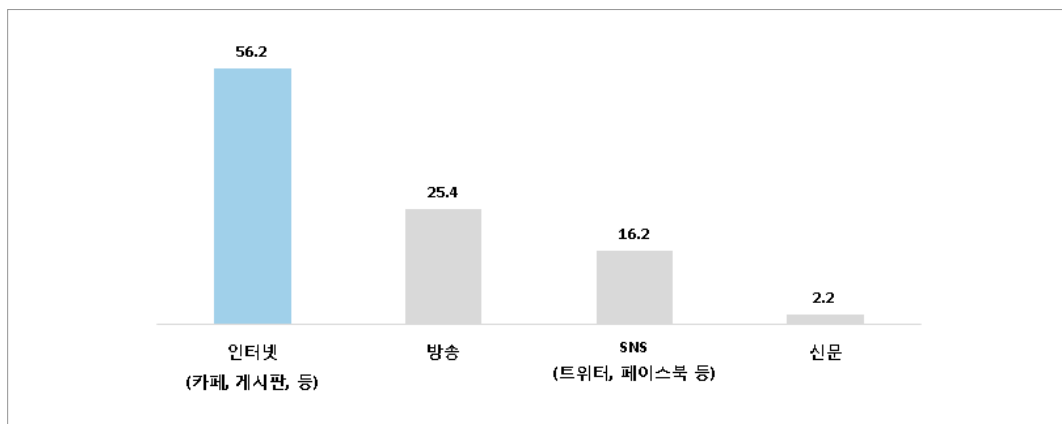
\* (비속어 및 폭력적 표현) 쪽팔려, 꼴통, 장땡, 죽일 거다

\* (외국어 남용) 캄 다운, 애플힙, 에이스 퍼펙트 가이 등

### ③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인 인터넷 언어폭력

사이버 공간에서의 욕설이나 근거 없는 비방, 명예 훼손과 같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문제는 가히 경악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무차별적이고 공격적인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언어폭력의 피해자는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등의 우울증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자살에 이르게도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언어폭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욕설이나 상대 비방, 허위 정보 유포, 명예 훼손 등의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언어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언어 파괴나 비속어 사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매체



### ④ 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 언어

청소년의 언어생활에서 언어폭력은 청소년 삶의 전반에 이미 위험수위에 와 있다. 친구들과 사이에서 사용하는 욕은 이제 화의 표현이 아닌 일상 언어처럼 부담 없이 사용한다. 예전에는 불우한 환경의 몇몇 불건전한 청소년 위주의 현상이었으나 집안이 좋고 나쁘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가릴 것 없이 습관적으로 또래집단 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05년 국립국어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욕설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58.2%)이 가장 많으며, 청소년의 94.6%가 욕설을 사용한 적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욕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 않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속어의 형태<sup>4)</sup>도 다양해지고 더 거친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그 외에도 우리의 언어문화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꼽히는 것이 막발, 반발, 욕설 등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정치인들의 막말이다. 이러한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언어는 국민들의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

이상과 같이 언급한 우리 시대의 병리적인 언어문화는 사회적 스트레스를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화 상대방을 무시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가로막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며 공동체의 결속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는 소수의 지식인이나 일부 몰지각한 계층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기에 사안이 더욱 중대하다. 또한 어려운 공공언어나 정치인의 막말은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들어 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만 나머지 현상들은 대개 개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 함부로 간섭하기 어렵다는 미묘한 점이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방치한 결과 우리 시대의 언어문화는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논의와 자율적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우리 말글을 스스로 가꾸는 노력으로 승화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한글날의 공휴일 재지정을 계기로 작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 회의에서 문화융성 토대로서의 우리 말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부 부처와 국어, 방송·인터넷, 교육·청소년 등 1,50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그야말로 민관이 각 분야별로 실천 과제를 수행하여 사용자의 국어의식을 일깨우고 다양한 담론으로 국민 스스로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문화를 실천하기로 하였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문제점 중 공공언어 분야, 방송·인터넷 언어 분야, 청소년 언어 분야의 크게 세 분야를 중점 목표로 하여 어려운 용어 사용, 무분별한 비속어와 폭력적 언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장에서는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의 추진 계획을 소개하기로 한다.

### ① 쉬운 언어 쓰기 운동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쉬운 언어는 인권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대변인협의회를 통해 ‘쉬운 언어 쓰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고 지역과 민간 부문에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간 어문 규범 위주의 행정기관 문서 진단에서 벗어나 공문서의 쉬운 언어쓰기를 강조하고 올해 4월부터는 정부 홍보 부문 평가에서도 쉬운 보도자료 쓰기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전문관<sup>5)</sup>’을 두어 전문 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해당 부처 및 기관의

4) 1986년 1월 28일 동아일보 기사는 당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언어 실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며 개 xx, 여우같은 x, 병신 같은 xx, 미친 x, 염병할 x 등의 욕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5) 알기 쉬운 용어 개발·보급 및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 수립 등 공공기관의 국어 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국어기본법 제10조)’을 보좌

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는 국어기본법 제17조,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시행령 제12조의 조항을 활성화하여 각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로 전국 20개소가 된 국어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내 언어문화개선 운동 확산의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은행·보험·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설명서, 광고문 등의 언어 개선도 지원하여 언어문화개선운동의 민간 부문 확산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의 전문 감수위원의 공공언어 상시 감수 지원 활동과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등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를 도입하여, 문서 및 서식이 쉬운 언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특별 표지(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상세 내용
법·제도적 기반 강화	국어기본법 개정	쉬운 공문서 쓰기 강조, 국어전문관 제도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 도입	문서, 서식의 쉬운 공공언어 인증 마크 부여
	전문용어 표준화 본격 추진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활성화	국어책임관 제도 활성화	국어발전계획 수립 및 직원 국어능력 강화
	국어문화원 중심의 지역 확산	지역 언어문화운동의 거점 활동 지원
	민간 부문 확산	약관, 해설서, 광고문 등 언어 개선 지원
공공언어 상시 감수 및 개선 지원	상시 감수 및 점검	국립국어원 전문 감수
	맞춤형 교육 지원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 부처 참여

## ② 흥미를 넘는 품격 있는 언어사용 의식운동 통한 ‘방송·인터넷 언어’ 개선

인터넷, 디지털 기반 시대에 방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하여 품격 있는 언어 사용으로 흥미를 넘는 언어 의식 개선 운동 추진하고자 한다. 시청률 위주의 자극적인 방송 풍토가 개선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분야별(드라마, 오락, 시사 등) 방송 언어 자율 지침 마련과 준수를 권고하고, 방송심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막말 및 선정성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방송 관계자의 바른 언어 사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송 현장에서의 언어생활을 지원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 댓글문화를 개선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방송·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한글맞춤법 교육 등, 표기 차원의 교육을 넘어 화법 교육 등, 실무 밀착형 교육을 실시하고, 자주 사용되는 비속어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 어휘·표현 자료를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방송 및 인터넷에서의 언어생활을 자가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 등을 통해 보급할 것이다.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상세 내용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위한 자율 점검 체계 마련	방송 언어 지침 마련	분야별 방송언어 지침 마련 준수 권고
	방송언어 평가 시상	방통위 '바른 방송언어상' 시상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실시간 검색 및 접근이 쉬운 모바일 개발
	인터넷 댓글문화 개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전개
언어의식 개선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교육 프로그램 개발	언어생활 자가 점검 프로그램 개발
	방송언론 관계자 교육	분야별 의식 개선 프로그램 개발 화법 교육
	인터넷 언어 사용 교육	청소년 학부모 대상 교육 개발
언어 개선을 위한 점검 기능의 활성화	방송심의 실효성 제고	막말 선정적 프로그램 제재 강화
	방송언어 사용실태 조사	보고서 발간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참여

### ③ 존경과 배려의 가치 알려주는 교육과 문화를 통한 '청소년 언어' 개선

청소년 언어는 '문제'와 해결책만을 주장하기보다 사회적 협업을 통한 '문화' 치유의 접근으로 성숙한 언어 환경(가족, 학교, 사회) 조성 및 배려의 언어 가치 교육에 기반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욕설 및 비속어 사용은 단순히 언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가 언어 생활에 투영된 복합 현상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뜻도 모른 채 욕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청소년 언어 개선은 교육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언어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자유 학기제를 활용하여 언어문화 교육 집중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도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언어습관 교정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자가 진단표를 개발, 보급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을 통해 강화할 계획이다. 언어문화 교육 프로그램 속에는 단순히 언어 예절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시 창작, 연극 등이 포함되어 언어 치유 문화 예술 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 운동(욕설 없는 날, 높임말 사용의 날 등)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교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언어폭력 예방 및 언어문화 개선 분야 전문 강사를 집중 육성한다.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문제 상황에 있는 청소년·부모 대상 상담·치유 프로그램에도 언어예절 교육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언어사용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자녀의 생애주기 발달에 따른 가정 내 의사소통 교육도 실시한다. 각 초·중·고교에서는 언어순화게임, 칭찬 릴레이, 언어문화개선 캠프, 우리말 겨루기 대회 등 다양한 학급 및 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에서 언어문화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상세 내용
바른 언어 교육 기반 강화	교육 과정 연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반영	언어생활에 관한 교육이 집중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언어교육 강화 실시
	언어습관 진단	언어습관 교정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개발 보급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
	청소년 바른 언어 수련	청소년 수련시설의 ‘언어순화’ 프로그램 보완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단위 학교 중심 프로그램 강화	학급 단위	언어문화 개선 학급 프로그램 공모, 교실벽·복도 등에 언어 순화 문구 게시, 언어순화게임 전개, 칭찬 릴레이, 존댓말 쓰기 등
	학교 단위	아름다운 언어 편지쓰기, 아름다운 시 낭송, 건전 언어 CM송 제작 발표, 우리말 겨루기, 시화전 및 언어문화개선 캠프 등 개최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언어 치유 문화 활동	시 창작, 연극 활동 등 언어생활 치유 목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생 청소년 참여 활동	학교·학급·동아리 단위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바른 언어 사용 운동 전개
	한글날 교육 주간	한글주간 또는 학기 초에 우리말의 중요성과 자신의 언어습관을 되돌아보는 특별교육주간 및 프로그램 운영
대상별 언어예절 교육 전문화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방송사 협업, 교사용 훈화자료, 대화 자료 개발, 자녀와의 대화법
	가정 내 의사소통 교육	자녀의 생애주기 발달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교육 및 단계별 부부간 관계향상 교육 실시
	청소년 문제상황에서의 언어 교육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청소년·부모 대상 상담 및 교육 운영 시 언어예절 교육
단위 학교 중심 프로그램 강화	학급 단위	언어문화 개선 학급 프로그램 공모, 교실벽·복도 등에 언어 순화 문구 게시, 언어순화게임 전개, 칭찬 릴레이, 존댓말 쓰기 등
	학교 단위	아름다운 언어 편지쓰기, 아름다운 시 낭송, 건전 언어 CM송 제작 발표, 우리말 겨루기, 시화전 및 언어문화개선 캠프 등 개최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참여

언어문화개선 운동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단계 운동이 추진되었는데 그동안 국민의 언어 인식 설문조사(12월)와 분야별 토론회 개최, 공익광고, 기획 보도, 기획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을 통하여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다. 그동안 정부 부처 대변인협의회회의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sup>6)</sup> 결의’와 청소년 중심의 언어지킴이(전국 1만여 명) 동아리 활동, 동아일보 연중 기획보도 등 공공기관과 학교, 언론을 중심으로 바른 언어 사용 참여 의지가 많이

6) 지난 4월부터 44개 정부 부처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상시 점검·평가하여 월별 우수 사례를 발굴, 분야별 어려운 전문용어를 매월 발굴하여 쉬운 용어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여 왔다. 그러나 정치인 언어, 방송 및 영화, 사이버의 자극적·선정적·폭력적인 언어사용 빈발 등 여전히 특정 주체의 바른 언어 사용 인식과 실천 의지는 낮은 상황이다. 앞으로 TV, 신문 등 대중 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한 흥미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밑으로부터의 진정한 변화 의지와 실천을 위한 군불을 지속적으로 지펴야 할 것이다.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의 생각과 혼이 담겨 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므로 우리의 말글은 문화융성의 토대가 된다. ‘문화융성’은 단순히 문화를 진흥하고 문화에 주목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신적 기반을 다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소통, 배려, 나눔 같은 문화적 가치가 우선하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만한 사회를 우리는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서 실현하고 싶다.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대화 문화, 입시 위주의 지식 습득이 아닌 진정한 우리말의 모습을 알아가고 그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교육, 나와는 다를 수 있는 타인의 눈높이에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문화. 그런 언어문화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해 본다.

또한 타문화권과의 교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통의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국제화, 세계화 속에서 그리고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인종, 지역, 세대, 성별, 직업 간 소통을 생각해야 할 시기에 들어섰다. 이제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 주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국어에 대한 주목이 아니라 언어 다양성, 표현의 다양성 관점에서 언중이 스스로 생산자가 되어 창조적인 언어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어적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고 공동체의 선을 위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운동’은 비록 정부 주도로 제안되고 조직되었지만 진정한 변화의 동력은 말글의 사용자이다. 정부의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민간의 각성과 주도적인 실천은 비록 느리더라도 그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3)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사 / 이정복(대구대)

이 글은 1945년 광복 이후 북한에서 이루어진 언어문화 운동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의 특징과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언어문화 운동’이라고 하면 언어문화와 관련된 대중적 활동이거나 대중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부나 전문가의 활동을 가리키며, 언어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실적으로 언어문화 운동은 순수하게 대중에 의한 활동보다는 정부나 전문가들의 지원과 주도 아래 대중들이 동참하는 협동적 형식을 취한다. 여기서 다룰 언어문화 운동 또한 정부 또는 전문가와 대중이 함께 벌이는 비교적 지속적인 활동을 뜻한다.

언어문화 운동에는 문맹 퇴치, 언어 순화, 고운말 쓰기 운동 등이 있고, 특히 남북한 모두에서 ‘한글 전용 운동’도 중요한 언어문화 운동의 하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 공간의 언어 사용을 중심으로 ‘선플달기 운동’<sup>1)</sup>도 전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운동은 언어 순화 운동이며, 그 가운데서도 외래어를 버리고 고유 표현을 찾아 쓰도록 하는 ‘말다듬기’ 작업이 핵심을 차지한다. 이 점은 남북한 모두에서 마찬가지며, 두 정부에서 오랫동안 높은 관심을 갖고 언어 순화 활동을 대중 언어문화 운동으로 벌여 왔다.

북한에서 이루어진 언어문화 운동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사상적 무장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요소로 인식된다. 이런 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언어 문제에 직접 개입하게 되고, 또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등을 언어 대중들에게 보급, 파급시키는 강한 노력이 이어졌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강력한 중앙 통제적 정치체제가 유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 서태길(1989:21)은 “북한의 언어정책은 우리의 언어정책과는 달리 통제적이고 체계적이다”, “지극히 획일적이고 계획적인 것이어서 당의 일방적인 지휘감독 아래 그 정책적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당중심의 언어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은 언어 자체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상 교육, 국가 및 최고 지도자에 대한 선전 등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정용호(1992)는 언어생활의 문화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어를 적극 살려 써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문화어가 주체사상과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장시키는 민족어의 전형이며, 인민의 정신도덕적 풍모를 높이며 높은 규범성을 갖기 때문이라고 했다(정유진 1997:125). 고유어 중심의 말다듬기가 민족어의 유지, 발전과 인민의 정신 무장에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유일 지배 체제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정치적으로 활용해 왔다.

말다듬기 운동은 대규모의 말 바꾸기 및 말 만들기 운동이다. 10만 여 개의 한자말 등 외래어를 정리 대상으로 삼았고, 그 가운데 5만 여 개를 다듬었으며 2만 5천 개 정도가 정착 단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어사전에도 1만 개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 언어 순화 운동에서 쉽게

1) 2007년부터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선플운동본부’(http://www.sunfull.or.kr) 사이트 참조.

찾기 어려운 대규모의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이운표(1991:55)는 “언어정화운동, 말다듬기운동, 문화어운동 등 어휘정리사업의 결과를 온 국민이 잘 이용하는 데는 양적으로 보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임은 물론이요, 언어의 역사성과 사회성까지도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고 하여 북한 언어문화 운동에 큰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다듬은 말의 수가 계속 줄어들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며, 몇 만 개의 다듬은 말이 대중의 일상어로 수용된 점은 큰 성과임이 분명하다.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연속성이 강한 사업이다. 말다듬기 운동은 광복 이후 한자말 정리 및 일본말 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한자말이나 외래어를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6.25 전쟁 및 전후 복구기에는 주춤한 면이 있었지만 60년이 넘는 오랜 동안 줄기차게 이어진 운동인 점에서 언어문화 운동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와 함께 북한 말다듬기 운동은 위(정부, 전문가)에서 아래(언어 대중)로, 아래에서 위로 두 방향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 것이며, 다듬은 말의 효과적 보급과 통제를 통해 일상어 안에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한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다. 각종 신문과 잡지, 학교 교육, 어휘집 및 사전 등을 통해 다듬은 말을 언어 대중에 보급하고, 적절하게 수용되지 못한 말들에 대해서는 다듬은 말에서 과감하게 제외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펼쳤다.

이러한 성과와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드러났다. 북한 언어문화 및 언어 정책에 대한 여러 앞선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짧은 시간에 급진적으로 한자 폐지, 한글 전용, 한자말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가 나타났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글 전용을 강제함으로써 북한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언어 사용에 큰 불편이 따르고,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한자 교육을 중지함으로써 한자말에 대한 이해도와 어휘 활용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일 것이다.

10만 개에 이르는 많은 다듬은 말을 급하게 만들어 냄으로써 대중의 거부감과 피로감을 높였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다수의 한자말과 외래어가 원상복구되기도 했다. ‘얼음보숭이’와 같은 북한의 다듬은 말이 정착되지 못하고 다시 ‘아이스크림’으로 돌아간 것과 관련하여 김선철(2009:19)은 “언어 사용은 일종의 정신활동이기 때문에 그 사용의 주체가 자신의 의지로 이행하는 것이지, 타인이 강요한다고 쉽사리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정유진(1997:122)의 지적처럼 “수만 개나 되는 다듬은 말을 학습하여 언어사용에서 생활화하는 일은 더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며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실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언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투쟁의 수단이 됨으로써 재미, 여유,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을 잘 보여 준다. 규범이라는 뼈대만 남고 풍성함이 사라진 언어는 강한 통제가 사라지는 순간 언어 대중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그동안 남한에서 이루어진 북한의 언어 정책 및 언어 연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비판적 색채가 아주 강했다. 언어 순화 등의 언어문화 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남북 분단과 이념 대립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긍정적인 면에 대한 평가는 의식적으로 멀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기에 바빴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태도로 북한의 언어 실태와 언어 연구에 접근하

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준비 작업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살펴본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고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의 언어문화 운동은 광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활동이자 장기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 결과 2만 5천 여 어휘가 고유어 중심으로 다듬어졌고, 국어사전에 실은 것도 만해 1만 개가 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은 남한의 언어 순화 작업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난다. 남한에서 발간한 국립국어원 엮음(200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에는 1977년부터 2002년까지 나온 40개 분야의 다듬은 말 2만 1천 여 개가 실려 있는데, 수적으로 보면 북한의 말다듬기 작업 성과와 비슷하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크게 다르다. 북한의 경우 말다듬기 작업, 대중 토론, 다듬은 말 확정, 대중 학습 등의 과정을 거쳐 언어 대중에게 정착된 말인 반면 남한의 다듬은 말은 여전히 전문가 중심의 ‘순화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물론 남한의 다듬은 말 가운데 일부는 국어 대사전에 실렸고, 또 일부는 국민들의 일상 언어생활에 뿌리를 내렸지만 대부분의 다듬은 말은 아직도 언어 대중과 거리가 먼 일부 전문가들의 임시어에 지나지 않는다. 다듬은 말을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올려놓은 정도이며, 언어 대중에게 언제,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sup>2)</sup>

그렇다면 남북한 모두 1945년 광복 이후 꾸준히 말다듬기 작업을 해 왔음에도 왜 이러한 차이가 나왔는가? 그 이유는 남북한 정치 체제 차이, 정부의 의지와 개입 정도 차이, 대중 운동의 방식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말다듬기 등의 언어문화 운동의 목적 차이에 있다고 본다. 고영근(1988/1999)는 남북한 언어 순화 운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1) 남북한 언어 순화 운동의 차이점 (고영근 1988/1999:53)

- 가. ‘국어순화운동’이 한자어나 외래어 대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씬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민족주체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문화어운동’은 북한의 수도인 평양의 말을 중심으로 우리말을 다듬어 혁명수단으로서의 북한 표준어를 확충·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적은 다르지만 둘 다 외래적 요소가 없는 고유의 어근을 중심으로 새 말을 만들고 표현을 고치자는 방법은 일치한다.
- 나. 남한은 언어·문자를 단순히 문화창조와 관련시킨다든지 기껏해야 민족이나 사회형성과 관련시키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데 대하여 북한은 언어·문자를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무기로 생각하고 그것을 향상·발전시키는 것이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2) 남한에서 이루어진 언어 순화 활동에 대한 최근의 검토와 비판은 이정복(2003, 2008), 박용찬(2007, 2011), 최경봉(2007), 고성환(201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남한이 ‘원활한 의사소통’, ‘민족 주체성 추구’, ‘문화 창조’를 목적으로 말다듬기를 전개한 반면<sup>3)</sup>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 ‘주체사상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차이점을 지적했다.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수행된 말다듬기 작업이 결과적으로 많은 이질성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면서도 “북한이 우리말의 순수성을 살리고 이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들의 공리적 언어관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영근 1995/1999:166)고 하여 북한의 국어 순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언어 정책 시행, 언어문화 운동 전개 과정에서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의지와 지원, 전문가와 언어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말다듬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정부에서 목표를 세우면 전체 국민이 함께 달려 나서는 사회주의 동원 체제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또 그 목표가 북한의 사상 확립과 사회, 국가 건설의 효과적 도구 마련이라는 구체성을 띠었기 때문에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남한 사회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과 달리 언어 문제에 대한 국가의 의지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전문가 및 언어 대중에 대한 동원도 쉽지 않은 편이다.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어도 지속되지 못하고 정권의 관심과 입맛에 따라 변덕이 심하다. 다듬은 말의 보급만 해도 신문이나 잡지는 물론 학교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강제성을 갖기도 어렵다. 또 언어 정책과 언어문화 운동의 목표도 민족정신, 민족문화와 같은 추상적인 데 놓여 있었다. 거의 모든 면에서 북한과 비교하여 나쁜 상황인 것이다.

그렇지만 강대국 사이에 자리 잡은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나 외세의 침략과 지배 아래에서 오랫동안 부정적 영향을 받아온 우리말의 왜곡된 역사를 고려할 때 말다듬기 등의 언어문화 운동과 관련 언어 정책은 포기하기 어렵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 다원화된 남한 사회에서 언어문화 운동을 어떻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지는 분명한 목표 의식의 설정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새롭게 언어문화 운동의 목표를 ‘언어 평등’ 또는 ‘언어 민주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sup>4)</sup> 언어 순화, 특히 외래어 순화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이정복(2008)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3) 최용기(2003:85-100)은 국어 순화가 필요한 이유로 ‘민족정신의 확립’, ‘민족 문화의 발전’, ‘사회의 정화’, ‘국어의 개량 및 언어생활의 개선’ 네 가지를 들었다. 국어 순화의 방향에 대해 ‘언어의 순결성’(다듬기, 깨끗하게 다듬기), ‘언어의 규범성’(바로 잡기, 알맞게 바로 잡기), ‘언어의 합리성’(가꾸기, 알차게 가꾸기)의 추구가 필요하다고 했고, 국어 순화의 목적을 ‘우리말을 알기 쉽고, 바르고, 풍부하게 하는 데 있다’고 적었다. 한편, 최경봉(2007:368-369)은 남한의 외래어 순화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점,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외래어 문제를 보게 되면 정치 논리로 외래어 문제에 접근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런 접근의 결과 언중에게 외면되는 순화어 양산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남북한 모두 동일하다고 보았다.

4) 이런 방향은 김선철(2009:14-15)에서 “언어정책으로서의 우리말 다듬기는 인권 존중 및 효율적 언어 생활을 위한 말다듬기, 언중의 언어의식에 입각한 말다듬기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한 말과도 통한다.

## (2) 전면적이고 강력한 외래어 순화의 필요성 (이정복 2008:46)

- 가. 한민족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성(疏通性)을 높임으로써 언어적 계층 차이를 줄이고, 언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외래어 순화가 필요하다.
- 나. 우월한 지위의 외국과 교류가 많고, 그 외국어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 외래어를 퍼트리고 애용하는 역할을 한다.
- 다. 외국과의 접촉 기회가 없고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대다수의 화자들은 외래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언어적으로 하위 계층에 머물게 된다.
- 라. 남한에 살고 있는 새터민들의 경우에도 외래어나 외국어 때문에 언어생활에서 어려움이 크며,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 여성들의 경우도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다 다른 외국말까지 익혀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 마. 이러한 차이와 언어적 장벽이 사라지는 언어 평등화와 언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수의 화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들을 우리말로 바꾸어 씌으로써 국민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와 같이 어려운 한자말이나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원활한 의사소통에 방해를 받고 사회적 평가에서도 피해를 받는 화자들이 많다. 표준어를 제대로 쓰지 못해 피해를 받았던 방언 화자들처럼 외래어가 새로운 위세를 갖춘 표준어처럼 화자들에게 군림하는 상황이다. 이런 언어 요소들은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기본적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인데, 모든 한국어 화자들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한국어를 쓸 수 있도록 이런 요소들을 쉬운 말로 다듬고 걸러내는 작업이 결국은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sup>5)</sup>

5) 이런 생각은 '쉬운 언어 정책'과도 연결될 것이다. 쉬운 언어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범 외 8명(2013) 참조.

#### 4) 우리말 다듬기와 21세기 언어문화개선 운동 / 박덕유(인하대)

언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회 대중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 객관적인 현상이며,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 온 문화적 유산이다. 우리 언어는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표현 수단의 한글과 이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자의 상호보완으로 이루어져 세계 그 어느 언어보다 경쟁력 있는 우수한 언어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국민은 언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더욱이 21세기 들어 K-Pop 등 한류 열풍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해외에 세종학당(2014년 54개국에 130개소 개설) 등 한국어 전문기관 설립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우리말의 학습 열기가 고조되는 반면에 국내에서는 오히려 공공언어에서 외국어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저품격 언어가 난무하는 매체언어, 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언어 등 사회 전반에서 어법 파괴 현상이 점점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의 개념과 역사를 통해 그 주요 특징을 고찰하고, 국어 순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21세기를 맞이하여 언어문화 개선 운동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 1. 순화 대상을 용이성에서 품격성과 정확성으로 확대

박갑수(1976), 남광우(1977), 박갑수(1979)<sup>6)</sup> 등에 이어 허철구(1999), 민현식(2002), 고성환(2011)<sup>7)</sup> 등 대부분의 학자들은 국어 순화를 어휘에 국한 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sup>8)</sup> 특히, 이남호(2005)는 국어 풍요를 위한 국어 순화 운동으로 배제의 원리를 버리고 포용의 원리를 채택해야 하며, 단어 차원에서 문장, 단락, 글의 차원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토박이 낱말들을 되살려 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장과 글을 바르게 쓰는 일이며, 외래어와 외국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보다 어법에 맞지 않거나 너저분한 글을 쓰는 일이 훨씬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남영신(2000)은 바른 국어에는 표준어와 맞춤법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단어를 그 의미에 맞게 정확하게 쓰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국어 순화 운동은 국어를 깨끗하게 하는 운동에서 바르게 쓰는 운동으로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국어 순화는 대부분 서구계의 외국어·외래어를 대상으로 전개해 왔다. 이제는 순화 대상을 어휘(주로 외국어 및 외래어)에 초점을 맞춰 쉬운 우리말로 교체한 용이성에 그치지 말고, 욕설이나 비속어 등 폭력적이거나 저속한 표현도 순화 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개

6) 박갑수(1979:58-59)는 국어 순화의 대상을 음운, 어휘(은어, 비어, 속어, 욕설, 방언, 외래어, 외국어), 통사(구문상의 비문법적 요소), 의미(어휘 및 구문상의 의미 혼란), 언어활동(언어 맥락에 부합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 관습), 정서법 등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7) 고성환(2011:6)은 국어 순화는 어휘뿐만 아니라 발음, 문장, 담화, 맞춤법 등 국어 전 영역에 걸치는 문제로 지적했다.

8) 허철구(1999:86-87)는 국어 순화 운동이 어휘 중심으로 된 것은 1976년의 ‘국어 순화 세칙’에서 “국어 순화는 발음, 어휘, 문법, 맞춤법, 언어활동 등을 포함하되 어휘의 순화를 먼저 한다.”라고 제시한 것에서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화 세칙이 나온 배경은 한자어와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려는 문체적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선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발음, 문장, 담화, 정서법 등 언어생활 전반에 걸쳐 정확한 표기와 표현으로 국어 순화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 2. 순화 대상 어휘의 선정 원칙 필요

외국어·외래어를 순화할 경우 그 대상 선정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 이동석(2011)은 국어 순화는 일반 언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반영하여 일반 언중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언중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특정 어휘 및 표현의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에 대한 순화 의지가 있는지, 순화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순화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영어 중심의 외국어·외래어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이라 민족어 정신 차원에서 우리 언어를 지키려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외래어와 중들이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sup>9)</sup>

## 3. 순화어를 만들 때 한자어 활용

순화어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야 하므로 한자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sup>10)</sup> 한국어는 표현 수단인 표음문자의 고유어와 이해 수단인 표의문자의 한자어가 주를 이룬다.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수록된 어휘를 어종별로 보면 고유어(131,971개, 25.9%), 한자어(297,916개, 58.5%), 외래어(23,361개, 4.7%), 혼합형태(55,523개, 10.9%) 등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국어의 어휘에는 한자어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자의 장점인 조어력, 축약력을 활용해서 순화어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박용찬(2011), 김문오(2011)에 의하면 299개 순화어의 어종별 수와 비율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sup>11)</sup>

<표 1> 어종별 순화어 수와 비율

	고유어	한자어	고유어+한자어	기타(혼종어)	계
수	67	99	125	8	299
비율	22.4	33.2	41.8	2.6	100

9) 권재일(2005)은 지금까지의 국어 순화 정책이 주로 ‘언어의 정신’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토박이말만 가려 쓰자는 것으로 일관해 왔지만 이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따라서 국어 순화의 목표를 이제 ‘언어의 기능’인 의사소통의 원활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민 대다수가 ‘웰빙’을 쓰고 있는데 외래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살이’로 순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0) 남광우(1977)는 무엇보다도 한자나 한자어를 기피하는 편협성은 지양해야 하는데, 그 이유로 2천년 이상 사용해온 역사, 고유의 한자음 동화도(同化度)로 보아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한자의 장점인 시각성, 조어력, 축약력 등을 이용하여 조어하는 것이 외래어의 범람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11) <표 1>에서 제시한 수는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 2004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다듬은 순화어이다.

한자어를 활용한 순화어는 한자어 99개와 고유어와 결합한 125개 등 모두 224개(75%)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순화어를 만들 경우 일반 생활에 필요한 한자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sup>12)</sup> 그리고 박용찬(2011:44-45)은 ‘우리말 다듬기’에서 선정·결정한 순화 대상어와 순화어의 음절 수를 살펴본 결과 순화 대상어는 3.87음절이고, 순화어는 4.43음절로 오히려 순화어의 음절 수가 더 길다고 제시했으며, 순화어 중 한자어는 2음절(215개, 82.7%), 3음절(33개, 12.7%)로 대부분 2,3음절이 주를 이룬다고 했다.<sup>13)</sup> 순화어는 쉬우면서 간결할수록 좋으므로 음절 수가 짧은 것을 선택하여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방송 등 언론 매체의 적극적인 동참

효율적인 순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 매체가 앞장서야 한다. 국민들에게 우리말 다듬기를 홍보하거나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등 언론 매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sup>14)</sup> 광복 이후 정부와 민간단체 중심으로 순화 운동을 전개해 약 2만개 정도의 순화어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홍보 부족을 들 수 있다. 언론 중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은 방송이다. 국민들이 순화어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 의도적으로 순화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스크린도어’인 ‘안전문’ 설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대 설치가 시급합니다.”처럼 순화대상어와 순화어를 함께 알려주는 방법이다. 또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에서 외국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어 순화를 서구계 어휘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욕설이나 비속어 등 저속한 말을 사용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간판이나 광고, 그리고 인터넷과 모바일에 의한 맞춤법 파괴 현상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말을 곱게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려는 의식 전환 운동이 필요하다.<sup>15)</sup>

#### 1. 정부 주관의 범국민 어문개선 운동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013년 12월 18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출범식>은

12) 교육부(20014년 9월 24일)는 2018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년이 사용하는 교과서에는 한자를 한글과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요즘 학생들이 한자 교육이 부족해 의미 소통 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으로 2018학년에는 초등 3,4학년 교과서, 2019학년에는 초등 5,6학년 교과서에 한자 400-500자를 한글과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교과서 집필기준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13) 박용찬(2011)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 순화한 어휘 283개(2004.7.-2011.4.)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김문오(2011)는 299개(2004.7.-2011.12.) 순화어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14) 권재일(2005)은 교육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것이 언론의 구실이며,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말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어 방송 제작자들이 우리말을 제대로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했다.

15) 박갑수(1976, 1979)는 언어활동, 국어생활에 대한 의식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제기한 바 있다.



외국어·외래어 등의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과 무분별한 비속어, 유행어, 외계어 등 저품격 언어가 난무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그리고 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 언어 등 우리 언어 사용의 심각성을 느낀 1,500여의 민간단체가 참여해 ‘안녕! 우리말’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안녕! 우리말’ 운동은 아름다운 우리말 사용을 위한 언어문화 개선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의 국어 의식을 일깨우고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융성위원회 및 각 부처별 해당 사업과 연계되어 부문별로 다양한 사업의 공동 기획 및 공모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동의 주요 내용은 ① 바른 언어(문법 및 어법 파괴, 외래어·외국어 남용), ② 고운 언어(거친 욕설, 비속어·저속어), ③ 품격 있는 언어(과잉 존대, 축약 및 변형, 외계어)로 사업 운동은 크게 공공언어 개선 운동, 방송·인터넷 언어 개선 운동, 청소년 언어 개선 운동 등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관으로 무엇보다 국어문화원을 들 수 있다. 최근에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역 및 민간에서의 언어문화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어문화원이라는 지역거점 역할론이 대두되었고, 지역 언어문화 발전 및 국어진흥을 위한 시민의 각성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국어문화원 영향력의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1.1. 국어문화원 설립과 역할<sup>16)</sup>

2005년에 “국어 사용 촉진, 국어 발전의 기반 조성과 국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과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24조에는 “국민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설 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국어문화원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문화 개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선도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이 우리 언어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언어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 1.2. 국어책임관제도의 정착과 연계 활성화

#### 1) 국어책임관제도의 운영과 필요성

국어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어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와 같은 중앙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에 지정되어 있다. 주로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관이나 국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맡고 있으며, 2005년 이래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중앙 행정 기관 44곳과 소속 기관 92곳, 광역 지방 자치 단체 16곳, 기초 지방 자치 단체 229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국어책임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의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해 알기 쉬운 용어를 개발·보급하고, 정확한

16) 국립국어원 20년사(151-154) 참조.

문장 사용을 장려하는 일을 한다. 해당 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시키는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도 마련한다. 또한 매년 한 차례씩 모여서, 그동안 추진한 사업 성과와 이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다.

국어책임관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국민의 언어생활을 이끌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 ① 정부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의사전달의 효율적 관리를 촉진하는 활동이다.
- ② 의사전달의 수단인 언어를 다듬는 역할이다.
- ③ 정부조직의 의사소통 활동은 국민의 생활의 질과 국가 발전 수준에 직결되므로 정확한 언어 필요하다.
- ④ 행정 기능의 확대 및 전문화에 따라 국민생활에 대한 행정의 영향이 매우 크고 행정이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다.

## 2) 국어책임관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국어책임관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어책임관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우선, 전문 지식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국어책임관 업무가 대부분 국어 관련 전문성이 없는 홍보담당 부서장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추가됨으로써 국어책임관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sup>17)</sup> 다음으로 행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 ① 관리의 문제점으로 잦은 인사이동, 조직개편, 임무 위임 등으로 국어책임관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sup>18)</sup>
- ② 국어책임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③ 대외적으로 국민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표되지 않는다.
- ④ 책임이 따르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의욕도 없는데 임명이 되어 오히려 불편을 하소연하는 실정으로 기회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고 있다.
- ⑤ 겸직을 하기 때문에 국어책임관의 업무는 뒷전이 되어 그 일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17) 국어문화원활성화방안보고서(2014)에 따르면 국어책임관 학위는 학사 학위자가 57.4%였으며, 석사 31.9%였고 기타가 10.6%이며, 전공별로는 인문계열이 36.2%, 사회과학계열이 31.9%였고 국어국문학 및 국어교육 전공이 2.1%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수치는 국어책임관의 국어정책 수립 및 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드러낸다. 따라서 향후 국어책임관은 국어 관련 전공자나 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충분한 담당자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국어책임관 임명 이후 지역 거점 국어문화원과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18) 예를 들어 인천시 국어책임관(2013년도)을 2012년과 비교해 보면 11개 부서(1개 시청, 8개 구, 2개 군)가 모두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책임관과 실무자가 모두 바뀐 곳은 7개 기관, 책임관만 바뀐 곳은 2개 기관, 실무관만 바뀐 곳은 2개 기관이다.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것이다.

국어책임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적 안정화를 위해 국어책임관의 독립적 지위가 필요하며, 국어책임관은 그 역할을 바로 알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일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① 국어책임관 지정과 책임 등에 관한 항목을 삽입하는 조례 개정
- ② 국어책임관 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
- ③ 국어책임관의 잦은 교체 지양
- ④ 해당 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 ⑤ 국어책임관과 국어문화원의 연계성 강화

### 1.3. 공공언어 개선 운동

공공언어의 가장 공적인 유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 활동에 사용하는 언어로 출현 형식은 법률, 공문서, 관보, 고시문, 판결문, 명령서, 고지서, 보도자료, 안내문, 게시문, 표지판, 민원 서식, 증명서 등이다(조태린, 2010). 최근 공공기관의 언어는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과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일본어투 한자 사용, 한국어 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어긋난 표기, 어법에 어긋난 표현, 자연스럽지 않은 문체를 사용하여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 내용을 정확하고 쉬운 용어로 사용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어·외래어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19)</sup> 이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운동이 필요하다.<sup>20)</sup>

## 2. 국민 참여의 어문개선 운동

기존 국어 순화 정책은 주로 정부나 전문위원 등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순화였다. 순화는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순화어를 만들어도 국민의 공간을 얻지 못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분별없이 쓰이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걸러 내고, 우리말을 더 다듬어 가꾸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2004년 7월 5일부터 동아일보, 동아닷컴, 케이티(KT)문화재단 등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 사이트를 마련하여 누구나 낯선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신할 우리말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말터’ 사이트에서 누리

19) 지금까지 국어문화원에서는 공공언어 개선 사업으로 대체로 보도자료, 공문서, 고시 및 공고문, 새소식, 안내문, 게시판 등의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20)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를 위해 각 시청이나 도청 누리집에 상징물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몇 군데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Dynamic BUSAN, Colorful DAEGU, Hello Gwangju, It's Daejeon, Ulsan for you, Pride Gyeongbuk 등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나마 2010년도에 ‘Hi Seoul’ → ‘희망 서울’로 변경하였으며, ‘Fly Incheon’, ‘feel GyeongNam’은 삭제되었다.

꾼들이 제안하거나 국립국어원에서 직접 발굴한 순화 대상어 중 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말을 결정한다, 그 방식은 매주 다듬어 써야 할 외래어와 외국어를 하나씩 선정하여 발표하면 일반 국민이 이 사이트를 통하여 그런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신할 우리말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말터에서는 2011년 11월까지의 누리꾼들이 순화어를 제안하고 국립국어원이 그 가운데 몇 개를 추려서 올리면 다시 누리꾼들이 투표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말을 순화어로 뽑았다. 그러던 것을 2011년 12월부터는 누리꾼들이 투표하지 않고 우리말다듬기위원회에서 순화어를 결정해서 선정하고 있다.

앞으로 순화 대상어를 선정할 경우에 정착도가 높은 것을 제외시키는 원칙을 세워야 하며, 순화어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sup>21)</sup> 또한, 청소년들과 군대에서 욕설문화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 관련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이트도 열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맞춤법 파괴에 대한 사례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이며 언어 경쟁 시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화 속에 수많은 선진국과 접촉하면서 우리 언어를 보호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언어문화 개선 운동 방안을 고찰했다. 세계 12,13위의 경쟁력 있는 한국어는 나름대로 장점을 갖고 있다. 한국어는 표현 수단인 고유어와 이해수단인 한자어의 상호보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세계 180개국에 700만 명의 우리 교포가 널리 퍼져 거주하고 있다. 더욱이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언어를 전 세계에 보급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의 영향력은 매우 막강해 우리 언어 깊숙이 파고들고 있으며 공용어화 바람마저 불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공간에서 어법을 무시한 발음상의 '쓰기 문화'가 10-20대 계층에 일반화되면서 국어 규범을 파괴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모국어에 대한 홀대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어가 이 지구 상에서 사라질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언어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언어는 영어, 중국어, 유럽어, 아랍어 등 몇 개 언어로 좁혀질 것이다. 우리도 남북통일은 물론 중국, 일본과 연계하는 언어문화권을 형성해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밖으로는 한국어를 보급·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안으로는 정확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자언어 중심의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언어 소멸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갑자기 한두 세대 만에 사라질 정도로 우리는 '언어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세계의 언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언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어가 소멸된다?"는 가설은 곧 현실로 다가올지 모른다.

21) 광복 이후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것이 2만 개를 넘어서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관심이 크지 않아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다. 제2분과

### 1) 고전 읽기와 문명 읽기 / 김석회(인하대)

모든 발화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문학 작품도 발화의 한 형태로서, 이 맥락의 문제가 훨씬 더 다층적이다. 고전문학 작품의 경우는 더욱 복잡하다. 장르의 관습에 따른 중층화가 불가피한데다, 시대와 사회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맥락 속에 놓인 발화인지를 파악해 내는 일조차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고전 읽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해석을 위한 사전준비가 많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해석상의 무리나 오류가 많이 발견된다. 본고는 이러한 오류의 사례들을 필자의 섭렵 범위 안에서 수집하고 유형화하여 분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례는 학술대회 현장에서의 발표요지나 학술지 수록 논문, 학위 심사용 논문이나 학위 논문, 공간된 일반 간행물 등이다.

본고의 의도는 고전 읽기의 정밀화 세련화를 위한 반성적 성찰을 얻는 데 있다. 어느 특정인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허심탄회한 태도와 평명한 심경으로 썼다. 그렇게 읽혀지기를 희망하고, 고전읽기의 실제에서도 반성적 성찰의 거울로서 참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고전문학 작품은 조상들과 연관된 것이라서, 어떤 자료는 특정 가문에서 신성시되는 경우가 있고 가문의 구비 전승과 함께 유전(遺傳)해 오면서 미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가문의 후손들은 작품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상 미화를 위하여 견강부회(牽強附會)를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자료는 문중에만 남아 있다가 최근에야 공개되는 자료도 있어 문중은 고전문학 새 자료의 보고이기도 한데, 이들 자료 또한 이러한 문중신화에 감염된 해석이 많아 자료 이용에 엄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전문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상호텍스트적 참조가 필요하고, 비교고찰이나 대비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사대부문학의 경우에 유가 경전이나 전범이 되는 선행문학들을 반드시 참조해야 하고, 작가와 작가, 작품과 작품 사이의 상호 비교나 대비를 통하여 새롭게 조명되는 바도 크다.

고전문학의 연구나 교육에는 흔히 ‘원근법적인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sup>22)</sup> 그러나 원근법적인 이해라는 것도 결국은 소실점(消失點)이 어디에 형성되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대체로 이해지평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300년을 굽어보고 또 내다볼 수 있는 시야와 감각은 매우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필자 같은 사람이 고전문학 분야의 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아마, 우리 세대만이 가질 수 있었던 이러한 체감적인 이해지평의 폭에 힘입은 바 큰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 후속 세대는 한결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공부가 깊은 대가들임에도 고전 해석에 곡해를 빚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문학작품은 장르관습의 자장(磁場) 안에서 형성되고 수용된다.

22) 김흥규 교수가 제안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측면을 주목하여 연구와 교육을 설계한 바 있다. [김흥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3집, 1992.

## 2) 고전소설의 국어문화적 위상 / 서인석(영남대)

이 글은 전근대 시대의 소설 중 특히 국문소설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갖는 국어문화적 위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고전소설이 지어지고 수용되던 시기에는 ‘국어’라는 용어는 사용되었을지라도 그 내포가 오늘날과는 달랐으므로 ‘국어문화’라는 말에는 약간의 유보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국가와 민족이 거의 일치해온 경우, ‘국어’라는 명시적 용어는 없어도 사실상 이와 비슷한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국어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국어를 통해 형성된 언어문화 및 이의 확장으로서의 예술문화’이므로, 이 글의 목표는 국문고전소설이 당대의 언어 및 예술문화 속에서 기여한 바를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하는 것이 된다.

사실 그 동안 고전소설은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왔다. 작가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창작 시기조차 다소 막연한 상황이었기에 조선 후기라는 막연한 시기를 배경으로 개별 작품의 내부 분석에 치중해온 것이다. 이런 연구는 앞으로도 중요하고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고전소설 연구의 시야를 확장해볼 때, 고전소설이라는 장르 그 자체가 당대 언어문화 속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즉 전근대 시기에 소설이라는 장르 그 자체의 사회사, 문화사, 생활사 측면들의 연구도 필요한 것이다. 이 글은 이런 측면의 연구이기도 하다.

고전소설은 그야말로 ‘낮은 장르’로서 당대에는 비판과 이에 대한 변명 속에서 창작되고 수용되었다. 그러나 소설 장르가 근대에 와서 크게 부상하면서, 고전소설도 재조명되게 되었다. 그야말로 하찮은 이야기라는 뜻의 ‘小說’이나 ‘稗說’로 불리다가 신문학기에는 서구 소설의 영향을 받은 신소설에 밀려 ‘舊小說’로 불리던 것이, 이제는 ‘古典小說’이라는 긍정적 명칭으로 바뀐 것이 그런 사정을 보여준다. 전근대 문학 장르 중에서 이 고전소설처럼 ‘신분 변화’를 크게 겪은 것도 없을 것이다. 장르의 사회문화사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문제적 장르인 셈인데, 그야말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커다란 역할을 했으면서도 낮은 평가를 당해온 셈이어서, 그만큼 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다.

국문소설이 출현하면서, 한국소설사는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이 공존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옥루몽>과 같은 것을 포함해서 상당수 작품이 한문본과 국문본으로 동시에 유통되면서 이들의 공존이 한국소설사의 한 특징이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sup>23)</sup> 물론 공존 양상에도 시대적 차이가 있어, 처음에는 한문소설, 특히 전기소설의 국문소설에 대한 영향이 두드러졌다.<sup>24)</sup> 그러나 국문소설은 점차 한문소설에 대한 독자성을 형성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독자성의 중 처음부터 확실하게 유지된 것은 표기 차원에서 전적으로 국문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한문과 국문이 문학 언어로 나란히 병용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자어조차도 순전히 국문으로만 표기해온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문 표기에 한자어

23)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지식산업사, 2001) 126쪽.

24) 박희병,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의 관련 양상”(『한국문학에 있어서 국문문학과 한문문학의 관련양상』, 한국고전학회·한국한문학회 전국학술대회, 1988)

가 들어가는 것은 국한문혼용체라는 점에서 그리 낯선 것도 아니고 후대에는 어느 정도 유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문소설은 국문 표기로 일관해온 강고한 전통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국문소설은 표기가 국문이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문소설에 비해 양식적으로 나름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중국소설의 번역본은 예외이지만 국문으로 창작된 소설은 한문산문의 다양한 양식과 상당 부분 단절되어 있는 국문소설 고유의 양식을 갖고 있다. 물론 그 제목에서 <--전>이나 <--록>, <--기>와 같은 영향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양식적 특징은 한문산문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는 국문소설이 한문소설 혹은 한문산문의 영향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섭취하여 국문소설 고유의 특징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래 ‘한문소설목록’이 작성된 바가 있는데, 이 목록은 한문소설의 유형을 傳奇小說, 寓言小說, 傳記小說(傳系小說), 筆記小說(野談系小說), 夢遊錄, 英雄小說, 家庭·家門小說, 愛情小說, 世態小說로 나누고 있다.<sup>25)</sup> 국문소설은 이 중 우연소설, 영웅소설, 가정소설, 가문소설, 애정소설, 세태소설을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유형의 작품은 거의 없다. 즉 傳奇, 傳, 筆記(野談), 夢遊錄과 같이 한문학 양식 전통이 강한 것들은 배제된 것이다. 그리고 공유하는 유형들도 계통이나 양식적 모델보다는 주제나 소재를 중심으로 유형화한 것이어서 같은 유형이라 해도 실상은 상당히 다르다. 한문소설의 국문 번역도 대체로 이 공유 유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한 표기를 넘어 유형 간의 거리가 상당히 존재하는 셈이다. 이는 국문소설이 국문이라는 표기의 고유성 외에도 한문소설에 비해 한문학 전통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형성, 발전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홍길동전>이다. 최초의 국문소설이라고는 하지만 그 장르적 모델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호지>의 영향이라고 해보았자 의적 모티브 정도이고 이 의적 모티브조차도 후대인이 결부시켜 강조한 몫도 있을 것이다, 그래 장르적 모델 대신 서사적 모델로서 신화에서 무가를 거쳐 장구하게 내려오는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적 뼈대를 거론하기도 하는데<sup>26)</sup> 그 연원이 너무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뭔가 미진한 감이 있다.<sup>27)</sup> 그러다 보니 마치 문학사에서 갑자기 솟구친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오래된 이본으로 확증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아 19세기 작품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정도이다.<sup>28)</sup>

국문소설의 특징은 이런 고유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문소설들에 비해 국문소설은 소설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는데, 이를 중시한다면 국문소설이 한문소설보다 더 소설이라는 장르의 구심성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소설사에서 소설 여부가 문제되는 유형이 대개 한문소설들이라는 것은 假傳과 夢遊錄이 여전히 소

25) 김흥규 외, “한문소설목록”(『고소설연구』 제9집, 2000) 369쪽-451쪽.

26)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민중영웅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27) 그나마 참조할 만한 것은, 최소한 1579년에는 나온 것으로 보이는 한문본 <최고운전>이다.(김현룡, “최고운전의 형성 시기와 출생담고”, 『고소설연구』 제4집, 1998) 이 작품은 傳奇小說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웅의 일대기를 통해 자아와 세계가 첨예하게 대결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어 <홍길동전>과의 유사성이 있다. (박일용, “<최고운전>의 작가의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전문학연구』 16집, 1999)

28) 이윤석, 『홍길동전 연구-서지와 해석』(계명대학교출판부, 1997)

설과 교술 장르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양식이라는 점에서도 알 수 있지만, 傳記小說(傳系小說), 筆記小說(野談系小說)들이 같은 傳記(傳)과 筆記(野談) 안에서도 소설 여부가 갈린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한문산문은 그 양식적 다양성이 오히려 소설 범주 설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국문소설은 그런 데서 자유로웠던 것이다. 조선 시대에 혹 설화가 국문으로 많이 기록되었다면 국문소설 역시 장르적 판단에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조선 시대 지식인들은 설화도 한문으로 기록하였기에 국문소설과의 장르적 혼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사항들을 중시한다면 국문소설은 상대적으로 강한 통속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소설사에서 자기 고유성을 형성 유지해왔고, 장르적 구심성을 갖춰왔으며, 작품의 양적 비중도 압도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문소설은 한국소설사 안에서 한문소설과 공존하면서도 독자적인 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시각을 넓혀 소설을 하나의 국어문화 측면에서 본다면 국문소설의 위상은 한문소설은 물론이고 같은 국문으로 된 문화적 산물 중에서도 압도적인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한문소설조차도 어느 정도 경멸적인 의미로 불렸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국문소설이 오늘날과 같이 하나의 문화적 산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국문으로 널리 유통된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과 같은 일부 작품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국문소설에 대한 기록은 대체로 문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사적 혹은 풍속사적 기록들로 남아 있다. 즉 오늘날 같으면 신문 사회면에나 다름직한 것으로 취급받았으며 일부 작품들에 대해서는 거의 ‘스캔들’ 수준으로 다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문소설은 언어문화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를 크게 생활문화(어문생활사) 측면과 예술문화 차원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 (1) 어문생활사 차원에서 본 국문소설의 위상

어문생활은 크게 읽고 쓰는 것과 말하고 듣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문소설의 수용은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오늘날보다는 더 폭넓게 걸쳐 있다. 오늘날의 소설 수용은 대체로 조용히 혼자 읽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과거에는 소설 필사와 소설 낭독과 듣기가 더 있었다. 필사는 단순히 옮겨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본 생성이라는 좀더 적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소설 낭독과 듣기는 제한적이긴 해도 말하고 듣는 것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 오늘날에는 없는, 이 일반 독자의 베껴쓰기나 소설을 읽어주고 듣는 것은 국문소설이 어문생활사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다방면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국문소설은 18세기 이후 기존의 사대부층을 벗어나 부녀자층과 서민 남성들이라는 새로운 독자층을 만나게 되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국문소설이 이들을 독자로 끌어당겼다는 것인데, 이는 국문소설이 바로 18세기 이후 크게 발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17세기는 국문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초기에 해당되고 18세기 들면서 국문소설들이 대폭 증가하여 19세기에 이르면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채제공과 이덕무의 글에 보이는 꽤가나 돈을 주고 소설을 빌려보는 곳(세책방)이 등장한다든가 나중에 불 남성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출현한 것도 다 18세기 후반의 일이다.



책 읽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자해독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서양 중세의 사례를 보면, 16세기 유럽인 대부분이 문맹이어서 알려진 통계 자료에 따르면 겨우 3.4%만이 글을 읽었고, 그나마 여자는 1% 정도도 못 미쳤고, 이보다 좀 나은 영국은 남자의 약 9%, 여자의 경우 1% 정도였다고 한다.<sup>29)</sup> 이후 유럽은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15세기 중엽), 교육 제도의 확장으로 문맹률이 크게 낮아졌지만, 조선의 경우 국문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덕분에 문맹률이 크게 낮아졌을 것이다.

18세기 이후 국문소설과 독자층의 폭발적 증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중국의 경우 명말에 다른 책들과 함께 <삼국지연의>, <수호전>, <서유기> 등 신흥문학 장르인 백화소설들이 대량으로 출판되고 소설 삽화도 발달하였는데, 이는 소설 독자 및 비평의 증가와 연결되었다. 이를 한 연구자는 ‘미디어 혁명’이라고까지 하고 서민이 책을 읽은 것을 대단히 중시하였다.<sup>30)</sup> 그렇다면 방각본까지 이어진 국문소설의 폭발적인 증가와 부녀자 서민 남성들이 소설을 읽게 된 것도 한글 해독층의 증가를 견인하였다는 점에서 어문생활사의 혁명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 (2) 예술생활사 차원에서 본 국문소설의 위상

국문소설은 단순히 어문생활사 측면에서만 국어문화에 기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소설이라는 하나의 예술로서 독자들을 사로잡았으며, 이로 인해서 독자로 하여금 예술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했던 것이다. 그 예술적 욕구란 물론 예술 작품으로서 국문소설을 읽는 것과 필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문소설 이본을 형성하거나 아예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18세기 이후 국문소설의 대폭적인 증가가 있었다. 물론 18세기 이후에도 사대부 여성들이 격조 있다고 생각되는 소설들을 필사하고 읽는 것은 긍정적이었을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18세기 이후 대량으로 나온 통속적인 소설들이다. 개인적으로 필사하고 빌려보는 단계를 지나 시장을 통한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면서 소설은 흔해지고 좀더 통속적으로 바뀌었는데, 이들을 읽는 열렬 독자층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들 열렬 독자층이 세책방을 드나들며 잡다한 소설들을 읽는 것이 비판 대상이었다.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는 오락으로서의 독서를 비판하는 이런 글들을 보면 여성을 가부장적 구속의 대상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여성의 소설 읽기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고 있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이 여성의 소설 읽기에 대해 이처럼 비판적이었던 것은, 소설 그 자체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소설을 읽는다는 것 자체의 위험성 때문이기도 했다. 이덕무가 지적했듯이 남녀간의 사랑이나 가정 내의 투기 등은 여성에게 예상 밖의 자극을 줄 수도 있었다. 전기소설이나 가

29) 한스 요하힘 그립 지음, 노선정 옮김, 『읽기와 지식의 감추어진 역사』 (아침, 2006) 397쪽.

30) 오키 야스시 지음, 고인덕 옮김, 『중국 명말의 미디어 혁명-서민이 책을 읽다-』 (연세대학교 대하구 출판문화원, 2013).

정 가문소설들이 이런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전기소설의 사랑은 대개 순결하면서도 망설임이 없는데, 남녀가 만나서 즉각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열정은 그 뒤의 신의로 이어진다 해도 위험해보일 수가 있다. 처녀 총각의 사랑도 불륜이라는 점에선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소설들은 권선징악에 해피엔딩이어서 윤리적으로 별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상상력에 입각한 감정의 해방이 언제든지 현실을 이룩할 위험을 내장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점 국문소설이 본격적으로 나온 시기가 바로 가부장제가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국문소설이 대량으로 나와 여성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딱딱한 여성교육서나 음식조리서에 비해, 소설이란 답답한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 흥미롭게 세상을 내다보기는 것과 비슷했을 것이다.

소설 쓰기는 기존의 소설을 읽고 흉내 내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 기존 소설들의 베껴쓰기를 하면서 이본을 생성하는 것이 끼어있다. 한국 소설, 특히 국문소설은 이본이 많다. 이본 총수가 50종 이상인 것 36편을 보니, 국문소설(소수의 한문본이 있다 해도 원본이 국문으로 추정되는 것 포함)이 28종, 한문본과 국문본이 비슷하게 있어 확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6종, 중국 소설 번역 및 개작이 2편이었던 것이다.<sup>31)</sup> 이본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문소설을 베껴쓰면서 약간씩 고쳐서 썼다는 것인데, 이는 제2의 창작이라 함직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저작권 개념이 없다거나 작가가 익명이어서 그렇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보면 소설 독자들의 창작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한 읽기를 넘어 수많은 이본을 산출한 것도 일종의 문화 창조라 할 수 있다.

이런 이본 생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새로운 작품의 창작이 될 것이다. 현재 알려진 한국소설의 작가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알려진 작가라 해도 한문본과 국문본이 동시에 유통되는 작품을 쓴 양반 사대부 작가로 한정되어 있다.<sup>32)</sup> 그리하여 나머지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소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작자층으로는 상층사대부 남성, 몰락양반층, 여성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특수한 예이지만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 광대와 개작자로서의 양반층이 거론되고 있다.<sup>33)</sup>

국문소설은 그 내용이나 주제 측면에서만 예술생활사에 기여한 것이 아니다. 국문소설은 국문으로 된 산문의 발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물론 국문소설은 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생생한 구어를 반영하지 못하고, 한문소설의 문체적 영향을 받아, ‘생활 언어의 문어화’<sup>34)</sup>를 통해 국문 문체를 형성해왔다. 그 덕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소설 문장을 형성할 수는 있었겠지만, 시가에 비해 생활어를 반영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예를 들어 가사는 처음부터 한글로 창작되고 한문 기록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누항사>에서와 같은 생활어를 대폭 수용할 수 있었다.<sup>35)</sup> 반면 소설은 한문소설이라는 선행 형태의 영향에서 자유롭

31)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2』(지식산업사, 2001) 122쪽.

32) 위 책, 148쪽.

33) 조광국, “한국고전소설의 작자”(이상택 외, 『한국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34) 이승욱, “국어에 대한 관심과 국어 사용의 확대”(『한국사상대계』 5, 정신문화연구원, 1992) 407쪽.

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문장체 소설 혹은 문어체 소설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산문 조직 방식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활발하게 일어난 판소리의 소설 정착을 이끌어냄으로써 이 약점을 크게 보완하게 되었다. 지문에는 여전히 문어체 흔적이 남아 있고 한자어구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판소리계 소설은 방언 및 비속어를 포함한 일상 생활어를 대폭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국문학사에서 진정한 의미의 구어가 기록문학화한 것은 판소리 텍스트에서 비롯한다<sup>35)</sup>는 말도 있거니와, 구비 연행 장르였던 판소리를 소설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문 산문의 발달에서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문소설은 한문소설과는 다른 다양한 수사적 표현을 더욱 발달시켰고, 그것을 인물 형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해학과 풍자라는 미학도 이런 수사적 뒷받침이 있어 더욱 발달했던 것이다.

이상으로 국문소설이 국어문화적 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문소설은 상대적으로 강한 통속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소설사에서 자기 고유성을 형성 유지해왔고, 장르적 구심성을 갖춰왔으며, 작품의 양적 비중도 압도적이었다. 이런 국문소설은 어문생활사 측면에서 국문 읽고 쓰는 능력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소설이라는 하나의 예술로서 독자로 하여금 예술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했는데, 그것은 예술 작품으로서 국문소설을 읽는 것과 필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문소설 이본을 형성하거나 아예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문소설의 국어문화적 위상은 다각도로 볼 수 있기에 여기서 본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국문소설은 한문소설과는 달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활용되었는바, 일본인의 한국어 교육에 소설들이 활용된 사례는 그 예이다. 그리고 국문소설이 주도한 경판과 완판 방각본은 국어문화의 매체 변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은 국문소설을 과거의 산물로서 보는 것이고, 현재적 관점에서 볼 때는 문화 콘텐츠로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또 아동문학으로도 새롭게 재구성되기도 했다.

끝으로 다소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국문소설이 수용되던 당시의 소통 방식도 하나의 문화 유산으로 보고 되살려 볼 수도 있다. 즉 소설을 혼자 소리 내어 읽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읽어주는, 일종의 연행적 독서는 오늘날 묵독 위주의 독서 환경에서 오히려 신선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근래 일본에서 문학 작품을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 ‘낭독 열풍’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본바가 있다.(한겨레신문, 2008년 4월 2일) 이메일과 인터넷 댓글 달기 등 ‘디지털 소통’이 앞서는 정보화 사회에서 오히려 육성 언어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 이 열풍의 배경이라고 한다. 이 점 이덕무의 글 일부도 참고가 될 것 같다.

35) 위 논문, 435쪽-436쪽.

36) 김병국, “국문소설의 문체와 구성”(황폐강 외,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449쪽.

### 3) 풍수와 역(易)의 관점에서 본 현대의 환경시(詩) / 송희복(진주교대)

이미 오래 전의 환경결정론자들은 자연환경의 요인이 문화적인 특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연이 인간에게 문화의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문화결정론자들은 동일한 자연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 부여와 상징체계를 통해 전혀 다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생태주의 시각에서 보자면, 환경결정론은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문화결정론은 그것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과 자연을 만나게 하는 중개자일 수도 있다. 생태주의의 시각에 의하면, 자연과 문화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오늘날은 생명의 악순환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이다. 이것의 증폭을 차단하기 위해선 생명의 선순환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생명의 선순환이 진행되는 문화는 생태적으로 건전하면서도 지속이 가능한 문화이다.<sup>1)</sup>

그 동안 분류학적인 차원에서 풍수설화를 인식해온 것은 있었지만, 문학의 사유와 담론을 풍수(학)의 패러다임에서 이해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 이 인용문은 문학의 사유와 담론 속에 풍수를 끌어들이야 한다는 최초의 (우회적인) 발언이 아닌가 한다.

문학 중에서도 풍수와 깊이 상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시 쪽이 아닌가 한다. 서정시와 풍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의 사상 배경 중의 하나는 동기감응론(同氣感應論)이다. 서정시와 풍수는 이것을 공유하고 있다. 사람 속에 있는 기가 하늘, 땅, 우주 만물의 기와 통하게 되면 그와 같은 힘을 얻게 된다.<sup>2)</sup> 소우주와 대우주가 늘 상응한다는 것. 우주론적인 영성의 콤비네이션이다. 서정시가 만물조응의 결과라면, 풍수는 물활론적인 상징체계의 표상인 거다.

풍수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친숙한 용어이다. 이것은 집이나 무덤 따위의 방위와 지형이 좋고 나쁨과 사람의 화복이 절대적 관계를 가진다는 학설, 또는 그 방위와 지형을 두고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풍수를 살펴보는 지관(地官)을 가리켜 풍수라고도 한다. 풍수의 역사는 꽤 오래 되었다. 이것은 고대의 중국에서 기원했다. 전국 시대의 말기에 발생한 풍수적인 사고 관념이 한대(漢代)에 이르러 음양설이 도입되면서 그 논리 체계를 갖추었고 남북조 시대에서부터 음택(陰宅) 이론이 덧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sup>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거주 장소인 양택(陽宅)에 대한 관심이 죽은 자들의 공간인 음택보다 기원적으로 앞선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풍수는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환경 적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풍수 사상은 음택 풍수가 상대적으로 승하여 본질을 왜곡해가면서 스스로 타락해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

풍수의 어원은 무엇일까? 과문한 탓에 잘은 모르지만, 장풍득수(藏風得水)라는 표현과 관련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바람을 잘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다는 것. 장풍득수라는 표현이 풍

1) 한면희, 『초록문명론』, 동녘, 2004, 295~300면, 참고.

2)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할인가』, 서해문집, 1990, 178면, 참고.

3) 권선정, 「풍수의 입장에서 본 취락입지」, 최창조 외, 『풍수, 그 삶의 지리 생명의 지리』, 푸른 나무, 1993, 235면, 참고.

수보다 먼저라면 풍수의 어원인 것이 맞다. 하지만 장풍득수가 풍수에 대한 하나의 부연 설명이라면, 풍수의 어원은 또 다시 미궁에 빠진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요, 그 다음이 바람이다. 풍수에는 생태 통로의 맥이 있다. 물과 산줄기와 바람이다. 물의 흐름과 바람이 흘러가 산줄기에 가두어지는 것은 기운이 생동하는 생명 에너지와 같다. 궁극적으로 볼 때, 풍수에서 물의 흐름이 으뜸이요, 바람을 가두는 게 버금이다.

우리나라에서 풍수가 좋기로는 천 년 전의 도참 비결서에서 이미 정도(定都)를 예견한 데<sup>4)</sup>서 알 수 있듯이 서울이다. 풍수의 으뜸인 물이 풍부하고, 물의 흐름이 더 없이 좋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대체로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형국을 보인다. 그런데 서울의 청계천은 서울 풍수의 주산인 백악(白岳)에서 나와서 내명당을 거쳐 동으로 흘러간다. 서출동류(西出東流)하는 역방향의 흐름새가 예사롭지 않아서 천하의 명당수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 풍수의 핵심은 산보다도 물이며, 또 객수에 지나지 않는 한강보다는 명당수인 청계천에 있다.

이 글을 통해 나는 청계천을 소재로 한 시 중에서 시인들의 풍수적인 생태관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에 내리는 / 비는 / 청계천으로만 흐른다 / 아픔과 굴욕으로 / 굳어진 / 나의 살갓을 깎고 벗기며 / 내리는 빗줄기 / 녹슬은 쇠못같이 / 한국의 빗줄기는 / 청계천 에만 흐른다

무거운 덮개를 쓴 채 / 목마르게 흐르는 / 청계천이여 / 아무도 볼 수 없는 / 어둠 속을 / 한 쪽으로 한 쪽으로 / 비밀처럼 밀려만 가는 / 청계천이여 / 역사가 분실한 온 갖 사물이 / 오물처럼 흐르는 / 이름만 아름다운 / 이제 / 이름만 남을 / 청계천이여

청계천에 / 떨어지는 / 빗소리는 / 못 치는 소리 같다 /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 신나게 못을 쏘는 로마 병사의 / 바로 그 소리 같다 / 청계천에 / 빗물이 / 숨 가쁘게 차면 / 나의 오십년은 / 분실물로 가득 차진다

—이봉래의 「청계천(3)」 전문<sup>5)</sup>

이 시는 명화로 손꼽히는 「육체의 길」(1965) 등의 작품을 남긴 영화감독으로서 사회적으로 활동한 시인 이봉래가 남긴 연작시 「청계천」의 한 편이다. 여러 가지의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 시는 1970년대 중반에 쓰인 것이다.

이 시의 화자는 극심한 환경오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본디 서정시는 ‘시자천지지심야(詩者

4) 비결서에 ‘삼각남면임한강(三角南面臨漢江)’이란 예언이 있다고 하나, 나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고, 다만 전언으로 들은 바 있다. 이 말의 뜻은 ‘(왕도를) 삼각산 남쪽을 면하게 하고, 또 한강을 임하게 하라.’는 것이다.

5) 이봉래, 『역광의 신』, 서문당, 1982, 55~7면.

天地之心也)'라고 하여 인간과 자연이 친화적이고 조화로운 지복(至福)의 상태에서 생의 의미를 깨는 것이다. 서정시의 동일성 이론에 의하면, 시의 향방은 다름 아니라 우주 생명의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는 것에 있다. 옥타비오 파스 역시 오늘날 서정시의 역할을 두고 시의 우주적인 리듬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인용시는 인간과 자연의 부조화의 표상인 청계천에 대한 문명비판적인 성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의 청계천은 반(反)풍수적인 타락의 양상을 보이는 그런 자연 대상물이다. 오십 년을 살아온 '나'인 서정적 자아와, 청계천이라는 이름의 타락한 세계가 어쩔 수 없이 맺어 있는 불화 관계는 우주 생명, 우주적 리듬에 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풍수는 기(氣)와 관련된 논리 체계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 기란 무엇인가. 이것은 서구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되지 않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 기란 것은 생활의 용어로서도 두루 쓰이고 있다. 예컨대, 기막히다, 기고만장하다 등과 같은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회남자(淮南子)』라는 책에 '기(氣)는 생(生)의 충(充)이다'라고 했듯이, 이것은 '생동의 충만'과도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에너지, 힘, 원기, 변화 등을 일컫는다.

풍수의 사상적인 지향성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하나는 기생태주의(Ch'-ecology)요, 다른 하나는 천지코스몰로지(Tiandi-cosmology)이다. 기생태주의에 의하면, 풍수관은 한의학적인 인체관을 지닌다. 사람의 인체는 기혈(氣血)이라는 에너지로 구성된다. 기와 혈이 흐르는 생명적인 통로의 맥은 경락과 혈맥이다. 풍수는 자연물인 지형과 물길에도 기혈과 같은 생명의 힘이 흐른다고 보고 있다.

풍수의 패러다임은 지(地)의 공간적인 사유를 특히 강조한다. 풍수에 있어서의 공간의 공은 관념적인 진공(vacuum)이 아니라, 기로 충만된 생명의 힘이 미치는 역장(力場)이다.

천지의 모든 사상(事象)은 고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서로 감응하는 관계 위에서 존재한다. 우주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 시인 장석주가 죽음 역시 삶의 원리 속에서 이해하고 변역(變易)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우주는 친화력으로 이름이 되는 모종의 원리에 의해 이룩해 가는 것이다.

대체로 보아서, 서양인의 사유 체계가 불변하는 개념의 절대 원리를 내세우는 것과 달리 동양인들의, 특히 중국인들의 그것은 변화의 원리에 충실한 절대 원리를 내세우는 감이 없지 않다. 변화와 변형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생기(生起)한다는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역(易)<sup>6)</sup>의 개념 내지 사유 체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십익(十翼 : 주역을 돕는 열 편의 보조적인 해설서)을 갖춘 후부터 역(易)에 철학 사상을 주입하여 '주역'이란 이름의 텍스트를 정본화(定本化)했다. 역은 이를 통해 덕을 쌓고 마음을 씻는 사상으로 발전되어 갔다. 역학 사상의 근본적인 윤리성은 유가(儒家)의 인·의·예·지의 논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역은 궁극적으로 천일합일의 사상을 지향한다. 요컨대, 이것은 천명과 천도가 인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을 바탕으

6) 역의 자의는 『비서(秘書)』라는 책에 나타나 있다. 역은 '일월의 합이며, 음양을 본뜬 것(日月爲易象陰陽也)'이라고 말해진다.

로 하늘과 신명과 인간이 서로 돕고 존중하면서 융화하는 것이다.<sup>7)</sup>

역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고전적인 전범이 바로 『주역(周易)』이다. (이 책의 이름이 영어로는 주로 ‘변화의 책’으로 번역되곤 한다.) 중국의 고대적인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이 옛 경전에는 소위 도(道)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도란 불변의 진리라기보다 상황에 따라 현실에 적응하는 피동적인 영감, 혹은 능동적인 직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닐까 한다. 주역은 기본적으로 음양(陰陽)의 이론에서 비롯한다. 주지하듯이, 음과 양은 생명에 관한 원초적인 상징체계이다. 조각난 획의 상징인 음은 여성적이며 에너지를 수용하는 쪽이다. 반면에 조각나지 않은 획의 상징인 남성적이며 에너지를 분출하는 쪽이다.

역은 변화 속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음과 양은 0과 1에 각각 해당하는 이진수 체계이다. 이것의 변형을 통해 수(數)가 인간과 세상을 지배한다는 암시를 제시하는 변화의 프로세스인 4상, 8괘, 64종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닐까. 존슨 양이 『DNA와 주역』에서 역의 수리적인 변화가 지닌 현대적인 의미와 그 해석의 가능성은 진폭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

음효(조각난 획)나 양효(조각나지 않은 획) 세 개가 모이면 모두 여덟 종의 조합이 가능하다. 3선형 두 개가 모이면 8의 제곱, 즉 64종의 조합이 가능하다. 주역에서의 이러한 조합 방식은 생물 세포의 DNA에서 염기가 세 개씩 조합되어 아미노산을 발생시키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sup>8)</sup>

DNA의 아미노산 코드가 64종이 된다는 방식이 주역에서 말하는 64종괘와 같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 DNA이든 주역이든 전혀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뭔가 신비한 수의 마법이 있음을 예감케 한다. 역의 사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그동안 오랜 세월을 걸쳐 동양의학, 점술학에서 그것이 많이 응용되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처럼 DNA 분야의 담론에도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문학 분야와 역의 사상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두루 아는 바처럼, 옥타비오 파스의 시 창작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것 중의 하나가 주역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시인 이성복이 19세기 전반기의 낭만주의 시인인 제라르 드 네르발(G. de Nerval)의 시 연구를 통해 역학적(易學的) 해석을 시도한 바 있으며, 또 자신의 시 창작에도 얼마간의, 또 간헐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인 이성복은 네르발 시의 연극성을 주목하였다. 여기에서 네르발 시의 역학적 해석이 시작된다. 그의 시로부터 전체의 변화와 생성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성복의 가설에 의하면, 네르발의 시의 총체적 극적 상황이 음양, 4상, 8괘의 구조와 무관치 않으며, 여기에서 하부 구조의 극적 상황들은 64괘와 같은 틀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 즉, 이성복은 네르발에게 있어서 시의 변화 과정과 세계관의 변화 과정은 간이(簡易)한 역의 원리에 의해 비교적 무리 없이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sup>9)</sup> 이성복에 의한 네르발 시의 역학적 해석은 다음

7) 윤태현, 『주역과 오행 연구』, 식물추장, 2002, 67면, 참고.

8) 존슨 양 지음, 인창식 옮김, 『DNA와 주역』, 몸과마음, 2002, 26면.

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역은 표층에 가리워진 심층의 구조를 읽는 방법을 제시하는 여러 교과서들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우주 자연과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순 네 가지 원형적 상황들의 유기적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역의 체계는 특히 문학 작품 속에 내재하는 상징체계 혹은 ‘이미지의 그물’을 드러내는 작업에 있어서도 그 근거의 틀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이성복은 네르발 시의 연구를 통해 수용된 역의 원리가 문학 작품 속에 내재하는 심층적인 부분들, 즉 상징체계 혹은 ‘이미지의 그물’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적인 비평 이론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 작품을 해독하는 읽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위 역학적 해석도 또 다른 읽기 방식의 하나라는 것이다.

우리 육체의 집을 지어도 그 문가에서 서성거리는 것은 마음의 집이 멀리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의 집을 찾아가도 그 문가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제 집을 찾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비울수록 무겁고 다가설수록 멀어라!

— 「집」 전문<sup>11)</sup>

시인 이성복이 쓴 시편 「집」이다. 그의 세 번째 시집 『그 여름의 끝』(1990)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내가 이 시를 인용한 것은 이 시가 주역과 상관이 있어서다.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역을 해설하는 말에는 인명(因明)의 구문이 많다. 예컨대 ‘……함은……하는 것이다’나 ‘……하는 것은……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그것이다. 누이동생을 시집보내는 데 날짜를 미루니, 늦게 시집가는 것은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귀매괘’의 한 효사(爻辭 : 전체상황의 상징인 괘보다 더 구체화된 상징인 효의 말이다)의 예문이다. 이것은 ‘군주에게 함부로 나아가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sup>12)</sup>로 해석되는 하나의 상징 표현이다. 우리 육체의 집을 지어도 그 문가에서 서성거리는 것은 마음의 집이 멀리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시인 이성복이 주역의 해설서를 많이 읽었다는 증좌인 셈이다. 앞의 예문과 구문이 같지 않은가.

속옷만 입은 우리 아이가 밖에서 놀고 있는데 아이가 무섭다고 기겁을 하는 것을 보니 아이보다 훨씬 큰 뱀돼지가 한 마리 화살통 같은 입을 세우고 달려오기에 영겁결에 몽둥이를 들어 심하게 내려쳤지만 꿈쩍도

9) 이성복, 『네르발의 시 연구-역학적 해석의 한 시도』, 문학과지성사, 1992, 331면, 참고.

10) 같은 책, 332~3면.

11) 이성복, 『그 여름의 끝』, 문학과지성사, 1990, 23면.

12) 심익용, 『주역과 운명』, 살림, 2004, 19면.



않아 누가 옆에서 갖다 준 도끼로 여러 번 찍고, 또 찍고 그러고 나서 들여다보니 도끼에 찢긴 어쨌죽지에 피 묻은 속옷이 너털거리고 정말 그것은 피투성이가 된 우리 아이의 무참한 모습이었습니다

— 「역전(易傳) 3」 전문<sup>13)</sup>

이 시는 제목부터가 주역과 상관성을 가진다. 역전(易傳)은 주역의 일부로서 주석서를 뜻한다. 이것은 부수적이고 기생적인 해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없지 않지만 그 이상의 가치 또한 없지 않다. 이를테면 거기에는 주석자들의 ‘철학의 철학, 즉 메타-철학적 자세’<sup>14)</sup>가 수용해 있기 때문이다. 인용한 이성복의 시편 「역전(易傳) 3」은 주역의 가상적인 세계 경험에 대한 메타-철학적인 시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참과 공포의 극대화를 노린 이 시적 전망에는 암울하고도 비관적인 세계관이 투입해 있다. 역의 사상이 점술(占術)로도 변형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거니와, 이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인용시는 대흉(大凶)의 불길함을 언표하는 형식의 시라고 말해진다.

인생이란 미지의, 혹은 불가해한 세계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다양한 은유와 상징이 존재한다. 인간은 이를 통해서 인생을 이해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은유를 역경 언어의 핵심이라고 말한 이도 있다.<sup>15)</sup> 역경이라고 함은 주역과 역전을 가리킬 것이다. 앞엿것이 상징적인 부호 중심의 재현 텍스트라면, 뒤엿것은 은유 방식의 언어 중심의 설명 텍스트이다. 천둥소리가 진동해서 만물의 힘을 돋우며, 바람이 불고 비가 오으로써 만물은 윤택해진다. (옥타비오 파스는 이 표현을 이용하여 시를 쓴 적도 있다.) 이러한 유의 표현을 두고 볼 때, 우리는 역의 언어가 매우 시적임을 알 수 있겠다.

이성복의 시 중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은유와 상징의 언어 체계로써 하나의 시심을 얻은 적이 있었다. 완성도가 매우 높은 시라는 판단이 서서, 내가 오래 기억해온 시다. 다음의 시를 보자.

나방이 한 마리 벽에 붙어 힘을 못 쓰네 방바닥으로 머리를 향하고 수직으로 붙어 숨 떨어지기를 기다리네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갔다 온 사이 벽에 나방이가 없네 그 몸뚱이 데불고 멀리 가지는 못 했을 텐데 벽에도 방바닥에도

나방이는 없네 아직 죽음은 수직으로 오지 않았네 잘 살펴보면 벽과 책꽂이 사이 어두운 구석에서 체 몸집만큼 작고

노란 가루가 묻은 죽음이 오기를 기다리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은 슬프지 않아라, 슬프지 않아라

—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 전문<sup>16)</sup>

13) 이성복, 『그 여름의 끝』, 앞의 책, 60면.

14) 문용직, 『주역의 발견』, 부 . 키, 2007, 244면.

15) 같은 책, 278면, 참고.

16) 이성복, 『호랑가시나무의 기억』, 문학과지성사, 1993, 61면.

누구나 이 시를 보면 은유와 상징의 언어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죽음을 운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하루살이 나방은 슬프지 않다. 그러나 이를 투사하고 있는 사람만이 슬픔의 감정에 휩싸일 따름이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미물의 죽음은 ‘작고 노란 가루가 묻은 죽음’일 뿐이다. 이 시가 묘사하고 있는 풍경이 역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역의 운행 원리에 의거하기 때문이다. 동양철학자 이즈츠 도시히코는 역의 의미를 이렇게 말한 바 있었다. 역은 무한한 동적 과정, 우주적 유동, 존재론적 유동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 유로부터 출발하여 무에 이르고, 무에서부터 유로 돌아오는 것, 사람의 눈에 반영된 리얼리티의 존재론적 풍경인 것.<sup>17)</sup> 이 말과의 연관성을 한 번 생각한다면, 이성복의 시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죽음」은 역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주역 전문가인 문용직은 『주역의 발견』이란 책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주역의 관점에서 말한 바 있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자. 이 개념은 본질적으로 매우 은유적인 개념이다. 인생은 어떤 목적지로 향하는 여행. 죽음은 밤이나 어두움, 차가움뿐만 아니라 출발로 간주된다. 그렇지 않은가? 곧괘 초육(初六)의 효사인 이상(履霜) 견빙지(堅氷至)는 이 점에서 쉽게 이해된다. 그 언젠가 내 친구가 죽었을 때 나는 물어봤다. 주역에게 물어보았다. 죽음이란 무엇이냐고. 역경의 답은 이랬다. 서리를 밟으니 곧 얼음이 얼겠음을 알겠다. 곧 곧괘 초육(初六)의 효사, 바로 그것이었다. 하! 슬픔 넘어선 설움!<sup>18)</sup>

서리를 밟으니 곧 얼음이 얼겠음을 알겠다. 역의 언어는 이처럼 비유적이고 시적이다. 죽음은 슬픔을 초월한 그 무엇이다. 하루살이 나방의 죽음도 슬픔을 넘어선다. 서리를 밟은 다음의 결빙된 서러움. 슬픔도 일종의 동적인 과정이다. 그것이 정지된 결빙의 순간에 슬픔은 사라지고, 다만 서러움만이 남는다. 죽음으로 향해 움직여 서서히 기다리는 그 나방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기에 슬픔을 남기지 않는다. 김영석의 시 「고요의 거울」 가운데, “고요의 거울 속 / 꽃가지 그림자에 / 작은 벌레 한 마리 기어갑니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를 가리켜 문학평론가 김유중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 바 있어서, 나에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고요 속에서도 끊임없이 모든 것들이 제 나름의 운행 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변하는 것을 보면 그것들은 움직이는 질서가 분명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움직임의 질서가 바로 역(易)의 질서이며 원리이다.<sup>19)</sup>

작은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 것에서도 움직임의 질서를 관찰한 비평적인 직관이 예사롭지 않다. 역은 이처럼 우주 생명의 진실을 은유하거나 상징한다. 모든 생명 현상은 질서와 혼돈의 상호작용이 빚어낸 결과이다. 생명력의 근원은 음양의 하모니에서 비롯된다.

역은 대립과 통일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천지의 모든 사상(事象)은 고립해서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상호작용하는 관계 위에서 존재한다. 이른바 모순의 동일성이다. 우주의 모든 것은 변

17) 이즈츠 도시히코 지음, 김동원 옮김, 『동양철학의 심층분석』, 솔밭, 1991, 40면, 참고.

18) 문용직, 앞의 책, 247면, 참고.

19) 김유중, 「도(道) · 역(易) · 시(詩)」, 『문학청춘』, 2012, 여름, 52면.

화의 원천이 된다. 일월성진과 산천초목이 서로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를 이끌어간다. 우주는 이와 같은 친화력의 원리에 의해 이룩해 가는 것이다.<sup>20)</sup>

이렇게 본다면, 역의 근본 원리는 서정시의 동일성 이론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다. 주지하듯이, 서정시는 자아와 세계의 경계 없는 화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시인 조지훈의 시편 「화체개현(花體開顯)」에서 보듯이, 신화적인 축제의 순간 같은 꽃 피우기야말로 우주 생명의 진실을 드러내는 서정시의 본질이 아니던가. 이것은 소우주(자아)와 대우주(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측량할 수 없는 심연의 상호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요컨대 역과 서정시는 서로 다른 이름의 '코스모바이올로지(cosmobiology)'인 것이다.

그러나 이성복이 역의 원리에 바탕을 둔 시를 쓰려고 했으나 미완의 단계에 머물고 말았다. 그래도 그의 이러한 시도는 매우 참신하였다고 본다.

20) 노태준 역해, 『신역 주역』, 홍신문화사, 207~8면, 참고.

#### 4) 한국 현대소설과 생태학 / 임명진(전북대)

근본생태론자들은 인간중심주의나 개체주의를 배격한다. 이 점에서 동양의 도가(道歌)사상과 서양의 스피노자 사상의 맥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도가는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은 하나의 근원(도)에서 유래하며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변화하는 거대한 유기체로 간주하고, 그래서 자연을 인간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인간과 우주의 근원과 법칙을 함축하는 존재로 파악하였다(cf. 정진일, 2001). 이런 관념은 서양의 경우 개별적인 사물들의 신(神)을 인정하면서도 그 신들 간의 위계질서를 부정함으로써 자연물의 평등을 주장했던 스피노자 철학과 상통한다.

네스 등의 생태론자들은 인간주의·개체주의·이성주의와 기계론적 가치관의 맹점을 지적하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물이 유기체적 관계의 장(場)을 이루고 있어서 서로 공생과 평등이 그 생명성을 보장한다고 보고, 이를 정리하여 ‘생물권 평등주의’를 제창하였다.

인간은 자신에 잠재된 내적 본성이라는 자신의 독립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자아를 지니고 있고, 이것이 객체인 세계/타자와의 부단한 관계 설정을 통해 자아실현 과정을 겪는다. 전통적으로 세계/타자와의 관계 설정은 이원적 가치관에 따른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근본생태론자들은, 분리·대립·경쟁의 법칙보다는, 일원론적 세계관에 따라 자아실현 과정에서 동일화(identification)의 반경을 무한으로 확대해가는 법칙을 강조한다.

자연만물을 형이상학적 전일론(holism)로 파악함으로써, 한 개인의 자아는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자연 전체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되고 의식의 동심원이 더욱 커져서, 자아·가족·이웃·지역사회·민족·인류·우주로 확장된다고 본다. 즉, 보통의 자아(self)는 이런 확장 과정을 거쳐 인류와 동식물 및 산·강·바다 등을 포괄하는 ‘대자아(Self)’에 이르고, 여기에서 진정한 자아실현(Self realization)이 이루어진다고 본다(cf. 한면희, 2006)

근본생태론은 철학 체계를 세우는 데에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인류의 당면한 문제인 성(性)차별·계급갈등·경제구조 등에 관해서는 확실한 견해를 표명하지 못한다는 자각이 생태론 내부에서 일어나고, 이를 보완하고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 결과로 대두된 것이 1980년대 이후의 사회생태론(social ecology)이다.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을 필두로 데이비드 왓슨(David Watson), 한스 요나스(Hans Jonas) 리처드 레빈(Richard Levin), 제임스 오코너(James O'Connor) 등은 현대의 생태 위기가 세계관 때문이 아니라 사회문제에서 야기되었다고 보고, 기존의 아나키즘·마르크시즘·사회주의 등을 접맥시켜 정치·경제·사회적 현안들을 생태적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sup>21)</sup>

사회생태론에서는 인간의 이성(理性)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이로써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성찰적인 활동으로 인간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정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과정에는 ‘자유자연으로의 진화’, ‘도덕 경제 실현’, ‘대안공동체와 지역자치주의’ 등의 구체적인

21) 그 바탕사상에 따라 생태사회주의, 생태마르크시즘, 에코페미니즘 등으로 세분되기도 하지만, 크게는 사회생태론으로 묶이고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사상으로는 아나키즘을 꼽을 수 있다.

실현 방법 등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사회생태론자들에게 있어 생명이란 스스로 조직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이 자기 조직화의 능력을 변증법적으로 조절한다고 보았다. 자연은 이 조절과정을 발전적으로 진보시킬 때 '1차자연', '2차자연', '자유자연'으로 진화한다고 보았다. 이 세 자연은 과정적인 연속체로 개별화되어 있지만, 공존하면서 각각 독자적인 영역을 지닌다. 일반적인 자연으로서의 1차자연과 여기에서 생겨난 인간문화 전반에 해당하는 2차자연의 관계는 '자유자연'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금껏 도구적 과학기술은 인간과 자연을 착취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그간의 지배/착취의 역사 전개를 자유의 역사 전개로 전환하기 위해서 자연의 생명력(자기 조직화의 능력)을 확대하도록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하는 것이 이른바 '참여적 진화'이고 생명력 확대(생물다양성 증대, 생물 종간의 상보성, 생활상태의 부단한 분화 등)의 원리가 2차자연에서 자유자연으로의 진화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2차자연의 생명력 위축/고갈의 주원인인 약육강식의 지배원리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cf. Bookchin, Murray, 1997 : 257~269).

그러다보니 약육강식 원리에 입각한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요구되고, 결국 사회생태론자들은 자유자연으로의 적극적 진화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경제·사회구조를 대안 체제로 상정하게 된다.<sup>22)</sup>

사회생태론자들은 생태 위기의 근원(根源)이 기존 시장경제체제의 부도덕성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익명성을 폐기하고, 생산과 소비 개념을 재정립하며, 나아가 생태적합적 과학과 기술을 만들어가는 데 있다(문순홍, 1999 : 153). 상품의 본래 목적(사용가치)이 상실되어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이에 따라 토지와 노동이 자본에 흡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장장경제의 부도덕성이 심화되었다고 보고, 이 해결방안으로 과거 공동체 사회에서 실현되었던 도덕 경제의 원리를 주목한다. 그러나 고대사회의 공동체 경제를 복원하기보다는 거기에 작용했던 '자유'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서 '소비자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참여적 공동체 연대'를 주장한다.(Bookchin, Murray, 1997 : 274~7)

사회생태론자들이 제안하는 정치공동체는 자유로운 인간 활동을 산출하는 곳으로서 '불평등한 것들 간의 평등'이 보장된 사회적·정치적 공간이다. 오늘의 정치는 시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다고 보고, 현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반감과 반대급부로 직접 민주주의에

22) 여기에서 '자연의 참여적 진화'는 '능산적 자연'(能産的自然, Natura Naturans)이라는 전통적인 철학 용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능산적 자연관은 자연을 역동적이고 합목적적인 것으로 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유래한 관점이다. 현대생물학에서 목적론적 의미를 가진 진화론은 능산적 자연관을 그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상대되는 소산적 자연관(所産的自然, Natura Naturata)은 자연을 조물주가 이데아, 즉 수학적 조화의 원리에 따라 만든 완성품이라고 본 플라톤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근대 이후의 기계론적 자연관이나 기계적 결정론은 이런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중세 스콜라 철학에서 능산적 자연은 창조자로서의 신을, 소산적 자연관은 창조되는 자로서의 자연을 의미했지만, 스피노자는 이 두 개념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더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범신론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스피노자는 무한하면서도 역동적·능동적·창조적 실체로서 합목적적으로 작용하는 자연을 능산적 자연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가변적·수동적·양태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을 소산적 자연이라고 해석했다. 『철학사전』(중원문화, 2009) 참조

대한 관심이 크다. 대안 정치공동체로서 참여민주주의 대의원 제도를 지향한다.

이들은 정치의 목적을 ‘국가의 힘 기르기에 두지 않고 시민의 힘 기르기’에 둔다. 그러므로 이는 민주화된 정치이고 생태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정치는 단순히 공적인 합의를 제공하는 기제가 아니고, 시민들의 생명력을 증대시키는 자유 활동이다. 결국 이들의 대안체는 지역적 소규모적 참여 형식을 지향한다.(Bookchin, Murray, 1997 : 270~4)

소설에서 인물이 ‘배경’을 벗어나 존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소설의 인물과 배경과의 관계는 밀접하다는 말로는 적합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인물은 어떤 식으로든지 ‘배경’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 배경은 인물의 생태적 환경이라 할 만하다. 거기에는 ‘자연적 환경’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문화적 환경도 있고, 또 역사적 환경도 있다. 근본생태론적 관점에서 소설을 본다면 ‘자연적 환경’을 중시하겠지만, 사회생태론적 시각에서는 사회·문화·역사적 환경을 더욱 주목할 것이다.

인물과 그 ‘환경’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소설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신화·전설·고대소설과 같은 근대 이전의 서사물에서는 인물과 환경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다. 즉 인물이 환경에 영향 받거나 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미약하거나 없기도 하다. 그런 매우 미약한 상호관련성 안에서 굳이 그 차이를 밝힌다면 신화나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초월적 인물은 자신의 환경을 압도적으로 지배하지만, 보편적 인물이 등장하는 서사에서는 환경에 인물이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조정래, 1991 : 41~47)

근대소설에 이르러 인물과 환경의 관계가 소설의 플롯 형성에 작용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커진다. 서정적 소설에서처럼 인물과 환경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 융화되는 경우도 있고, 인물이 환경으로부터 소외되거나 굴복당하는 자연주의 리얼리즘 소설도 있으며, 인물과 환경이 서로 대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결도는 모더니즘 소설도 있고, 또한 인물과 환경이 서로 길항하거나 대립하는 비판적 리얼리즘 소설도 있다.(조정래, 1991 : 48~61) 근대소설에서는 인물과 환경의 상호관련성이 소설의 플롯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태론이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란다면, 인물과 그 배경과의 관계를 통하여 소설의 플롯을 점검하고자 하는 소설론과 상통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생태론이든 소설론이든 공히 사람의 문제에 주목하고, 그 문제를 환경이나 배경과의 관계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간 소설론에서 ‘배경’은 ‘인물’·‘사건’과 더불어 구성의 한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근대소설 이후 ‘배경’의 비중이 갈수록 커졌고, 그에 따라 ‘배경’과 관련된 문학 이론도 발전되어 왔다.

루카치의 소설론은 이제 이미 고전 이론이 되었지만, 아직도 근·현대소설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전히 유효한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총체성(totality)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해도 소설의 존재를 함목적적으로 선명하게 해준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 그리고 그 “별빛이 그 길을 흰히 밝혀 주던 시대”(Lukács, G., 1989 : 29)였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세계와 자아, 천공(天空)의 불빛과 내면의 불빛은 (중략) 서로에 대해 결코 낯설어지는 법이 없”(같은 책, 29)이며, 그래서 “존재

와 운명, 모험과 완성, 삶과 본질은 동일한 개념이 된다.”(같은 책, 30) 루카치는 『일리아드』나 『오딧세이』 같은 서사시가 생겨날 당시에는 이런 총체성이 충만했던 것인데, 그 뒤에 그런 총체성이 파괴되거나 상실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그래서 근대 이후 소설은 이런 잃어버린 총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자 시도된 장르라고 강조한다. 서사시가 그 자체로 완결된 삶의 총체성을 형상화한다면, 소설은 형상화하면서 숨겨진 삶의 총체성을 찾아내어 이를 구성하고자 한다.(같은 책, 76)

그래서 소설 내 인물은 총체성이 상실된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근원적으로 총체성이 충만한 세계를 동경한다. 그가 자신의 환경과 불화의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은 곧 그 환경에 총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환경을 총체성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신의 환경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해나가기 위하여 이른바 ‘문제적 인물’이 된다. 그래서 “소설의 주인공은 언제나 찾는 자이다.”(같은 책, 77) 즉 그는 “자신의 형이상학적 고향을 향한 충동”(같은 책, 78)에 의해 부단히 탐색하는 여정을 겪어나간다.

모든 사람은 공간과 장소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 또는 특히 감동적인 경험을 가졌던 장소와 깊은 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이푸 투안(Yi-Fu Tuan)은 ‘장소’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는 ‘공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전자가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후자는 정지된 안정된 곳으로 규정한다. 또한 그는 공간은 추상적·관념적 개념이라면, 장소는 경험적·실재적 개념임을 분명히 한다.(Tuan, Yi-Fu, 1995 : 15~22) 또한 그는 인간이 실재하는 장소에서 비로소 장소감(sense of place)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더욱 친밀한 장소 경험을 거쳐서 이른바 ‘장소애(topophilia)’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면서, 고향에 대한 애착은 이런 장소애에 기반함을 역설한다.(같은 책, 239~260)

렐프(Relph, Edward)도 같은 맥락에서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그 장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행위에 견주어 장소를 파악하고자 한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사실 사건과 행위는 장소의 맥락에서만 의미 있으며, 사건과 행위가 장소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만, 장소의 성격에 의해 사건과 행위가 윤색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 (중략)

그러므로 장소는 인간의 모든 의식과 경험으로 구성된 의도의 구조에 통합된다. (Relph, Edward, 2005 : 102~3)

렐프는, 더 나아가, 장소는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경험의 질서를 부여하는 기본 요소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장소에는 인간의 의도·태도·목적이 모두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같은 책, 104)<sup>23)</sup> 그렇다면 인간과 장소는 그저 단순하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인간의 의식적 목적과 무의식적 지향이 함께 결부되어 상호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능동적이고 창조

23) 이런 이푸 투안과 렐프의 주장에 힘입어 이른바 ‘장소이론’이 생겨나고, 이는 인간과 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양상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한 점에서 그 이론의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역사주의를 넘어서서 로 칼리티 연구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적인 작용을 하는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문명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장소감을 상실하도록 한다고 렐프는 지적한다. 그는, 인간과 장소가 진정하지 못한 관계에 있을 때 장소감이 상실되어 이른바 ‘무장소성(placelessness)’에 처해진다고 전제하고, 현대문명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중 문화, 대기업, 정치 권력, 경제 체제 등이 ‘무장소성’을 부추긴다고 진단한다.(같은 책, 175~238)

그런데 이런 무장소성을 부추기는 요인들은 모두 현대 물질문명/자본주의의 총아로 불리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는 현대사회에서 무장소성은 필연적인가 자문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소의 진정성(authenticity)’ 복원을 들고 있다.(같은 책, 292~8)

한국 소설가 중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표상해내는 데 주력한 사람은 이효석·정비석·오영수 등이다. 특히 이효석의 대표작에 속하는 「메밀 꽃 필 무렵」, 「산」, 「들」(이상 1936) 등은 이러한 경향을 가장 강하게 드러낸다.

눈에는 어느 결엔지 푸른 하늘이 물들었고 피부에는 산 냄새가 배었다. 비심할 때의 짙북데기보다도 부드러운 나뭇잎 - 여러 자 깊이로 쌓이고 쌓인 깨금잎 가랑잎 띄갈잎의 부드러운 보료 - 속에 몸을 파묻고 있으면 몸뚱어리가 마치 땅 속에서 솟아난 한 포기의 나무와도 같은 느낌이다. 소나무, 참나무 총중의 한 대의 나무다. 두 팔은 뿌리요, 두 팔은 가지다. 살을 베이면 피 대신 나무진이 흐를 듯하다. 잠자코 쉰 나무들의 주고받는 은근한 말을, 나뭇가지의 고개짓하는 뜻을, 나뭇잎의 소곤거리는 속심을, 총중의 한 포기로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해가 쪼일 대에 즐겨하고 바람 불 때 농탕치고, 날 흐릴 때 얼굴을 찡그리는 나무들의 풍속과 비밀을 역력히 번역해 낼 수 있다. 몸은 한 포기의 나무다.

—이효석의 「산」에서

산속에서 생활하는 주인공 중길이는 이미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있다. 중길이는 나무와 소곤거리고, 교감할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는 피 대신 나무진이 흐를 정도로 일체화되어 있다. 물론 중길이가 입산한 데에는 ‘막중골’에서 머슴살이할 때 주인의 첩과 내통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듯이 주인집을 나온 속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는 입산의 동기 부여일 뿐이고 여기에는 어떠한 계급 갈등도 끼어들지 않는다. 중길이는 간혹 생필품이 필요해 저자 거리를 다녀오기는 하나 다시 산에 들어오면 더욱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는 산 속 생활을 위한 계획을 착실히 세운다. 양지바른 곳에 초가를 짓고, 밭을 일구고 아랫마을 용녀를 불러 들여 가정을 꾸릴 것을 꿈꾼다. 별을 세면서 평안히 잠자리에 빠져들면서 그의 꿈은 더욱 행복한 지경으로 상승한다.

이런 꿈이 달성된 경우가 정비석의 「성황당」(1937)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 현보와 순이는 평안북도 천마령 안골짜기 산 속 외딴집에서 숲을 구워 살아가는 젊은 부부이다. 이들은 문명과 차단된 산속에서 둘이서 자연인으로 살아간다.

현보를 낳아 준 것도 산이었고, 현보를 먹여 살리는 것도 산이었고, 현보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간 곳도 산이 아니더냐? 현보는 산 없는 곳에서는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았다.



(중략)

도끼를 번쩍 들어 뒤로 건줄 때마다 딱 버그러진 구릿빛 앞가슴의 근육이 불끈 내쫓았다가는, 도끼를 탁 내리갈기면 어깨죽지가 불쑥 부풀어 오르고 그와 동시에 장작이 팡 하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번 내리갈길 때마다 도끼 소리는 찌르렁 산에 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찌르렁 하고 맞은 편 산에서 메아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정비석의 「성황당」에서

현보와 순이의 삶은 야성(野性)에 가깝다. 생계를 위해 숲을 굶기는 하지만 그밖의 그들의 삶은 산속의 길짐승처럼 자연스럽다. 그들은 천마령 안골짜기에 깃든 한쌍의 길짐승이다. 산림간수 김주사가 끼어들면서 그들의 평온한 생활에 잠시 풍파가 일기는 하지만, 성황당으로 상징되는 샤마니즘적 낙관성이 이를 무마해버리고 그들은 다시금 그 야성적이면서 평온한 자연 세계로 복귀한다.

「성황당」과 매우 유사한 경우를 오영수의 「메아리」(1959)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동옥 부부는 피난지에서 온갖 핍절을 겪고 도피하다시피 지리산 산골로 들어온다. 빨치산 토벌로 폐허가 된 산골에 들어와 움막을 짓고 버려진 농토를 개간한다. 이들의 산골 생활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단순한 농사와 수렵 채취에 불과하지만 이런 소박한 일상으로 전쟁 후의 간난신고를 일거에 해소하고 안정과 평온을 되찾는다.

산은 너그럽고 허물이 없어 좋다

이런 일도 있다.

여름 동안은 매일 같이 뒷개울로 땀을 씻으러 가기 마련이다. 움막에서 훤히 벗고는 앞만 가리고 그대로 올라간다. 언젠가는 동옥이 그의 아내의 등을 밀어주다가,

「요즈막 살쨍다.」

그러면서 궁둥이를 한 번 찰싹 때렸다. 그의 아내는 킁! 하고 돌아앉으면서 동옥의 배 밑으로 마구 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동옥은 보란 듯이 그대로 버티고 섰다. 연거푸 물을 끼얹던 그의 아내는,

「어머나, 무서라!」

그리고는 돌아앉아 버렸다. 동옥은,

「임자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야!」

「에구, 인사는 무슨....., 암치머리도 없이.....」

이날 동옥은 기어코 알몸인 그의 아내를 알몸에 업고 내려오면서,

「당신이 나를 업으면 어떻게 되지?」

「망칙해라!」

이틀 후에 비가 왔다. 동옥 아내는 한 광우리나 송이를 땀다.

—오영수의 「메아리」 중에서

인간이 자연의 원시성과 야성(野性)에 근접하는 대목이다. 인간과 자연의 친화를 넘어서 인간의 삶이 자연의 일부로 동화된다. 동옥 부부의 산골생활은 문화적 행위라기보다는 자연적

현상에 가깝다.

자연 친화/동화를 다룬 작품에서 인물의 현실 인식은 생략되거나 압축되어 있다. 자연이라는 세계 속에 현실적 문제는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두메산골로 쫓기듯 들어온 인물들이지만, 그 동기는 후경화되어 있고 산골 생활 자체가 전경화되어 있는 탓이다. 작가 역시 인물과 현실과의 대결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이 계열 작품에서 현실과의 대결에서 패배상을 보이는 인물이 간혹 등장하지만, 이는 인간이 자연의 원시성과 야성(野性)에 동화되는 동기와 원인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계열의 작품들은 인물과 환경의 화해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추구한다.

이상의 이효석·정비석·오영수의 일련의 소설들을 ‘서정적 소설’이라 명명할 수 있다.(문홍술, 2006 : 38~40) 그리고 이런 서정적 소설에서는 주인공은 환경과 별다른 갈등을 겪지 않는다. 그들은 자연에 동화되어 이른바 ‘생명중심적 평등’을 이룬다.

김유정의 「산골」(1935)과 「동백꽃」(1936)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상화되어 있기는 하나, 그의 대부분의 작품들의 인물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불화의 관계를 맺는다. 그의 소설 대부분은 농촌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농촌은 가난한 농민들의 절박한 현장이며, 그래서 그들은 원치 않지만 그 농촌을 떠나기도 한다.

그들은 강길로 향한다. 개울을 건너 불거져내린 산모퉁이를 막 뚫들려 할 제다. 멀리 뒤에서 사람 우기는 소리가. 끊일 듯 말 듯 간신히 들려온다. 바람에 먹히어 말소리는 모르겠으나 재없이 덕돌이의 목성임은 넉히 알 수 있다.

“아 얼른 오게유.”

뚝끝이 마르는 듯이 계집은 사내의 손목을 겹겹히 잡아끈다. 병든 몸이라 끌리는 대로 뒤뚱거리면서 거저도 으스스한 산 저편으로 사라진다. 수은빛 같은 물방울을 품으며 물결은 산벽에 부닥뜨린다. 어디선지 지정치 못할 늑대 소리는 이 산 저 산에서 와글와글 굴러내린다.

—김유정의 「산골 나그네」에서

김유정 소설에는 노름꾼·들병이·투기꾼·만무방 등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소외된 인물들이 다수 등장한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 유랑하면서 기약 없는 삶을 이어간다. 그들은 너무나 가혹한 현실 앞에서 윤리와 교양은 사치스러워진다.

오영수는 초기소설에서는 인물과 환경의 화해로운 관계를 표상하였지만, 60년대 이후 그 화해가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은넛골 이야기」(1961)에서 ‘은넛골’이라는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가혹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 이전 「갯마을」(1953)이나 「메아리」(1959)에서 표상된 평온하고 친화적인 자연이 아니라, 사람의 생존을 시험하고 위협하는 자연으로 바뀐다. 그의 후기소설에서 더 이상 자연친화적인 작품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작가의 이런 변화된 자연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승원도 녹록치 않은 자연을 환경으로 등장시킨다. 그의 소설에는 바다가 자연환경으로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서 바다는 삶의 현장이다. 즉 인물의 환경이다. 등단작 「목선

」(1968)도 그렇고, 그의 대표작 「아리랑 별곡」(1977)도 그렇다. 여기에서 인물은 바다라는 환경 속에 식물처럼 서식하고 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인물과 환경이 화해를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바다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그래도 그들은 그 바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승원의 바다는 삶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쌓여온 한이 커커이 중첩된 장소이기도 하다.

이 세 작가가 자연을 표상하는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그 인물들과 환경과의 관계설정 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인물들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 장소애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더 이상 자연은 화해로운 환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서는 그런 불화의 양상이 작품의 말미에 집중적으로 제시됨으로써, 그것의 구조적인 문제 등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인물과 환경의 불화 양상을 전제로 제시하고 스토리의 전개과정에서 그것의 구조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이문구·조세희·윤홍길·황석영 등의 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문구의 「관촌수필」 연작의 핵심은 급격한 산업화 과정과 거기에서 비롯된 고향상실이다. 잃어버린 고향을 거슬러 올라가 그것의 원형을 복원하려는 열망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열망은 실현되지 않는다. 산업화의 빛에 의해 가려진 농촌 붕괴의 실상을 역으로 재현함으로써 고향상실의 안타까움을 더욱 실감나게 표상한다. 「우리 동네」 연작에 오면 그런 실감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리동네 황씨」(1977)에서는 「마실문화」를 사라지게 한 텔레비전, 의례적인 절차에 얽매인 행정, 농민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된 말단 공무원 등을 내세운다. 황씨는 끝내 자신의 환경과 화해하지 못하고, 적개심과 불만을 즉흥적으로 토로하는데 그치고 만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6)에는 환경으로부터 극단으로 소외된 소수자로서 난장이가 등장한다. 주인공 난장이 사내는 채권 매매, 칼 갈기, 펌프 설치, 수도 고치기 등 일시적인 단순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도시 빈민으로 무허가 판잣집에서 가족들과 근근이 연명하는데, 이 집이 도시 재개발의 명목으로 철거되고, 결국 난장이 김불이는 산업화 과정에서 부랑노동자로 떠돌다 공장 굴뚝 꼭대기에서 몸을 던져 추락사한다. 그의 아들 영수가 공장 노동자로서 가족 생계를 이어가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다 노조 활동을 주도한다. 그러나 사주 측의 방해로 좌절하고 끝내는 사형선고를 받기에 이른다. 이 작품은 인물과 환경의 극단적인 불화관계를 보여준다. 못가진 자(난장이, 피해자)와 가진 자(거인, 가해자)의 대립을 통해 사회적 모순을 그려내고 있고, 여기에 팬지 꽃과 폐수를 대비시켜 문학적 상징을 강화하고 있다. 팬지 꽃과 폐수으로써 문학적 향취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서의 계급 모순도 선명하게 부각되어 있다.

윤홍길의 「장마」(1973)는 「분단소설」로 널리 알려졌지만, 「아홉 켄레 구두로 남은 사내」(1977)는 그를 리얼리즘 작가로 재평가되도록 해주었다. 이 작품의 주인공 권씨는 애초에는 평범한 소시민이었는데, 집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단지 철거민 입주권을 샀다가 토지분쟁에 휘말리고 자신도 모르게 대책위 시위대에 내몰리다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급기야는 강도 행각을

별이게 될 정도로 전락하고 만다. 즉 그는 1970년대 급격한 도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민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작품 뒤에 이어지는 연작에서 권씨가 공장노동자가 되어 산업재해를 입은 동료를 위해 쟁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현장 노동자의 투쟁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에서, 이 연작의 리얼리즘적 성격이 확보된다.

황석영의 중편 「객지」(1974)는 이 계열 작품 중에서는 고전에 속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수자로 밀려난 노동자의 노동쟁의가 현장감 있게 그려져 있고, 또 노동현장의 생생한 정보가 촘촘하게 재현되어 있어서 리얼리즘 소설의 강점을 달성하고 있다. 더욱이 이 작품의 주인공 대위와 동혁은 무기력하게 짓밟히는 인물이 아니라 굳건한 현실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노동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타 작품에서 찾기 어려운 '전망성'이 일정 정도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의 환경인 노동현장을 개선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보인다는 점에서 전술한 리얼리즘 소설과도 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이 1980년대 '노동문학'의 남상 역할을 했다는 평단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할만하다.

사람이 장소애(topophilia)를 갖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사람이 처한 장소로 가장 근원적인 공간이 자연이라면,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친화하거나 합일하고자 한다. 생태론은 이런 근원적인 무의식적 지향성을 논리적인 준거로 해명해내고 있다. 다만 인간의 환경으로서의 자연을 그저 수동적으로 소여(所與)된 '소산적 자연'으로 보지 않고 '능산적 자연'으로 간주한 점에서,<sup>24)</sup>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일률적이지도 않고 그 양태와 작용도 다양하며, 그래서 '참여적 진화'를 해나가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위치와 역할도 다양해진다.

세상의 인간과 자연은 소설이라는 문학 양식에서는 인물과 환경이라는 주요 요소로 변전되어 나타난다. 소설은 이 양자의 관계에 따라 그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더욱이 근대 이후 소설은 상실된 총체성 회복의 열망을 담으면서 소설에서 환경은 더욱 중요해졌다. 현대소설이 최근에 가까울수록 리얼리즘적 속성을 강화해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4) 스피노자가 은연중 강조한 '능산적 자연'은 근본생태론적 준거에도 사회생태론적 준거에도 모두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지만, 그 인간의 대자야 실현을 능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근본생태론자들이나, 또 자연의 참여적 진화를 강조하여 자연이 1차자연(소산적 자연)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자연'으로 진화한다고 보는 사회생태론자의 관점에는 '능산적 자연관'이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라. 제3분과

### 1) 한국어의 언어 습득 환경 개선 전략 / 허용(한국외대)

한국어교육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무슨 학문이 되는가’하는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사고의 밑바탕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들을 ‘가나다...’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사과’ 그림을 보여주고 ‘사과’라는 단어를 익히게 하는 전략이 사용될 수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결코 그런 방법이 아니고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교육을 받는, 어린아이가 아닌 성인학습자의 마음은 어떠할까? 차별성 부각이 정도를 넘으면 모멸감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한국어교육이 외국어교육으로서의 학문적 위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지금도 그러한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은 한국어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모국어에 대한 잠재적 지식을 가진 성인이라는 사실이고, 그 모국어도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자연언어의 하나다.

지금의 한국어교육은 학습자의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을 위한 한국어교육, 즉 survival Korean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차원의 한국어교육에까지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해,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신들의 모국에 돌아가서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위치에까지 와 있는 것이다.<sup>1)</sup>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을 위해 미국 등지에서 유학을 하는 우리나라 영어학이나 영어교육 전공자들의 영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면(그들은 원어민 못지않은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영어학에 대한 지식 또한 무척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어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또는 앞으로 어느 정도이어야 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한국어교육의 방법이 위에서 말한 survival Korean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발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외국인에게는 한국어 습득)의 어떤 개선 방향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차이는 발음과 어휘, 문법 등, 즉 언어 영역에 따른 차이이다. 예를 들어, 어휘나 문법은 그 의미나 용법을 알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발음은 이론적으로 안다고 그 발음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한국인들이 유성음 /b d g/의 발음을 못하는 것은 이 소리들이 갖는 음성적 특성을 몰라서가 아닌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그리고 어휘나 문법은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일지라도 개인의 노력에 따라 차이가 보이지만 발음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휘나 문법 수준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발음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휘가 가장 개인적 성격이 강하고 발음이 가장 집단적

1) 참고로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국어학 전공 석박사 과정생 중 내국인 학생은 거의 없고 거의 모두가 외국인 학생이다. 국문과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도 개설되어 있지만 이들은 한국어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할 필요성을 느껴 지원한 자들이다.

이라 할 수 있다.<sup>2)</sup>

그러나 고급으로 갈수록 이러한 개인차는 거의 사라지고 특정 모국어 화자(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모든 외국인 화자)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이유는 언어의 인지적 성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외국어를 습득할 때 모국어 화자의 수준과 같은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에 존재하는 인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모두가 잘 아는 대로 한국어와 영어 모두 ‘문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아래 (1)에서와 같이 결속력에 있어 차이가 난다.

#### (1) 한국어와 영어의 문장 구조의 차이

	영어	한국어
예문	His son is a doctor.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다.
구조	1. SVO의 단선적 구조 2. 성분 중심의 체계적·연역적 구조	1. ‘주제 + 명제’ 중심의 계층적 구조 2. 문맥/상황 중심의 비체계적 구조
특징	1. 성분간의 강한 결속력(주어 중심) 2. 격 개념 중요 3. 어순 중요 4. 성분 생략의 어려움	1. 성분간의 느슨한 결속력 2. 격 개념 불분명 3. 자유 어순 4. 성분 생략 가능

영어 문장 구조의 특징은 첫째 단선적(單線的) 구조이다. 단선적 구조란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분 사이의 결속력이 강한 구조이다(김한식·김나정 역 2007). 따라서 무엇 하나 생략하면 문법적으로 파괴된 문장이 된다. 그리고 주어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즉 주어가 다른 성분을 지배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어나 일본어는 그렇지 않다. 이 두 언어는 흔히 표현하는 주제중심 언어. 좀더 분명하게 표현하면 문맥 의존 언어이고 상황 의존 언어이다. ‘그 사람은 아들이 의사다’와 같은 한국어 문장은 주지하는 대로 ‘주제 + 명제(또는 서술)’로 구성되는 비단선적인, 계층구조이다. 계층 구조에서는 격의 개념이 약하다. 주제는 단순히 화제 제시에 불과하며 정보의 핵심은 서술 부분에 있다. 따라서 문장 구조가 약하고 결속력이 약하다. 따라서 주어, 목적어 등의 개념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특정 문장 성분이 없어도 되며(이 경우 그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일치가 없어도 된다. 영어의 문장은 논리적이고 연역적인데 비해 한국어의 문장은 상황 의존적이며 연역적이지 않다. 이러한 한국어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한 어떤 외국인도 다음과 같은 한국어 표현을 바르게 습득하기 어렵고, 언어 간의 이러한 차이를 알아야만 외국어를 바르게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2) 모국어 화자들 사이에서도 어휘 능력의 차이가 있음이 이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2) a. 키가 크는 음식  
다리가 길어 보이는 바지  
얼굴이 예뻐지는 세면법
- b. 네가 먹은 그릇은 네가 치워라.  
영수가 먹은 식당은 아주 비쌌다.  
나는 그 차를 살 돈이 없다.

이러한 표현들은 ‘음식이 키가 클 수가 없고, 그릇을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나 유럽어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문장들이지만(연재훈 2011), 상황의 존적인 한국어에서는 맥락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문장이 된다.

어휘는 경우에 따라 웬만해서는 외국인으로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그것은 모국어의 어원, 오랜 문화와 관련된 말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영어 단어 ‘worry’에 대해 ‘근심, 걱정’의 의미로만 아는 상태에서는 아래의 문장이 주는 의미를 자칫 오해할 수 있다.

- (3) The hunting dog worried the rabbit. [사냥개가 토끼를 물고 흔들었다/ 물어 죽였다.]

이 경우의 ‘worry’는 ‘물고 흔들다, 물고 늘어져 괴롭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 한국어에서도 ‘근심’과 ‘걱정’은 서로 연결되는 말이지만, 그것이 ‘물고 흔들다, 물어 죽였다’의 뜻으로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영어의 ‘worry’라는 단어는 ‘목을 조르다, 숨이 막히다’라는 의미를 그 뿌리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말의 뿌리를 이해하고 ‘worry’를 보면 ‘근심, 걱정’ 외에 ‘괴롭히다, 귀찮게 조르다’는 물론 ‘물어 죽이다’라는 말도 하나의 단어장 안에 존재함을 이해할 수 있다.

품사 전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장을 영어로 옮긴다고 하자.

- (4) a. 그는 런던에서 겨울을 보냈다.  
b. 그들은 강가에서 고기를 잡았다.  
c. 그들은 나란히 우산을 쓰고 걸었다.

위와 같은 문장에 대해 명사와 동사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은 영어에서는 ‘wintered, fished, under the umbrella’에서와 같이 굳이 별도의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데 반해, 명사와 동사의 문법범주가 엄격히 구분되는 한국어 화자들은 ‘보내다, 잡다, 쓰다’와 같은 말에 해당하는 동사를 꼭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영어의 영역에 잘 접근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휘와 문법이 결부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휘에 따른 문장구조의 차이를 보인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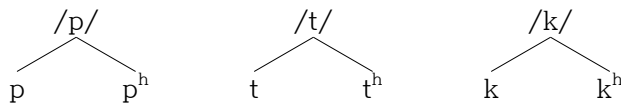
한국어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그 사람이 좋아요.
영어	I like him/her.	
일본어		私はその人が好きです。

영어권 화자들로서는 한국어나 일본어처럼 ‘like’가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이 의아할 것이고, 일본어권 화자들은 ‘좋다’가 타동사로 사용되는 한국어와 영어의 구문을 낯설어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화자는 서로 다른 두 언어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그러나 받아들이기까지는 한 동안의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모국어와 다른 성격의 언어에서 느끼는 장벽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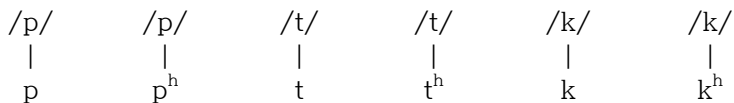
언어의 여러 영역 중 가장 인체공학(ergonomics)의 성격이 강한 발음의 경우도 인지와 연결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외국어 음성 습득에서 겪는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국어 발음과 관련해서 살펴보자. 주지하는 대로 무성 폐쇄음에 대해 영어는 아래 (6a)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한국어는 (6b)와 같은 모습을 갖는다.

(6) a. 영어



b. 한국어



즉, 영어에서는 유기음과 무기음이 변이음으로 존재하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두 집단이 별개의 음운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섯 개의 소리는 두 언어 모두에서 날마다 큰 어려움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영어권 화자들이 이들 중 무기음 또는 유기음을 자신의 언어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음성적 차원에서 볼 때 두 언어는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화자들은 이 두 소리 집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대로 그것은 바로 음운적 차원의 차이다. ‘음운은 심리적 실재’라는 말을 적용하여 다시 말하면 영어권 화자들이 한국어의 폐쇄음을 온전히 발음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어 화자의 머릿속에는 6개로 존재하는 소리가 영어권 화자의 머릿속에는 3개로 존재하여 두 언어권 사이의 심리적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권 화자가 겪는 이러



한 어려움은 심리적 또는 정신적(mental)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습득의 어려움을 습득에서의 음운적 장애(phonological difficulty)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된소리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어의 경우 ‘sport, sky, stop’과 같이 /s/ 다음의 /p t k/는 한국어의 된소리와 비슷하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우리는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등에서 한국어의 된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 즉, 그들도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발음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심리적인 요인, 음운적 장애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소리들이 의미 있는 소리가 된다는 것이 낯설기만 할 뿐이다. (참고로, 한국어의 /ㅆ/ 같은 소리[voiceless dental sibilant fricative]는 UPSID 451개 언어 중 오로지 한국어에만 나타난다고 한다.)

이러한 음운적 장애는 목표어에는 존재하지만 모국어에는 없는 순수 조음적 장애(articulatory difficulty)와는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한국어 화자는 영어 ‘pleasure’에 나타나는 마찰음으로서의 [ʒ]나 모음 [ɪ]를 발음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들은 변이음으로도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들이다. 이와 같은 경우 대체로 모국어의 다른 소리로 대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영어의 [f]와 같은 소리에 대해 우리는 [ㅍ] 또는 [ㅎ]으로 발음한다. [ㅍ]으로 발음하는 것은 순음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고, [ㅎ]으로 발음하는 것은 마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sup>3)</sup> 해당하는 소리가 모국어에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조음적 장애 역시 심리적 실재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음운에 대한 정의로서의 ‘심리적 실재’ 개념은 최근 뇌과학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허용 2013).

뇌 안의 모든 정보와 지식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synapse)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시냅스의 유연성이 높은 어린 시절(=결정적 시기)에는 경험을 기반으로 자주 쓰는 신경세포는 살아남고, 쓰지 않는 세포는 사라진다. 찰흙같이 구조적으로 '말랑말랑'한 뇌가 경험을 통해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한 특정 환경에 최적화된다는 것이다. '경험'의 역할은 결정적 시기(10~12세)가 끝나고도 계속된다. 어린 뇌에서 경험은 단순히 '온-오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시냅스는 쓰면 살아남고(On),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Off). 하지만 '사과=apple'이라는 발음과 의미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사과'를 볼 때 'apple'이라는 발음을 만들어내야 하는 수많은 시각·청각·언어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이 적절한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떤 수준이 '적절한' 수준일까? 뇌는 이 문제를 반복된 시도와 실패를 통해 얻게 된다. Apple이라는 정답을 구현하기 위해서 뇌는 우선 수많은 '실패작'을 만든다. 실패작과 정답의 오차를 기반으로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을 변형하면 점차 정답에 가까운 답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김대식 2013)

3) 음운적 장애와 조음적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어린아이는 어른과 비슷한 숫자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간의 연결성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마치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큰 길은 유전적으로 타고나지만, 막상 부산에 도착하면 신경세포는 주변 세포와 무차별로 연결되어 있다. 이 중 적절한 시냅스도 있고,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시냅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 시기'라는 걸 가지고 있다. 우리는 태어난 지 몇 시간, 고양이는 4주에서 8주, 원숭이는 1년, 그리고 인간은 약 10년까지 유지되는 이 결정적 시기에 자주 사용되는 시냅스는 살아남고, 사용되지 않는 시냅스는 사라진다.(김대식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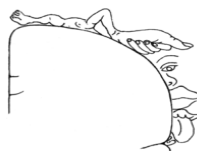
이런 점에서 볼 때, 출생 이후 지속적으로 발음해 와서 화자의 모국어로 존재하는 특정 음운의 발음은 머릿속의 추상적인 음운과, 조음기관의 특정 영역이나 형상과 직접 연결되어 '수많은 시각·청각·언어 신경세포 간의 연결성이 적절한 수준'으로 형성됨으로써 음운과 실제 발음 사이에 일종의 자동화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머릿속에만 존재하여 필요할 때 작동을 하는 어휘나 문법과는 다른 점이다.

그런데 이 자동화 과정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입력(머릿속의 발음과 조음기관의 특정 위치 또는 형상)된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마치 수적천석(水滴穿石: 낙숫물이 뿔뿔 뚫는다)의 흔적과 같이 깊은 골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모국어 발음이다.

반면 외국어로서의 음운은 다르다. 따라서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 특별히, 비슷하지만 다른 소리를 구별하기 어렵다. 이는 깊이 형성된 모국어의 골이 주위에 떨어지는 다른 물들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과 같다. 즉, 모국어와 비슷하지만 다른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모국어에 없는 새로운 소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와 동일시하게 된다.

모국어에 없는 외국어 음운을 습득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영역이나 방법을 새롭게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다시 말해 자동화 상태로까지 가려면 새로운 골을 형성해야 하는데 그 새로운 골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다. 즉, 위에서 말한, 쓰지 않아 없어진(Off) 시냅스를 새로 사용해야 한다.<sup>4)</sup> 이를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용하지 않아 잡초로 우거진

4)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뇌에는 세상에 대한 정보가 마치 '지도' 같은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를 뇌과학에서 '호문쿨루스(homunculus)'라고 하는데, 호문쿨루스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의 몸이 있는 그 대로가 아닌 기능 위주로 '그러져'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손·얼굴·혀같이 예민한 신체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뇌 표면을 크게 차지하는 반면, 등·허리·발 등은 작은 면적을 차지한다. 우리는 살면서 몸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몸의 이러한 경험들은 호문쿨루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두 다리를 사용해 열심히 달리면 다리를 표현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수년 동안 공을 가지고 저글링하면 호문쿨루스의 손 부분이 두꺼워지기도 한다(김대식 2013a). 이런 점에서 볼 때 모국어의 음운에 대한 호문쿨루스와 외국어 음운에 대한 호문쿨루스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아래에서 왼쪽의 그림은 Penfield의 호문쿨루스(Wikipedia, Cortical homunculus)이고 오른쪽은 그것을 3차원 조상(彫像)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우리 실제의 신체 크기와는 달리 많이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땅을 개간하여 농작물이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다.

외국어 음운 습득이 새로운 영역의 개척 외에 기존에 다른 음운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을 분할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히 모음의 경우가 그러한데, 일본어 화자의 경우 지금까지 /ㅏ/밖에 없던 모음 영역(vowel space)을 둘로 나누어 어느 한쪽에 한국어의 /ㅓ/를 넣어주어야 하고, 굳이 /ㅏ/와 /ㅓ/로 구분할 필요가 없던 중국어 화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 둘의 음성 영역을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던 땅을 개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즉, 무엇인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지금까지 비워둔 공터가 아니라 이미 무엇인가가 자리를 잡고 존재하는 곳 그 어딘가에 매우 낮은 새로운 존재를 들여야 하는 것이다.<sup>5)</sup> 새로운 음성 영역의 개척이 새로운 시냅스의 연결이라면, 이것은 기존의 시냅스를 분할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연결이든 분할이든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바, 그것은 문자로는 인식이 되어도 그 문자에 해당하는 음성영역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업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어 발음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 문자와 음성영역의 자동화 작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sup>6)</sup>

외국어 습득이란 결국 초급에서는 모국어와 목표어를 1:1로 치환하는 작업이 주가 되고 고급으로 갈수록 모국어에서는 그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시냅스를 새로이 연결하거나 분할하는 작업 또는 인지의 새로운 습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학습자는 인체공학적인 면(입을 더 크게 벌린다든지 혀를 말아올린다든지 등등)이나 ‘한국어에는 이중주어구분이 있다’ 등의 방법으로 습득을 하더라도 교사는 위에서와 같은 시냅스 연결의 차이를 포함한 인지적인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올바른 외국어교육이 단순히 교수방법상의 문제를 넘어 대조언어학적 접근 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조언어학적 접근이 외국어 습득에 있어 항상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는 평서형 종결어미가 있고 일본어에는 종지형(終止形) 어미(예: -する, -ます)가 있다 해서 이것이 자연언어의 보편적인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어떤 것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모든 것과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음악과 미술의 시대적 특징을 보려면 다른 시대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술을 예로 들어보자. 다음은 유명한 이집트 미술이다. 왼쪽 것은 BC 1400년 경의 것으로 네바문이라는 당시 정치가의 무덤에서 나온 벽화의 일부분으로 <네바문의 정원> 또는 <연못이 있는 정원>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다. 그리고 오른쪽은 같은 네바문의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늪지에서의 새사냥>과 같은 제목이 붙은 벽화이다. 이 두 작품은 당시 이집트의 미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한다. 문제는 ‘이 이집트 미술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아야 이집트 미술의 특징을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5) 이것을 외국어 말소리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새 학교에 전학을 가서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누가와 친해져야 하는지 몰라 당황해 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6) 결국 한 언어에서 특정 모음을 잃는다는 것은 해당 시냅스를 사용하지 않아 없어지는 것이다.



이집트의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은 어리둥절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이집트의 미술가들은 실생활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는 아주 다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중략) 그들에게 가장 중요시되었던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완전함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어떤 특정의 각도에서 보이는 대로의 모습을 그리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림에 들어가야 할 모든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도록 보장해주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 기억을 더듬어 그렸다. (중략) 만약 우리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면 실체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나무들의 생김새와 특징은 측면에서 보아야만 명확할 것이고 연못의 형태는 위에서 보아야만 분명해질 것이다. 이집트의 미술가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인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물이 가장 특징적인 각도에서 그려져 있다. 머리는 옆으로 볼 때 가장 그 특징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옆모습을 그렸다. 그러나 눈은 정면에서 본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정면에서 본 눈이 얼굴의 측면에 그려져 있다. 어깨와 가슴은 정면에서 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다. (이하 생략)

- 서양미술사(E. H. 고프리치)

위 이집트의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고정된 하나의 각도에서 보이는 모습대로 그린 것이 아니라 인체의 각각의 부위가, 그리고 물체의 각각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각도에서 보이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의 그림처럼 보일 수 있으나 다른 어떤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집트만의 특징인 것이다. 즉, 미술의 보편성의 관점에서 보이는 특징인 것이다. 좋은 미술해설가는 바로 이러한 점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조언어학적 접근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언어보편성 또는 언어유형성의 관점, 더 나아가 언어의 본질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요사이 젊은 부모들 중 일부분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언어보편성을 고려해서 지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명, 경, 혁, 향, 현’ 등과 같이 이중모음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 둘째는 ‘석, 숙, 섭, (경우에 따라서는 민, 응, 림 등과 같이 비음 포함)’ 등과 같이 받침이 들어 있는 음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 셋째는 ‘석민’ 등과 같이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이름을 택하지 않으려는 경향, 넷째는 ‘경민, 성보, 남준’ 등과 같이 ‘비음+자음’의 경우 조음점이 다른 이름을 택하지 않으려는 경향 등이다. 그 이

유는 국제화 시대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중모음의 활음이 한국어에서는 모음으로 기능하는 것과, 한국어 음절말 불파 현상, 소위 말하는 자음동화 현상 등은 언어보편성에서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해외생활에 익숙한 젊은 부모들은 한국어의 그러한 성격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sup>7)</sup>

이와 같은 언어 보편성이나 언어유형론은 음운, 형태, 통사 등 언어의 전 영역에 걸쳐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연언어의 음운체계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 ① 모든 언어는 음절을 갖는다.
- ② 모든 언어는 자음과 모음을 갖는다.
- ③ 모든 언어는 무성 파열음을 갖는다.(/p, t, k/ 중 적어도 두 개 이상)
- ④ 대부분의 언어는 공명자음을 갖는다.(예외: Rotokas, Mura)
- ⑤ /t/와 같은 자음이 존재하며(99.8%), /i/를 갖는다(91.5%).
- ⑥ 조음위치 면에서 설정음이 가장 많다.
- ⑦ 대부분의 3모음체계는 /a, i, u/이고, 5모음체계는 /a, i, u/ + /ε(e), ɔ(o)/이다.
- ⑧ 음운은 순차적 방식으로 구성된다. 즉, X의 존재는 Y의 존재를 함의한다.(Languages 'build up' their phonologies in an ordered fashion. It suggests that a language will only have segment X if it already has segment Y. [Gussenhoven & Jacobs <Understanding Phonology>, 2005])  
 예) 유성 비음 없이는 무성 비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s/ 없이는 /z/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설의 /i, /e와 원순의 /u, o/ 없이는 전설원순모음 /y, ø/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⑨ 이미 존재하는 분절음에 추가적인 구성요소가 더해지는 방식으로 음운목록을 구성한다.(Languages construct their segment inventories by adding elements to already existing segments.)  
 예) /p/ + 비음성: /m/                      /p/ + 유기성: /p<sup>h</sup>/                      /p/ + 긴장성: /p'/
- ⑩ 특이한 분절음은 자음 목록이 큰 언어에서 나타난다.

7) 활음이 거의 모든 언어에서 자음으로 기능하고 언어에 따라서는 이중모음이 없는 경우도 있음을 볼 때(예를 들어 'ㅈ'를 '자'로 발음한다.), 모음을 가르치는 순서를 'ㅏ ㅑ ㅓ ㅕ .....'와 같이 사전에 올리는 순서로 한다든지 이중모음을 하나의 모음으로 간주하여 한국어 모음을 21개(단모음 10개 + 이중모음 11개)로 파악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자연언어 중 모음이 자음보다 많은 언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어 모음을 21개로 하여 '모음 21개 > 자음 19개'와 같이 제시하는 것은 한국어를 매우 이상한 언어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음동화에 대한 접근 방법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흔히들 '발음의 편이성' 또는 '발음의 경제성'으로 이 현상을 설명하지만 자연언어에서 한국어와 같은 조음방법동화 현상을 보이는 언어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어 교사들은 마치 한국어의 이러한 현상이 여러 언어에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교육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의 핵심은 자음강도(또는 공명도) 조정현상이자 자음동화가 아니다(예: 국립, 협력 등).

예) /k<sup>wh</sup>/: /k/ + 원순성 + 유기성  
 Igbo(나이지리아) - 폐쇄음만 20개  
 Haida(카나다, 알래스카) - 46개의 자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자연언어의 음운체계에 대해 모르는 바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체계 변화의 방향과 그 이유이다. 10모음에서 7모음으로의 변화를 보이는 현대 한국어 모음체계의 변화가 그 예이다. 100년 전 우리 국어에 새롭게 들어온 전설원순모음인 /ɰ, ɯ/는 왜 이 시점에서 사라지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별개의 두 소리로 아무 일 없이 존재하던 /ɰ/와 /ɯ/는 왜 통합하려 하는가? 그리고 이 진화의 모습은 한국어 모음체계의 어떤 모습과 연결이 되는가? 더 나아가 한국어 말소리의 패턴(sound pattern of Korean) 그리고 자연언어 전체 말소리의 패턴(sound pattern of human languages)을 이끌고 가는 원리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태, 통사 등의 영역에서도 분명 이러한, 즉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원리에 대한 의문은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인간 언어를 이끌고 가는 원리 또는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말소리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움직여 일련의 패턴을 만들어낼까? 음운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음운들 사이의 현상(즉, 상호관계)를 알아야 한다.”

음운론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음성은 모두 920개 정도로 이중 모음은 약 270개(29%), 자음은 650개 정도(71%)이다.

둘째, 920개의 음성 중 약 750개(81.4%)의 음성은 10개 언어 미만에서 사용된다. 자음 중 50% 이상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음성은 9개 정도이며, 모음 중 50% 이상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음성은 3개이다.

셋째, 자연언어의 음운 수는 평균 29~31개이다.

넷째, 비모음(nasal vowel)은 94%가 동일한 구강모음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단모음과 동일한 음질을 가진 장모음은 60% 미만이다.

다섯째, 자연언어의 장모음체계 유형은 아래와 같다.

① 모든 장모음의 음질이 단모음에 포함되는 유형

예: Adzera: 단모음 /a i u w/; 장모음 /a: i: u:/

Neo-Aramaic: 단모음 /a I u 'e' 'o'/; 장모음 /a: i: u:/

② 모든 단모음의 음질이 장모음에 포함되는 유형

예: Eyak: 단모음 /i ε u/; 장모음 /i: ε: u: α/

Selkup: 단모음 /e' o' 'Y' a q u y/; 장모음 /e': o': 'Y': a: q: u: y: ø: i: /

## ③ 단모음과 장모음의 음질이 완전히 다른 유형

예: Gadsup: 단모음 /i ɜ u/; 장모음 /ɑ: e: o:/

Kurdish: 단모음 /ə' ɪ ʊ i/; 장모음 /i: a: u: 'e: 'o:/

## ④ 단모음과 장모음이 서로 부분적으로 포함되는 유형

예: Karok: 단모음 /i a ɛ ʊ/; 장모음 /i: a: ʊ: e: o:/

Wichita: 단모음 /i u ɛ ɒ/; 장모음 /i: ɒ: e: o:/

장모음과 관련된 위의 두 가지 사실은 모든 단모음이 한국어에서와 같이 장모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모음의 장단에 있어 항상 단모음이 기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려준다.<sup>8)</sup>

여섯째, 주변부 모음에서 전설모음의 경우는 평순모음 없이 원순모음은 불가한 반면, 후설모음의 경우는 원순모음 없이 평순모음이 가능하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일본어와 같은 언어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ɾ/를 모음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모음으로 생각하여 후설원순고모음 /u/가 없이 후설평순고모음 /ʊ/를 가진 일본어를 불완전체계로 파악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통해 후설고모음과 후설중모음의 경우 그것이 원순이든 평순이든 하나만으로도 음운체계는 완전한 체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음성 부재 = 음운 부재’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 음성적으로는 후설원순고모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음운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음체계가 (7a)와 같은 틀이 아니라 (7b)와 같은 틀로 바뀌어야 함을 말해준다.

## (7) a. 모음체계 1

구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 b. 모음체계 2

구분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8) 이러한 사실들의 발견은 우리에게 당혹감과 함께 우리에게 상식화되어 있던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함과 동시에 우리의 시각을 넓혀준다. 이는 마치 ‘계절’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기온을 중심으로 구분하겠지만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는 ‘우기’와 ‘건기’로 구분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논의가 깊이 들어간 점이 있으나 위에 밝혀진 내용들은 지금까지의 음운론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밝혀질 때 우리는 자연언어의 정확한 모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의 내용들이 모두 한국어교육 현장에 있는 교수자들의 몫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어학자나 언어학자들의 몫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교육 학습자들이 변해감에 따라 고급학습자들이 점차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현장 교수자와 이론 연구자) 스스로 변하지 않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영양사와 요리사가 함께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종종 보게 된다. 영양사의 음식의 영양에 대한 이론 강연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건강과 맛’을 결합한 요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론 연구자와 현장 교수자는 마치 영양사와 요리사의 관계와 같다. 고급 학습자가 점점 많아지는 지금은 맛있는 한국어를 위한 서로의 협업(co-work)가 절실한 시점이다.



## 2) 다문화 사회 전환에 따른 한국어문화 교육의 정책적 과제 / 최정순(배재대)

‘다문화 사회’라 함은 말 그대로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다. 그러나 현재 한국으로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의 경우 대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는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내’이기 전에 ‘며느리’로 한국에 입국한 이들은 말이 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서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온 자신의 나라에서는 출가외인이 되고 한국에서는 노동력과 성의 제공을 강요당하고 있다<sup>1)</sup>.

한국 정부는 1990년부터 국제결혼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기 시작했다<sup>2)</sup>. 물론 그 이전에도 종교적인 이유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인한 현지인과의 결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90년 이후부터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활성화되었고, 그 비율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해 왔다<sup>3)</sup>. 실제 2002년 이후부터는 매년 1만여 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결혼 이민자 수는 약 149,764명에 달하고 있다. 국적을 기준으로 볼 때 중국(62,400명), 베트남(39,854명), 일본(12,220명), 필리핀(10,383명), 기타 순이고, 그 중 여성의 수가 128,826명이다<sup>4)</sup>.

소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급증하고 있다<sup>5)</sup>.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은 큰 폭으로 줄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점차 초등, 중등(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숫자도 증가할 것이다<sup>6)</sup>. 동시에 중도입국자녀라 불리는 청소년의 증가도 눈에 띈다<sup>7)</sup>.

이주 노동자의 경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유입이 시작되었고,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인력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변모했다<sup>8)</sup>. 2006년에 이미 40만여 명에 달했고, 2014년 1월 1일 기준 538,587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 1) UN 여성차별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의 증가에 우려를 표시했다.(인터넷 한겨레, 2007.9.5)
- 2) 물론 국제결혼은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지만 본 논의에서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고 이주하여 한국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자 한다.
- 3) 80년대 중후반의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국제결혼, 90년대 초반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결혼 등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일본어, 영어 사용자라는 이유로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했다고 볼 수 있다.
- 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5) 안전행정부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012년 168,583명, 2103년 191,328명, 2014년 204,204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 6)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6만 7천800여 명에 달해 전체 학생 수의 1%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1년 전보다 1만 2026명(21.6%) 증가한 숫자이며, 관련 현황을 처음 조사한 2006년의 9,389명에서 매년 6,000~8,000 명씩 늘어나 8년 만에 7배로 증가했다. 현재 외국인 주민의 미취학 자녀 현황(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통계 중 미취학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을 보면 2014년 1월 1일 기준 만 6세가 1만 5959명, 만 5세 1만 6917명, 만 4세 1만 7670명이다.)으로 미뤄보건대 향후 3년 내에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7) 다문화가정 학생 중 중도입국 자녀수는 2013년 4,922명(초 3,065명, 중 1,144명, 고 713명)명에서 2014년 4월 기준 5,602명(초 3,268명, 중 1,389명, 고 94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 8) 설동훈(2008:6) 참조.

그리고 2014년 8월 현재 8만 570명의 유학생들<sup>9)</sup>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증가는 둔화되었으나 꾸준히 일정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 외 국외 동포들의 국내 체류도 증가하고 있다.

이주민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서 ‘한국인-외국인 이주민’ 간에 다양한 형태의 언어 및 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이런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경선이 짧고 식민지를 가져 본 적이 없는 우리는 사실 외국인을 접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앞서 말한 ‘단일민족국가’란 생각은 결국 타인종, 타문화에 대한 배타주의<sup>10)</sup>의 밑거름이 되고 상대주의적 문화소통을 위한 여지를 남겨 주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상대(배우자)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는 없이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들이 한국화 되기를 기대하고 강요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학습할 기회의 제공에 인색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해서는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결국 여러 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 편, 결혼을 통한 이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체류 및 생활, 사회복지 등 전반에서)’은 유학생 집단이나 이주 노동자 집단보다 훨씬 다양하고 상대적으로 체계적이며, 지나칠 정도로 풍부하다<sup>11)</sup>.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차별과 모욕을 당했고 당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즉 편의 제공의 다양성과 풍부함은 우리 사회에서의 그들의 수용, 포용과 비례하지 않는 것 같다.

이주민들의 주요 항변, 불만의 내용은 출신 국가 및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욕(가난, 교육 정도 등)과 자식들에 대한 차별대우(한국 국적을 주면서도 ‘혼혈’ 취급하는 것 등)가 주가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극복하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언어적, 문화적)의 부족이나 부재를 들기도 한다. 또한 유학생은 유학생대로 지원의 부족을 불평하고, 노동이주자들은 차별대우와 부당 대우를 토로한다.

소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지만 불평의 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더욱 커지고 있고, 걱정 of 소리 역시 여기저기서 들린다. 분명 지원은 풍부한데,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문제다.

자기중심적인 문화의 보전만을 강조하고, 이주민의 문화(언어 포함)와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 아니 정책적 무관심은 결국 서로 사이에 오해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이는 중대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우리는 2005년 프랑스에서의 일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여러 문제들 중 언어·문화 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측면을 주로 다룰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및 인종에 대한 편견 및 그에 따른 차별 대우 등에 대해서도 인식의 전

9) 그 중 동북아 학생이 60,498명으로 중국 유학생이 52,499명이 있다.(통계청 참조)

10) 나름 선진 문화라 생각하는 미주나 유럽, 심지어 일본 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은 다른 측면에서는 천박성일 수 있다.

11)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는 좀 다르다.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겠다.

환이나 이를 위한 노력 역시 강조 되어야 하며, 이 점이 우선되어야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나 지원이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중앙정부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발표한 정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부처에서 대부분 독자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 중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그 외 대부분의 부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sup>12)</sup>. 부처별 주요 업무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부처<sup>13)</sup>

구분	대상	주요 업무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지원 총괄,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사회보장 지원
법무부	외국인	외국인정책 총괄
교육부	다문화가정자녀	일반 학생,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직업상담·훈련
행정안전부	외국인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생활, 정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일반 국민	다문화성 제고, 한국어 교재개발
농림수산식품부	결혼이민자	영농교육

특히,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5가지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이 한국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10개 언어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포털 “다누리”를 운영하고 있다<sup>14)</sup>. 또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및 문화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다문화가족 적응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5년간 사회보장에 관하여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수립을 발표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에 대한 3대 방향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12) 그럼에도 위 표에서 보이듯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교재 및 교육과정의 개발 등으로 통해 다문화가정이든 자녀든, 이주 노동자든 대다수의 이주외국인 대상의 한국어(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3) 이해승(2010:200)의 <표 1> 참고.

1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소개 (국기, 국화, 계절, 명절, 공휴일) ② 외국인지원서비스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지원기관) ③ 체류 및 국적취득 (사증, 외국인등록, 체류, 국적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④ 한국문화와 생활 (가족생활, 식생활, 주거·소비생활, 교통 및 공공기관 이용) ⑤ 임신과 육아 (임산부를 위한 보건서비스, 예방접종,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⑥ 자녀교육 (교육제도 일반, 초·중·고·대학교 설명) ⑦ 건강과 의료 (건강보험, 의료급여, 의료기관, 보건소, 응급처치) ⑧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긴급복지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⑨ 취업과 근로 (취업, 직업훈련,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한국 문화 및 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다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다. 최초로 시행된 정책은 2006년 5월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이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과 2008년, 2010년, 2011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계획」이, 2009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계획」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2012년에 와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우선, 2006년 발표된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계획」은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종합 지원 대책을 보고하고자 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육소외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sup>15)</sup>. 2007년에는 2006년에 추진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원대책의 기본방향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설정한 후 사업내용을 학교중심의 다문화교육 강화, 지원체제별 다각적 협력체제 구축 관련 연구 및 지원의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여 구체적 방안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교원연수강화, 지역 센터와 교육청과 연계한 지원프로그램 활성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교육 요소 반영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명종, 2013:57에서 재인용). 2008년에 발표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계획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언어·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주류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 이해 교육 강화를 통해 일반 학생 및 사회의 다문화 관련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추었는데(송경섭, 2010:41), 단기가 아닌 4년에 걸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2009년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조기 적응과 교육적 성취를 향상시키고 교사와 학부모, 일반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며 일반학생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가정의 강점을 발굴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10년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은 ‘배움과 이해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며 다문화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다문화 이해의 확산을 목표로 계획되었다. 2012년에 와서는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중도입국자녀 등 다문화학생의 개인별 특징이 다양화되어 이들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지원을 위한 예비학교 및 다문화코디네이터 운영, 한국어 교육과정(KSL) 도입 및 기초학력 책임 지도 강화,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 교

15) 핵심 내용으로는 ①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체제 구축, ②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 지원 협력체제 구축, ③학교의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기능 강화, ④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⑤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⑥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로의 확대, ⑦정책대상별 고유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육 강화,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지도 강화, 다문화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일반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가 포함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지속되었으며 그 중 한국어 교육 정책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한 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이주민들의 언어 문제라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박정아, 2012:13).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다문화 관련 사업 평가와 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별 특성에 맞게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사업을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하여 사업의 중복 추진을 지양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어 교육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부처에서 시행 중인 한국어 교육<sup>16)</sup>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정부 부처별 한국어 교육 사업 현황(정희원, 2013:83)

구분	법무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관련 법률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교육기본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정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결혼 이민자</li> <li>귀화 희망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 결혼 이민자</li> <li>다문화 가족 취학 전 자녀</li> </ul>	다문화 가족 취학 아동	외국인 노동자
교육 기관	사회 통합 프로그램 지정 기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207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초·중·고등학교</li> <li>다문화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li> </ul>	외국인 근로자 센터
주요 사업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집합 교육 및 방문 교육</li> <li>자녀 대상 언어 발달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 과정 도입 운영</li> <li>다문화 가정 학생 한국어·기초 학력 지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어교육 지원</li> <li>취업 전 현지 한국어교육</li> </ul>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다중언어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두 개 이상의 공용어를 가진 나라도 많고, 한 국가가 단일어만을 쓰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T.K Bhatia & W.C. Ritchie(2004:1)에서는 세계 어린이의 2/3 이상이 다언어 환경에 놓여있다고 하였다. 다중언어 시대는 회피할 수도 없고,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순간부터 다중언어교

16) 박정아(2012:9-12)에서는 다문화 시대 한국어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첫째,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 교육 지원, 둘째, 문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자료 개발 및 교육 실시, 셋째, 국어 정책을 고려한 한국어교육 정책 추진을 들고 있다.

육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sup>17)</sup>

다중언어사용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전제하고, 교육의 목적이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라고 할 때, 바람직한 변화는 가치 있는 삶을 의미하고, 그랬을 때 이들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각 나라들은 각국이 처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르고, 교육 제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육 모델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강하게 요구되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자인하고 다언어, 다문화 교육을 정책적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이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주 사회의 언어를 비롯한 문화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언어 교육이다. 그러나 이때 단순히 언어만을 교육하는 것으로 끝나는는 안 된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다언어교육은 다문화 교육<sup>18)</sup>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와 문화 교육은 분리될 수 없고 동전의 앞뒤와 같이 공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교육은 우선 문화 교육이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 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문화의 의미를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를 포함해 기술하고 이해해야 하며, 언어교육과 문화 교육의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전제하기 때문에 문화자각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하며 이를 위한 단계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접근이 미시적인 접근이라면, 다른 한 편 거시적 접근 역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교육이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변화로 정의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때 교육이 유의미해진다면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중문화 교육 역시 다음의 몇 가지를 포함한다. 첫

17) 정희원(2013:73)에서는 세계 언어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에스놀로그(Ethnologue)》(16판, 2009)을 인용하여 우리나라의 언어 다양성 지수를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언어 다양성 지수가 세계 최하위로, 224개국 중 216위에 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이나 언어에 대한 수용성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심지어 우리는 그동안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라는 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는 우리의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의 폐쇄성을 강화하여 국제화된 세계정세에 대응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다.

18) 다(중)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다문화교육의 대표적인 학자인 Banks & Banks(2005:3-4)는 “다문화교육은 적어도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생각 또는 개념, 교육 개혁 운동, 그리고 과정이 그것이다. 다문화교육은 인종, 민족, 성, 문화, 언어, 사회계층, 종교 등이 다르거나, 영재 혹은 부진아라는 이유로 해당 학생들이 학교에서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이다. ...(중략)... 다문화교육은 학교 변혁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동등하게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운동이다.”라고 정의하였고, Pang(2005)은 “다문화교육은 총체적 학교 개혁을 필요로 하며, 교육은 지적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것이라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는 교육 분야이다. 다문화교육은 서로를 이해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하여 노력하는 행복하고, 창의적이고, 윤리적이며,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추구한다. 또한 학생들이 필수적인 의사결정능력과 간문화적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만든다. 다문화교육은 배려 이론, 민주주의 교육, 인간 성장과 발달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신념체계를 통합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잠재력을 계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김순희, 2007:617). 즉,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름에 근거한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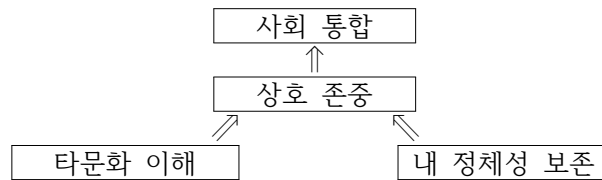
째는 문화교육의 교육적 등가성(equity)이고, 둘째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문화 교육을 받을 권리(empowerment)를 부여받아야 하며, 셋째는 사회에서의 문화적 복수성(Pluralism)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시적, 미시적 전제가 필요한 이유는 다언어/다문화 교육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혹은 손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하고, 나아가 교육에서 사용되고 획득되는 언어(문화도)는 향후 자신의 보다 나은 삶으로의 발전(신분이나 부의 상승)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언어, 다문화교육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1) 다수와 소수 모두를 포함하고, 모두를 위한 다중언어, 다문화주의의 채택
- 2) 두 개 이상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사용 능력 배양
- 3) 문화적 다양성을 담보한 상호문화이해 능력과 사용

또한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가지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상호 존중하여 협력하고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가운데 국가적 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다문화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일 것이다.



<그림 1> 다문화교육의 목표

이에 앞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 논의와 현황 등을 바탕으로 거칠게나마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의 경험 속에서 수립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미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던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에 귀 기울여서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기초 연구 및 질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변국 및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국가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다듬어 뿌리내리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가 수준의 대단위 중요도·만족도 조사 실시를 들 수 있겠다. 현재 여러 국가 기관의 주도 하에 다양한 다문화 언어문화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나 요구조사를 통한 사업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부처 및 사업간 유사 중복문제나 수혜

자의 중복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19)만족도나 중요도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지역별 현장별 수요에 따라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는 다문화 언어문화교육의 질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주도에 전국적 수준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시행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는 현행 다문화 언어문화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평가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역류효과(파급효과, washback effec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정책담당 기구의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관제탑(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하다.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일관성과 통일성은 효율성과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다.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 및 언론 매체, 현장의 다양한 기관 등에서도 꾸준히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온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보다 강화된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국무총리 산하의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 상시 기구로 격상하여 독립적인 정책 수립 및 중장기 계획이 가능하도록 권한과 지위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이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제반 사안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가 보장될 수 있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정책 수립에는 지향점이 분명해야 한다. 최상위에 사회통합을 전제한다면 이의 달성을 위해 그 하위에 여러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언어와 문화교육을 위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다중언어교육을 전제로 최소한의 이중언어교육을 목표로 해야 하고, 문화교육은 그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상호문화주의에 바탕한 상호문화이해교육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수립은 이미 박정아(2012: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어정책, 교육정책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국가 정책은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내용보다는 형식에 관심을 두다 보니 외형, 즉 다문화 사회 및 그 구성원에만 초점을 두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 같다.

아울러 한국의 다문화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요구에 맞는 한국형 언어문화교육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 인력풀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토대로 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내용마련은 물론 관리, 행정, 연구, 교육, 평가 등의 수행 체계 구축으로 까지 나아가야 한다. 연구의 결과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립의 구체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구체성과 진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앞서 말한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영향력의 강화를 위해 강력한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지만 그 아래에서의 각 관련 부처 간의 업무 분장 역시 새롭게 진행되어야 한

19) 현재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30개 사업) 등 12개 부처(복지, 법무, 교육, 문체, 농림, 안행, 고용부 등)에서 93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32억원이다. 지방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1,229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246억원이다. 부처별 사업 시행은 사업간 유사와 중복, 부처간 연계·협조체계 미흡으로 이어져 결국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발생이라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보도자료 참조(2014. 1. 15.)]



다<sup>20)</sup>. 무엇보다 한국의 언어(한국어)와 문화 교육의 총괄적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의 국립국어원이 되어야 한다. 최소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의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 교재, 전문 교사의 양성과 관리에 관련된 정책의 입안과 수립, 시행은 일원화 되어야 하는데,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문체부에서는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어교육 및 문화교육을 총괄하고 지원해 왔으며, 그간 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고, 2005년 국어기본법의 발령으로 한국어교원의 법적 지위 및 양성,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와서 그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 다만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교육부와 어느 정도 협의와 역할 조정은 필요하다. 특히 국립국제교육원과의 업무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외 법무부, 외통부, 노동부, 여가부, 농림부 등은 부서별 업무와 연계된 부분만을 제한적 지원하도록 하고, 한국어 및 문화 교육 관련 부분은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법무부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한국 법의 체제나 규범 등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데에 집중해야 하며, 여가부는 가정생활교육, 학교생활교육 등을 담당하는 것을 제안한다. 노동부/농림부는 직업, 직무 교육 등에 집중해야 한다.

다섯 번째, 지역별 특성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한국의 다문화 현상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각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의 다문화 정책 수립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보다는 다문화 관련 기관이나 사업별로 일회적 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시행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의 연구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고유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섯 번째는 의무교육제도의 실시이다.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부분으로 포함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따로 분리한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다. 결혼이주민이든, 이주 노동자든 그 대상이 누구든 목적에 맞게, 연령 등의 상황에 맞춰 일정 기간의 의무교육을 전제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고는 교육적 효율성을, 정책 시행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외 이주민을 위한 교수자의 전문성 강화, 맞춤형 교육과정 및 평가, 다양한 목적별/수준별 내용 개발 및 교재의 개발 등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김선정(2012) 등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됐으므로 본고에서는 정책적 제안에 방점을 둘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의 목소리 및 현황을 통해 제기되는 전문 교수자의 양성은 현행의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김선정(2012:62)에서 근래 실시되는 KSL 교육 전문가의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듯이 일반 목적 한

20) 국무총리 주재로 2014년 1월에 열린 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특히 한국어교육 관련해서는 문체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 컨설팅, 종사자 양성·교육은 문체부가, 예산 편성 교부, 운영 지침 마련 및 관리의 법무부/행안부/여가부가, 수요파악, 예산집행, 수탁기관 선정,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특히 이중언어교육과 다문화 어울림 교육을 담당했던 교육부는 다문화어울림 교육만을 담당하고, 이중언어교육은 여가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2014. 1. 15자 보도자료 참조.]

국어학습자와 특수목적 한국어 학습자 대상의 교육 담당 교수자, 결혼 이주 여성 대상 교수자,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교수자 등이 구분되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고, 현행의 국어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는 문화교육(상호문화이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불가능한 지경이다. 현행으로 진행하고 추가연수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이든, 아예 구분되는 교육과정을 갖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해 왔던 것처럼 다언어/다문화교육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나 교육 종사자들, 정책입안자들은 다언어/다문화교육이 다언어/다문화 학습자들로 하여금 보다 더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인류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 1) 우린 현재 걸으려는 다문화, 다중언어주의(문화다원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소위 ‘용광로 이론(문화융화주의)’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sup>21)</sup>

이들 대상의 한국어언어문화교육 정책은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처한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화정책이나 다문화(다중언어)정책은 언어가 문화의 일부이기에 언어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화교육과 언어교육 관련 정책은 깊은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sup>22)</sup>.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한다면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삶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한국어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정책이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교육/다중문화교육에 대한 독자적인 정책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위 질문 중 어느 쪽을 정말 지향하는지 알기 어렵다. 빠른 시일 안에 문화교육을 위한 정책적 비전과 목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실현가능성 높은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 2) 왜 다중언어(다문화)교육을 두려워하는가?: 한국어 능력과 한국화(Koreanization, 애국심)와의 이념적 결합으로 인한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에 충성하는 애국자이고, 다른 언어를 말하면 애국심이 적은 것인가?’<sup>23)</sup>

미국의 경우,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인디언 교육에서 그들의 문화와 언어의 독립성과 독특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고 지킬 권리가 있음을 보장 받은

21) 근래 문화융화주의는 부정적으로, 문화다원주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인 듯하다. 그러나 전자는 다수민족의 배타성을 배제할 수 있다면 수많은 이민자들의 인종이나 문화는 달라도 평등한 입장에서 수용하려고 하고, 그 다양성을 융합하려는 긍정적 요인도 있다.

22) 다문화주의를 정책 기조로 삼게 되면 다중언어교육정책이, 문화융화주의는 한국어만을 강요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3) 이는 이한규(2010:125)의 논의에서 ‘미국화(Americanization)’이란 용어를 ‘koreanization’으로 바꾸고, 그의 논의를 가져온 것이다. 여기에서는 문화융화주의에 따른 미국 인디언 대상의 영어전용 교육의 배경과 실패 원인 등에 관한 사적인 흐름을 상세히 알 수 있다.

것은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세기 중후반으로부터 100년이 훨씬 넘은 1990년 부시 행정부의 ‘아메리칸 원주민 언어 법(The American Native Language Act)’이 제정된 이후부터라고 한다. 미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여러 노력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올 만한 점은 결국 ‘자결권’의 보장이라는 점이다. 시혜적 행사가 아닌 근본적으로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 보전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필요하고, 한국어문화의 교육도 그러한 점들을 전제로 가능할 것이다.

엄마의 언어, 혹은 이주민의 모어에 대한 자긍심이 전제되어야 ‘자존감’ 또는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고, 이것이 한국사회에서의 자리매김에 강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나 가정에서의 ‘엄마 문화(언어 포함)’의 경시는 모자간의 대화 단절로 이어지고, 결국 가정 내에서의 엄마의 역할이 제한될 것이며, 자녀의 정체성은 불안해 질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들이 언어와 문화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 이들을 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토대로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접근을 통해 이들 학습대상자별 교육과정의 재확립, 이에 따른 교수요목, 교재, 교육평가 등과 같은 단기적이며 미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 3) 국어 문화의 실태와 국어교육의 대응 모색 / 이관규(고려대)

기본적으로 언어는 의사소통의 매개체이다. 국어도 언어의 하나이므로 의사소통의 매개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어가 언어와 차이가 있다면, 국어는 언어이지만, 언어는 국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어문화라고 하면 광의로 볼 때 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이 국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문화를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문화’를 국어로 이루어진 문화라고 넓게 정의하고 나면, 그 범위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나게 된다. 국어로 이루어진 결과물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흔히 인간이 인간인 표상으로 언어를 들곤 하는데, 이 언어를 통한 문화는 무수히 많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국어문화’의 초점이 문화로 가게 되어 국어교육의 대상 초점이 결과물로서의 ‘문화’로 옮겨지게 된다.

‘문화’의 외연은 무척이나 넓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문화(文化)로 보면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국어문화를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혹은 소득)로 본다고 할 때 그것은 범위가 너무나도 넓다.<sup>1)</sup> 이와 같은 입장은 (1ㄱ)처럼 국어문화를 바라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어문화를 국어로 이루어진 문화로 보는 입장에서 국어 교과 차원에 일단 떠오르는 것은 문학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 문학의 가치는 지고할 정도로 크다. 고전 문학이든 현대 문학이든 소설이든 시든 문학 작품이 한국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말로 아주 크다. 물론 각종 논설문이나 설명문이나 할 것 없이 국어로 이루어진 글도 모두 국어과에서 다룰 수 있다.

#### (1) 국어문화의 개념

- ㄱ. 국어로 이루어진 결과물로서의 문화.
- ㄴ. 국어 자체의 특성에 주목한 현상으로서의 문화.
- ㄷ. 국어 자체의 특성과 국어로 이루어진 결과물로서의 문화.

두 번째로, 국어문화를 결과물로 보지 않고 국어 자체가 가지는 특성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1ㄴ). 즉 국어 자체가 일정한 문화를 띠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어문화는 ‘국어 자체가 지니는 문화’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국

1) 문화의 개념에 대하여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것이고, ②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의 것이다.

①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 구석기 문화/귀족 문화/근대 문화/유목 문화/문화를 교류하다/문화를 창조하다/새로운 문화에 접하다/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다.

② 한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 [네이버 지식백과] 문화 [culture, 文化]

어'가 지니는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국어문화로 보는 것이다.

‘언어문화’라는 말이 함의하는 뜻으로 언어의 특성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곧 언어문화를 ‘언어라고 하는 문화’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어문화’라는 표현도 ‘국어라고 하는 문화’, 곧 국어 자체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어문화를 보는 입장이다. 흔히 표준어가 어떻다느니 사투리가 어떻다느니, 욕설 혹은 비속어가 어떻다느니 하면서 국어 자체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 바로 국어문화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다. 여기서 국어 자체의 특성을 살핀다는 것은 국어 표현의 특성을 살핀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말의 사투리 목록을 짚 나열해 둔 것이라든지, 청소년 통신 언어를 목록화해 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언어문화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국어문화를 국어 자체의 특성과 국어로 이루어진 결과물을 합해서 보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1ㄷ). 이것은 국어 자체의 일정한 특성과 그러한 특성을 반영한 결과물로서의 문화를 모두 ‘국어문화’로 보는 입장이다.

사실 국어문화라고 했을 때 국어로 이루어진 결과물로서의 문화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문학 작품들이 국어문화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국어교육 차원에서 볼 때 문학 작품은 우리말의 보고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생각은 이미 국어 자체의 표현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1ㄷ)이 ‘국어문화’를 가장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국어문화는 국어로 이루어진 문화를 뜻한다고 할 때, 결국 국어문화는 국어의 유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 음성, 문자, 몸짓에 따라 언어의 종류가 달라지곤 하는데, 국어문화의 종류 역시 마찬가지다. 즉 음성 국어문화, 문자 국어문화, 몸짓 국어문화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국어문화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결과물 차원에서 문학 작품을 국어문화의 꽃으로 보는 입장이다. 담론 차원에서 국어문화를 다룬 많은 논저가 이런 입장을 취해 왔다. 기능론에 대비적인 문화론을 주장할 때 바로 이런 입장의 일단을 볼 수 있다. 국어로 이루어진 모든 문화를 가리킨다는 광범위한 입장이었지만, 그 핵심에는 언제나 문학이 자리 잡아 왔다. 물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갈라서 문화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국어문화라고 한다면 문학이라고 하는 고급문화와 비문학이라는 대중문화로 이분화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일반적이어 왔다(김동환 2002 등).

두 번째로 국어문화를 다룰 때 언어가 의사소통의 매개체라는 점을 주목해서 살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대개 표준어와 사투리, 경어와 비속어, 고유어와 외래어(혹은 외국어), 대중매체어 등 언어 표현 그 자체를 다루는 경우를 뜻한다. 이는 곧 국어 표현 그 자체에 주목하여 국어문화를 보는 입장이다. 국어문화를 결과물이 아닌 그 자체의 실태(혹은 과정)로 보는 이 입장은 국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이해 및 파악해서 일상적 국어의 특성을 파악해 보는 방식이다.

세 번째로 국어문화를 인터넷 통신언어 차원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많다. 특히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언어에 주목하여 어문 규범 파괴나 문화적 일탈 현상 등을 논하는 경우이다.

물론 청소년 통신 언어에 대해서 문화를 창조하거나 새로운 국어 창조의 긍정적 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논의도 있다(이정복 2009 등).

## (2) 국어문화를 바라보는 입장들

- ㄱ. 국어로 이루어진 모든 문화를 가리키는 광범위한 입장
- ㄴ.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국어 표현 자체를 주목하여 보는 입장
- ㄷ. 인터넷 통신 언어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입장

‘국어문화의 실태와 국어교육의 대응 모색’이라는 주제를 (다른 발표 주제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본 발표에서의 국어문화에 대한 견해는 주로 (2ㄴ,ㄷ)에 해당하는 것 같다. 결국 국어문화를 소통 매개체로서의 국어 표현 자체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특히 인터넷 통신 언어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파악해 본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어교육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게 본 발표의 목적이다.

국어는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매개체이다. 평상시에 통용되는 국어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고 국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문학 작품 등 여러 결과물이 모두 문화이다. 국어를 사용할 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가치관이나 의식 등도 모두 국어문화이다. 이처럼 국어문화는 국어 표현 자체, 국어로 이루어진 결과물, 국어 표현 속에 들어 있는 가치관과 의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국어문화의 실태를 논할 때는 대개 걱정스러운 눈길로 조사하고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국어 표현 자체를 다루곤 한다. 흔히 청소년 언어가 어떻다느니, 유행어가 어떻다느니, 비속어가 어떻다느니, 외래어가 어떻다느니 등등 걱정스러운 눈으로 현실 언어를 다루곤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최근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국민의 언어 의식을 조사한 바 있다. 특히 청소년 언어실태에 대해서는 2011년에 한 차례 더 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2010년과 2011년에 시행된 언어 의식 조사 가운데 언어사용과 관련된 결과를 간략히 보기로 한다.<sup>2)</sup>

## (3) 비속어인 ‘개-’의 사용 양상(국립국어원, 2011:198)

- ㄱ. <체언> - 긍정: 개여신, 개간지
  - 부정: 개씹걸레, 개조뺨, 개년, 개놈, 개고생, 개실망, 개병맛, 개병신, 개드립, 개객기, 개뺨, 개거지 등
- ㄴ. <용언> - 긍정: 개잘되다, 개귀엽다, 개멋있다, 개이쁘다, 개좋다, 개사랑스럽다, 개

2) 국립국어원에서는 2005년과 2010년에 경어, 비속어, 표준어와 방언, 외래어·외국어, 대중 매체어, 외국 문자 등에 대해서 그 사용 양상을 언어 의식이라는 차원에서 조사한 바 있다. 5년 간격이라서 그런지 그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이들 항목 가운데 여기에서는 욕설·비속어, 외래어, 대중 매체어 사용실태에 대한 의식을 다루어보도록 한다. 국어문화 실태를 확인할 때 이 항목들이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다.

바르다, 개웃기다 등

- 부정: 개망하다, 개무섭다, 개불편하다, 개싫다, 개짱나다, 개실망이다, 개 못하다, 개욱기다, 개무시하다, 개띠겁다, 개빡치다, 개썰리다, 개 지랄하다, 개지랄떨다, 개찼다, 개쪼다 등

#### ㄷ. <수식언> - 개많이, 개레알

국어문화를 다루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여 논하는 경우가 많다. 예로 (3)에 제시해 보듯이 흔히 비속어 표현으로 알려진 ‘개-’는 강조의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개-’는 본래 ‘야생 상태의, 정도가 심한’의 뜻을 지닌 관형사성 접두사로서 부정적 가치를 띠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던 것이 (3)에서 보듯이 부사성 접두사로 여기저기에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개-’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3)에서 보듯이 뒤에 긍정적인 표현이 오게 되면 ‘개-’의 쓰임은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

국어문화의 어두운 면을 말할 때 청소년의 언어사용 실태를 지적하곤 한다. 중·고등학생들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단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성인 가운데도 일정한 맥락에서는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개인에 따라서도 언어 사용 양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

국어문화의 실태를 파악한다고 할 때 청소년의 언어 실태를 우선적으로 주목하곤 한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언어 실태가 심각하게 안 좋다고 인식하고 그 교육적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실제 대화와 인터넷 통신 언어 대화를 통해서 국어문화의 일단을 살펴보도록 한다.

#### (4) 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의 대화 실제(2014년 7월 00일)

S: 헐 김○주랑 김○현이랑 아직도 사귀?

L: 어.개네 한 번 깨졌다가 다시 사귀는 걸걸?

J: 야, 어제 개한테 톡왔었어.

L: 누구? 김○현한테?

J: 아니 김○주한테. 나 그거 보고 개놀랐다. 진짜 미친거아니야?

S: 헐. 이걸 김○현은 알까?

J: 그니까. 내가 맨 처음엔 이거 캡쳐해서 김가현한테 보낼까 하다가 그냥 안보냈어.

L: 맞아. 원래 그런 데 끼어들면 복잡해져. 톡 뭐라고 왔는데?

J: 그니까 개한테 톡이 왔어. 자기 심심하대. 그래서 게임하라고 했어. 진짜 철벽쳤어. 약간 꺼져라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개가 알겠대. 그래서 내가 어 이려고 톡 끊냈어. 근데 어제 또 톡이 온거야. 뭐하냐고.

S,L: 헐 개 뭐야.

J: 또 심심하대. 내가 개어이없어가지고 그냥 몇 시간 후에 보냈어.

L: 와.. ○현이가 불쌍하다.

(4)는 한 음식점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세 명이 나누는 대화로, 그 중 한 명이 전사한 기

록이다. 그 학생의 어문 규범에 대한 의식은 여기서 논외로 하고 이들이 나눈 대화에서 사용된 언어의 특징을 몇몇 살피기로 한다. 최소한 이 대화에서는 어른들이 우려할 정도로 국어문화 파괴의 모습만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톡’이라고 하는 외국어 사용의 일상화를 엿볼 수 있는데, ‘톡’은 통신 언어 대화 수단인 ‘카카오톡’을 한 음절로 표현한 것으로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이용하는 통신 매체이다. 흔히 ‘카톡’으로 불리는데, (4)에서는 그것을 더욱 줄여서 ‘톡’이라고 하고 있다. ‘캡쳐해서’에서처럼 외국어가 나타난다거나 ‘헐’이라고 하는 실망 혹은 허탈함을 나타내는 누리꾼들의 통신 언어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철벽쳤어’라는 그들만의 은어가 나타나는 것도 그들만의 언어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비속어 사용과 관련하여 걱정스런 점이 있다고 하면 접두사 ‘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개놀랐다, 개어이없어가지고’에서 용언 앞에 ‘개-’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 (5)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개-’에 대한 풀이

개-12 「접사」

「1」((일부 명사 앞에 붙어))‘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개금/개꿀/개떡/개먹/개살구/개철쭉.

「2」((일부 명사 앞에 붙어))‘헛된’,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개꿈/개나발/개수작/개죽음.

「3」((부정적 뜻을 가지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 개망나니/개잡놈.

(5)에서 보듯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개-’에 대하여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야생 상태의’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 ; ‘헛된’, ‘쓸데없는’ ;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관형사형 접두사로 보고 있다. ‘개망나니, 개잡놈’ 같은 예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5)에서는 명사가 아닌 용언 ‘개놀랐다, 개어이없다’ 앞에서 ‘개-’가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의 이러한 현상을 언어 파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언어 창조라고 볼 것인지는 새로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정복(2006:17-40)에서는 청소년들의 최근 통신 언어 사용 모습에 대하여 ‘경제적 동기의 줄임말과 붙여 적기, 오락적 동기의 언어유희, 표현적 동기의 새말들, 유대 강화 동기의 상징 기호, 심리적 해방 동기의 비속어들’이라 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유롭고 창조적인 언어 사용이라고 하거나 나아가 새로운 사회 방언의 등장이라 하여 반기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 볼 것은 통신 언어 표현에 일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에 그 자체 오류 표현도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갑자깅ㅋㅋㅋ, 내일체육들었다ㅋㅋ’에서 받침 ‘ㄱ’은 잘못 위치된 것이고 ‘ㄱ’도 ‘ㅋ’로 적어야 할 건대 실수로 표현된 것이다. 청소년 통신 언어가 그들만의 당당한 사회 방언으로 자리 잡으려면 그 자체의 이런 오류 표현 존재에 대해서도 오류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국립국어원에서 2010년에 조사한 국민들의 언어인식은 대개 현재의



국어문화,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청소년들의 국어문화 상태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상 청소년들의 대화 양상을 통해 볼 때 일부 비속어 등 일탈 언어 표현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고, 청소년들의 카카오톡의 대화는 일탈 정도가 크긴 하지만, 그들만의 통신 언어 공간 속에서 사용된 문자 언어 표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매우 위험할 정도까진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어문 규범이나 관습적으로 쓰이고 있는 국어문화가 있는데, 일탈의 정도가 크든 작든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어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교정 교육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들만의 사회 방언으로서 그대로 인정을 해 주어야 할지 국어정책에서든 국어 교육에서든 종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일까?

특히 청소년 언어에 대한 교정 차원의 국어교육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한 문제이다. 사실 국어문화를 교육하는 문제는 비단 청소년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국어교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 등도 그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국어문화의 주체는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까지 국어문화를 염두에 두어서 국어교육을 계획해야 하는지는 또 다른 논란거리이지만, 여기서는 긍정적 국어문화는 고양하고 부정적 국어문화는 지양한다는 차원에서 국어교육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국어문화 차원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도 국어과 수업에서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교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통 과목으로서 국어 과목에서 우리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현행 2011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어휘 교육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각 국어과 교과서에서는 어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흔히 국어문화라 하면 인터넷 통신 언어(매체 언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호주 등 몇몇 나라에서도 매체 언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매체 언어를 국어과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자는 의견이 솔솔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심화 과목으로 '매체 언어'라는 것을 선정하기도 하였었다. 2009년에 고교 선택 과목의 단순화라는 제도에 막혀서 국어교육 현장에서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국어과의 다른 과목에는 삼투되도록 하였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2015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매체 언어를 어딘가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 독립된 과목으로 해서 다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역 과목에 분산해서 다룰 것인지, 둘 중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매체 언어가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어과 전체에서 국어문화를 신경 써서 다루겠지만, 특히 매체 언어 관련한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면 관습에서 벗어난 언어 표현을 다루는 걱정스러운 국어문화에 대하여 제도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어과 차원은 아니지만 학교 교육에서 국어문화를 다룰 수도 있다. 특히 언어와 민족 간의 관계를 주목해 보면서, 학생들에게 우리말 우리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동아리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학교 안에서 여러 모임을 통하거나 학교 간, 혹은 학교 밖 기관들과 연합

하여 여러 가지 국어문화 행사들을 기획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는 2012년에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 공모전을 개최해서 그 결과물을 《오염된 청소년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라는 책자로 제작 및 보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급하기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학교와 국가기관이 함께하는 국어문화 프로그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넷째,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이든 일반인 차원이든 국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만 동아리가 있고 일반 회사에서는 없으란 법은 없다. 물론 국립국어원과 같은 국가 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그런 동아리나 프로그램을 유도 및 권장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문서를 작성하고 고운말 고운글로 회사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고, 책도 읽고 글도 써 보고, 여러 가지 국어문화 개선을 도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다섯째, 사실 모든 교육의 근원은 가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신문 만들기라든지 부모님과 아이들, 형제지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국어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 2010년에 실시한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가정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이 나타난 바 있다(35.9%). 모든 교육의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당장에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말과 글의 가치를 늘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의 국어문화를 염두에 두어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학부모들을 직·간접으로 연수를 시킨다든지 해서 가정에서의 국어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해 보는 것도 좋은 국어교육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

여섯째, 직접적인 국어교육 차원은 아니지만 국어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통신 언어가 문제가 있다고만 말하지 말고 생명력 있는 국어 표현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추카추카, 남친’ 같은 표현을 공식적인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맞춤법 같은 어문 규범의 현실화도 이루어야 한다. 2011년 ‘짜장면’으로 대표되는 실제 언어 표현들을 인정한 것처럼 현재는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언어의 현실성을 인정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가장 중요한 방안 모색은 뭐니뭐니 해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어문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말 우리글이 좋은 것이라는 의식, 내 것을 아름다운 우리 것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일반 사회에서든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사랑 의식을 고양해야 할 것이다.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른다는 선현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

#### 4)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의 언어문화 교육의 가치와 발전적 계승 -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 조희정(조선대)

주지하다시피 근대계몽기는 현대 국어교육이 형성되는 과정의 중요한 굴절 지점이자 근대적 시원(始原)이다. 1894년 과거 제도가 폐지되고 근대적 형태의 교육이 공식 교육으로 표방된 가운데 국어교육이 근대 교육의 핵심 교과로 부상했던 시기가 근대계몽기이다. 근대계몽기에 형성되었던 근대 국어교육의 움직임은 일제강점기를 관통하며 강제적 변모를 겪었다. 학교교육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자면, 일어교육이 국어교육의 위상을 차지하는 대신 조선어교육은 어문교육의 하위 분과로 격하되었고 급기야 1937년 이후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는 수모를 겪었다. 해방 이후 다시 수습된 국어교육의 형성 과정은 근대계몽기에 나타났던 근대 국어교육의 회복 과정이자 현대 국어교육의 탄생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관점 하에 본 논문은 근대계몽기 국어교육 내 언어문화교육의 실상을 살펴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근대계몽기의 국어교육에 대한 연구는 날로 풍성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박봉배<sup>1)</sup>, 조문제<sup>2)</sup> 등의 선도적 연구 성과에 뒤이어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의 ‘근현대 민족어문교육기초 연구’ 팀을 중심으로 근대계몽기의 교육과정과 교과서<sup>3)</sup>, 어문교육이론<sup>4)</sup>, 어문교육 정책과 어문운동<sup>5)</sup> 등의 연구가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에 대한 밑그림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근대계몽기의 교과서에 대한 심층적 연구<sup>6)</sup>, 국어교육의 하위 영역인 독서교육<sup>7)</sup>, 작문교육<sup>8)</sup>, 화법교육<sup>9)</sup>, 문

- 1) 박봉배, 『한국국어교육전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 2) 조문제, 「근대교육기에 있어서의 초등국어 교육의 연구」, 『논문집』2집, 서울 교육대학교, 1969.; 조문제, 「개화기 국어교육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4.
- 3) 김혜정, 「개화기부터 미군정기까지의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괄적 고찰」, 『국어교육연구』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김혜정, 「근대계몽기 국어교과서 내적 구성 원리 탐색」, 『국어교육연구』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김혜정, 「근대 이후 국어과 교재 개발에 대한 사적 검토」, 『국어교육연구』13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4.; 김혜정, 「근대적 텍스트의 구조적 특성과 함의」, 『국어교육』113호, 한국어교육학회, 2004. 이 논문들은 근대계몽기 초기 교육과정과 교과서들을 고찰하고 있으며, 이들을 바탕으로 하여 근대계몽기 교육과정과 교과서 전반은 윤여탁 외, 『국어교육』100년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64-283쪽에서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 4) 조희정, 「근대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개념 및 범주」, 『선청어문』3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02.; 조희정, 「근대계몽기 어문 교과의 형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16집, 국어교육학회, 2003.; 조희정, 「근대계몽기 어문교육 연구의 특성」, 『국어교육연구』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허재영, 「근대계몽기 국어교과의 성립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53집,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 중등교육연구소, 2005.
- 5) 허재영, 「근대계몽기의 어문 정책」, 『국어교육연구』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허재영, 「근대계몽기의 어문 문제와 어문 운동의 흐름」, 『국어교육연구』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허재영, 「근대계몽기의 어문 정책(1)」, 『한민족문화연구』14집, 한민족문화학회, 2004.
- 6) 서재복, 「한말 개화기 초등용 교과서 분석」, 『교육종합연구』제3권제2호, 교육종합연구소, 2005, 35-39쪽.; 강진호 외, 『조선어독본과 국어 문화』, 제이앤씨, 2011.; 김경남, 「근대계몽기 독본·수신 교과서의 우화 텍스트의 변화 양상」, 『우리말글』55집, 우리말글학회, 2012.; 허재영·김경남, 「근대계몽기 독본류 교과서의 교재 연구」, 『동방학』24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이상혁·권희주, 「근대계몽기 ‘국어교과 독본류’의 문체 연구」, 『민족문화연구』60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3.; 박선영, 「근대계몽기 여성교육용 독본과 가치 혼재 양상」, 『한국문예비평연구』42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김혜정, 「근현대 국어교과서 자료의 소개와 활용 방안」, 『한국어학』59호, 한국

학교교육<sup>10)</sup>, 교수법<sup>11)</sup> 등에 대한 분야별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삼되,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를 중심 자료로 채택하여 근대계몽기에 시행된 국어교육에서 언어문화교육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근대계몽기에 국어교육에 대한 국가 정책은 갑오개혁<sup>12)</sup> 이후 교육입국조서(1895), 소학교령(1895), 중학교관제(1899), 보통학교령(1906), 고등학교령(1906), 사범학교령(1906), 고등여학교령(1908) 등의 법령을 통하여 구체화되었고, 법령의 시행에 따른 규칙과 관련 교과서에 대한 법령이 추가로 공포되었다.<sup>13)</sup> 근대계몽기에 교육 내용의 선정부터 교재 편찬까지 국가가 개입하였던 교육이 구체화되어 교실 속으로 스며들었던 양상은 국어 교과서를 통해 추출할 수 있다. 특히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는 교과서 사이에 텍스트의 넘나들이 많아 유사한 제재가 선택되거나 유사 단원이 반복 수록되곤 하였기에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는 당대 국어교육 내 언어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양상 등을 살펴보기에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근대계몽기의 교육이 지녔던 계몽적 성격을 고려할 때,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들은 당대의 언어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텍스트인 동시에 근대 교육이 지닌 계몽적 특성에 따라 당대의 언어문화를 견인하고 형성하려는 교육적 의도를 드러내는 텍스트로 보아야 한다. 즉,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는 그 자체로 이미 교육적 행위를 함의하는 동시에 교실 내 교육 활동의 구체적 자료가 된다. 따라서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를 통해 추출한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양상은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반영인 동시에 지향적 방향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관점을 유지하며 본 논문에서는 언어문화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검토한 후, 근대계몽기 국어교육 내 언어문화교육의 양상과 의의를 논의할 것이다.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적 시각으로 언어문화교육을 취할 때, 언어문

- 
- 어학회, 2013.; 구자황, 「근대계몽기 교과서의 생산과 흐름」, 『한민족어문학』65집, 한민족어문학회, 2013.; 강진호, 「국어과 교과서와 근대적 주체의 형성」, 『국제어문』58집, 국제어문학회, 2013.
- 7) 김종철, 「근대 초기의 독서론」, 『독서연구』10호, 한국독서학회, 2003.; 허재영, 「국어과에서의 독서교육 발달 과정 연구」, 『정신문화연구』28권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63-77쪽.
- 8) 허재영, 「국어과에서의 쓰기교육 변천 연구」, 『어문논총』4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121-126쪽.; 허재영, 「교육과정기 이전의 작문 교재 변천사」, 『한국어학』32집, 한국어학회, 2006, 243-249쪽 ; 정우봉, 「근대계몽기 작문 교재에 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28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07.;
- 9) 허재영, 「근대계몽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화법교육 연구」, 『어문학』120집, 한국어문학회, 2013, 87-94쪽.
- 10) 정호웅, 「근대계몽기 문학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3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정충권, 「전통 지식인이 바라본 근대계몽기의 교육과 문학」, 『문학교육학』3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배수찬, 「근대 초기 서양문학 수용의 세 국면과 문학교육」, 『문학교육학』3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조희정,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 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학』3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김화선, 「아동의 발견과 아동문학의 기원」, 『문학교육학』3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 11) 허재영, 「국어과 교수 학습 이론 변천사」, 『어문논총』44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69-75쪽.; 허재영, 「근대계몽기 교육학과 어문 교육」, 『한민족문화연구』36집, 한민족문화학회, 2011.; 허재영, 「근대계몽기의 교과론과 교육학, 교수법 자료 연구」, 『한국민족문화』45호, 2012.
- 12) 갑오개혁 전후의 교육정책과 전개과정은 김경미, 「갑오개혁 전후 교육정책 전개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참조.
- 13) 근대계몽기 교육 관련 법령은 박지태 편저, 『대한제국 정책사 자료집 IV - 교육』, 선인문화사, 1999 참조.

화교육으로 지칭되는 개념과 범주를 한정해야 할 것이다. 곤혹스럽게도 ‘언어’, ‘문화’, ‘교육’은 세 가지 용어 모두 의미하는 바가 넓고 포괄적이다. 이로 인해 ‘언어문화교육’으로 지칭하는 바를 한정하기가 꾀까다롭다.

다행히 근대계몽기의 교과서 중 후기 교과서에 해당하는 『국어독본』과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조선어독본』을 자료로 하여 ‘국어 문화’를 살핀 선행 연구<sup>14)</sup>가 있다. 책의 제목으로 『조선어독본』과 『국어 문화』를 내세웠지만 ‘국어 문화’에 대해 개념 규정을 따로 하고 있지 않기에 논문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 책에서 다루는 ‘국어 문화’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책은 1907년 『국어독본』에서 일제강점기의 『조선어독본』으로 이어지는 국어 교과서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주의 교육 정책과 이데올로기, 국민 만들기와 여성상, 문학 작품 수용 방식 등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국어 문화’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어 교과서를 통해 드러나는 언어 정책, 이데올로기, 텍스트 갈래, 문학 작품의 존재 방식 등을 국어 문화로 간주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계몽기를 검토하는 관점으로 제안된 ‘어문생활사’<sup>15)</sup>와 유사하다. 김혜정은 어문생활사란 “언어의 내적 구조의 역사적 변화만을 다루는 ‘국어사’와 문학작품만의 역사적 이해를 다루는 ‘국문학사’를 모두 포함하되, 그 둘을 넘어” “언어의 역사적 변화를 언어 외적인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설명하되”, “미시사적인 입장에서 일상적 삶을 기술하고자 하는 입장”<sup>16)</sup>이라고 규정한바, 언어의 내적 특징, 언어로 이루어진 결과물, 언어를 둘러싼 맥락, 언어가 활용되는 일상생활까지 언어와 관련된 총체적 국면의 역사를 어문생활사라는 용어로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공교육 내 국어교육을 설계하는 국가 단위 교육과정에 등장하는 국어 문화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1년에 고시된 국어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의 목표를 살펴보자.

‘국어’ 교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나.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다. 국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어 생활을 능동적으로 하는 태도를 기른다.<sup>17)</sup>

국어 교육과정 상의 국어 문화는 국어 교과로 열거된 분야와 활동 일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국어 교과 목표에 서술된 국어 활동, 국어, 문학도 국어 문화이며, 그것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혀

14) 강진호 외, 『조선어독본과 국어 문화』, 제이앤씨, 2011.

15) 어문생활사의 개념을 정리하고 어문생활사의 자료로 국어 교과서가 지닌 가치를 고찰한 논의는 김혜정, 「근현대 국어교과서 자료의 소개와 활용 방안」, 『한국어학』59호, 한국어학회, 2013, 77-78쪽 참조.

16) 김혜정, 「근현대 국어교과서 자료의 소개와 활용 방안」, 『한국어학』59호, 한국어학회, 2013, 78쪽.

17) 교육과학기술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별책5], 2011, 3쪽.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도 국어 문화이며, 국어의 가치를 알고 능동적으로 국어 생활을 하는 것도 국어 문화이다. 즉, 국어 문화는 국어와 관련된 일체의 것이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등장하였던 ‘국어 문화’와 ‘어문생활사’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던 현상에 주목하는 용어로 ‘언어문화’를 사용한다. 근대계몽기는 국어 의식이 막 형성되는 시기이며 한문 문해력과 국문 문해력이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에 의한 일본어 능력까지 교육 상황에서 다루어지던 시기인 만큼 국어 문화의 상위 범주로 ‘언어문화’를 설정하고 언어문화에 대한 교육 양상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우한용은 “국어교육학에서는 국어(언어)를 사용하여 이룩하는 제반 활동을 언어문화로 규정한다.”<sup>18)</sup>고 정의하였던바, 이처럼 ‘언어 사용’ 국면에서 비롯하는 활동의 과정이자 결과를 언어문화로 파악한다면, 언어문화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과 그 활동으로 생겨나는 결과물로 가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활동,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언어에 대한 관점과 태도, 활동으로 인해 생성되는 언어와 문학 등은 모두 언어문화라 통칭할 수 있다.

근대계몽기는 국어교육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오늘날의 국어교육만큼 언어문화 교육이라 선별할 만한 요소가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의 다양한 현상 속에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언어문화교육의 단서를 찾아 재구성하려는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 단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언어문화는 무엇일까? 예컨대 국어 교과서의 단원별 텍스트의 유형과 내적 구조<sup>19)</sup>는 당시에 그 자체로 계몽 텍스트의 모범적 사례로 간주되어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근대의 국어 교과서에 근대의 계몽 텍스트 갈래를 선택하여 수록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언어문화교육 현상으로 다룰 수 있다. 또한 근대 국어 교과서에 중세부터 문학으로 다루어졌던 텍스트 혹은 근대 이후에 형성된 문학의 범주에 부합하는 텍스트를 수록하는 것<sup>20)</sup> 자체도 근대의 언어문화교육 중 하나의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근대계몽기 국어교육에서 언어문화교육의 양상을 검토하는 것은 실상 근대계몽기 국어교육 현상 전반의 특징을 추출해야 하는 거대 작업인바,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특징적 면모를 드러내는 국면으로 언어에 대한 의식,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비롯한 언어활동에 대한 의식, 국어 교과와 국어 교과서에 대한 의식에 집중하여 몇 가지 현상을 선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언어’라는 문화에 대한 교육. 이는 언어에 대한 의식, 즉 언어관에 대한 논의로 정립되어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졌다.

둘째, ‘언어활동’이라는 문화에 대한 교육. 이는 언어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 언어활동을

18)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4쪽.

19) 이에 대한 연구는 김혜정, 「근대계몽기 국어교과서 내적 구성 원리 탐색」, 『국어교육연구』11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3 참조.

20) 조희정,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 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학』3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92-99쪽 참조.

교과의 주요 내용으로 삼는 언어교육, 특히 국어교육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되었다.

셋째, 국어 교과와 국어 교과서에 대한 인식. 이는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채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를 구성하는 원리로 작동하였던바,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가 당대의 언어 문화를 반영하고 교육적으로 견인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근대계몽기의 초기 교과서부터 후기 교과서까지 국어/국문 의식은 거듭 언급되며 국어 교과서 내용의 중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근대계몽기의 ‘언어활동’이라는 문화에 대한 논의와 그것의 교육 양상을 살펴보자. 근대계몽기에 언어활동을 하나의 문화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일까?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활동을 하나의 의미 있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가치를 판단하는 발언 속에서 언어활동이 하나의 문화로 다루어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근대계몽기의 교과 중 국어 교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독서(讀書), 작문(作文), 습자(習字)이다. 이러한 제도의 성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제도 속으로 진입한 이들에게 독서, 작문, 습자의 필요성과 가치를 설득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공유시킬 관점이 필요하다. 특히 특정 계급에게 문해 능력이 집중되어 있던 중세를 비판한 근대계몽기의 계몽 주체들은 언어활동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문해 능력의 대중화’를 대표적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는 국어 교과서 속에 고스란히 투영되었다.

스름이 °六七歲가되면 °不可不冊을읽으며 °글시를쓰며 °또數法을 °비울일이오이다 °이런일은 °官員이나百姓이나 °商估나 °다 °緊要한거시오 °<sup>21)</sup>

초기 교과서에서 드러나는 지식에 대한 두 가지 범주 중에서 학교 교육, 특히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지식의 성격과 초등교육에 기대되었던 목표를 수렴하는 개념이 ‘보통 지식’과 ‘보통교육’이다. 초등교육 관련 법령이 1896년 선포된 <소학교령>에서 1906년 <보통교육령>으로 대체되면서 ‘보통교육’은 초등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개념이 된다. 소학교에서 보통학교로 명칭이 변화하였듯이 초등교육에서 다루는 지식은 ‘보통 지식’이라는 범주로 다루어졌다.

今日 文明諸國이 普通教育을 施하는 所以도 亦同한지라 今日 文明社會에 欲齒하는 者는 普通教育을 必要로 함이 武育의 戰國時代와 如하야 人이 되야 讀書習字算術等 普通教育에 心得이 無하고 今日社會에 立함이 無하고 戰場에 出함과 不異한니 此普通教育이 有하면 凡事成이라 云함이 아니라 但普通教育이 無하면 社會에 見容치 못하야 其實業에 就하기 不能할뿐 不是라 人民이 되야 國家에 對하는 義務를 全하며 其政治에 參與하기 不能한지라 故로 普通教育은 國民의 義務라 할지니라<sup>22)</sup> (강조는 필자)

<보통학교령>에 따라 교육이 정비되던 즈음인 1907년에 보통교육의 특징과 의의를 밝힌 글

21) 學部 編輯局, 『新訂尋常小學』 2권, 1896, 第二課 運動이라. 동일한 내용이 玄采, 『新纂初等小學』 2권, 1909, 第三十六課 運動에도 수록되어 있다.

22) 朴聖欽, 『普通教育은 國民의 義務』, 『西友』 제9호, 西友學會, 光武11年(1907).

이다. 보통교육의 세 가지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첫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둘째, 농업, 공업, 상업 등 실제의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셋째, 국가의 구성원으로 의무를 다하고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통교육이 필요하다. 근대계몽기의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초 교육의 성격을 ‘보통교육’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보통교육에서 ‘보통’의 의미가 느슨하여 정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이 우리의 근대 교육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통감부의 통치 이후에 초등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보통교육’은 일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개념이다. 일본의 메이지[明治] 시기에 등장한 용어인 ‘보통문(普通文)’에서 ‘보통’의 의미를 “지금 사용되는 것처럼 일반적 또는 평균적이란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 또는 표준적이라는 의미”<sup>23)</sup>로 파악하는 관점을 참고한다면, 근대계몽기의 보통교육은 근대계몽기의 사회 구성원이자 국가 구성원인 국민을 보편화하고 표준화하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보통교육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계몽기에 보통교육과 짝을 이루었던 개념인 ‘직업교육’을 동시에 살펴야 한다. 보통교육은 아동이 장차 직업을 얻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밟아야 하는 연습 단계이자 수련 과정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직업은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뿐 아니라 계몽 논설들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위 논설에서는 ‘실업(實業)’으로 제시되었고, 국어 교과서 내에서는 직책(職責)이라는 용어<sup>24)</sup>로 등장한 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어 교과서 내에서는 직업(職業)이라는 용어로 귀결<sup>25)</sup>되었다. 근대계몽기에 등장하는 ‘직업’은 중세 사회의 신분 계급이었던 사농공상(士農工商)과는 다르게, 근대 국가의 형성을 염두에 두고 새롭게 의미가 부여된 개념에 가깝다.<sup>26)</sup> 국어 교과서에서 ‘직업’을 설명하는 맥락을 살펴보자.

그런데 근대계몽기에 제안된 보통교육은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을 지니고 있다. 일제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된 ‘보통교육’은 ‘직업교육’과 짝을 이루고 대비된다는 점에서는 앞서 거론한 보통교육과 유사하지만, ‘인문교양교육[liberal education]’의 성격보다는 직업교육으로 나아가기 이전의 기초 교육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근대계몽기의 보통교육은 보편화하고 표준화시켜 사회와 국가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교육의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근대계몽기에 보통교육의 하위 교과로 제안된 바를 통해 이 점은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보통교육의 핵심 교과는 독서, 습자, 산술이었다. 보통 지식의 핵심에 언어활동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국어 교과로 분류할 수 있는 독법, 서법, 습자 등으로 구체화된 언어활동에 대한

23) 사이토 마레스(齋藤希史), 황호덕·임상석·류충희 옮김, 『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 한문맥과 근대 일본』, 현실문화, 2010, 116쪽.

24) 우리들은, 農工商, 세가지中에, 兪가지業이잇서야, 스람이된職責이라. 稱호읍노이다 學部 編輯局, 『新訂尋常小學』 2권, 1896, 第八課 農工商. 동일한 내용이 玄采, 『新纂初等小學』 2권, 1909 第十七課 農工商에도 수록되어 있다.

25)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4권, 1906, 第十 職業.;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7권, 1906, 第十六 人의職業 등.

26) 보통교육과 직업 교육에 대한 보충 설명은 조희정,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 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학』 39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93-95쪽 참조.



언급을 국어 교과서 내에서 살펴보자.

勤勉한 人은 言하되 書를 讀하면 書中으로부터 弘大한 學問과 廣濶한 知慧는 晝夜로 繼續하며 歲月을 積累해야 我로 하야금 世界上에 博學家和 有名인이 되게한다 하느니라.

讀書하는 諸君아 諸君의 讀書하는 目的은 何에 在하가 오직 國家와 社會에 福利가 되는 事를 作하기로 힘쓸지이다.

國家는 一人으로 成치 못하고 多數한 人의 集合力으로 成하느니 諸君이 國家를 構成하얏신則 諸君은 各其勉勵해야 幼時에 在하야 將來에 負荷한 國民의 義務를 盡한 豫備를 作할지이다.<sup>27)</sup> (강조는 필자)

독서의 목적이 오직 국가와 사회의 복리가 되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학습에 공적 성격이 부여되고 독서도 개인적 성취를 위한 것이기에 앞서 국가와 사회에 이익이 되는 행위로 간주되는 공적 독서 관점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공적 학습과 공적 독서는 국민의 의무로 승격된다. 학습과 독서가 등치되면서 학습의 핵심 방법인 독서법에 대한 인식이 국어 교과서에 드러난다. “順明이 福童의 ㅁ음을 感動하야 저녁마다 福童의게 讀書하는 법을 가르쳐주더라.”<sup>28)</sup>라는 진술에서는 독서의 방법은 파악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 알려줄 만한 가치를 지녔고 가르쳐줄 수 있도록 조직화되었다는 관점을 읽어낼 수 있다.

학습이 곧 독서이니 독서법은 곧 학습법이다.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는 독본 텍스트였기에 독서법은 곧 국어 교과서를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국어 교과서에서 책을 읽는 방법을 다룬 단원이 1896년에 발행된 『신정심상소학』과 1909년에 발행된 『신찬초등소학』에 나란히 수록되어 있다. 두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은 거의 유사하지만 부분적으로 구절이 변화하여 두 교과서 사이의 관점 변화를 살필 수 있다. 후기 교과서인 『신찬초등소학』의 단원을 제시하고 변화가 두드러진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거론한다.

書冊은 速히 讀지 °말것시오 聲音을 淸楚케 °하야 徐徐히 讀함이 °올소이다 °

書冊을 速히 讀하는 것이 能하눌노 知하느者ㅣ °잇스나 此는 大不可하니 萬若過速하면 誤錯이 多할 것이오이다

또 書冊을 讀하되 書字의 音節만 操心하야 人이 聽기에 快樂케 °하고 書意를 料量치아니하면 此亦大不可하오이다 °

文字란 것은 事物을 記하는 것이오 書冊이란 것은 文字의 뜻을 知코자 °함이니 故로 書冊을 讀하는 法은 ° 그 辭義를 自己도 十分알녀니와 °그 傍에 ° 뜻는者도 °그뜻을 °知하도록 ° 읽는 것을 善讀者라 稱하옵느이다”<sup>29)</sup>

책 읽는 방법의 첫 번째 전략으로 책을 천천히 읽으라 권고하고 있다. 이때의 책 읽기는 낭독을 가리킨다.<sup>30)</sup> 그 곁에서 듣는 이도 그 뜻을 알도록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이라 하였으니

27)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7권, 1906, 第二十六 勤勉의三課.

28) 學部 編纂,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 3권, 1907, 第二課 童子二.

29) 玄采, 『新纂初等小學』 6권, 1909, 第十一課 書冊을讀하느法.

30) 묵독(默讀)은 1920년대 즈음부터 근대의 대표적 글 읽기 방법으로 부각되었다. 관련 내용은 천정환,

소리 내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제언이다. 조용하고 맑은 목소리로 천천히 책을 낭독하라고 하였으니 급하게 책을 읽는 경우에는 반드시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을 빠르게 읽는 능력은 독서법에서 중시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전략으로 책의 뜻을 헤아려 읽으라고 권유하고 있다. 책을 낭독하는 경우 책을 소리 내어 읽는 데에만 집중하다보면 자칫 글의 내용을 놓칠 위험이 있기에 천천히 내용을 궁구하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찬초등소학』에서 “人이 聽기에 快樂케. ㅎ고”를 추가하여 글자가 지닌 소리에 주목하는 것은 대체로 다른 이가 듣기에 좋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부연 설명하였다. 책을 낭독하는 이가 책을 읽는 소리에만 신경을 쓰느라 책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읽는다면 낭독을 듣는 이는 더더욱 그 뜻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자에 대한 관점을 통해 책의 뜻에 주목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를 추출하고 있다. 문자는 사물을 기록하는 것이고 책이란 문자의 뜻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신정심상소학』에서는 “文字란거슨. 本來. 그生覺을. 表호는거시오.”라고 하여 문자에 대한 관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정심상소학』에서는 문자란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신찬초등소학』에서는 사람의 바깥 사물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니 사뭇 대조적이기까지 하다. 문자를 통해 사물을 기록한다는 의식은 중세의 기록 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관점인 반면, 문자가 사람의 내면을 표현한다는 관점은 근대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다.

1909년에 발행된 현재의 『신찬초등소학』은 근대계몽기의 이전 교과서와 유사한 단원이 많다. 후기 교과서가 전대의 교과서에 수록된 단원을 취하되 그 내용의 일부를 변형시켰을 때에는 교과서 집필자나 편찬자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가령 위에서 인용한 『신찬초등소학』 11과에서는 『신정심상소학』의 관련 단원 중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추가한 문장과 의미가 애매한 문장을 삭제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sup>31)</sup>

『신정심상소학』은 서(序)에서 “茲에 日本人 補佐員 高見龜와 麻川松次郎으로 더부러 小學의 教科書를 編輯호시”라 하여 일본인 편찬자의 존재를 밝혀두고 있는바, 『신정심상소학』의 단원은 일본 교과서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한다. 사람의 내면을 표현하는 문자에 대한 관점은 일본의 교과서와 근대적 글에 대한 관점이 도입된 것일 터이다. 『신찬초등소학』의 집필자인 현재는 『신정심상소학』 교과서의 단원을 취하되 문자에 대한 중세적 관점의 문자관을 유지하며 단원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sup>32)</sup>

한편 낭독이 주를 이루었던 근대계몽기에는 책 읽기의 장면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독서법에서 자주 다루어졌다. 다음 단원은 책 읽기에서 소리와 의미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앵무새의 말하기를 비교 사례로 거론하였다.

『근대의 책 읽기』, 푸른역사, 2003, 120-127쪽 참조.

31) 추가한 문장은 “人이 聽기에 快樂케.”이며 삭제한 문장은 “그런故로. 文字는. 그뜻을. 잊지말고. 生覺호는거시오이다. 萬一. 許多호書籍을. 읽을지라도. 그事蹟을不知호면. 一毫라도. 뜯디업는이다.”이다.

32) 『신찬초등소학』의 11과에서는 『신정심상소학』의

이 그림 은 한 아해 가, 글 을, 읽는 것이다.  
 이 아해 는, 교의 에, 안져, 책을, 정신되려, 읽는다.  
 이 아해 원편 에, 한 앵무새가, 잇는디, 그 글 읽는 소리 툄, 입내 낸다.  
 너의 는, 앵무새 툄, 구경 하여라.  
 앵무새 는, 룡히 사람 의 말소래 는, 입내 내나, 그뜻 은, 아지 못하느니라.  
 我 의 사랑 하느 족하들아, 너의 는, 글을, 읽을쎄에, 저 앵무새 와, 갓치, 말지어다.<sup>33)</sup>

글 읽기에서 소리와 뜻을 모두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아이가 글을 읽는 활동과 앵무새가 글 읽는 소리를 따라 하는 행위를 비교하고 있다. 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앵무새는 소리의 뜻을 모른 채 성대를 울려 유사한 음향을 만들어낼 뿐이다. 아이의 글 읽기가 앵무새의 행위와 달라지려면 소리 내어 읽고 있는 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 책을 읽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소리에만 주목하며 책을 읽는 방식을 유독 경계한 이유는 독서 교과와 시험 방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今日은學校에서, 여러, 學徒에게, 試驗하라고, 슈유를, 주었소.  
 정길과, 갑질이, 갓치, 와서, 도강홀, 예비를, 생각하느이다.  
 정질이, 갑질더러, 말하되, 우리가,今夜에, 밋글을, 함과, 읽자하얏소.  
 그래서, 갑질은, 저녁밥을, 먹고, 정질에게로, 冊을, 가지고, 왓소.  
 지금, 이, 두, 兒孩는, 燈火를밝히고, 冊床우에, 冊을, 펴, 노코, 읽느이다.<sup>34)</sup>

시험이 다가오자 학교에서 일종의 가정학습을 허용하였다. 친척 관계인 정길과 갑질은 함께 모여 시험을 대비한 공부를 한다. 시험공부가 도강(都講), 즉 “여러 날에 걸쳐 배우고 익힌 글을 선생 앞에서 한꺼번에 외는 일”<sup>35)</sup>을 예비하는 것이라 하였으니 교사 앞에서 학습자들이 주어진 글을 큰 소리로 외며 시험을 보았을 것이다. 1900년대 관립한성사범학교의 입학 시험 중 독서 시험에서 “七書 가운데 어느중 에서나 읽혀보았다. 나는 그새 大學序文을 읽히웠다.”<sup>36)</sup>는 기록처럼 당시 독서 교과와 시험은 한문 텍스트이든 국문 텍스트이든 주어진 글을 큰 소리로 읽거나 외는 중세의 평가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었다. 큰 소리로 읽거나 외는 방식으로 시험을 본다면 학습자들은 글을 소리 내어 읽는 학습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평가 방식에 따른 학습자들의 학습 경향을 진단하고 우려하였기에 낭독의 관습 하에서 제안되었던 책 읽기의 방법은 읽기의 장면에 포함된 소리보다도 의미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에 전제되어 있는 국어 교과와 국어 교과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논의를 위해 국어 교과서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의 일반적 성격부터 고찰한다. 국어 교과서 단원의 다수는 근대에 도입된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 학습자들에게 근대 지식을 제

33)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2권, 1906, 第十五 그림이야기 二. 동일한 내용이 玄采, 『新纂初等小學』 2권, 1909, 제15과 ‘그림이야기-’에도 수록되어 있다.

34)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3권, 1906, 第二十九 밋글읽기.

35) 다음(Daum) 국어사전.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lw000065099&q=%EB%8F%84%EA%B0%95>

36) 김창제, 「한성사범학교와은사」, 『삼천리』신년호, 소화7년(1932) 1월 1일.

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근대계몽기의 초기 교과서에서는 근대 지식의 성격을 ‘실용적 지식’으로 규정하며 근대 지식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근대 지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에 앞서 근대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를 학습자에게 설득해야 근대 지식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은 이후 국어 교과서들의 단원에서 근대 문물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근대 지식 관련 단원들을 구성하는 기본 관점이 되었다.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근대의 지식들은 숫자, 지리적 지식, 과학적 지식 등을 다룬 단원으로 구체화되었다. 예를 들어 수를 읽고 쓰는 법, 특히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정보<sup>37)</sup>를 알려주는 단원, 시계를 보는 법을 제시한 단원<sup>38)</sup>, 세계의 지리 지식<sup>39)</sup>뿐만 아니라 대한제국<sup>40)</sup>, 한양에 대한 정보<sup>41)</sup>와 자부심<sup>42)</sup> 등이 제시된 단원, 물의 순환 원리,<sup>43)</sup> 식물의 성장 원리,<sup>44)</sup> 인간의 신체<sup>45)</sup> 등 과학 지식을 다룬 단원 등이 해당한다.

각종 근대적 지식을 제시한 단원은 산술 교과서, 역사 교과서, 지리 교과서, 이과 교과서의 단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해당 내용의 정보와 지식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다른 교과서의 한 단원을 옮겨 놓은 듯한 단원이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대 교과서 집필자와 편집자들이 이상의 내용을 국어 교과서에서 다룰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국어 교과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반영할 터인데, 여기에는 국어 교과를 기초 교과로 파악하는 관점이 깔려 있다. 즉, 보통교육의 핵심 교과로 독법, 작문, 습자 등을 설정할 때, 이는 앞서 살핀 것처럼 일종의 독서 방법, 작문의 방법, 습자의 방법 등을 알고, 이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습득되는 능력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습자는 서법이라 하여 일종의 기능 교과로 파악되기도<sup>46)</sup> 하였다. 이때 반복적인 연습에 동원되는 텍스트의 성격으로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은 독법의 경우라면 독본의 제재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로, 작문의 경우라면 무슨 종류의 글을 쓰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될 터이다. 이에 대해 당대 국어 교과서의 집필자와 편찬자들은 당대의 근대 지식을 다룬 텍스트 전반을 독본의 제재로 선별하였고, 이로

37)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2권, 1906, 第七 હેન것 유사한 내용이 玄采, 『新纂初等小學』, 2권, 1909, 第五課 ‘હેન법문답一’ 第六課 ‘હેन법문답二’에 수록되었다.

38) 學部 編輯局, 『新訂尋常小學』 2권, 1896, 第二十二課 時計를보는法이라— 第二十三課 時計를보는法이라二.

39) 세계 주요 국가와 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원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40)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5권, 1906, 第一 大韓帝國.

41) 學部 編輯局, 『國民小學讀本』, 1895, 第三課 ‘漢陽’.

42)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5권, 1906, 第二十五 漢陽, 유사한 내용이 鄭寅琥, 『最新初等小學』 4권, 1908, 第十三 漢陽, 玄采, 『幼年必讀』 3권, 1907, 第一課 本朝歷代一 第二課 本朝歷代二, 玄采, 『新纂初等小學』, 3권, 1909, 第二十九課 漢陽一, 第三十課 漢陽二에 수록되었다.

43)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6권, 1906, 第十二 水의去處: 玄采, 『新纂初等小學』 5권, 1909, 第三十二課 水의變化一 水氷蒸氣雲霧雨, 第三十三課 水의變化二 雹霰雪露霜.

44)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7권, 1906, 第二 草木의生長及蕃殖.

45)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 7권, 1906, 第三 身體의健康.

46) 學部 編纂, 『普通教育學』, 韓國政府印刷局印刷, 1909, 64쪽.

인해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는 수록된 텍스트의 내용만을 고려한다면, 범 교과 텍스트가 골고루 수록된 종합 교과 교재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텍스트 중 국어교육과 좀 더 밀접한 텍스트, 다시 말해 당대의 언어생활과 관련된 자료는 무엇일까? 아마도 문학 텍스트가 주요 후보 중 하나일 것이다. 근대계몽기에는 교과와 차원에서 문학 과목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당시에 ‘문학’이라는 용어로 지칭되었던 대상은 중세의 문장지학(文章之學)에 가까웠다. 단원의 제재로 채택된 텍스트 중 중세의 문학은 극히 소수였던 반면, 근대의 문학 범주는 형성되기 이전의 시기였기에 현대와 같은 문학교육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현대의 문학교육과 같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문학 텍스트의 속성을 지닌 텍스트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sup>47)</sup>

하나의 사례로 국어 교과서 내 단원에서 활용된 서사적 속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수신 교과서의 한 단원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윤리를 강조하는 단원들에서 주로 활용되었다. 국어 교과서에서 윤리를 강조하는 방식은 앞서 정보 혹은 지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 단원의 서술 방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학습자에게 직접 윤리적 내용의 중요성과 가치를 언급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간단한 에피소드를 포함한 짧은 이야기를 제시한 후, 그로부터 윤리적 교훈을 추출하는 것이다. 즉, ‘이야기+교훈’의 구조가 윤리적 덕목을 강조하는 단원의 기본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때 이야기에는 이솝우화를 비롯한 각종 우화<sup>48)</sup>, 동아시아와 서구 위인의 이야기<sup>49)</sup>, ‘근대식 학교에 다니는 10대 전후 학습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인 토래 서사<sup>50)</sup> 등 다양한 속성의 이야기가 제시되었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서 당대의 일상 속 언어문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 삽화를 종종 활용하였다.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 중 삽화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학부 편집국에서 1896년에 발행한 『신정심상소학』이다. 이 교과서의 서문에서는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삽화를 포함시켰음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sup>51)</sup> 이런 관점을 고려하여 국어 교과서 속 삽화를

47) 근대계몽기의 문학교육의 특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희정,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 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학』3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를 참조할 것.

48) 예컨대 ‘욕심 많은 개’로 알려진 이솝우화는 學部 編輯局, 『新訂尋常小學』1권, 1896, 第二十課 貪心잇는개라에 수록된 이후, 동일한 내용이 大韓民國教育會藏板, 『初等小學』5권, 1906, 第八 개의 그림자, 鄭寅琥, 『最新初等小學』2권, 1908, 第十四 탐心만흔犬, 玄采, 『新纂初等小學』, 3권, 1909, 第二課 貪心잇는犬, 學部 編纂, 『普通學校 學徒用 國語讀本』2권, 1907, 第十八課 慾心이만흔犬 등에 반복하여 채택되었다. 관련 연구로 김태준, 「이솝우화의 수용과 개화기 교과서」, 『한국학보』7집 3호, 일지사, 1981.; 윤승준, 「근대계몽기 단형서사문학과 우언」, 『동양학』38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5, 김경남, 「근대계몽기 독본·수신 교과서의 우화 텍스트의 변화 양상」, 『우리말글』55집, 우리말글학회, 2012을 참조할 수 있다.

49) 위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은 조희정,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 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학』3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106-107쪽; 허재영·김경남, 「근대계몽기 독본류 교과서의 교재 연구」, 『동방학』24호,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참조.

50) 토래 서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례는 조희정, 「근대계몽기 학교 교육 내 문학교육의 특징」, 『문학교육학』39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12, 108-109쪽 참조.

51) 物象으로 譬喩하며 或 畫圖로 形容하야 國文을 尙用함은 여러 兒孩들을 위선 씨닷기 쉽고 조 흠이오 學部 編輯局, 『新訂尋常小學』1권, 建陽元年(1896) 二月上澣1, 序.

통해 근대계몽기의 언어문화교육에 대한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근대계몽기는 중세의 문해 교육에 대한 부정을 천명하고 중국과 일본을 통한 서구 근대의 문해 교육을 지향하면서 우리의 근대 국어교육의 기본 뼈대와 관점을 형성하였던 시기이다. 중세의 문해 교육을 부정하였지만 독법, 작문법, 문체 등에서 그 영향력이 여전하였고, 한편으로는 근대 국어교육에 대한 이념이 지향점으로 제안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근대계몽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는 그 자체로 이미 교육적 행위를 함의하는 동시에 교실 내 교육 활동의 구체적 자료가 된다는 관점에 따라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를 통해 당대의 언어문화교육 양상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근대계몽기의 언어문화교육의 양상 중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현상에 주목하였다. 앞서 살핀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양상이 현대적으로 계승되는 면모를 통해 근대계몽기 언어문화교육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근대계몽기에 형성되고 있던 국어 의식/국문 의식을 비롯한 언어관은 현대 국어교육의 기반이 되는 언어관으로 자리 잡았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활동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보통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국민-되기에 대한 국어교육의 역할을 설명하며 해방 이후 현대 국어교육에서도 국어 교과를 구성하는 핵심적 이념이 되었다.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는 다양한 교과의 관련 내용을 통합적으로 수록하면서 교과 종합 교재의 성격을 지녔지만 당대에 싹트고 있었던 문학적 단서를 반영한 텍스트를 수록하고 있었으며, 삽화 등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생활을 반영하거나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어 교과서가 학습자의 언어생활을 반영하되 견인하는 역할은 현대 국어교육에서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으며, 교과 종합 교재의 성격을 띠던 국어 교과서의 중심 제재는 국어에 대한 이론, 학습자의 언어생활, 근대문학 범주에 부합하는 문학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 마. 특별기고

### 1)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과 그 사랑 이어가기\*<sup>52)</sup> / 권재일(서울대)

#### 1. 주시경 선생 서거 100돌을 맞이하면서

2014년 7월 25일 낮, 우리 일행은 동작동 국립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자리 잡은 주시경 선생 묘소 앞에 섰다. 한강이 뒤로 보이는 양지 바른 곳이다. 장마철인데 마침 이 날은 햇살이 가득하다. 우리는 주시경 선생 묘소에 꽃을 바치고 큰절을 두 번 올렸다. 그리고 나서 이은상 선생이 짓고 김충현 선생이 쓴 묘비명을 함께 읽었다.

“한평생 오직 한 길 우리 말 글 키우시니 그 공덕 어디다 비기리까. 해달같이 빛나옵니다. 겨우 서른 여덟 해 짧은 한 뉘 사시는 것을 자가 몸은 돌보지 않고 겨레 위해 바치신 이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그리워집니다.”<sup>1)</sup>

이렇듯 나라 살리기 위해 우리말과 글을 가꾸고 지키는 데에 온 힘을 바치신 주시경 선생은 1876년에 태어나 1914년 7월 27일에 돌아가셨으니, 올해가 바로 돌아가신 지 100돌이 되는 해이다.

주시경 선생은 국어 연구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우리나라 대표 언어학자이다. 그는 나라의 힘과 겨레 정신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말과 글을 바로잡기 위해 말소리와 문법을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 성과는 《국어문법》(1910)에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의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은 국어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에 대한 연구와 우리말 사랑의 실천 정신은 최현배 선생을 비롯한 그의 제자들이 계승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주시경 선생의 국어 연구는 민족정신과 문화를 잇고 가꾸는 데서 시작하였다. 우리말을 민족정신과 문화의 뿌리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주시경 선생 학문의 바탕이 되었으며, 선생이 평생 동안 일관되게 지닌 학문 태도였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어 연구를

\* 이 글은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새국어생활” 2014년 가을(제24권 제3호)호, 61~75쪽에 실린 내용으로서 국립국어원과 저자의 허락 하에 다시 실는다.

1) 묘비명은 원문대로 띄어쓰기하였다.

언어 과학으로 승화시킨 언어학자였으며, 또한 국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말글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곳곳하게 지킨 국어 운동의 실천가였다.

이제 주시경 선생의 우리 말글 사랑의 삶과 학문에 대해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선생으로부터 이어받아야 할 과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말글 문제를 해결하고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할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이 글은, 전적으로 글쓴이에게 주시경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일깨워 준 허웅 선생의 글 “주시경 선생의 생애와 학문”(1980)과 글쓴이의 “우리 말글을 가꾸고 지킨 한힌샘 주시경 선생”(2008)에 바탕을 두고, 주시경 선생 서거 100돌을 맞이하여, 고치고 덧붙여서 다시 쓴 글이다.

## 2. 말과 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결심

선생이 태어나신 1876년은 외세의 침략이 잦아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였고, 농사도 흉작이어서 백성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러한 가난 속에서, 음력 11월 7일, 주시경 선생은 황해도 봉산군 쌍산면 무릉골에서 아버지 주학원 님과 어머니 전주 이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주시경 선생은 어릴 적 고향에서 서당에 다닐 때 늘 새로운 것을 찾아 깨달으려 하는 의지가 무척이나 강했다고 한다. 열 살이 넘어 1887년, 주시경 선생은 서울에 사는 큰아버지의 양자로 가게 된다. 서울에 올라와 다시 서당에 다니게 되었는데, 서당 생활은 열일곱 살까지 계속되었다. 이 무렵, 그의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내가 배우려 하는 것은 결국 한문으로 쓰인 뜻, 그 교훈이 아닌가? 말이란 것은 결국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니, 한문도 결국은 하나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 어려운 한문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배워 잘 알고 있는 우리말을 가지고 어떠한 교훈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는 당장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우리가 저 교훈을 우리말로 적어 놓기만 한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쉽게 깨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주시경 선생은 서당 공부가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옳지! 우리나라에는 우리말이 있고, 그 말을 적을 수 있는 훈민정음이란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우리나라 선비들은 한문만을 글이라 하고 훈민정음은 돌보지도 않았으니, 이것은 절대로 옳지 못한 일이다. 한문은 중국말을 적는 것이 아닌가? 우리말이 중국말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며, 훈민정음이 한자보다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의 눈은 희망에 빛나기 시작하였다.



‘아니, 훈민정음이 한자보다 못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다. 그 어렵고 배우기 힘든 한자에 비한다면, 훈민정음은 얼마나 알기 쉽고 아름다운가? 그렇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훈민정음을 내가 빛내어 보리라.’

주시경 선생은 이와 같은 우리말과 훈민정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결심으로 드디어 우리나라 말과 글자 생활의 바른 길을 열기 시작하였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한문 중심의 글자 생활을 벗어나 올바른 길을 비로소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다.

### 3. 말글 사랑을 위해 바친 짧은 생애

한문의 마술에서 깨어난 주시경 선생은 이제 한 사람의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새로운 학문을 공부도 하고 연구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일에 험버트 선생과 함께 참여하였다. 주시경 선생은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이 창간되자 국문판 조필로 발탁되어, 독립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고 국어문법을 공동 연구하였다. 그러는 사이 스물다섯 살 때에 배재학당 보통과를 졸업하였다. 신학문에 대한 주시경 선생의 갈망은 계속되었다. 여러 학교를 다니며 항해술을 배우기도 하고 측량술을 배우기도 하였으며, 영국인 의사에게 영어와 의학을 배우면서 국어를 가르쳤고, 또한 독학으로 기계학, 종교학까지 공부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의 중심이 국어에 있었음은 물론이었다.

그는 국어 연구에 골몰하는 한편, 학문 연구는 민중 교화를 실천해야 완성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민중 교화를 위해 국어의 정리와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철저한 신념이었다. 그래서 그는 서울 안에 국어 강의 시간이나 국어 강습소에 나가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그가 얼마나 교육에 열중하였는지는, 서른 살을 전후하여 그가 교편을 잡은 학교나 강습소가 무려 스무 곳이나 됨을 보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는 서울 시내 각 학교의 국어를 도맡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 교재는 등사판에 인쇄하여 보자기에 싸서 옆에 끼고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강의하였다. 당시 학생이었던 김윤경 선생과 최현배 선생은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다(신용하 2014 참조).

“그러나 당시 학교로서 든든한 터가 잡힌 것이 별로 없었으므로 선생에게 주는 보수는 박하였고, 그나마 몇 달씩 건너뛰게 되기 때문에 극히 곤궁한 살림이어서 무명옷을 입고 짚신을 신으면서도 끼니를 쉼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창동 그의 사택은 용신하기도 불편한 데다가 햇빛조차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도 등불을 켜야 책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결강은커녕 지참 한 번도 하는 일이 없었다. 사무실로 거치어 올 시간도 없어서 바로 교실로 걸음을 빨리하는 것이 상례였다.” (김윤경)

“건지려던 나라가 이미 없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백성인 내 겨레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으니, 이미 잃어진 큰 집을 미래에 다시 세우는 것이 더 깊고 먼 스승의 포부였으며, 더 간절하고 질긴 스승의 의지였다. 눈물을 머금은 ‘주 보파리’ 는 예나 다름없이 동대문 연지동에서 서대문 정동으로, 정동에서 박동으로, 박동에서 동관으로 돌아다녔다. 스승은 교단에 서시매, 언제든지 용사가 전장에 다다른 것과 같은 태도로써 참되게, 정성스럽게, 뜨겁게, 두 눈을 부릅뜨고 학생을 응시하면서, 거품을 날리면서 강설을 하셨다. 스승의 교수는 말 가운데 겨레의 혼이 들었고, 또 말 밖에도 나라의 생각이 넘치었다.” (최현배)

주시경 선생의 학문은 점차 성숙의 경지에 도달하였으나,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 나라의 운명은 도저히 바로잡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합병되고 말았다. 그는 원통함의 눈물이 채 마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민족 갱생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그렇지만 일본 침략자들의 탄압은 더욱 심해 갔다. 동지들은 하나씩 둘씩 국외로 망명하고 또 옥에 갇히게 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된다. 1914년 서른여덟 살 되던 해, 국외 망명을 결심하고 7월 방학에 고향에 가서 부모형제에게 하직하고 서울로 돌아와 준비하던 중, 갑자기 체증에 걸려 며칠 후 7월 27일, 내수동 집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는 품은 포부를 반도 이루지 못하고, 고난과 비분 속에서 고귀한 한 생애를 마쳤다.

짧은 생애를 마치며 주시경 선생은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글은 그 나라가 홀로 섬의 특별한 빛이라”는 고귀한 뜻을 우리에게 남겼다. 이에 대해 신용하 선생은 지난 5월 한글학회 학술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신용하 2014 참조).

“주시경 선생이 비록 짧은 기간에 우리 말글 운동에 큰 업적을 낸 사상적 배경에는 ‘민족은 본질적으로 언어 공동체이며, 언어가 흥하면 민족도 흥하고 언어가 소멸되면 민족도 소멸된다’ 라는 사회학적 사상과, 민족과 국어에 대한 깊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기 위한 학문

“자기 나라를 보존하며, 자기 나라를 일어나게 하는 길은 나라의 본바탕을 장려함에 있고, 나라의 본바탕을 장려하는 길은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존중하여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이 어떤 나라의 말과 글만 같지 못하더라도,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을 갖고 닦아, 기어이 만국과 같아지기를 도모해야 할 것이거늘, 우리는 단군 이래로 덕정을 베풀던 그 훌륭한 말과 글자를 연구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시경 선생의 국어학에 대한 주요 저서에는 《국어문전음학(國語文典音學)》(1908), 《국어문법(國語文法)》(1910), 《말의 소리》(1914)가 있다. 그의 국어 연구는 《국어문법

»에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의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이론 전개는 우리말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어문법》은 일찍이 그가 서양 학문을 배우기 시작한 1893년부터 저술하기 시작하여 스물두 살 때인 1898년 12월에 초고가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 이후 다듬고 고쳐 1910년 4월에 발간하였다.

《국어문법》에서는 학술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썼다. 지금 말로 품사를 ‘기’라 하였는데(나중에 ‘씨’로 고침), “기의 갈래 아홉의 이름은 조선어로 만든 것이니, 한자로 만들면 그 문자의 뜻으로만 풀이하고자 하는 습관이 있어, 그 정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기 갈래를 ‘임, 엇, 움, 겹, 잇, 언, 억, 놀, 꺾’이라 하였는데, 지금말로 옮기자면 ‘명사, 형용사, 동사, 조사, 접속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종결사’이다.

《국어문법》에서 다루는 큰 갈래는 ‘기난갈’과 ‘짚듬갈’이다. 기난갈의 ‘기’는 낱말, ‘난’은 나눈다, ‘갈’은 연구의 뜻으로 ‘품사분류론’이란 뜻이며, 짚듬갈의 ‘짚’은 짜서 꾸민다, ‘듬’은 말이 구성되는 법의 뜻으로 ‘문장론’이란 뜻이다.

말은 밖으로 나타난 표면구조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결정하는 심층구조가 있다는 것이 변형생성문법 이론인데, 주시경 선생의 문법에서 이러한 이론이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먹는다’란 말은 그 쓰이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상황이란 것은, 말 밖에 있는 주어와 목적어를 속으로 짐작할 수 있는 말의 환경을 말한다. 그는 이 말의 그림풀이에서 주어와 목적어 자리를 비워 놓고 그 빈자리에 ‘ㅅ’을 표시하고서 그 자리에 숨은 성분 곧 속뜻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속뜻이 숨어 있다는 설명은 심층구조를 표현한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설명이다. 속뜻으로 있는 것이 겉으로 숨어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 이것은 현대 언어학의 설명 방식 그대로이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주시경 선생은 이러한 문법 이론을 제시하였다.

기술언어학의 핵심 개념 가운데 ‘형태소’가 있다. 일정한 음성 형식과 일정한 의미 형식을 갖춘,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이 개념은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블룸필드가 1926년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똑 같은 개념으로 ‘늦씨’라는 개념을 이미 1914년의 《말의 소리》에서 주시경 선생이 제시한 바 있어 주목된다. ‘해바라기’를 ‘해-바라-기’로 형태소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렇듯 주시경 선생은 형태소 분석을 철저히 추진해 나간 최초의 학자이다. 그는 형태소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맞춤법에 반영하고, 원형을 고정시켜 글 읽기에 편리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자음 글자를 종성에 모두 쓸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주시경 선생의 표기법 원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실 발음대로 적되 형태음소적으로 분철 표기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원리는 조선어학회(지금의 한글학회)의 “한글마춤법통일안”(1933)의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으로 이어졌다(송철의 2010 참조). 이를 근본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을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다.

주시경 선생이 처음 우리말을 연구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표기법을 바로 잡으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말의 소리를 연구하게 되었고, 이론의 뒷받침이 되는 문법을 연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의 모든 조건들, 이어받을 만한 학문의 토대가 전혀 없었던 점, 나라 형편이 매우 혼란 상태에 있고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져 갔다는 점, 개인적인 생활이 극도로 가난했다는 점, 그의 학문 활동의 햇수가 그리 길지 못했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주시경 선생의 학문적 성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주시경 선생의 업적은 그 학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어 교육자로서의 업적, 국어 운동의 선구자로서 업적 또한 크다. 국어 순화 운동도 주시경 선생이 시작하였으며, 한글 전용이라는 글자 생활의 새로운 운동도 선생이 실천하였다. 국어 정책 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사실들은 모두 선생이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시경 선생의 국어학사에 끼친 공헌과, 우리 문화사에, 민족 투쟁사에 남긴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의 말글 생활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5. 오늘날 우리의 말글 생활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 수가 처음 실시한 1997년에 2,000여 명이던 것이 작년에는 20만 명이 넘어선 것을 보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인터넷 관련 국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어가 인터넷 사용 인구로 보면 세계 10위라 한다. 또한 2007년 9월 제43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에서 한국어가 국제 공개어로 채택되어, 한국어로 국제 특허를 제출하거나 특허 내용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는 이제 국제어로 한 걸음 다가 가게 되었다. 이처럼 나라 밖에서는 우리말이 그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데, 나라 안에서는 어떠한가?

사회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자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같아야 한다. 발음이 같아야 하고, 단어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발음으로 말한다든지,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단어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결코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쓰는 경우는 흔한 편이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개업식에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의 ‘와중’은 소용돌이 속이라는 뜻인데, 이 경우에는 그냥 ‘바쁘신 중에도’가 적절한 표현이다.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친절히 자문해 주었다’에서 ‘자문하다’는 ‘묻다’의 뜻이다. 내용으로 보면 ‘자문한 것에 대해 친절히 응해 주었다’, 또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가 올바른 표현이다. 또한 ‘이 작품에는 삶에

힘든 애환이 스며 있다'의 '애환'은 슬픔과 기쁨이라는 뜻인데, 흔히 슬픔의 뜻으로만 쓰고 있어 혼돈스럽다.

잘못 쓰이는 말이 이것뿐이라. '편집하다'는 신문, 잡지, 책, 영화, 드라마 등의 본래의 자료에 덧붙이거나 잘라 내거나 또는 차례를 조정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 방송에서는 잘라 내 없애는 것을 뜻하는 말로만 쓰고 있다. '예능'이란 말도 음악, 미술 등의 예술적 재능을 뜻하는 말인데, 요즘 방송에서는 찢고 까부는 오락을 뜻하는 말로 쓰고 있어 본래 뜻의 예능인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의 부인을 높여 두루 부르는 말 '영부인'도 대통령 영부인을 뜻하는 말로 한정하여 잘못 쓰인 지 벌써 삼십 년이 더 지났다. 그래서 영부인이라 하면 으레 대통령 부인만 가리키게 되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학교 시험에서 흔히 듣는 말 '컨닝'이란 말의 올바른 영어는 cheating이다. 백화점에 명품 구경 가는 것을 '아이쇼핑'이라 하는 것도 올바른 영어는 window shopping일 것이다. 요즘 어느 모임에 가도 외치는 한마디, '원샷!'도 Bottoms up이 바른 표현이라 하겠다. 편의점 알바, 주유소 알바의 '알바' 역시 독일어 '아르바이트'의 본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1980년대 중반, 어느 맥주회사에서 직영하는 생맥줏집 이름에 독일어를 썼다. 뜯이나 정원, 마당을 뜻하는 독일어가 바로 호프(Hof)이다. 생맥주를 마시는 뜯, 정원이라는 의미로 '생맥주 전문점 오비 호프(OB Hof)'로 이름 붙였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어느새 알게 모르게 호프(Hof)라 하면 생맥줏집이 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호프(Hof)는 생맥줏집뿐만 아니라 생맥주 자체를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호프&소주'를 판다고 간판에 써 놓은 집도 많다. 독일어의 정원을 생맥주라 부르는 것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결과이다.

그뿐 아니다. 공공 행정 기관의 언어 사용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업사이클'이란 말도 등장한다. '리사이클'이 '재활용품'이라는데 그것을 '업(up)' 시킨다는 뜻이란다. '힘내! 중소기업UP, 공공구매路'라는 어느 행정 기관의 구호는 우리말 표기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또 다른 기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미투데이'라는 정책 설명을 대하게 되면 정말 행정 기관의 우리말 사용이 이렇게까지 가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친서민 정책인 '농촌 어메니티 체험', '마이크로크레딧', '패스트 트랙(Fast Track)' 그리고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한 '맘프러너창업스쿨'이란 용어도 일반 국민이 선뜻 알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국민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 기관이 사용하는 언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훨씬 더 쉽고 정확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국어를 섞어 쓴 일은 없는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말을 섞어 쓴 일은 없는지, 공직자 모두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 온갖 가게 이름, 상품 이름, 심지어는 모임 이름, 사람 이름에까지 서양식 이름이 부쩍 늘어

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영어 정관사 the에 우리말을 덧붙인 혼합 이름이 나타나는가 하면, 연예인 이름을 영문자 한 글자로 지은 경우도 있다. 연예인 이름, 그리고 민간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의 멸칭한 이름을 영문자 약자로 앞다투어 고치고 있다. LH, IBK, K-Water처럼 한둘이 아니지만, 외국인도 알아볼 수 없고 우리 국민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표기를 자꾸 늘려 가야만 할 것인가?

또한 대표적인 공공 언어인 방송 언어도 그러하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를 매일매일 받아들인다. 만약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가 쉽고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방송 언어가 생활의 생생한 언어 그대로를 반영한다고 해도 언어 예절이 실종되고 막말과 비속어가 일상화된 품격 없는 말을 방송에서 계속하여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청소년에게 이런 언어 환경이 노출되지 않았으면 한다. 언어는 인격 형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언어 사용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주로 활용하는 다양한 통신 언어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언어생활이란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작년에 발족한 ‘언어문화개선범국민연합’이 기획하고 펼치는 다양한 사업은, 우리말 우리글을 지키고 가꾸어 온 주시경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

## 6. 주시경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형성하는 구실도 한다. 그래서 한 국가나 민족은 공통된 언어 구조에 이끌려 공통된 정신과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유한 문화를 창조한다. 우리 민족이 이 땅에 태어난 이래로 우리의 생각을 이어 주고 문화를 이끌어 준 것이 바로 우리말이다. 우리가 우리말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높이 받들어 지켜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말에 긍지를 가지고 높이 받들어 나가는 방향은 우리말을 쉽고 정확하고, 그리고 품격 있게 쓰려는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말과 외국어를 섞어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규범적인 발음, 어휘, 문법에 맞게 쓰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국어의 가치에 너무 무관심하여 우리의 말과 글이 망가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세계화 추세에 따라 일상생활과 교육 현장에서 국어가 경시되고 외국어가 널리 퍼져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국민들이 국어의 참된 가치를 깊이 인식하

고, 국어를 지켜 가꾸려는 의지를 가지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시경 선생의 말글 사랑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길이다.

독립기념관에 세워진 주시경 선생의 ‘어록비’에 담긴 글, “한나라말”의 한 부분을 옮기면서 이 글을 맺는다.

말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는 것이라. 한 말을 쓰는 사람과 사람끼리는 그 뜻을 통하여 살기를 서로 도와 줌으로 그 사람들이 절로 한 덩이가 되고, 그 덩이가 점점 늘어 큰 덩이를 이루나니, 사람의 제일 큰 덩이는 나라라. 그러하므로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리나니라. 이러하므로 나라마다 그 말을 힘쓰지 아니할 수 없는 바니라.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니, 이지러짐이 없고 자리를 반듯하게 잡아 굳게 선 뒤에야 그 말을 잘 지키나니라. 글은 또한 말을 닦는 기계니, 기계를 먼저 닦은 뒤에야 말이 잘 닦아지나니라. 그 말과 그 글은 그 나라에 요긴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나, 다스리지 아니하고 묵히면 덧거칠어지어 나라도 점점 내리어 가나니라.





# 제4부

## 결론





## 1. 지명(도로명) 제정과 고시 등의 정책 수립

- 행정자치부의 소관이라고 해 두기에 그간 여러 방면에서 제시되고 주장된 국어학자들의 의견이 정책으로 잘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짚어둘 필요가 있다.
- 이제 시행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그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의미보다는 국어사, 특히 고유 문화를 잘 담고 있는 지명학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필요했다. 특히 제주 지명에서는 소릿값(말소리)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채 지명에 반영되어 이것이 측량의 근거가 된 채 지형도에 계속 표기되고 있어 문제이다.
- 지명은 지역 문화(지역성)를 비롯 사상, 종교, 인물/가문, 생업, 행정 등이 잘 남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 지명에 담긴 한국의 지역 문화와 전통을 세계화하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와 전통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글로컬리즘), 그렇다면 지명도 세계와 동질화하면서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 이질적인 면을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활용> 문화콘텐츠화, 지역교육활용(초중등),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 자료 등

<제언> 지역어와 지역 문화가 반영된 국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 기존 자료 정리와 새로운 자료 발굴
- 음성자료 디지털화
- 통합 DB 구축
- 문화 콘텐츠 활용

<제1차 정책 포럼> 국어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적 검토: 지명에 드러난 지역어와 지역 문화  
김정태(충남대), 오창명(제주대), 손희하(전남대)의 발제 내용 요약

## 2.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에 따른 언어 정책 수립

- 현재 한국 사회에 ‘새로운 한국어 학습자’가 출현하였다는 인식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소수자’ 또는 ‘이민자’ 또는 ‘다중 배경을 가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언어 교육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언어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사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캐나다, 호주, 미국, 중국 등)
- 다문화 시대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다문화 사회의 언어 교육 정책은 장기적이면서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류 문화권의 언어

어인 제2언어와 함께 소수 문화권의 언어인 계승어를 함께 고려하면서 균형점을 찾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②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은 일방적 보상과 시혜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추진되어 온 면이 없지 않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을 미래의 자원으로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③ 공교육 안에서 우리 사회의 언어 소수자 자녀를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④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을 공교육 안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선 지속적 재정 확보와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한편, 다중언어정책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 ① 소수인종의 정체성을 위한 ‘분리된 영역’의 인정
  - ② 다문화주의 이념의 정립과 소수인종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 ③ 소수인종 언어 권리의 국제적 보호조항의 준수
  - ④ 인종(민족)집단에서 시민사회로의 전환
  - ⑤ 사회통합의 기반으로 다중언어정책
  - ⑥ 경제 및 소득 향상과 다중언어정책
  - ⑦ 인종(민족)간 연계언어로서 공식언어(공용어)의 교육
- 국내 한국어 교육의 유형,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한국어 교육도 다음과 같이 더 세분화하여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유형	대상 학습자	한국어 교육 방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 근로자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 문화 한국어
	국제결혼 이민자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필요에 따라), 문화 한국어, 정체성
	비보호 청소년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연령에 따라 학습 한국어), 문화 한국어, 정체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 근로자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 문화 한국어
	국제결혼 이민자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필요에 따라), 문화 한국어, 정체성
	비보호 청소년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연령에 따라 학습 한국어), 문화 한국어, 정체성
	단기 체류 외국인 학습자(유학생, 어학 연수생, 관광객 등)	생활 한국어, 학문 목적 한국어(필요에 따라)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역이민 교민 2세대, 3세대	(필요에 따라)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

한국어 유형	대상 학습자	한국어 교육 방향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 다문화 배경 학습자, 일부 국제결혼가정 자녀, 역이민 교민 2세대, 3세대 등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 문화 한국어, 정체성
방언으로서의 한국어	북한이탈주민, 탈북학생	대응 생활 한국어, 대응 학습 한국어, 대응 문화 한국어, 정체성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일부 국제결혼가정 자녀, 역이민 교민 1.5세대	국어교육, 정체성

-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위상은 통일 정책, 이민자 정책, 한국어 세계화 정책, 다중언어(다문화) 정책 등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 ① 한국어 교육은 언어의 다양성이라는 언어 생태계의 보존 차원에서 중요하다. 국내에서 한국어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등의 보전 등은 한국어의 다양성을 유지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언어의 다양성과 더불어 표준 한국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② 경제 생산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언어로서의 한국어의 위상이다.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역시 삶의 도구, 경제적 생산 능력의 도구로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거주국가의 공용어를 구사하지 못하여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국외에서 한국어를 구사한다면 교민 사회의 소통 수단을 취득함으로써 경제 활동에 도움을 받을 것이다.
  - ③ 국가 공동체 내에서 의사소통의 효율성, 국가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의 위상을 생각해야 한다. 민족 공동체 차원의 통합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 차원의 통합을 지향하는 게 현실이 되었다. 또한 언어 공동체의 통합을 지향하게 되었다.
  - ④ 평생교육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북한 이탈주민의 증가, 역이민의 수요자 증가 등을 보건대 평생교육차원의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어 교육이 개인의 책임 또는 언어학적 능력의 관점에서 주로 보는 인지적 접근방식을 보완하는 사회 언어학적 관점의 한국어로서의 위상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제2차 정책 포럼〉 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중언어 정책과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  
원진숙(서울교대), 강휘원(평택대), 권순희(이화여대)의 발제 내용 요약

### 3.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학의 세계화 정책 수립

- 한국어는 이제 소위 ‘세계 주요 언어’가 되었고, 한국어의 달라진 위상을 바탕으로 한국어가 당면한 현실을 ‘새로운 세계화 시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당면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한국어 교육의 기반 연구에서 ‘언어유형론’ 연구가 필요하다.
  - ② 한국어 교재 확장의 일환으로 ‘오류 말뭉치’ 구축과 다양한 ‘사전 편찬’이 필요하다.
  - ③ ‘한국어 교육 과정’이 ‘교원 연수 과정’과 같은 재교육 과정은 물론 교사 양성 교육 과정의 ‘사범대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개설되어야 한다.
  - ④ ‘탈북 청소년 학생’ 교육 문제에서 특히 ‘제3국 출생 탈북 학생’들의 언어 교육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⑤ 계승어 교육 문제에서 ‘국외의 계승어 교육(국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국내의 계승어 교육(국제결혼 이주자 자녀의 모국어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한국어교육학은 인문학적 속성과 사회과학적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해외 한국학을 보는 관점 및 외국어교육학의 하위 분야로서의 한국어교육학이 존재하며, 또 국내 국어국문학/국어교육학을 보는 관점과 국어국문학/어문교육학의 하위 분야로서 한국어교육학이 다소 다른 위계를 가지고 존재한다.
- 한국어교육학이 해외 주류 학술지에 실릴 수 있는 조건은, 외국어교육학의 보편성 내지는 특수성을 규명하는 연구여야 한다. 아직 그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 글로벌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는 등의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도구 언어(예컨대 영어)의 문제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요구된다.
- 한국어교육학은 현재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분야이지만, 여전히 그 학문의 고유 속성을 밝히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못하다. 또 한국어 교사(교원)의 독자성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알았을 때 한국어 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학문적 범주가 뒤엉켜 있다.
- 한국어교육학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① 한국어교육학은 교육 내용으로서의 한국어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교육 대상인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를 비롯한 특성에 따른 연구를 통합하여 국어학이나 국문학, 또는 국어교육학과는 다른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확보하고 그 연구 결과를 얻어 한국어교육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 ②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은 문화가 아니라 문화의 산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문학이 가진 독자적 가치는 부정되지는 않으나, 한국어교육 안에서 한국문학은 한국어문화를 위한 수단이나 자료로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에 출발점을 두

고 본질적 교육 단계에서는 한국어문화를 담은 자료로 한국 문학 작품을 사용하고, 한국어 문화의 통합적 교육 단계에서는 한국어 문화의 여러 요소 및 수준이 복합된 한국어 사용 실체로서 문학 작품을 사용해야 한다.

- ③ 한국어교육은 다문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요소임을 인지하고, 다문화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 언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제3차 정책 포럼>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학의 세계화 전략  
김건희(서원대), 권성미(부경대), 최영환(경인교대)의 발제 내용 요약

## 4. 한국어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 한국어학 개최 제안

- 세계 한국어학 대회(The World Congress of Korean Linguistics)
  - 한국어를 다루는 세계 모든 학자들의 일정 주기(세계 영어학자 대회는 5년 주기임) 학술대회.
  - 한국어 음성학/음운론에서부터 한국어 형태론, 한국어 통사론, 한국어 의미론 및 화용론, 한국어 사회언어학 및 담화 분석론, 한국어사, 한국어교육론, 한국어정보학, 한국어 문자론, 응용언어학 전반 등 10여 개 분과로 나눔.
  - 한국어문 학술단체연합회와 해외 유관 학회, 국립국어원 및 후원 등으로 기획, 준비.
- 학술지의 세계화
  - 학술지의 국제화 지표를 전략적으로 높이고, 학술지를 특성화하며, 해외 우수 연구자를 활용하거나 해외 학술지 DB에 등재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학술지를 국제화하여 국외 한국어 연구자들이 한국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도록 유도.
  - 예일 표기법(Yale Romanization of Korean)과 국어원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 등이 불일치하는 현실이고 또 한국어 문법 용어 또는 이에 대한 약어도 같지 않으므로, 국제화에 앞서 이러한 문제들이 유연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고려해야 함.
- 결론적으로 한국어학의 통합을 위해 학술대회라는 장과 학술지라는 공간을 만들고, 소통을 위해 다양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차 정책 포럼>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학의 세계화 전략  
김상태(청주대)의 발제 내용 요약

## 5. 어문개선운동에 대한 정책 검토

- 주시경 선생의 어문관은 당대 서구 사상의 영향을 주체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용하면서 정립된 것으로서, 한국 어문연구의 처음이 된다. 어문 규범과 어문 정책 전반에 있어 주시경 선생의 기여는 독보적이며 위대한 것이다. (전국학술대회, 송철의(서울대)의 기조발표 요약)
- 언어문화개선의 이론적 배경에는 민족 언어학과 생태 언어학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언어 순화 등의 방법론을 취해 왔으나 앞으로 언어문화의 개선은 단순히 언어의 차원을 넘어 문화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며, 언어와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전국학술대회, 황화상(서강대)의 발표 요약)
- 언어문화개선의 운동 방향으로는 ① 대중 중심의 운동, ② 국가 및 정부의 관여, ③ 민간·유관 기관·사용자 등의 협력, ④ 법 제정 이후 충분한 준비 기간, ⑤ 세부 지침 제공 등의 다섯 가지가 있으며, 현재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운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① 쉬운 언어 쓰기 운동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② 흥미를 넘는 품격 있는 언어사용 의식운동 통한 ‘방송·인터넷 언어’ 개선, ③ 존경과 배려의 가치 알려주는 교육과 문화를 통한 ‘청소년 언어’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전국학술대회, 최혜원(국어원)의 발표 요약)
- 북한에서 이루어진 언어문화 개선의 방향을 살펴보면, 남한과 북한의 순화 작업 등을 비교해 볼 때 조금 언어문화 운동의 목표를 새롭게 해석하여 ‘언어 평등’ 또는 ‘언어 민주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학술대회, 이정복(대구대)의 발표 요약)

## 6. 어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

- 한국어교육자, 혹은 한국어교육 연구자에게 있어 중요한 지식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넘어 ‘언어학에 대한 지식’, 따라서 ‘낮설게 한국어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대한 언어학적 설명력’을 갖추는 것이다. 언어학 연구, 비교 언어학적 연구, 더 넓게는 언어를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교수-학습의 언어를 발굴하는 것이 요구된다. 비유컨대 이론 연구자와 현장 교수자는 마치 영양사와 요리사의 관계와 같다. (전국학술대회, 허용(한국외대)의 발표 요약)
- 다문화 사회 전환기에 있어 한국언어문화 교육은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정책은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의 경험 속에서 수립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이미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던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에 귀 기울여서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민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기초 연구 및 질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변국 및 오랜 이민 역사를 가진 국가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다듬어 뿌리내리려는 노력 역시 필



요하다.

- ② 정책담당 기구의 기능 및 위상 강화를 위한 관제탑(Control Tower)의 설치가 필요하다. 정책 수립 및 시행의 일관성과 통일성은 효율성과 파급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다.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 및 언론 매체, 현장의 다양한 기관 등에서도 꾸준히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온 만큼 빠른 시일 안에 보다 강화된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 ③ 정책 수립에는 지향점이 분명해야 한다. 최상위에 사회통합을 전제한다면 이의 달성을 위해 그 하위에 여러 목표들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특히 언어와 문화교육을 위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다중언어교육을 전제로 최소한의 이중언어교육을 목표로 해야 하고, 문화교육은 그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상호문화주의에 바탕한 상호문화이해교육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④ 정책 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영향력의 강화를 위해 강력한 기구의 설립을 앞서 제안했는데, 이에 덧붙여 그 아래에서의 각 관련 부처 간의 업무 분장 역시 새롭게 진행되어야 한다.
  - ⑤ 지역별 특성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보다는 다문화 관련 기관이나 사업별로 일회적 행사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시행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⑥ 의무교육제도의 실시이다.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부분으로 포함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따로 분리한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다. 결혼이주민이든, 이주 노동자든 그 대상이 누구든 목적에 맞게, 연령 등의 상황에 맞춰 일정 기간의 의무교육을 전제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전국학술대회, 최정순(배재대)의 발표 요약)**
- 오늘날 학교 교육 내 언어문화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적 대응 방식으로 ① 학교 교육에서 국어문화 차원의 교육 실시하기, ② 국어과 차원은 아니지만 학교 교육에서 국어문화를 다루어 보기, ③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이든 일반인 차원이든 국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④ 교육의 근원으로서 가정교육을 다시금 상기하고 이를 통해 교육적으로 대응하기, ⑤ 접적인 국어교육 차원은 아니지만 국어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기, ⑥ 가장 중요한 방안 모색은 무엇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어문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자각하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국학술대회, 이관규(고려대)의 발표 요약)**
  - 근대계몽기 교과서를 통해 근대계몽기에 형성되고 있던 국어 의식/국문 의식을 비롯한 언어관은 현대 국어교육의 기반이 되는 언어관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활동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보통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국민-되기에 대한 국어교육의 역할을 설명하며 해방 이후 현대 국어교육에서도 국어 교과를 구성하는 핵심적 이념이 되었다. 근대계몽기의 국어 교과서는 다양한

교과의 관련 내용을 통합적으로 수록하면서 교과 종합 교재의 성격을 지녔지만 당대에 싹트고 있었던 문학적 단서를 반영한 텍스트를 수록하고 있었으며, 삽화 등을 통해 학습자의 언어생활을 반영하거나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어 교과서가 학습자의 언어생활을 반영하되 견인하는 역할은 현대 국어교육에서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으며, 교과 종합 교재의 성격을 띠던 국어 교과서의 중심 제재는 국어에 대한 이론, 학습자의 언어생활, 근대문학 범주에 부합하는 문학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국학술대회, 조희정(조선대)의 발표 요약)**

# 제5부

## 정책 제안



국립국어원



# 1. 국어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국어원의 위상 정립

## 1.1. 국립국어원의 현 위상과 중점과제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체계적 정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구로서, 1984년 학술원 산하 임의 연구 기관으로 설립된 ‘국어연구소’를 전신으로 첫 시작을 하여, 1991년 1월 대통령령 제13, 163호에 따라 문화부 소속 기관으로 ‘국립국어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개원하였다.

국립국어원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기관으로서, 합리적인 국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적 조사, 연구와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를 수행하고 국가 언어 자원을 수집하여 통합 정보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언어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며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 증대를 위하여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 설립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14년 현재 국립국어원의 4대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 **중점과제 1:** 합리적인 국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체계적 조사와 연구

- 언어 실태 및 통계 조사 수행
- 국내외 언어 정책 분석 및 사례 조사 연구
- 언어 규범 보완 및 정비

### **중점과제 2:** 국가 언어 자원의 수집 및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 국가적 언어 자원 수집, 정리 및 관리
- 국가 언어 자원 통합 정보 서비스 강화

### **중점과제 3:**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사용 환경 개선

- 공공언어 개선
- 국어문화학교 운영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 **중점과제 4:**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 한국어 표준 모형 등 기초 자료 구축
- 한국어 교원 자질 향상, 지원 강화
-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보급

이상의 중점 과제에 따라, 1부(기획연수부) 1실(어문연구실) 6과(기획연수부 하위 기획운영과, 공공언어과, 교육연수과 / 어문연구실 하위 어문연구과, 언어정보과, 한국어진흥과)의 조직 체계를 가지고, 대개 연간 단위의 사업을 위주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1.2. 국어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의 국립국어원의 현황 분석

2014년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의 ‘통합과 소통의 국어정책 개발’의 수행 과정에서 한국어를 다루는 44개 연합 학회와, 학계 권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다음과 통합과 소통을 이끌 수 있는 국어 정책은 국립국어원을 둘러싼 환경이 아래와 같이 조성될 때 건전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앞서 제시한 국립국어원의 중점과제 사업별로 문제점과 현황 진단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첫째, ‘중점과제 1, 2, 4’와 관련하여 국립국어원에서는 매년 적지 않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역으로 이 사업들이 온전한 의미에서 건전한 정책 연구 생산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원의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은 자체 사업도 있지만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많은 양의 사업들이 입찰공고를 통해 연구용역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에 소속된 뛰어난 연구 인력들이 여러 건의 연구용역 사업을 정책에 맞게 주도적으로 진척해 나가지 못하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잡무와 공무 처리를 쉴 새 없이 하는 단순한 실무 역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사업의 건수는 많고, 발생하는 행정 처리와 민원은 많으므로 소속 연구 공무원들이 각종 연구에 참여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이 지금의 국립국어원의 현실이고, 문화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여서 연간 행사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연구 사업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나 행사 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것이 국어 정책을 수립하는 행위로 치환될 수 없다.

더군다나 국립국어원의 사업은 거의 절대적으로 연간 사업만이 존재한다. 한국연구재단이나 이외 과학기술분야, 공학분야, 사회과학분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년(多年) 과제는 실제로 찾아보기 어렵다. 1차, 2차 등으로 연계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은 연단위로 나뉘고, 사업은 새로 발주되어야 하며, 연구책임자와 담당 연구사는 변경된다. 사업을 쪼개어 하다 보니 업무의 품은 많이 들고, 사업의 성과는 집중되지 않으며, 사업액은 줄어드는 현상들이 계속되어 반복되고 있다. 연구과제에 대한 입찰 공고가 연간 계획 수립이 끝난 3, 4월부터 줄지어 나타나지만, 사업의 유찰 등을 포함하여 대개 5월에서 여름 가까이 되어서야 처음 시작을 하게 되고,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해서 실제로 연구 사업들은 학계의 순환 주기로 볼 때 여름방학이 있는 7~8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다음, 늦여름이나 초가을에 중간평가와 보고서를 낸 후 2학기 초에는 다소 더디게 진행되다가 12월 초에 가제본 형태로 사업을 종료해 놓고 동계 방학 중에 사업 내용을 다듬어 최종 보고서를 내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 연구 과제를 담당 수행하고 있는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 공무원들은 대학교의 학사 일정

에 얽매이게 되어 특정 기간에 업무가 과중되고 연구 과제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연구진들도 연구 기간이 턱없이 짧고 연구의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데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21세기 세종계획’ 이후 거의 명맥이 끊어진 대형 국어 국책사업의 기획과 함께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년간 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획한 국어 정책 연구가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반 행정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점과제1’과 관련하여 언어 실태에 대한 연구가 보다 정례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성인들의 국어의식 조사 또는 국어사용능력 조사는 현재 대략 5~7년 주기를 갖고 있는데 이는 그 시기를 3년 정도로 좁히고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종별을 최대한 다양하게 설정하여 종단적인 분석 데이터가 꾸준히 수집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여러 면에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언어, 방송·언론·인터넷 언어에 대한 조사도 책임 기관에 걸맞은 치밀하고 생산적이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어 관련 대규모 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위탁 연구를 통해 처리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질과 균형에 대한 틀을 잡고 국립국어원이 주도하여 주기는 일정하게, 또 수집하고자 하는 항목들은 조직적으로 보완하여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책 연구(현상 진단, 원인 분석, 유의미한 현상 발견, 대안 제시 등)를 공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점과제 2’와 관련하여, 국어원의 정보인프라와 하드웨어를 충분한 예산을 통해 보완·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서버를 포함하여 국어원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의 하드웨어 수준은 국립국어원이 현재, 또는 향후 감당해야 할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감당해 내기에 절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또 노후하거나 용량이 부족한 기기도 적지 않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산 장비와 인력 양측에 충분한 물적 지원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웹 강의나 동영상 강좌의 제작과 수정이 가능한 자체 스튜디오를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들도 앞서 제기한 연단위 사업이라는 한계로 인해 때에 따라 업데이트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빛이 날 만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결과는 그것이 최종 성과물이 되어 묵어가고, 다시 새 사업을 발주하는 폐단이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점과제 3’과 관련하여 하위 설정된 주제들이 훨씬 더 크고 넓게, 또 확실한 지위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먼저 공공언어 개선 분야는 법령으로서 보장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강제력은 점차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언어개선 의지는 국어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나날이 퇴보되는 형편에 놓여 국어책임관 제도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서 국립국어원에서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행정 영역에서 국어기본법에 대한 환기가 일어나고 공공언어에

서부터 이것이 바로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영국에서 진행된 ‘Plain English’ 캠페인과 ‘Crystal Mark’ 인증 등과 같은 제도가 한국에서도 권위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언어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국어문화학교는 규모나 목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정 대학의 국어문화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국어문화학교의 활동 또한 훨씬 더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라든지 ‘국어문화콘서트’ 같은 것을 프로그램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참여도가 높고 강의 반응이 높은 우수하고 질 좋은 강의 콘텐츠를 꾸준히 확보하여 무엇보다 이 국어문화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와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접촉하는 사업은 국어생활종합상담실을 포함하여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한 SNS 홍보, 소식지 배포 등이 있는데, 사업의 효과가 크고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전문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소수의 사례는 아니지만 민원인들의 요구가 매우 까다롭고 불만이 자주 발생하여 담당자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충이 적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하여 담당자들을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SNS를 통한 국어원의 홍보는 부족한 여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방송에서 보도되었던 부산경찰청과 청렴연수원의 대민 친화형 홍보 및 교육 사례<sup>2)</sup>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점과제 4’와 관련하여, 정책 생산의 방향이 ‘한국어 교육’만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다중언어 사회의 언어 통합과 정책, 국내외 성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재외 동포 자녀와 국내 다중문화 환경에 있는 자녀들의 KSL 한국어 교육,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언어 교육, 무엇보다 국내의 국어교육 관련 정책 연구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사업 중심에 포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지금 호황이거나 관심을 많이 받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언어 문제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비하는 연구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문화부 장관이 부여하는 한국어 교원의 자격이 여러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한국어 교사의 질 관리와 관련하여 여러 면에서 개혁적이고 대안적인 문제제기들이 상향식 방법으로 수집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교사의 질 관리와 함께 교사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하고, 원칙에 따른 평가나 인증도 중요하되 동시에 다양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어 교원이 가지고 있는 지위, 사회 진출 통로 등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KBS 1채널 <취재파일 K>, 2014년 11월 21일 방영 내용 중 ‘따스하게 부드럽게(취재 김원장 기자)’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9711](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PAGE_NO=&SEARCH_NEWS_CODE=29711)



여섯째, 연구기관과 국립국어원의 관계망을 두텁게 하고 협조 체계를 통해 국어 정책 제 분야에 대한 이론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민간학술단체)와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대학의 연구기관)와의 협조 관계 구축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측은 국어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유관 민간단체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민(民)-관(官)-연(研)의 삼각 협조 체계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국어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원과 국어연구기관(대학)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일곱째, 이상에서 제시되지 않은 영역에서 새로운 정책 연구 개발을 위한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1세기 세종계획’ 이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추동력이 있는 국어정보 관련 대규모 국어 정책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것이 다른 많은 파생 연구를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과 더불어, 여러 직종별 화법이라든지 문체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필요하고 소멸해 가는 방언에 대한 보존과 전승에 대해서도 단편적이지 않은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국어사 연구와 관련하여 각종 국어 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열린 형태의 국어정보 데이터가 더욱 확산적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여러 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언어 생태를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른 학술 분야와 융합하면서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국민 간 소통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방송과 매체, 인터넷과 게임의 언어가 자라나는 국어 사용 후속 세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사회 각 기관, 정부 각 부처 간의 협력 연구도 요구된다.

학술 언어로서의 한국어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도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 학문 영역에서의 학술어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번역의 문제나 번역 문체의 문제, 학위 논문에 대한 분석, 학술 용어의 정비, 학문 분야별 한국어 우수 논문(연구) 발굴 등의 구체적인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2. 통합과 소통을 위한 국어 정책 개발의 기초

### 2.1. 한국어 생태에 대한 자각을 기초로 한 현실 분석

2014년 10월 10일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의 전국학술대회를 맞이하여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에서 초(草)를 마련하여 작성한 ‘2014 생태학적 언어 환경의 생명성 회복을 위한 선언’에는 앞서 1.2.에서 나열한 정책 제안의 방향성에 대해, 한국어의 여러 생태적 문제를 중심으로 그 인식을 출발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선언문은 전문(全文)과 요약문(要約文)의 두 가지 형태로 집필이 되었는데, 이 두 선언문을 먼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014 생태학적 언어 환경의 생명성 회복을 위한 선언 (전문)

일찍이 한힌샘 주시경 선생은 말이란 사람과 사람의 뜻을 통하는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며, 글은 말을 담는 그릇이므로 이지러짐이 없이 반듯하게 자리를 잡아 굳게 설 때 그 말을 지킬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기에 말과 글을 소중히 여길 때 나라가 융성하고, 내버려 두고 돌보지 않으면 그 나라의 국운도 쇠퇴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당부하셨다.

우리말과 우리글은 모진 환경과 수없는 시달림 속에서도 이 땅 위에 살아온 수많은 이들의 삶과 문화를 품으며 면면히 이어져 왔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말글은 우리말로 마음을 나누어 소통하고 아름다운 글로 남겨준 우리 선대의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아래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한 선배 어문학자들의 피땀 어린 희생과 노력의 결과이다.

오늘 우리말과 글을 둘러싼 생태와 환경을 살펴보면, 오랜 역사를 거치며 우리에게 이어진 우리말과 글의 생명 현상과, 밖으로부터 주어진 갖은 시련을 슬기와 용기로 극복해 낸 언어문화 개선의 움직임에 새롭게 주목한다. 그리고 그 값진 열매로서 오늘날 한 국가가 세계 곳곳의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과 선망을 받는 언어로서 위상을 드높이게 된 것임을 새삼 자각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말과 글의 생태계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말글의 생명력에 적지 않은 손상이 일어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소통과 이해를 위한 말이 아닌 배척과 단절의 말이 난무하고 지역, 세대로 갈라져 갈등과 분열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외국어와 외국 문자로 사회적 소통에 혼란과 소외가 벌어지고, 곳곳에 욕설과 막말 그리고 거짓말 등이 넘쳐나 불신과 불통이 만연하다. 더구나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청소년들의 언어가 무참할 지경으로 거칠어지고, 우리 말글이 당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분석하며 제일선에서 대안을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각 대학의 국어국문,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들이 시장 경쟁력의 미명 아래 생산적인 연구 능력과 교육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여기저기 떠밀리거나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말글의 생태계는 이렇듯 건강함과 건전함을 어느새 잃어 가고 있으며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날의 언어문화 개선이 우리 말글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내려는 극복의 움직임이었다면, 오늘날의 언어문화 개선은 우리 스스로 우리 말글을 함부로 다루는 데서 비롯된 우리 안의 과오를 깨닫고 이겨 내려는 회복의 움직임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말과 글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는 우리들

은,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우리 말글의 주요한 현장 속에서 우리 말글의 생명성 회복을 위한 언어문화 개선에 한데 뜻을 모으고자 한다.

- 가정 언어의 건강한 생명력이 우리 말글을 지탱하는 근본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동기 사이의 이해와 소통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가정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가장 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양한 학술 활동, 기고, 교육을 통해 그 의미를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다.
- 우리말과 글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은 우리 언어문화의 전승과 건전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우리 말글의 생태계가 회복하려면 서로 배격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더불어 이해하고 소통하도록 돕는 국어교육의 필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도리어 최근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에서는 국어과의 시수를 대폭 줄이려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나라의 장래를 위한 올바른 교육과정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방송, 언론, 인터넷 매체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공공의 재화이자 우리 모두의 언어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어문화 개선의 중요한 도구이다. 방송과 인터넷에서 범람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막말과 비속어가 우리 언어의 생태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으며, 바른 어법을 경시하고 자극적인 속보에만 치중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우리 언어생활의 수준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방송과 언론의 정확하고 품위 있는 말글 사용, 타인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인터넷 언어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분석하며 제언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국가가 사용하는 우리 말글은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자 공공의 언어로서 그 힘과 위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언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알기 쉽고 정확한 우리말과 우리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며, 법으로 명시된 국어책임관이 더 전문성을 갖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 말글의 생태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널리 알리고 관련된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정치인의 말, 공직자의 말은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말이자 국민들의 사고와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막말, 신중하지 않은 언사, 거짓말과 유언비어 등이 그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와 실망이 적지 않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의 말과 글이 언어 생태에서 차지하는 중대함을 확인하며,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우리말과 우리글의 생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연구하고 교육하는 대학기관과 언

어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 단위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정책 기관의 위상이 보다 확고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한다. 대학에서는 교육적 의미를 상실한 명목상의 영어 강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말글의 정확한 표현과 이해를 기본으로 갖춘 전향적인 국제화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원은 국어 생태계에 대한 계량과 분석, 사전 예측과 정책적 대응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 연구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이제 각 대륙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동시에 한국에 체류하는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어로 원활하게 소통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맞이하여 지나친 낙관도 때 이른 비관도 아닌 냉철한 분석과 성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말과 글을 배우려는 국내외 외국인들이 불편 없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나아가 세계 10대 언어로서 21세기가 한국어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사랑이 문화 융성의 첫걸음임을 천명하며, 우리 말글이 처한 생태적 위기에 맞서 건전한 생명성을 회복하는 데에 국어국문학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기를 요청한다.

2014년 10월 10일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소속 44개 학회 일동

### 2014 생태학적 언어 환경의 생명성 회복을 위한 선언 (요약문)

우리말과 글은 민족어 말살의 위기 속에서도 조상의 삶과 문화를 가꾸며 면면히 이어져 왔다. 우리말과 글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국가 번영과 발전의 기초가 되었음은 세종대왕이 자주, 애민, 실용의 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한 덕분이며 이를 주시경 선생과 제자들이 이어 받아 국어 연구와 사전 편찬에 헌신하면서 우리말과 글을 목숨처럼 지켜온 덕분이므로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온 국민이 높이고 기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말과 글을 둘러싼 언어 생태 환경은 말글의 오염과 오용과 남용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의 언어, 소통을 막는 외국어의 남용, 생명 파괴의 막말과 비속어로 우리말과 글은 생명성을 잃고 신음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를 중심으로 우리말과 글의 생명력과 건강한 생태 환경을 회복하도록 언어문

화 개선에 한데 뜻을 모으고자 한다.

- 첫째, 가정에서는 언어교육이 모든 교육의 근본임을 믿어 언어폭력을 삼가고 격려와 배려의 가족 대화를 회복하며 생명 존중의 정신으로 언어예절 교육에 힘쓰자.
- 둘째,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사랑과 존경으로 신뢰하고 창조적 토론학습으로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 언어폭력이 사라진 학교로 바꾸자.
- 셋째, 언론과 인터넷과 기업의 언어는 건강한 사회 형성을 좌우하므로 막말, 증오, 선동이나 과장, 거짓 광고를 삼가고 진실과 품위, 경청과 공감의 언어문화를 이루자.
- 넷째, 정부는 문화융성의 기초가 올바른 국어사용에 있으므로 국어 연구와 운동에 지원을 강화하고 난해어와 외국어의 남용을 삼가 공공언어를 쉽고 바르게 알리자.
- 다섯째,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나라의 앞날과 국어의 생태 환경에 심대한 파장으로 해악을 끼치는 발언을 삼가고 긍정과 존중과 배려의 언행으로 모범을 보이자.
- 여섯째, 대학은 어문학과와 통폐합과 영어 강의 강요를 삼가고 전문가들은 외국어 전문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우리말로 번역해 한국어로 학문하기에 앞장서자.
- 일곱째, 한국의 세계화와 다원화에 맞추어 한국어를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한국어의 보전과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지혜와 힘을 모으자.

우리는 우리말과 글에 대한 사랑이 문화 융성의 첫걸음임을 절감하고 우리말과 글이 처한 언어 환경의 위기에 맞서 한국어의 건강한 생명성을 회복하는 데에 어문학자들과 어문교육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온 겨레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기를 호소한다.

2014년 10월 10일,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소속 44개 학회 일동

이상의 선언문에서 제기한 통합과 소통의 국어 정책 마련의 출발은 다음의 일곱 가지 현실에 대한 자각과 분석에서 이루어진다.

- ① **가정 내 언어 소통**: 2012년 발표된 교육개발원의 연구 보고서(2011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평균 대화 시간은 46분인데 고학년이 될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한 지역 방송국의 조사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실제 대화 시간은 35초에 지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정도로 가족 간의 단절은 대단히 큰 문제이다. 부모-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간, 형제자매 간 대화 역시 매우 부족하다. 교육부나 언론사의 조사가 아닌 언어 사용 관점에서 정책 수립을 위한 공식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 ② **국어교육**: 국어문화의 전승과 올바른 국어 지식 전달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매우 중요한 책무로서, 교육 정책이라는 측면이 아닌 국어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도 마땅히 살펴보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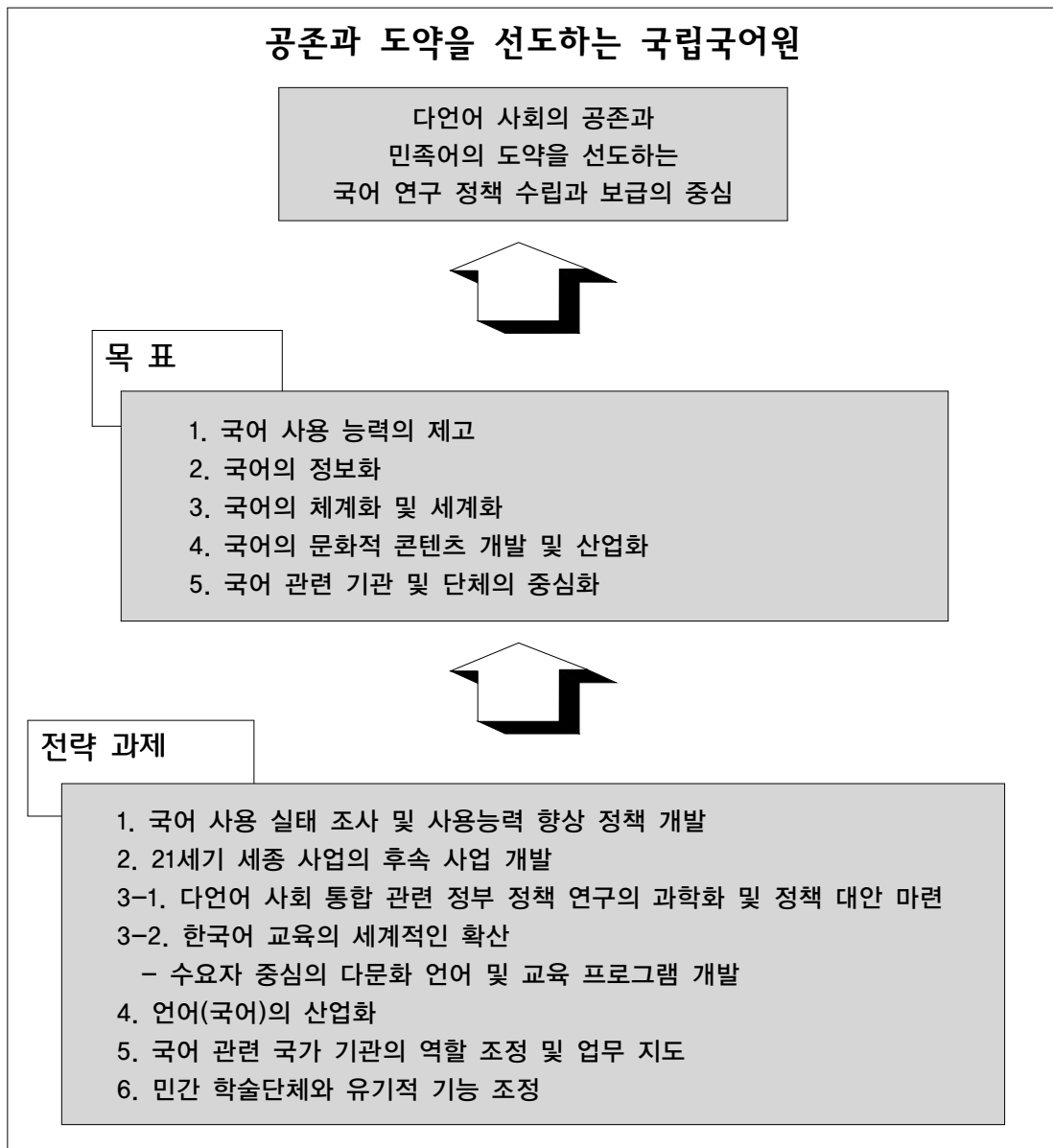
할 중요한 영역이다.

- ③ **방송·언론·인터넷 매체**: 선언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매체(media)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공공의 재화이자 우리 모두의 언어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언어문화 개선의 중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쏟아지는 매체의 언어의 양에 비해 이에 대한 언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하여 매체 언어의 생성 과정, 유포와 확산 과정, 정신적인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장기적인 언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④ **공공언어**: 국가가 사용하는 말의 위상을 제고하고, 더불어 국민이 알기 쉽게 정보에 접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공언어의 사용 실태, 개선 방안 등을 정책적으로 다루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 ⑤ **사회 내 집단의 언어문화**: 청소년 집단, 특정 직업 집단, 성별 등 사회 계층 집단 등은 여러 고유한 언어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지도자층의 언어문화는 국민의 언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청소년의 언어문화는 한국 언어문화의 미래가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
- ⑥ **학술 언어로서의 한국어와 한국어 연구 생태**: 학술 언어로서의 한국어의 위상과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물론, 한국어 연구·교육의 주된 추진자로서 대학의 한국어 관련 학과의 위상과 현황, 또 한국어 정책 연구의 공적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원의 현실 등을 메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⑦ **국제어, 다중 언어로서의 한국어**: 해외에 보급되는 한국어에 대한 정책, 통일 시대를 대비한 한국어 정책, 또 다문화와 세계화에 대응하는 언어 정책 등의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하고 든든한 이론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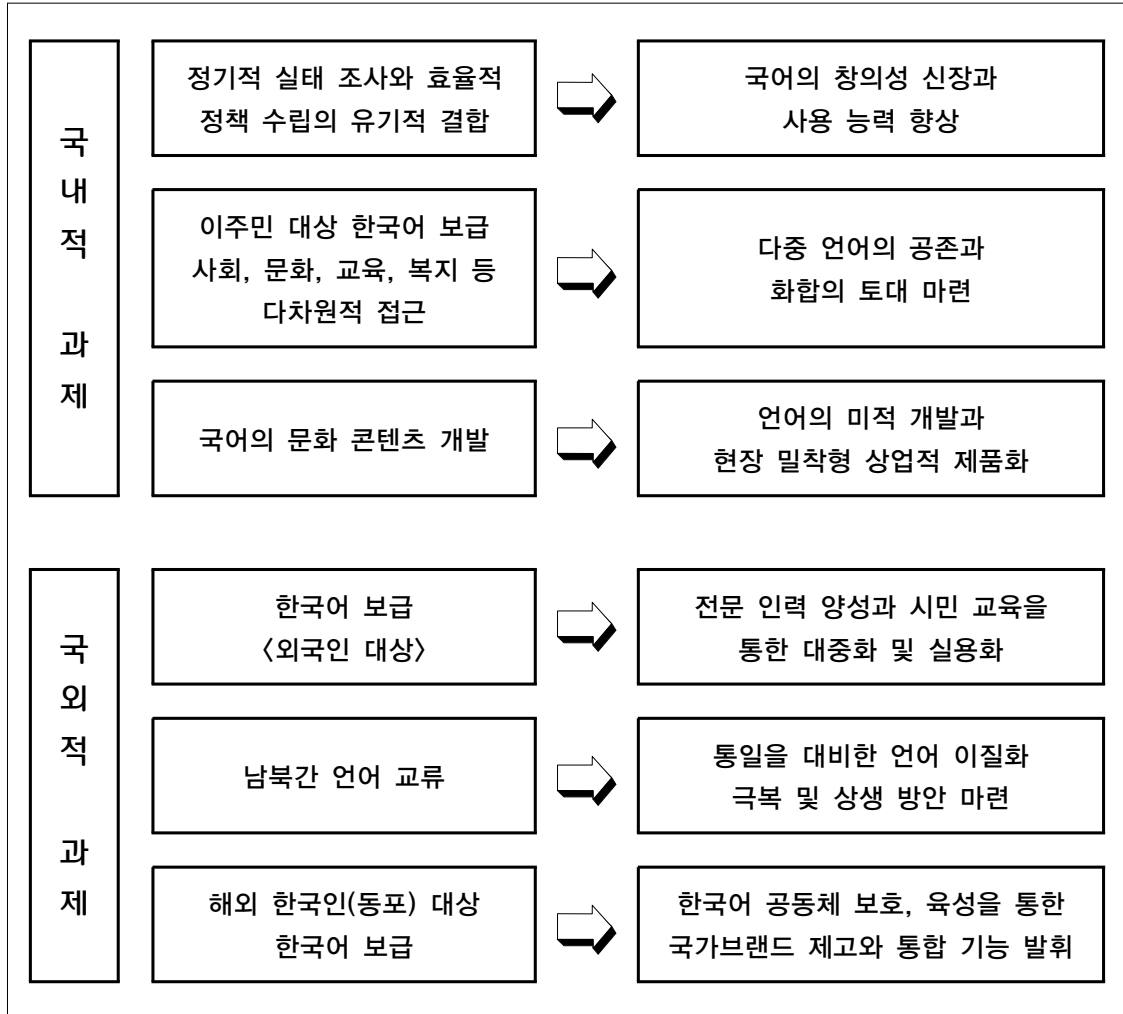
## 2.2. 목표 재설정과 핵심 중점과제 설정

2013년의 ‘소통과 통합의 국어정책 개발 연구’를 통해 이미 제기한 바와 같이, 국립국어원은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목표와 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핵심 중점과제의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圖式化) 하여 제시할 수 있다.

<그림> 국어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원의 목표와 전략 과제



<그림> 국어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국립국어원의 핵심 중점과제 설정







연구 책임자: 이삼형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 연구원: 남기탁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박창원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강남욱 (호서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연구 보조원: 김지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담당 연구원: 김형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 2014년 통합과 소통의 국어정책 개발

---

**발 행 인**     민 현 식

**발 행 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3동 827)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 쇄 일**     2014년 11월 19일

**발 행 일**     2014년 11월 19일